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4. 9(목) 15: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목차

【심의사항】 16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포항 중성리 신라비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공 개
3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공 개
4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공 개
5	금동염거화상탑지	공 개
6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공 개
7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	공 개
8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공 개
9	정선필 풍악도첩	공 개
10	완산부지도	공 개
11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	공 개
1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공 개
13	진실주집	공 개
14	자차통감 권226~229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 반출>	
15	보물 제1475호 '안암지 출토 금동판 불상 일괄' 국외반출 허가	공 개
	<유물전시관(사찰·문중) 박물관 승인>	
16	유물전시관(사찰·문중)에 대한 박물관 인정 승인 허가	공 개
【검토사항】 9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1	동의보감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봉수당진찬도	공 개
3	희경루방회도	공 개
4	금오계첩	공 개
5	기마도	공 개
6	대전 괴정동 유적 출토 청동유물 일괄	공 개
7	이응도 목판	공 개
8	삼공신회맹록 목판	공 개
9	조선왕조의궤(분상용/비유일/완질/분상처미상/필사본)	공 개
【보고사항】 4건		
1	'고려금속활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단 구성 계획	공 개
2	'퇴계문집 초간본 목판' 및 '안중근의사 유묵(경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검토 계획	공 개
3	'봉화 청량사 불상' 및 '서울 흥천사 불상' 과학적 조사 계획	공 개
4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사료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공 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5-02-001

1.포항 중성리 신라비 (浦項 中城里 新羅碑)

가. 심의사항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감사원의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2014.4.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에 따라 국가귀속 매장문화재 보관·관리기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을 받음
-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국립문화재연구소(고고연구실)로부터 신청(2014.9.16)을 받아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11.2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보물 제1758호(2012.02.22.)
- 명 칭: 포항 중성리 신라비 (浦項 中城里 新羅碑)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 수 량: 1기(殘片)
- 규격(cm): 세로 104.0 × 가로 49.0 × 12.0~13.0 cm
- 재 질: 화강암
- 형 식: 비(碑)
- 제작연대: 501년(지증왕 2)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 1基는 2009년 5월에 住民에 의하여 행정구역상 慶尙北道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中城里 167-1번지에서 발견된 현존 最古의 新羅碑이다. 모양이 일정치 않은 세로 104.0cm, 가로 49.0cm, 두께 12.0~13.0cm, 무게 115kg의 花崗巖 1면에만 전체 12行20字로 陰刻된 도합 203字의 碑文이 확인되었으며, 碑石 下端部の 약 20cm 공간에는 刻字하지 않았다. 碑石은 碑面 上端部 一部와 右側面 一部가 떨어져 나갔을 뿐 碑文의 대부분은 判讀이 가능할 정도로 良好한 상태이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2009년 5월에 발견된 후 同年 9월에 發見紀念 學術심포지엄을 거친 후 2012년 2월 22일에 國家文化財 寶物 第1758號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慶尙北道 慶州市 佛國路 132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新羅의 政治的·經濟的 文化內容을 研究·確定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매우 크며, 製作時期도 지금까지 最古의 新羅碑로 알려진 智證王 4(503)년의 浦項 冷水里 新羅碑보다도 2년이나 앞서는 新羅 最古의 碑이다. 더욱이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보다 製作時期가 늦은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 524)도 이미 1988년에 國寶 第242號로 지정되고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 503)도 1991년에 國寶 第264號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國家文化財 國寶로 昇格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 1基는 2009년 5월에 住民에 의하여 행정구역상 慶尙北道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中城里 167-1번지에서 발견된 현존 最古의 新羅碑이다. 모양이 일정치 않은 세로 104.0cm, 가로 49.0cm, 두께 12.0~13.0cm, 무게 115kg의 花崗巖 1면에만 전체 12行20字로 陰刻된 도합 203字의 碑文이 확인되었으며, 碑石 下端部の 약 20cm 공간에는 刻字하지 않았다. 碑石은 碑面 上端部 一部와 右側面 一部가 떨어져 나갔을 뿐 碑文의 대부분은 判讀이 가능할 정도로 良好한 상태이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2009년 5월에 발견된 후 同年 9월에 發見紀念 學術심포지엄과 한국고대사학회의 학술회의 등을 거친 후 2012년 2월 22일에 國家文化財 寶物 第1758號로 지정되었다. 調査文化財는 현재 慶尙北道 慶州市 佛國路 132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신라의 관등제의 성립 과정, 신라 6부의

내부 구조, 道使의 존재를 통해 본 지방통치 등 신라의 정치조직과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절차, 宮의 의미, 사건 판결 후 재발 방지 조치 등 新羅의 政治的·經濟的 文化內容을 研究·確定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매우 크다. 또 製作時期도 지금까지 最古의 新羅碑로 알려진 智證王 4(503)년의 <浦項 冷水里 新羅碑>보다도 2년이나 앞서는 新羅 最古의 碑이다. 더욱이 調查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보다 製作時期가 늦은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 524)도 이미 1988년에 國寶 第242號로 지정되고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 503)도 1991년에 國寶 第264號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調查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國家文化財 國寶로 昇格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현존 最古의 新羅碑이다. 비에서 확인되는 약 203字的 비문에는 여러 인명과 함께 신라의 官職名과 官等이 표기되었고, 특히 내용 면에서 백성의 財産과 관련된 分爭과 그에 대한 지배층의 判決이 담겨 있어 新羅의 政治·經濟·文化와 관련된 사실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문의 첫 文段에 보이는 “□□□□□□辛巳□□中斯盧湜□□□□□□□□□□”의 ‘辛巳’라는 干支를 통하여 智證王 2年(501) 또는 碑文의 서술 방식과 신라의 옛 國號인 ‘斯盧’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訥祗王 25年(441)으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最古의 新羅碑로 알려진 智證王 4年(503)의 浦項 冷水里 新羅碑보다도 2년이나 앞서는 最古의 碑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國寶로 昇格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 調查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의 形態記述은 다음과 같다.

浦項 中城里 新羅碑 / [製述者不明] ; [書寫者不明] ; [刻者不明]. -- 石板. -- [製作地不

明] : [製作處不明], [智證王 2(501) 推定].

1基 : 12行20字 ; 세로 104.0 × 가로 49.0 × 두께 12.0~13.0cm. 무게 115.0kg.

狀 態: 모양이 일정치 않은 세로 104.0cm, 가로 49.0cm, 두께 12.0~13.0cm, 무게 115kg의 花崗巖 1면에만 전체 12行20字로 陰刻된 도합 203字의 碑文이 확인되었으며, 碑石 下端部の 약 20cm 공간에는 刻字하지 않았다. 碑石은 碑面 上端部 一部와 右側面 一部가 떨어져 나갔을 뿐 碑文의 대부분은 判讀이 가능할 정도로 良好한 상태이다.

傳來歷: 2009년 5월에 住民에 의하여 행정구역상 慶尙北道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中城里 167-1번지에서 발견된 현존 最古의 신라비로 그 후 同年 9월에 發見紀念 學術심포지엄을 거친 후 2012년 2월 22일에 國家文化財 寶物 第1758號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慶尙北道 慶州市 佛國路 132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判讀文: □□□□□辛巳□□中斯盧湜□□□□□□□□□
□□□□□喙部習智阿干支沙喙斯德智阿干支□□□□
□□教沙喙了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本牟子□□□□
喙沙利夷斯利白爭人喙評伐斯彌沙喙夷須牟旦□□□□
伐喙斯利壹伐皮末智本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
□沙干支祭智壹伐使人奈蘇毒只道使喙念牟智沙□□
□喙鄒須智世令于居伐壹斯利蘇豆古利村仇鄒列支□
□□干支沸竹休壹金知那音支村卜岳干支走斤壹金知
□□塑伐壹昔云豆智沙干支宮日夫智宮奪了今更還□
□□牟旦伐喙作民沙干支使人卑西牟利白口若後世更
□□□□人者與重罪典書與牟豆故記□□□□□□□□
□□□□□□沙喙心刀里□□□□□□□□□□□□□□

既指定: 國寶 第198號 <丹陽 新羅赤城碑(眞興王 11(550))>, 國寶 第242號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524), 1988.11.04)>, 國寶 第264號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503), 1991.03.15.)> 등

○ 현 상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 1基는 2009년 5월에 住民에 의하여 행정구역상 慶尙北道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中城里 167-1번지에서 발견된 현존 最古의 新羅碑이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세로 104.0cm, 가로 49.0cm, 두께 12.0~13.0cm, 무게 115kg의 花崗巖 1면에만 전체 12行20字로 陰刻된 도합 203字의 碑文이 확인되었으며, 碑石 下端部の 약 20cm 공간에는 刻字하지 않았다. 碑石은 碑面 上端部 一部와 右側面 一部가 떨어져 나갔을 뿐 碑文의 대부분은 判讀이 가능할 정도로 良好한 상태이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2009년 5월에 발견된 후 同年 9월에 發見紀念 學術심포지엄을 거친 후 2012년 2월 22일에 國家文化財 寶物 第1758號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慶尙北道 慶州市 佛國路 132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麻, 喙部の 本智 奈麻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牟子 2명이 爭人을 조사하고 道使는 분쟁과 관련된 지역의 지배층에게 지시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즉 과거 豆智 沙干支의 宮과 日夫智의 宮이 빼앗았던 사실을 밝혀내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고 향후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新羅史 研究에 있어 획기적인 資料이다. 碑의 發見 場所가 浦項 冷水里 新羅碑의 발견 장소로부터 8.7k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데다, 碑文의 內容도 유사점이 많았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地方民이 관여된 財産과 관련하여 分爭이 있었다는 점, 이들 분쟁에 대해 신라의 지배층들이 합동으로 判決을 내리고 있었다는 점, 判決 이후 이들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再發防止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유사성이 있고 官職名과 官等表記의 유사성 및 浦項 冷水里 新羅碑에 나타나는 人物과 同一人物로 추정되는 人名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新羅의 政治的·經濟的 文化內容을 研究·確定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특히 지금까지 발견된 新羅碑 중에서 그 年代가 가장 앞선 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라의 書藝史를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資料가 될 것이다. 우선 文章記述이 능숙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당시 新羅에서는 中國의 漢文이 크게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推定해 볼 수 있으며, 또한 碑文의 書體로 보아 中國의 漢朝 또는 魏晉時代 書藝의 影響을 크게 받지 않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碑의 書體를 굳이 中國의 書藝發展의 過程上에서 비추어 본다면, 小篆으로부터 隸書로 移行되어 가는 과정상의 古隸에 비견해 보거나, 상하 長方形의 小篆體로부터 좌우 偏旁形의 隸書體로의 移行하는 과정상에서 잠시 나타났던 波磔이 없는 古隸體에 비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中國의 書體와 書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新羅의 自生的·土俗的인 書體·書風이라 하겠다. 글자의 結構가 不均衡의 調和를 이루면서 土俗的이고 庶民的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無定形的 書藝美學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하나의 書體·書風만을 고집하지 않고 篆法·隸法·楷法은 물론 行法까지도 두루 攝取·融合하여 不均衡의 調和를 구현하고 있는 新羅의 自生書藝인 것이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統一新羅 以前의 新羅時代의 審美意識과 初期 新羅의 書藝史를 밝히는데 획기적인 資料일 뿐 아니라 統一新羅 以前의 歷史와 文化·藝術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評價되어, 이미 2012년 2월 22일에 國家文化財 寶物 第1758號로 지정되어 현재 慶尙北道 慶州市 佛國路 132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의 製作時期에 대해서는 學界의 논란이 없지 않은데,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의 學術研究에 의하면 碑文의 첫 文段의 “□□□□ □□辛巳□□中斯盧湜□□□□□□□□□□”에서 ‘辛巳’의 干支가 보이는데 이는 碑

文의 內容이나 表記法 등으로 볼 때 新羅 智證王 2(501)년인 501年으로 추정되나, 한편으로 碑文에서 漢文을 구사한 能力이 현저히 떨어지고 新羅의 옛 國號인 ‘斯盧’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60년이 빠른 訥祗王 25(441)년으로 추정하는 研究者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의 製作時期가 智證王 2(501)년인 501年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最古의 新羅碑로 알려진 智證王 4(503)년의 浦項 冷水里 新羅碑보다도 2년이나 앞서는 新羅 最古의 碑인 것이다. 더욱이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보다 제작시기가 늦은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 524)도 이미 1988년에 國寶 第242號로 지정되고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 503)도 1991년에 國寶 第264號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國家文化財 國寶로 昇格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사례

<新羅碑>의 國家文化財 指定事例는 다음과 같다.

- 국보 제198호 丹陽 新羅赤城碑<眞興王 11(550)>
- 국보 제242호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524)> 1988.11.04.
- 국보 제264호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503)> 1991.03.15.

○ 문헌자료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編, 「浦項 中城里新羅碑」. 慶州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9.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編, 「發見紀念 學術심포지엄 浦項 中城里新羅碑」. 慶州: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9.
- 金昌鎬, 「古新羅 金石文의 研究」. 서울 : 서경문화사, 2007.
- 朱甫墩, 「金石文과 新羅史」. 서울 : 지식산업사, 2002.
- 李文基, “蔚珍鳳坪新羅碑中古期の六部問題”. 「韓國古代史研究 2」(1989).
- 盧重國, “迎日冷水里碑”.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新羅1·伽倻篇). 서울 :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李明植, “蔚珍 鳳坪碑”.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新羅1·伽倻篇). 서울 :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현 상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 1基는 2009년 5월에 住民에 의하여 행정구역상 慶尙北道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中城里 167-1번지에서 발견된 현존 最古의 新羅

의 仇鄒列支 干支와 沸竹休 壹金知, 那音支村의 卜岳干支와 走斤 壹金知와 塑伐壹에게 명령한다. 옛날에 말하기를 ‘豆智沙 干支의 宮과 日夫智의 宮이 빼앗았다’고 하였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牟且伐에게 돌려주라. (이에) 喙(部)의 作民 沙干支의 使人인 果西牟利가 알리기를 ‘만약 後世에 다시 말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重罪를 준다’라고 하였다. 典書인 與牟豆가 (이러한) 연고로 기록한다. 沙喙 心刀리가 □한다(새긴다)”로 해석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의 내용은 “豆智沙干支의 宮과 日夫智의 宮이 牟且伐의 것을 빼앗았는데, 이로 인해 말쟁이 일어나 爭人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喙部의 習智 阿干支와 沙喙의 斯德智 阿干支가 沙喙(部)의 了抽智 奈麻, 喙部의 本智 奈麻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명령하였다. 牟子 2명이 爭人을 조사하고 道使는 분쟁과 관련된 지역의 지배층에게 지시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즉 과거 豆智 沙干支의 宮과 日夫智의 宮이 빼앗았던 사실을 밝혀내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고 향후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로 정리할 수 있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新羅史 研究에 있어 획기적인 資料이다. 碑의 發見 場所가 浦項 冷水里 新羅碑의 발견 장소로부터 8.7k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데다, 碑文의 內容도 유사점이 많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地方民이 관여된 財産과 관련하여 分爭이 있었다는 점, 이들 분쟁에 대해 신라의 지배층들이 합동으로 判決을 내리고 있었다는 점, 判決 이후 이들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再發防止를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유사성이 있고 官職名과 官等表記의 유사성 및 浦項 冷水里 新羅碑에 나타나는 人物과 同一人物로 추정되는 人名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新羅의 政治的·經濟的 文化內容을 研究·確定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특히 지금까지 발견된 新羅碑 중에서 그 年代가 가장 앞선 碑로서 신라의 書藝史를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資料가 된다. 우선 文章記述이 능숙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당시 新羅에서는 中國의 漢文이 크게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推定해 볼 수 있으며, 또한 碑文의 書體로 보아 中國의 漢朝 또는 魏晉時代 書藝의 影響을 크게 받지 않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碑의 書體를 굳이 中國의 書藝發展의 過程上에서 비추어 본다면, 小篆으로부터 隸書로 移行되어 가는 과정상의 古隸에 비견해 보거나, 상하 長方形의 小篆體로부터 좌우 偏旁形의 隸書體로의 移行하는 과정상에서 잠시 나타났던 波磔이 없는 古隸體에 비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中國의 書體와 書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新羅의 自生的·土俗的인 書體·書風이라 하겠다. 글자의 結構가 不均衡의 調和를 이루면서 土俗的이고 庶民的인 익살로 넉넉한 여유로움의 자유를 구현하는 無定形的 書藝美學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하나의 書體·

書風만을 고집하지 않고 篆法·隸法·楷法은 물론 行法까지도 두루 攝取·融合하여 不均衡의 調和를 구현하고 있는 新羅의 自生書藝인 것이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統一新羅 以前의 新羅時代의 審美意識과 初期 新羅의 書藝史를 밝히는데 획기적인 資料일 뿐 아니라 統一新羅 以前의 歷史와 文化·藝術의 研究에 귀중한 資料로 評價되어, 이미 2012년 2월 22일에 國家文化財 寶物 第1758號로 지정되어 현재 慶尙北道 慶州市 佛國路 132의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의 製作時期에 대해서는 學界의 논란이 없다.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의 學術研究에 의하면 碑文의 첫 文段의 “□□□□□□辛巳 □□中斯盧湜□□□□□□□□□”에서 ‘辛巳’의 干支가 보이는데 이는 碑文의 內容이나 表記法 등으로 볼 때 新羅 智證王 2(501)년인 501年으로 추정되나, 한편으로 碑文에서 漢文을 구사한 能力이 현저히 떨어지고 新羅의 옛 國號인 ‘斯盧’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60년이 빠른 訥祗王 25(441)년으로 추정하는 研究者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의 製作時期가 智證王 2(501)년인 501年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最古의 新羅碑로 알려진 智證王 4(503)년의 浦項 冷水里 新羅碑보다도 2년이나 앞서는 新羅 最古의 碑인 것이다. 더욱이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보다 제작시기가 늦은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 524)도 이미 1988년에 國寶 第242號로 지정되고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 503)도 1991년에 國寶 第264號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國家文化財 國寶로 昇格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사례

<新羅碑>의 國家文化財 指定事例는 다음과 같다.

- 국보 제198호 丹陽 新羅赤城碑<眞興王 11(550)>
- 국보 제242호 蔚珍 鳳坪里 新羅碑<法興王 11(524)> 1988.11.04.
- 국보 제264호 浦項 冷水里 新羅碑<智證王 4(503)> 1991.03.15.

○ 문헌자료

<저서>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編, 「浦項 中城里新羅碑」. 慶州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9.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編, 「發見紀念 學術심포지엄 浦項 中城里新羅碑」. 慶州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9.
- 이기동 외 「신라 최고의 금석문 포항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주류성, 2012.
- 金昌鎬, 「古新羅 金石文의 研究」. 서울 : 서경문화사, 2007.

- 朱甫暉, 「金石文과 新羅史」. 서울 : 지식산업사, 2002.
- 李文基, “蔚珍鳳坪新羅碑中古期の六部問題”. 「韓國古代史研究 2」(1989).
- 盧重國, “迎日冷水里碑”.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新羅1·伽倻篇). 서울 :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李明植, “蔚珍 鳳坪碑”.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新羅1·伽倻篇). 서울 :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논문>

- 이문기,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과 그외의-‘냉수리비’의 재음미를 겸하여” 「한국고대사연구」 56. 서울: 한국고대사학회, 2009.
- 강중훈,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6. 서울: 한국고대사학회, 2009.
- 배용일,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발견경위와 고대의 포항과 흥해” 「한국고대사연구」 56. 청원: 한국고대사학회, 2009.
- 이영호, “흥해지역과 포항중성리신라비” 「한국고대사연구」 56. 서울: 한국고대사학회, 2009.
- 전덕재, “포항중성리신라비의 내용과 신라 6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56. 청원: 한국고대사학회, 2009.
- 하일식,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56. 청원: 한국고대사학회, 2009.
- 노중국, “포항중성리비를 통해 본 마립간시기 신라의 분쟁처리 절차와 육부체제의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9. 서울: 한국고대사학회, 2010.
- 노태돈,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외위” 「한국고대사연구」 59. 서울: 한국고대사학회, 2010.
- 이명성, “포항 중성리신라비와 영일 냉수리신라비의 재질특성과 산지해석 및 훼손도 진단” 「문화재」 43-3.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후보돈,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대한 연구 전망” 「한국고대사연구」 59. 서울: 한국고대사학회, 2010.
- 이용현, “중성리비의 기초적 검토 - 냉수리비, 봉평비와의 비교적 시점-”. 「고고학지」 17. 국립중앙박물관, 2011.
- 橋本繁, “浦項 中城里新羅碑の研究”. 「한국고대사연구」 220. 天理市: 朝鮮學會, 2011.
- 후보돈. <포항중성리신라비의 구조와 내용>. 「한국고대사연구」 65. 한국고대사학회, 2012.

□

○ 현 상

2009년 5월 慶尙北道 浦項市 北區 興海邑 中城里 167-1번지에서 발견된 현존 最古의 신라비이다. 동년 9월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2012년 2월 22일 국가 문화재 보물 제1758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모양이 일정치 않은 花崗巖(세로104.0cm, 가로49.0cm, 두께12.0~13.0cm, 무게115

kg)의 1면에 전체 12행 20자, 전체 203字의 글자가 확인되었다. 비석 하단부의 약 20cm 공간에는 刻字하지 않았다. 비석은 비면 상단부 일부와 우측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나 비문의 대부분을 판독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이다.

현재 판독된 비문과 역문은 다음과 같다.

비문	번역문
<p>□□□□□□辛巳□□中斯盧湜□□□□□□□□□□ □□□□□□喙部習智阿干支沙喙斯德智阿干支□□□□ □□教沙喙了抽智奈麻喙部本智奈麻本牟子□□□□ 喙沙利夷斯利白爭人喙評伐斯彌沙喙夷須牟旦□□□□ 伐喙斯利壹伐皮末智本波喙柴干支弗乃壹伐金評□□□□ □沙干支祭智壹伐使人奈蘇毒只道使喙念牟智沙□□□□ □喙鄒須智世令于居伐壹斯利蘇豆古利村仇鄒列支□□□□ □□干支沸竹休壹金知那音支村卜岳干支走斤壹金知 □□塑伐壹昔云豆智沙干支宮日夫智宮奪了今更還□□□□ □□牟旦伐喙作民沙干支使人卑西牟利白口若後世更 □□□□人者與重罪典書與牟豆故記□□□□□□□□□□ □□□□□□沙喙心刀里□□□□□□□□□□□□□□□□</p>	<p>辛巳년 (某月)중에 折盧湜, 喙部の 習智 阿干支와 沙喙의 斯德智 阿干支가 沙喙의 尙抽智 奈麻, 喙部 의 本智 奈麻에게 教(지시 또는 명령) 하였다. 本牟子와 喙沙利와 夷斯利가 사뢰기를(白) ‘爭人(소송 당사자)은 喙의 評公 斯彌, 沙喙의 夷須, 牟旦伐, 喙의 斯利壹伐과 皮末智, 本彼喙의 柴干支와 弗乃 壹伐, 金評 沙干支와 祭智 壹伐이고, 使人(재지 촌주)은 奈蘇毒智이며, 道使는 喙의 念牟智, 沙喙 鄒須智이다’라고 하였다. 居伐의 壹斯利, 蘇豆古利村의 仇鄒列支 干支와 沸竹休 壹金知, 那音支村의 卜岳 干支와 走斤 壹金知 등이 世間에 명령한다. 珍伐의 壹(地番 혹은 里?)은, 옛날에 말하기를(昔云), 豆智 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이 빼앗았던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牟旦伐에게 돌려 주어라. (이에) 喙의 作民 沙干支의 使人 果西牟利가 ‘만약 後世에 다시 말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重罪를 준다’라고 하였다. 典書인 與牟豆(또는 典書와 牟豆)가 (이러한) 연고로 기록한다. 沙喙 心刀里(세운다?)</p>

「浦項 中城里 新羅碑」는 일반 백성의 財産과 관련된 分爭과 그에 대한 지배층의 判決을 담고 있으며, 官職名과 官等表記 그리고 人名 등이 浦項 冷水里 新羅碑와 비교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제작 시기에 대해서

는 아진 논란이 있다. 비문의 첫 文段에 보이는 “□□□□□□辛巳□□中斯盧湜□□□□□□□□□□”의 ‘辛巳’라는 干支를 통하여 智證王 2年(501) 또는 碑文의 서술 방식과 신라의 옛 國號인 ‘斯盧’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訥祗王 25年(441)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 지정사례

「新羅碑」의 國家文化財 指定事例는 다음과 같다.

- 국보 제198호 丹陽 新羅赤城碑 [眞興王 11(550)] (1979.05.22지정)
- 국보 제242호 蔚珍 鳳坪里 新羅碑 [法興王 11(524)] (1988.11.04.지정)
- 국보 제264호 浦項 冷水里 신라비 [智證王 4(503)] (1991.03.15.지정)

○ 문헌자료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編, 『浦項中城里新羅碑』,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9.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編, 『發見紀念 學術심포지엄 浦項中城里新羅碑』,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9.
- 金昌鎬, 『古新羅 金石文의 研究』, 서경문화사, 2007.
- 朱甫暎, 『金石文과 新羅史』, 지식산업사, 2002.
- 李文基, 「蔚珍鳳坪新羅碑中古期の六部問題」, 『韓國古代史研究』 2, 1989.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迎日冷水里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II』 (新羅1·伽倻篇),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등산 2015-02-002

2.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靑磁 象嵌雲鶴文 梅瓶)

가. 심의사항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4.2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靑磁 象嵌雲鶴文 梅瓶)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점
- 규격(cm): 고 30, 구경 5.2, 동경 18.3, 저경 10.5
- 재 질: 도토(陶土)
- 형 식: 청자 매병
- 제작연대: 고려시대 12세기 후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이 청자는 고려 중기에 제작된, 상감문이 장식된 전형적인 매병으로, 기형·유색·문양·번조상태·보존상태 등 여러 방면에서 고루 우수한 면모를 갖춘 최상급의 청자로 평가된다. 크기는 일반적인 매병보다 약간 작지만, 각 부위의 비례가 적절하고 긴장된 탄력감을 주는 우아한 맵시의 조형미가 우선 돋보인다. 이 매병의 가장 빼어난 점은 상감문양에 있다. 간결한 흑색 상감문으로 매병의 상단과 하단에 뇌문대를 돌린 다음, 나머지 여백에는 상감운학문을 배풀었는데, 푸른 청자 바탕을 마치 창공인양 여기고, 몇 마리의 학과 몇 송이의 구름을 충분한 여백을 두고 드문드문 배치하여 극도로 시원하고 詩情的인 문양 구성을 보여 준다. 백상감 위주에 부분적으로 흑상감을 가한 문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꼼꼼한 솜씨로 배풀어졌으며, 최고 수준의 상감장식기술을 구사하였다. 여기에 비색계 청자 유약을 고르게 씌운 다음, 완벽한 환원염으로 소성하여, 유리질화가 고르게 잘된 아름다운 유색을 현출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런 완벽에 가까운 번조상태 역시 보기 드문 경우이다. 한마디로 이 매병은, 유례가 많은 상감운학문 청자 중에서도, 시원스런 공간감을 보여 주는 탁월한 구성의 상감문양과 비취빛 유색이 어울려 극상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명품이다. 또한 보존상태도 극히 양호하여, 거의 흠결이 없는 점도 이 매병의 큰 자랑이다.

고려 상감청자는 세계도자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는 한민족의 도자기 중의 도자기이다. 그런 상감청자 중에서도 이 작품은 이를 대표할 만한 최고 수준의 명품 중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상기 대상 문화재는 12세기 고려청자의 대표적 기형인 매병으로 상감의 초기 형태인 커다란 주제문을 솜씨 좋게 상감하였고, 소위 비색이라 부르는 이 시기 청녹색 유약이 골고루 시유된 절정기 고려청자의 대표작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술적 가치는 물론 비색과 정교한 상감 문양, 완벽에 가까운 기형 등으로 충분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확한 제작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2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1) 앞에 소개한 문헌기록들과 연관지어 보면, 이미 조선후기부터 운학문 청자는 조선의 상류층이나 일본 수집가들에게 관심을 끄는 품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한제국 제실(帝室)박물관이 문을 연 1909년 이듬해인 1910년에 수집된 이 매병은 근대기 한국 박물관 유물 수집사에서 의미가 있다.

(2) 매병은 현전하는 청자 매병들 가운데 비교적 형태가 양호하며 유색이 정선되어 있고 문양도 섬세하여 부분적인 균열과 실금은 있지만 상감장식을 성공적으로 구사해 낸 유물로서 고려 전성기의 발달된 자기 기술과 조형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고려의 동시대 중국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운학문은 일반회화<그림6>, 고분벽화<그림7>, 금속기<그림8>, 등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이와 같이 도자기에 상감기법으로



<그림6> 서학도, 1122년, 전 휘종, 요녕성박물관 소장.



<그림7> 진국공주묘 벽화 운학문, 전실동벽, 하북성 선화.



<그림8> 사천성 彭州교장 출토 은제매병, 높이 20.5cm, 팽주박물관 소장.

구현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고려에서만 볼 수 있어서 운학문 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의의가 있다.

(4) 현전하는 유물 가운데 이 매병과 유사한 유물로는 현전하는 유물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의 운학문 매병이나<그림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청자상감 운학문 매병이 (덕수421번)

있다.<그림10>

(5) 그러나 이들 매병은 뚜껑을 모두 갖추고 있어 오히려 매병의 조합과 구성의 원형을 잘 보여준다.

또 국박소장 <그림10>의 매병은 제실박물관 개관을 위한 첫 유물구입이 이루어지던 1908년 6월 10일에 입수되었다. 이 대목에서 금번 조사대상인 매병의 경우 뚜껑이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며, 수집 시점도 <그림10>의 매병이 제실박물관 설립준비 첫해에 해당하여 더 이르다.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운학문 청자 매병들간의 비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그림9> 청자상감운학문 매병, 고려 13세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p>	<p><그림10> 청자상감운학문 매병, 고려 1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p>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반구형의 입을 가진 전형적인 고려매병이지만, 일반적인 크기보다 약간 작은 편이며, 형태가 매우 단정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입과 저부에 흑상감의 뇌문대가 돌아가고, 나머지 전체에 공간을 충분히 두고 구름과 학이 개별적으로 드문드문 배치되어 있다. 비색계에 가까운 청자유약을 내외면에 두텁게 시유하고 번조하였는데, 유면이 고르게 잘 녹았으며, 광택이 좋고 비색처럼 아름답다. 구연부 2곳에 미세한 파손이 있어 수리된 것 외에는,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매병은 1910년에 白石益彦이라는 개인에게서 구입하였다고 한다. 매병의 盤

口는 구연 상부가 편평하며 구연 외연 2곳이 미미하게 깨어져나가 수리하였다. 어깨가 둥글게 딱 벌어져 양감이 좋으며, 동체 하부가 밋밋하게 줄어들어 허리를 이루고 저부 근처에서 살짝 벌어진다. 전형적인 형태이면서 단아한 조형감을 보이며 상품청자답게 정연하고 손질이 잘 되었다. 문양은 상감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병의 상단부인 반구의 외벽과, 저부의 하단에 흑상감만으로 된 좁은 뇌문대를 돌려 장식하였다. 이렇게 상, 하단에 흑색 상감문대를 깔끔하게 돌려 경계를 마무리 짓듯 장식하고, 그 사이의 광활한 기면 전체에 백상감 위주의 운학문을 정갈하면서도 시원시원하게 베풀었다. 문양은 전체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최상단에는 평행하게 동체를 돌아가며 3마리의 학과 靈芝草 모양의 구름송이문을 교대로 배치하였다. 2마리는 앞을 향해 날고, 1마리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며 비상하고 있다. 중단에는 3마리의 학을 등간격으로 돌아가며 배치하였는데, 고개를 돌리고 수평으로 비상하거나, 고개를 세우고 수평으로 비상하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등 다양한 자세를 보인다. 하단에는 3송이의 구름을 중단의 학들 사이쯤 되는 위치에 평행으로 돌아가며 배치되었다. 여기서 학은 머리부터 몸통까지는 백상감으로 나타내고, 부리·눈·다리·다리털은 흑상감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몸과 날개의 백상감된 부분에는 다시 가는 시문구로 섬세하게 긁어내어 깃털을 나타내었다. 구름문은 세부적 표현은 없으나, 마치 붓으로 그린 듯이 매우 얇게 백상감하여, 최고의 상감기술 수준을 보인다. 태토는 잘 정선되어 있다. 유약은 비색계의 아름다움을 보이며, 유 속에 기포가 많은 편이다. 매병의 내외면에 모두 시유하였으며, 유층이 두터운 편이다. 전체적으로 유가 아래로 약간 몰려 있어, 저부 하단의 뇌문대 부분의 유약이 특히 두텁고 기포가 많이 보인다. 그러나 전면에 걸쳐 유약이 고르게 잘 녹아 광택이 좋고 비색처럼 아름답다. 어깨의 상부를 제하고 거의 전면 에 가는 빙열이 퍼여 있으며, 5~6곳에 핀홀 같은 미세한 구멍이 나 있고, 鐵點痕도 2곳이 있으며, 상감문 1곳에 탈유된 부분도 있다. 이 매병의 밑바닥은 폭 1cm 정도의 接地面을 남겨두고 0.5cm 정도의 깊이로 편평하게 깎아내어 굽을 만들었다. 이 굽의 밑바닥 중앙에 직경 2cm 정도의 凹한 부분이 있는데 성형시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바닥면을 전체 시유한 후에 접지면의 유를 훑어내고, 검은 모래섞인 내화토를 큼직하게 빗어서 5군데에 바쳤는데, 접지면에는 흔적만 있고 안바닥 접지면 근처의 4개소에 받침덩어리가 남아 있다. 바닥면 한쪽에 “덕2182”란 유물 번호를 검정색 잉크로 쓰고 투명메니큐를 발랐다.

이 매병은 형태가 우선 단정하고 아담하면서 긴장된 탄력감을 주는 뛰어난 조형미를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매병의 빼어남은 상감법으로 처리된 문양에 있다. 청자색을 바탕면으로 하여, 다양한 포즈의 학과 구불한 곡선 위주로 이루어진 구름송이를 크게 3단으로 나누어, 여백을 넉넉이 두면서 시원스럽게 배치하였다. 이들 문양은 청자색 바탕이 그대로 하늘이 되어, 마치 광활한 창공의 구름 사이를 유유히 비상하는 학의 무리를 보는 듯하다. 특히 구름송이도 한결같이 위

를 향하고 있어 매병 전체가 높은 하늘을 향해 떠오르는 느낌을 주고 있다. 지상을 떠나 天上을 향하는 심정을 운학문을 통해 詩的으로 표현한 듯하다. 상감문양의 전체적인 표현수법도 참으로 능숙하며, 특히 깃털을 표현하는 세밀한 박지수법의 구사도 특별하다. 간결하면서도 시원한 공간감을 보여주는 빼어난 문양구성은 고려인의 탁월한 미감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약도 상감청자가 난숙하기 전의 비색계 청자유로, 아름다운 비색의 여운이 남아 있다. 또한, 청자 번조시에 흔히 보는, 환원염의 통제의 어려움으로 생기는 유색의 黃變化나, 유약의 덜 녹거나 과하게 녹은 부분이 거의 없이 고르게 잘 유리질화된 것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 덧붙여 현재의 보존된 상태도 거의 흠결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것도 이 매병의 장점이라 할 것이다.

□

○ 현 상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나 구연부 일부 파손 및 결손 흔적이 있고 매병 어깨와 몸체의 유표면 일부에 기포가 빠져 나가면서 생긴 핀 홀(Pin hole)이 있으며 굽 바닥 가운데 유약이 묻쳐 노태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구연부가 좁고 목이 짧으며, 어깨가 벌어져, S자 곡선을 이루는 몸체를 지닌 전형적인 고려 12세기 매병으로 비색에 가까운 청녹색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상감의 주제문으로는 커다란 구름과 학, 중속문으로 상하 뇌문이 작게 상감되었다. 어깨 부위와 몸체 하단부에 상감된 구름은 오두운의 형태로 유려한 곡선으로 백상감되었다. 그 사이로 어깨와 몸체 중앙부에 학이 배치되었는데 상부의 학은 하강하며 중앙부의 고개를 돌려 위를 응시하는 중앙부의 학을 정겹게 쳐다보고 있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학들 역시 정면을 향하여 힘차게 하늘을 나는 형태로 상감되었다. 굽바닥은 전면 시유되었고,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내어 그대로 노태되었다. 굽 안쪽에 다섯 군데에 걸쳐 커다란 내화토 받침 흔적이 남아 있다.

○ 기 타

1910년 일본인 白石益彦으로부터 333圓에 구입.

□

○ 현상 및 특징

- 명칭

‘청자상감운학문매병 (靑磁象嵌雲鶴紋梅瓶)’으로 재질, 기법, 문양, 기종을 객관적으

로 표현한 표준적인 명칭임. 물론 최근 해저인양 자료가운데 이와 같은 기종에 대해 이미 고려시대부터 ‘준(樽)’으로 불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죽간 자료가 발견되어 주목된다.¹⁾ 그러나 이미 해당 기종에 대해서는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매병(梅瓶, Merping)’으로 부르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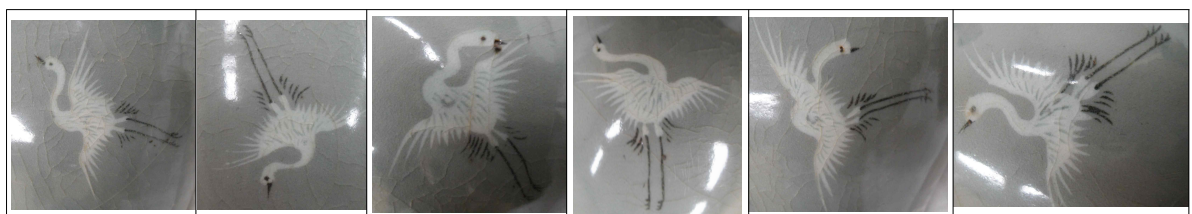
- 현황

높이 30.3cm, 입지름 5.3cm, 바닥지름 5.3cm. 작고 나지막한 반구형(盤口形)의 짧은 구연(口緣)은 둥글게 부푼 팽만한 몸체와 대조를 이루면서 탱탱한 긴장감을 준다. 몸체 아래쪽으로는 날씬한 곡선을 그리며 잘록하게 좁아졌다가 벌어져, 강하게 팽창된 어깨와 대조를 이루면서 위엄을 더해준다. 자토(赭土)와 백토(白土)를 사용하여 동체 전면에 운학문을 상감했는데, 구연부 외면과 동체 맨 아래에는 각각 흑상감으로 퇴문대(雷文帶)를 돌렸다. <그림1>

동체(胴體) 전면에는 구름문 6개와 학(鶴) 6마리를 흑백 상감하였는데, 다른 장식문양이나 구획이 없어 시원하고 넓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동체 중간을 기준으로 아래 위에 각각 3구씩 간격을 일정하게 엇갈리게 배치하고 있다. 구름은 운두(雲頭)와 굴곡진 줄기, 꼬리를 가진 형태로서 모두 수직으로 놓여 있으며, <그림2> 학은 6마리 모두 눈과 부리, 다리는 흑상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하였다. <그림3> 자칫 평면적이고 단조로울 수 있는 기면(器面)에 서로 다른 시선의 학을 배치함으로써 깊이감과 아울러 입체감을 준다.



<그림2> 각각의 구름문



<그림3> 6구의 학무늬

운학문에 사용된 상감기법은 전체적으로 매우 얇게 시문되어, 종종 상감자기에서 태

1) 태안 마도해역 인양매병에 담겨 있던 죽간에서 ‘宅上精蜜盛樽封’이라는 표기가 발견되어 매 병에 대한 고려시대 명칭이 樽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토와 문양에 사용된 백토 및 자토의 수축팽창 계수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패임이나 도드라짐 현상 없이 마치 평면 회화처럼 능숙하게 처리되었다.

매병은 현재 동체 3~4곳에 가는 균열이 있어서 세로로 길다란 실금이 있으며 가로로도 잔금들이 나있다. 구연부 2군데 정도에 결실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그림 4> 지금은 수리된 상태이다. 굽은 안굽의 형식으로 접지면은 유약을 닦아 내고 모래 섞인 내화토 받침을 4군데 받쳐 구웠는데, 굽 안바닥에는 제작과정 혹은 번조를 위한 재임시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불룩한 흠이 있다. <그림5> 전체적으로 유약은 고르게 시유되었고 투명하게 발색되어 문양이 잘 드러나며, 차분한 비취색의 발색도 양호한 편이다.



▪ 연혁

이 유물의 구입연대는 1910년이어서 1909년 창경원내에 개관했던 대한제국 제실 박물관(帝室博物館) 시기의 구입품으로 보이며,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 관련자료

위 유물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헌자료는 없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미 운학문 청자 매병이 소장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자료가 남아 있어 주목된다.

기록에 나타난 고려시대 운학문 청자는 먼저 조선후기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문집인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 보인다.²⁾ 고려말 유학자 안향(安珦, 1243-1306)의 개성 옛 집터에서 얻게 된 한 말들이의 청자 향아리(尊=樽)에 대해 쓴 내용이다. 그런데 고종대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다시 그의 문집에서 위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 청자를 보았다는 것이다. 즉, 고려말 안향의 집에 있었던 운학문 청자 향아리는 나중에 심상규(沈象奎, 1766-1838)의 집에 전세되어 보관되어왔으며, 이를 다시 자하(紫霞) 신위가 8년이나 가져다 쓰고 되돌려주었는데, 이유원이 그것을 본 것이다.³⁾ 심상규와 성해응, 이유원, 신위가 함께 살아 있던 기간은 1814년부터

2) 成海應, 『研經齋全集』 卷之九, 文一〇, 記,

1838년 사이이고, 특히 1845년에 죽은 신위가 8년간 지나다 심상규에게 돌려주었다면, 위 일화는 19세기 전반에 일어난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항아리의 문양을 설명하면서 높이는 1척(약30cm)이나 되고 여섯 마리 학과 열여덟 송이의 구름으로 장식되었다고 하니 운학문이 그려진 매병의 크기와 형태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추정된다.

매병을 빌려갔던 장본인인 자하 신위 역시 문집에 그 내용을 남겼으니, “내가 전에 고려비색 항아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중략) 나는 새 구름 기운은 신선 같구나…”라고 하였다.⁴⁾

그밖에도 매병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운학문 청자에 대한 내용이 더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이유원(1814-1888)의 『林下筆記』 중 「薜荔新志」의 또 다른 대목에는 “…일본 사람들은 고려자기를 좋아하여 값을 아끼지 않는다. 甲申年에 개성 사람 하나가 古塚을 파들어 가다가 왕릉에서 玉帶를 발굴하고 또 雲鶴이 그려진 자기반상기 한 벌을 발굴하였는데, 값이 700金이나 나갔다(후략)”고 하였다.⁵⁾

이유원이 『임하필기』의 1차 정리를 끝낸 것은 1872년이지만, 위 내용이 수록된 「薜荔新志」 등은 그 후에 추가로 저술되었다. 따라서 책들이 모두 함께 완성된 것은 1884년으로⁶⁾ 책이 출간되기 전 그의 생애 중의 ‘甲申’년에 해당하는 때는 1824년이다. 당시 물가에 대해서는 그 환산치가 분명치 않고, 더구나 700金이라고 할 때 金이 정식 화폐단위는 아니었으므로, 19세기 말엽의 물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대략 1냥을 8,000원으로) 보면, 700金은 지금의 약 560만원 정도에 달한다.⁷⁾ 이미 19세기 전반에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고려고분에서 도굴한 상감청자 등을 高價에 사들이고 있었던 것이며, 그 때 운학문 청자는 중요한 품목이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 문헌자료

- 『嘉梧藁略』, 『警修堂全藁』, 『研經齋全集』, 『林下筆記』
 김상엽, 「미술시장의 형성과 미술품 거래」, 『충북사학』 17, 충북사학회, 2006.
 박소현, 「帝國의 취미 :이왕가박물관과 일본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美術史論壇』 18, 한국미술연구소, 2004.
 신은제, 「『高麗史』 편찬 후 고려에 대한 기억」,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이혜경, 「고려시대청자 운학문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 석사논문, 2010.
 장남원, 「고려청자의 사회적 기억 형성과정으로 본 조선후기의 정황」, 『미술사논단』 29,

3) 李裕元, 『林下筆記』 34권, 「華東玉糝編」, 高麗器.

4) 申緯, 『警修堂全藁』 冊四, 東陽申緯漢叟, 戊寅錄 丁丑十二月, 至戊寅三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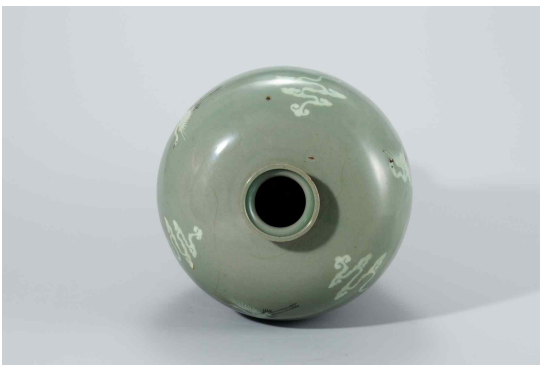
5) 李裕元, 『林下筆記』, 「薜荔新志」.

6) 안대회, 『林下筆記』 해제, 한국고전번역DB 참조.

7) 박은숙 서울시사편찬위 연구원이 1891년에 출간된 『하재일기』의 내용을 기초로 물가를 환산한 것을 참조.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는 1냥을 현재의 20,000원 정도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 운학문 자기의 가격은 약 1,400만원에 달한다.

한국미술연구소, 2009, 12.

____, 「고려의 영원한 초상이 된 운학문청자」,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공저), 태학사, 2013, 10.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3.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金銅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가. 심의사항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조사(2013.8.28.)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13년도 제5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10.10.)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보류(소위원회 개최토록 함)됨
- 2014년 소위원회를 개최(1.9.)하였고, “진위여부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기 유물인 ‘황룡사 찰주본기(국립경주박물관)’, ‘흥법사 염거화상탑지(국립춘천박물관)’와 함께 지정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황룡사 찰주본기’와 ‘흥법사 염거화상탑지’에 대한 지정조사(4.28.)를 실시함
-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이견이 접수됨에 따라 <붙임1>로 첨부하여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金銅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 소유자(관리자): 영원사(용주사 효행박물관 기탁)
-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436번지
- 수 량: 1점
- 규격(cm): 22.4×38.2, 두께 0.08
- 재 질: 금동
- 제작연대: 855년(唐 大中 9年; 文聖王 17年)
- 제작자: 김립지 찬(金立之 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이 탑원기는 이미 발견된 염거화상 탑지나 황룡사 찰주본기와 같은 유사한 시기의 통일신라 금속제 명문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 당시에 제작된 작품으로 추정할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경주 창림사 석탑내에 봉안되었던 국왕경응조 무구정광탑원기가 바로 이 작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창림사 석탑이 보물로 지정된 것과 함께 그와 연관이 깊은 이 탑지 역시 국가 지정문화재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發願者와 記文의 撰述者가 명확하고 刻法이 당시의 典型이던 雙鉤法인 점 그리고 秋史 金正喜가 模寫한 底本의 實物이라는 점 등에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評價된다. 그러나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靈源寺 所藏)와 거의 비슷한 時期에 제작된 <廉巨和尚塔誌(844)>(國立春川博物館 所藏), <刹柱本記(872)>(國立慶州博物館 所藏), <仲和三年銘舍利器(883)>(國立中央博物館所藏)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研究를 실시하여 그 結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함께 指定하는 方案을 勸告하고자 한다.

○

국왕 경응이 만든 무구정탑에 발원 하는 글(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을 새긴 이 금도금 동판은 상구한 세월을 견디고 존재하고 있는 것만도 특기 할 만한 일일 뿐 아니라 그 희소성을 더욱 귀중한 가치로써 크게 부각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서예의 측면에서 볼 때 9세기 당시의 서풍을 가늠할 수 있는 서예사적 가치는 물론 쌍구(雙鉤)의 방법으로 표현해낸 독특한 기록양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를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탑원기 동판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함량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

앞뒷면 모두 얇은 도금층이 탈락되어 부분적으로 흑색의 부식 피막을 형성하고 있다. 원래 표면 소지층은 순동에 가까운 화학 조성이며 이 위에 아말감 도금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육안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관찰한 결과, 출토 후 표면

의 파티나 녹층을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제거할 시 발생된 표면 마찰상이 확인된다. 이후 재부식이 발생되어 흑색의 산화동 형태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과학적 보존처리(녹의 안정화, 표면 세정, 수지 경화 등)가 필요하며 적정 온·습도 등의 보존 관리가 요구된다. 동 문화재는 향후 불교 공예 연구에 귀중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 재조사 후 차기 위원회에서 검토

조사보고서

○ 명문 및 특기사항

■ 정면

國王慶鷹造無垢淨塔願記」翰林郎新授秋城郡太守臣金立之奉教撰」聞經之言有爲功德厥數萬端而利物」無邊者莫若崇建塔廟伏以」國王曆劫修善位冠人天而愍有情之」沈浮苦海環廻六途將設拯濟之門」導引淨域者無越於建立无垢淨塔」於是竭罄至誠誓渡含靈爰選海內」之匠以採他山之石雕鐫累塔藏諸」舍利恭願此功德廣越天濶高躡」有頂利彼蠢動含靈復願」國王永主人天會其報盡之日捨粟」散之名齊於无上之位」維唐大中九年歲在乙亥夏首閏月日建」

[해제] 국왕 경응(慶鷹)이 무구정탑을 만들고 발원하는 글.

한림랑(翰林郎)으로서 새로이 추성군(秋城郡) 태수(太守)를 제수받은 김립지(金立之)가 국왕의 명을 받아 지음.

듣건대 경전에서 말하기를 공덕을 짓는 데에는 만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만물에 무한한 이로움을 주는 것은 탑을 짓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옹드려 생각컨대 국왕께서는 여러 겁(劫) 동안 선행(善行)을 행하셔서 지위가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에서 으뜸이 되셨습니다. 이제 또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고힘(苦海)에 떠다니면서 육도(六途)에 순환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장차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만들어 부처의 정토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무구정탑(無垢淨塔)을 건립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할 것을 서원하시고서 전국의 장인(匠人)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고, 여러 산의 좋은 돌을 골라 캐어서 여러 층의 탑을 만들고 사리를 그 안에 봉안하였습니다. 공손히 바라건대 이 공덕이 멀리는 하늘이 끝나는 저편 너머까지, 위로는 높고 높은 곳 너머까지 미쳐서 저 꿈틀거리는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왕께서는 영원히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업보가 다

하여 돌아가시는 날을 당하셔서서 곡식을 나누어 (보시한)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당(唐) 대중(大中) 9년, 을해(乙亥)년 윤(閏) 4월일에 세움.

■ 배면

奉敎宣修造塔使從弟舍知行熊州祁梁縣令金銳」都監修造大德判政法事啓玄」檢校修造僧前奉德寺上座清玄」專知修造僧康州咸安郡統敎章」同監修造使從叔行武州長史金繼宗」同監修造使從叔新受康州泗水縣令金勳榮」檢校使阿干前執事侍郎金元弼」檢校副使守溟州別駕金嶷寧」專知修造官洗宅大奈末行西林郡太守金梁博」勾當修造官前倉府史金奇言」勾當修造官前倉府史金朴基

[해제] 왕명을 받은 수조탑사(修造塔使)는 (국왕의) 종제(從弟)이며 사지(舍知)로써 용주(熊州) 기량현령(祁梁縣令)인 김예(金銳).

도감(都監) 수조 대덕(修造 大德)은 판정법사(判政法事)인 계현(啓玄).

검교(檢校) 수조 승(修造 僧)은 전봉덕사(前奉德寺) 상좌(上座)인 청현(淸玄).

혜지(專知) 수조 승(修造 僧)은 강주(康州) 함안군(咸安郡)의 군통(郡統)인 교장(敎章).

동(同) 감수조사(監修造使)는 (국왕의) 종숙(從叔)이며 武州長史인 金繼宗.

동(同) 감수조사(監修造使)는 (국왕의) 종숙(從叔)이며 새로 강주(康州) 사수현령(泗水縣令)을 제수받은 김훈영(金勳榮).

검교사(檢校使)는 아간(阿干)으로서 전임(前任) 집사시랑(執事侍郎)인 김원필(金元弼).

검교부사(檢校副使)는 명주(溟州) 별가(別駕)인 김의령(金嶷寧).

혜지(專知) 수조관(修造官)은 세택(洗宅) 대나마(大奈末)로써 서림군(西林郡) 태수(太守)인 김양박(金梁博).

구당(勾當) 수조관(修造官)은 전임(前任) 창부사(倉府史)인 김기언(金奇言).

구당(勾當) 수조관(修造官)은 전임(前任) 창부사(倉府史)인 김박기(金朴基).

□

○ 현상 및 특징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는 경기도 수언의 용주사(龍珠寺) 말사인 이천 영원사(靈源寺)에서 1968년 대웅전을 해체하던 중 기단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사찰에서 이 유물을 계속 소장하고 있다가 2011년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기탁되면서 그 존재 가치가 알려졌고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다. 탑지는 순동을 재료로 세로 22.4cm×가로 38.2cm의 관형에, 앞뒷면에 탑을 건립하게 된 배경과 발원 내용, 조탑(造塔)에 참여한 인물들을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각체인 쌍구체의 유려한

글씨로 음각하였다.

원래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는 통일신라 46대 문성왕(재위 839~857)이 대중(大中) 3년(855)에 탑을 세우면서 납입한 금동판 형태의 발원문이다. ‘경응’은 문성왕의 휘(諱)이며 ‘무구정(無垢淨)’은 통일신라시대에 탑을 건립하는데 신앙적 근거가 되었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의미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의 성분은 순동(Cu), 금(Au), 수은(Hg) 등이 검출되었으며 아말감수은기법에 의해 도금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전면에는 많은 스크래치 자국이 있고 일부는 전체 상태가 매우 새것처럼 닳여있어 발견 당시 녹이 덮혀있던 것을 발견자가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 금속 성분 등으로 벗겨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손상이 없으며 대부분의 문자가 잘 판독된다.

제작방법은 우선 동판을 주조한 뒤 매끈하게 다듬고 도금을 하였으며 그 위에 글의 정확한 배열을 위해 줄 칸을 친 다음 이 위에 작은 정으로 조금씩 글을 새기는 축조(蹴彫) 방식으로 음각하였다. 이처럼 줄을 쳐 구획을 둔 뒤 글을 새기는 방식은 왕궁리출토 은제도금 금강경판이나 민애대왕 석탑기(863)에서도 볼 수 있고 염거화상 탑지에서도 사용된 방법이다. 또한 이곳에 사용된 글자의 새김 기법 역시 글자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쌍구법(雙鉤法)으로서 <염거화상탑지>(844년), <황룡사구층목탑 찰주본기>(872년), <중화3년명 경통>(883년) 등 통일신라 금속판 등에 동판에 글씨를 새길 때 자주 사용된 당시의 각명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글획의 힘찬 동세 뿐 아니라 이러한 쌍구체의 각법은 당시 획을 어느 순서로 만들어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당시의 서체 연구에 매우 좋은 자료가 된다. 세부의 글씨체를 살펴보면 탑원기와 김정희의 모사본으로 전해지는 자간(字間), 결구(結構) 등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탑원기에서 보이는 필획이 보다 더 정밀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결구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원래의 <탑원기>는 1824년에 석공(石工)이 경주 남산 창림사 삼층석탑을 도괴할 때 무구정광다라니경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것을 당시 금석학에 조예가 깊던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이를 모사해 두었고 그 모사본이 『慶州南山の佛蹟』(1940년)에 수록되어 세상에 전하고 있었으나 원래 탑원기의 행방을 알 수 없던 상태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탑원기가 김정희의 모사본으로만 전하는 것과 내용, 체제, 서체 등이 모두 동일한 점에서 당시 사라진 탑원기로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황 판단에는 영원사가 안동 김씨의 원찰(願刹)로, 1827년에는 김조순(金祖淳)의 시주로 중건되고 이 시기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은 김정희와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점을 통해 1824년 창림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무구정탑원기는 김정희를 통해 김조순 일가로 들어갔으며 그것이 1825년 영원사가 중창할 때 대웅전의 진단구(鎭壇具)로 기단에 매납(埋納)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황상에 불과한 것이지 발견 당시의 사진이나 정확한 조사 기록이 없어 현재의 발견 탐원기는 결국 그 출토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금속판의 성분과 글자의 각명 방법, 글자체 등이 당시에 제작된 통일신라 9세기의 금속 명문판 들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글씨의 획 필체 등에서 결코 현대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많은 정황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탐원기는 현재까지 근래의 위작이나 모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이 탐원기가 창림사탑에서 발견된 원판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명문판이란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유물은 유례가 많지 않은 통일신라 9세기의 중요한 금석문 자료인 동시에 창림사탑이 최근 보물로 지정된 점을 통해서 그와 함께 국가 지정문화재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현 상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京畿道 利川市 栢沙面 松末里 436번지의 靈源寺의 소유이며, 현재 소유자의 기탁으로 京畿道 華城市 松山洞 168번지의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의하여 所藏·保管·維持·管理되고 있는 工藝文化財이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의 保存狀態는 初期의 녹을 벗겨낼 때의 굵직한 연한 흔적을 제외하면 매우 良好한 편이며, 현재 專門的 保存施設이 구비되어 있는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의해 守藏·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新羅國王 慶膺(文聖王, 在位 839-857)이 「無垢淨光大多羅尼經」의 내용에 따라 無垢淨塔을 造成할 것을 發願하는 記文을 글자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雙鉤法으로 새긴 銅版으로, 이러한 刻法은 興法寺 <廉巨和尚塔誌(844)>를 비롯하여 皇龍寺 <刹柱本記(872)>와 <仲和三年銘舍利器(883)> 등 통일신라시대에 銅版에다 글씨를 새길 때 즐겨 사용하던 類型이다. 記文은 새로 秋城郡太守에 제수된 翰林郎 金立之(?-?)가 王命을 받아 唐朝 大中 9(乙亥, 855, 文聖王 17)년 무렵에 撰述한 것이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의 전면에는 “聞經之言有爲功德厥數萬端而利物/ 無邊者莫若崇建塔廟伏以/ 國王曆劫修善位冠人天而愍有情之/ 沈浮苦海環廻六途將設拯濟之門/ 導引淨域者無越於建立无垢淨塔/ 於是竭罄至誠誓渡含靈爰選海內/ 之匠以採他山之石雕鐫累塔藏諸/ 舍利恭願此功德廣越天濶高躋/ 有頂利彼蠢動含靈復願/ 國王永主人天會其報盡之日捨粟/ 散之名齊於无上之位/ 維唐大中九年歲在乙亥夏首閏月日建”의 無垢淨塔을 造成하는 動機와 功德 등이 자세히 敍述되어 있으며, 後面에는 王명을 받아 無垢淨塔

을 造成하는데 참여한 “奉敎宣修造塔使從弟舍知行熊州祁梁縣令金銳/ 都監修造大德判政法事啓玄/ 檢校修造僧前奉德寺上座清玄/ 專知修造僧康州咸安郡統敎章/ 同監修造使從叔行武州長史金繼宗/ 同監修造使從叔新受康州泗水縣令金勳榮/ 檢校使阿干前執事侍郎金元弼/ 檢校副使守溟州別駕金嶷寧/ 專知修造官洗宅大奈末行西林郡太守金梁博/ 勾當修造官前倉府史金奇言/ 勾當修造官前倉府史金朴基” 등 11인의 職銜과 姓名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이는 신라 제46대 文聖王이 그의 17(855)년에 지금의 慶州 南山의 昌林寺에 三層石塔을 建立하면서 그 造成의 來歷을 봉안한 發願文의 銅版으로 세로 22.4cm, 가로 38.2cm, 두께 0.08cm의 純銅에 鍍金한 版形이며, 금속성분의 분석결과 순동(Cu), 금(Au), 수은(Hg) 등이 검출됨으로써 아말감수은기법으로 동판에 금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순조 24(1824)년에 昌林寺에 三層石塔에서 「無垢淨光大多羅尼經」과 함께 발견되어, 당시 金石學의 大家인 秋史 金正喜(1786-1856)에 의하여 模寫本이 제작된 底本의 實物이다. 秋史의 模寫本은 朝鮮總督府가 경주 남산 일대의 佛蹟을 조사·정리한 「慶州南山の佛蹟」(1940)에 수록되어 세상에 알려졌으나 底本인 實物의 傳存與否는 不明하였다. 그러나 龍珠寺의 末寺인 靈源寺에서 1968년에 大雄殿을 解體하다가 基壇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 이후 줄곧 靈源寺에 秘藏되다가 2011년에 龍珠寺 孝行博物館에 기탁되었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秋史의 模寫本과 內容이나 體制 및 書體 등이 모두 동일한 靈源寺 所藏品이다. 靈源寺는 조선시대 후기의 名門巨族인 安東金氏의 願刹로 1827년 金祖淳(1765-1832)이 시주함으로써 重創되었으며, 김조순의 아들 金迪根(1785-1840)이 秋史와 石交에 비유될 정도로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던 점에서 1824년 昌林寺 三層石塔에서 출토된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秋史를 통하여 金祖淳 일가로 들어갔다가 靈源寺를 重創될 때 大雄殿 基壇에 埋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는 發願者와 記文의 撰述者가 명확하고 刻法이 당시의 典型이던 雙鉤法인 점 그리고 秋史 金正喜가 模寫한 底本의 實物이라는 점 등에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管理·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評價된다. 그러나 조사문화재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靈源寺 所藏)와 거의 비슷한 時期에 제작된 <廉巨和尚塔誌(844)>(國立春川博物館 所藏), <刹柱本記(872)>(國立慶州博物館 所藏), <仲和三年銘舍利器(883)>(國立中央博物館所藏)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研究를 실시하여 그 結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함께 指定하는 方案을 勸告하고자 한다.

○ 문헌자료

- 金立之 撰,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銅版. [慶州] : [慶膺(文聖王)], 文聖王 17(855) 製作. 靈源寺 所藏(龍珠寺 孝行博物館 受託).



○ 현 상

바탕은 22.4×38.2cm 크기 0.08cm 두께의 동판이다. 여기에 도금한 후 雙鉤의 형식을 쫓아 내용을 정밀하게 새긴 것이다. 과거 어느 스님이 쌍구의 필선에 생겨진 古蒼의 청녹을 닦아 내었다고 전해지며 그 흔적이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 다소의 흠이라고는 하겠다. 그러나 그 가치의 대체를 손상했다고 여겨지는 않는다.

○ 내용 및 특징

전면에는 조탑의 경위와 發願의 事實을, 배면에는 조탑에 관련한 官人들의 직책과 성명을 새겼다.

글씨를 볼 때에 隋唐의 楷書風에 근거한 통일신라시대의 서풍으로서 이는 그 이후 고려중기 이후나 조선시대 전반에 유행되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필치이다.

쌍구 필선의 특징은 글씨를 쓴 필획의 순서대로 새겼으며 그 동시대에 만들어진 「중화3년사리기」, 「염거화상탑지」, 「황룡사찰주본기」 등과 케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모사본과 짧은 記文이 남아있는 점이 방증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 영천시 八公山에 소재한 은해사의 「銀海寺」 현판이 이 탑기를 새긴 형식을 쫓아 시도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일련의 정황을 가히 짐작케 한다.

○ 문헌자료



참고자료 - 은해사 현판

○ 기타

추사의 짧은 記文에 보면 갑신년 봄에 석공이 경주창림사탑을 헐었을 때에 얻었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의 전래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자에 이천 영원사에 보관되어 오던 것을 용주사의 無門禪師가 그 가치를 알

아보고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기탁하도록 했다는 정도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 이천 영원사 소장 <국왕경응조무구정답원기>



<국왕경응조무구정답원기>, 855년, 동, 22.4×38.2, 두께0.08,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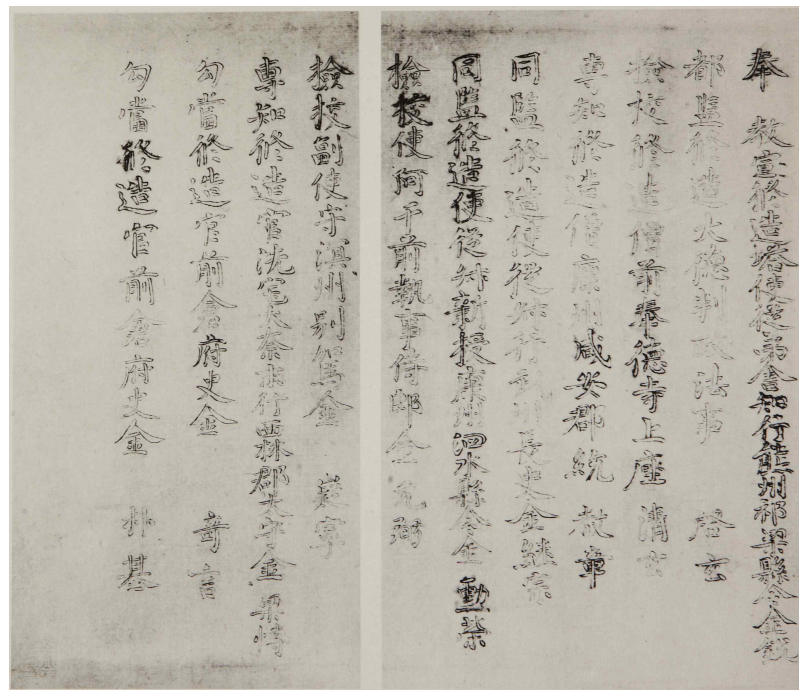


<국왕경응조무구정답원기> 배면

<참고 자료 1> - 추사 김정희 모사본 ; 『慶州南山の佛蹟』



추사 김정희 모사본 - <국왕경응조무구정답원기> 정면



추사 김정희 모사본 - <국왕경응조무구정답원기> 배면

<참고 자료 2> - 수경실본 (1824년, 개인소장)



수경실본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정면



수경실본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배면

<참고 자료 3> 통일신라기 쌍구체 명문 관련 유물



염거화상탑지, 844년, 국립춘천박물관



황룡사 찰주본기, 872년, 국립경주박물관

<붙임 1>

“창림사 탐원기” 문화재 지정(보물)에 대한 의견서

수신 : 문화재청장

참조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장

제목 : “창림사 탐원기” 문화재 지정(보물)에 대한 이의 신청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청이 문화재 지정(보물)을 예고한 “창림사 탐원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작이므로 지정예고를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문제점

1. 첫째 출토지가 불명확하고 출토 상황도 육하원칙에 맞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결점입니다.
2. 둘째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탐원기는 일본 모처에 소장되어 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갑자기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의 신축 사찰 기단에 묻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위적인 냄새가 나며, 흔히 위작을 호도할 때 쓰는 수법과 비슷합니다. 이 점은 너무나 우연히 겹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현상입니다. 출토상황과 위치, 상태 등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셋째 사찰의 기반부 속에서 출토되었다면 흙과 돌의 마찰 면, 흙결, 그에 맞는 녹, 오랜 기간의 흙의 때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출토 특징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넷째 금동판의 기법, 즉 새기는 기법은 옛 고식에서 잘 볼 수 없는 새로운 솜씨도 보이고 있습니다.
5. 다섯째 녹의 상태도 고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6. 여섯째 금동판과 음각 등에 천 년(1160년)의 연륜의 때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위작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7. 일곱째 탐원기에 보이는 필획이 보다 정밀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결구가 뛰어나다고 보고 있는 견해는 바로 김정희의 모사본을 정밀하게 모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수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필체는 김정희 본을 놓고 정밀 모사하면 김정희 본과 동일하거나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모작 기법의 실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8. 여덟째 더구나 1160년의 장구한 세월이 지나고 탐사리공을 떠나 유전하다가 만약 땅속에까지 묻히게 되었다면 신작의 흔적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근래의 신작 수법과 많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증에 신증을 기해야 하는 것이 문화재 감정의 원칙입니다.
9. 아홉째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이른바 평생을 진위 감정이나 진짜 유물보존 처리에 매진한 진정한 전문가, 내지 학자도 참여시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거쳐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대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위원회 구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10. 열 번째 문화재감정은 진정한 전문가 한두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일단 보류하는 것


이 원칙인데 무리하게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감정은 다수결이 아니며, 합당하고 경청할 가치가 있는 전문가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11. 열한번째 창림사 탑 사리공과 이 탑원기의 크기가 같은지 분명히 검색해야 합니다. 탑사리공에 맞지 않는다면 더 논의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작업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12. 열두번째 문화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이해한다면 문화재 감정 원칙에 따라 의심 많은 문화재는 보류하고 몇 년이든 심사숙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래 문화재 위원의 선정과 문제 있는 문화재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너무 안이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문화재 위원의 선정 등 문화재 당국자의 분발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창림사탑원기”가 새로이 발견, 발굴, 신고된다면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총통”사건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3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문명대(전 문화재위원)



4.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慶州 皇龍寺 九層木塔 金銅刹柱本記)

가. 심의사항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4.2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금동찰주본기
(慶州 皇龍寺 九層木塔 金銅刹柱本記)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일성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1점
- 규격(cm): 문비 22.5×11.8, 22.5×11.8/ 1면 22.5×25.5, 2면 21.5~22.6×23.5, 3면 21.5~22.6×23.5
- 재 질: 금동
- 형 식: 명문이 있는 금동사리함
- 제작연대: 872년(신라 경문왕 12)
- 제작자: 박거물(朴居物) 撰, 요극일(姚克一) 書.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황룡사의 구층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慈藏法師가 호국신앙을 배경으로 건립한 탑으로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장기간의 황룡사지 발굴조사 중 목탑지의 심초석 사리공과 탑심초석(塔心礎石) 하부의 두 곳에서 일련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탑 심초석 상면에서 사리기를 납입하기 위한 사리공이 발견되었고 탑 심초석 밑에서는 장신구를 비롯한 귀금속과 동합·완·백자합·허리띠·칼·은관·동경 등의 갖가지 일상용품 등이 출토되었다. 사리공에서 발견된 것은 물론 사리장엄구라고 할 수 있지만 탑심초석 밑에서 발견된 유물은 진단구(鎭壇具)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구와 달리 정작 황룡사 사리공에 봉안하였을 사리장엄구는 1966년 도난에 의해 원상이 훼손되어 도난 후 회수된 유물들은 금합·은합의 사리기, 팔각당형사리기 등 여러 세트의 사리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다른 탑의 유물과 뒤섞인 흔적이 있어 이를 구분, 검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지 금동사리내함에 해당되는 「찰주본기(刹柱本記)」의 기록을 토대로 삼국시대 창건 당시의 사리구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매로 이루어진 이 방형의 금동관은 황룡사의 사리장엄구 가운데 내사리함의 역할을 한 것으로 바깥의 3면에 중창공사 때에 참여한 관리 및 승려들의 명단을 계급별로 기록하였다. 기록된 인원은 경문왕의 동생인 伊干며슬의 金魏弘등 12인, 중창 당시의 寺主인 惠興등 16스님, 重阿干며슬의 金堅基등 5인, 황룡사와 감은사의 22스님 등 모두 56명에 이른다.

이 찰주본기는 황룡사 탑의 창건 경위를 알게 하고, 탑의 중수가 신라 조정 및 佛門의 大事였음을 말해주는 자료로써, 현존하는 塔誌 중 내용이 가장 풍부한 금석문일 뿐 아니라 그 관련 내용이 『삼국유사(三國遺事)』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찰주본기에 의하면 사리는 ‘금은고좌(金銀高座)’ 위에 ‘사리유리병(舍利琉璃瓶)’에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리병을 사리용기로 사용하는 것은 중국 수당대(隋唐代)의 예에서도 자주 확인되며, 분황사의 경우에도 녹색유리사리병⁸⁾의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현재 사리공에서 수습 조사된 유물 중에서 유리병편은 발견되지 않아 그 형태와 색깔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러한 찰주본기의 기록은 신라의 사리구의 매납 방식 뿐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황룡사탑의 중건의 역사, 나아가 신라의 불교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금석문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됨이 타당하리라 본다.

○

황룡사찰주본기는 통일신라 경문왕 11년에 왕의 명에 의해 중심사찰이자 성전사원인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중수할 때 당시의 각 분야 최고의 인물들이 불사에 동

8) 통일신라가 되면 녹색유리병을 사리용기로 사용하고 합(盒),함(函) 등의 외사리기에 연화좌(蓮花座)를 마련하여 납입한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참하여 수리한 조성기를 금동사리함의 내·외면에 기록한 것이다. 왕의 친동생인 상재상 이간 김의홍이 명을 받들어 불사를 주관하였으며, 도당 유학생으로서 당시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박거물이 찬한 내용을 명서예가인 요극일이 구양순풍의 해서체로 쓴 것을 총혜와 연전이 쌍구체로 전각한 것이다. 구층목탑의 심초석 사리공에 황룡사 창건당시에 내장되었던 금동사리함 안에 내장되었던 이 찰주본기는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기념비적인 문화재이다.

먼저 사상적 배경인 《무구정경》에 의해 고탑을 수리하고, 소탑 99기를 안치한 점은 9세기 왕실중심의 《무구정경》의 신봉과 실행사례를 전해줄 뿐 아니라 당시의 지배적인 불교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덕왕 이후 균정계와 헌정계의 오랜 왕위계승 쟁탈전을 고려하면 균정계인 문성왕이 법광사탑을 수리(846년)하고, 황룡사탑을 고치고자 중재(衆材)하거나 창림사 석탑을 조성(855년)한 일도모두 《무구정경》에 소의한다. 불교사적으로는 신라 성전사원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전해주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금속공예품으로서 경첩이 달린 특이한 전각형 금동사리함으로 신라인들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도금한 판재에 정으로 문자를 쌍구식으로 전각한 솜씨는 공예기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서예사적으로는 명서예가였던 요극일이 기문을 쓴 것이어서 그의 진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당 서풍의 수용 및 유행 경향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렇듯 9세기 후반에 조성된 작은 유물이지만 신라 최대 사원인 황룡사의 구층목탑을 수리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불교사적, 금속공예사적, 서예사적, 대당교섭사적 의의가 집약된 문화재로 국가지정이 때늦은 감이 있다. 아마도 상면이 보존수리중이고 저면이 결실된 탓도 있겠으나, 기록 그대로 “황룡사찰주본기”로서도 그 가치가 높으므로 보물로 지정하고, 향후 상면의 보존처리가 끝나면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지정 문화재의 명칭은 원문대로 “황룡사찰주본기”가 가장 무난하나, 재료를 고려하여 “황룡사금동찰주본기”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

황룡사 금동사리함의 찰주본기는 구층목탑을 증수하면서 기록한 실물자료로서, 구층목탑의 건립 과정과 증수 과정을 후대의 歷史書가 아닌 증수 당시에 제작된 유물을 통해 생생히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황룡사 목탑 건립과 관련하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후대의 史書 기록과 상호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찰주본기의 역사적, 기록사적 위치는 중대하다고 하겠다.

금동사리함의 내외면에 雙鉤體로 쓴 찰주본기는 9세기대에 주로 쓰였던 서체로 廉巨和尚塔誌(844년), 昌林寺 無垢淨塔願記(855년), 中和3年銘 舍利器(883년)등과 더불어 이 시기 유행했던 塔誌의 서술체계는 물론 서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사리장치 품목과

안치장소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탑과의 사리장엄 의식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리함의 문비 내·외면에 선각된 신장상은 절대연대(872년)를 가진 유품으로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황룡사 금동사리함은 신라시대의 시대상을 오롯하게 담고 있는 역사적 유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찰주본기 하나만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나, 이와 함께 출토되었다고 하는 금동사리함의 뚜껑과 기타 사리장엄구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관리되고 있다고 하므로 일괄로 조사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찰주본기가 새겨진 황룡사 구층탑 금동사리함은 명문을 새기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계된 독특한 의장의 사리함으로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구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작품이다. 특히 왕명에 의해 작성된 찰주본기는 황룡사 구층탑의 건립과 중수, 사리장엄구의 변화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왕실의 공예품 생산 체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문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황룡사 성전을 비롯한 여러 관직명과 인물이 기록되어 신라사 연구에 핵심 사료서의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황룡사찰주본기는 공예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기에 손색이 없는 유물로 평가된다.

다만 찰주본기라는 명칭은 금동사리함에 새겨진 명문을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보다 적합한 용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사리함 뚜껑을 일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1) 명문

第1板 內面

皇龍寺刹柱本記侍讀右軍大監兼省公臣朴居勿奉教

詳夫皇龍寺九層塔者

善德大王代之所建也昔有善宗郎眞

骨貴人也少好殺生放鷹摯雉雉出淚而泣感此發心請出家入道法號慈藏大王卽位七年大唐貞觀十二年我國仁平五年戊戌歲隨我使神通入於西國王之十二年癸卯歲欲歸本國頂辭南山圓香禪師禪師謂曰吾以觀心觀公之國皇龍寺建九層塔波海東諸國渾降汝國慈藏持語而還以聞乃命監君伊干龍樹,大匠[百]濟[阿]非等率小匠二百人造斯塔焉
鐫字僧聰惠

第2板 內面

其十四年歲次乙巳始構建四月□□立刹柱明年乃畢功鐵盤已上高[七][步]已下高步三尺果合三韓以爲□□君臣安樂至今賴之歷一百九十□□暨于文聖大王之代□□既久向東北傾國家恐墜擬將改□□致衆材三十餘年其未改構今上卽位十一年咸通辛卯歲恨其□傾乃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爲□臣寺主惠興爲聞僧及脩監典其□節大統政法和尚大德賢亮大統兼政法和尚大德普緣康州輔重阿干堅其等道俗以其年八月十二日始廢舊造新.
鐫字臣小連全

第3板 內面

其中更依無垢淨經置小石塔九十九軀每軀納舍利一枚陀羅尼四種經一卷卷上安舍利一具於鐵盤之上明年七月九層畢功雖然刹柱不動上慮柱本舍利如何令臣伊干承]旨取壬辰年十一月六日率群僚而往專令舉柱觀之礎臼之中有金銀高座於其上安舍利琉璃瓶其爲物也不

可思議唯無年月事由記○廿五日還
依舊置又加安舍利一百枚法舍利
二種專命記題事由略記始建之源
改作之故以示萬劫表後迷矣

咸通十三年歲次壬辰十一月廿五日記

崇文臺郎兼春宮中事省臣姚克一奉教 □

鐫字助博士臣連全

第3板 外面

成典

監脩成塔事守兵部令平章事伊干臣金魏弘

上堂前兵部大監阿干臣金李臣

倉部卿一吉干臣金丹書

赤位大奈麻臣新金賢雄

青位奈麻臣新金平矜 奈麻臣金宗猷

奈麻臣金歆善 大舍臣金慎行

黃位大舍臣金兢會 大舍臣金勛幸

大舍臣金審卷 大舍臣金公立

道監典

第2板 外面

前國統僧惠興

前大統政法和尚大德賢亮前大統政法和尚大德普

大統僧談裕 政法和尚僧神解

普門寺上座僧隱田 當寺上座僧允如

僧榮梵 僧良嵩 僧然訓 僧昕芳

僧溫融

維那僧勛筆 僧咸解 僧立宗 僧秀林

俗監典

俱江鎮都護重阿干臣金堅其

執事侍郎阿干臣金八元

第1板 外面

內省卿沙干臣金咸熙

臨關郡太守沙干臣金昱榮

松岳郡太守大奈麻臣金鎰

當寺大維那

僧香□ 僧□□ 僧元强 當寺都維那□□
 感恩寺都維那僧芳另 僧連嵩
 維那僧達摩 僧□□ 僧賢義 僧良秀
 僧教日 僧珍嵩 僧又宗 僧孝清
 僧允皎 僧□□ 僧嵩惠 僧善裕
 僧□□ 僧□□ 僧聰惠 僧春□
 □舍利 臣忠賢

○ 현황과 특징

이 금동관은 신라 제48대 경문왕(景文王) 때 황룡사의 9층 목탑을 고쳐 지으면 서(871~873) 목탑의 중심 기둥인 찰주 밑의 석재 사리공(石製舍利孔)안에 봉안된 탑 조성에 관한 기록이다.

이러한 찰주본기는 원래 사리용기인 내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파손되었지만 발견당시 문양이 새겨진 뚜껑이 있었던 점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네모난 사리함의 앞면 양쪽 문을 제외한 안팎 6면에 크기 1cm 미만의 글씨 총 930여자를 74줄에 걸쳐 쌍구체⁹⁾로 음각한 내용은 박거물(朴居物)이 짓고, 요극일(姚克一)이 쓴 것이다.

황룡사 터에 대한 발굴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8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목탑터 심초석에 정사각형의 사리공이 있었으나, 그 안에 있던 사리구는 도난 되었다가 1966년 회수 되었다. 찰주본기는 이 사리구의 내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경첩으로 결합된 금동관들이 네모난 상자의 각 면을 이루고 있다. 한 면은 문처럼 여닫을 수 있도록 문고리가 달렸고, 문의 앞, 뒷면에는 부처와 불법을 수호하는 인왕상과 신장상이 각각 2구씩 선각으로 장식되었다. 앞면의 인왕상은 하의만 걸친 채 역동적인 자세를 하고 있으며 뒷면의 신장상은 갑옷을 입고 각각 무기를 갖추었다. 문을 제외한 3장의 금동관 앞, 뒷면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든 경위, 중창에 참여한 관리와 승려의 명단 등이 기록되었다.

이 황룡사 탑의 찰주본기는 당시 신라의 대표적인 사리봉안의 모습을 기록으로 명확히 밝혀주는 동시에 백제 공장(工匠) 아버지(阿非知)가 대장(大匠)으로 초빙되어 많은 장인들을 거느리고 황룡사탑을 건립하였다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금석문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찰주본기는 하루빨리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할 귀중한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 문헌자료

『국립경주박물관』, 2009.

『국립경주박물관 名品百選』, 국립경주박물관, 2007.

한국동학학회, 「皇龍寺刹柱本記」,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vol 22, 新羅文化宣揚會,

9) 雙句體: 점이나 획의 가장자리를 따라 가는 선을 그어 윤곽만 그려낸 글씨 모양

2001.

황수영, 「신라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와 그 사리구」, 『東洋學』vol 3, 동양학연구소, 1973.

_____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 : 刹柱本記에 대하여」, 『美術史學研究』 no 116, 한국미술사학회, 1972.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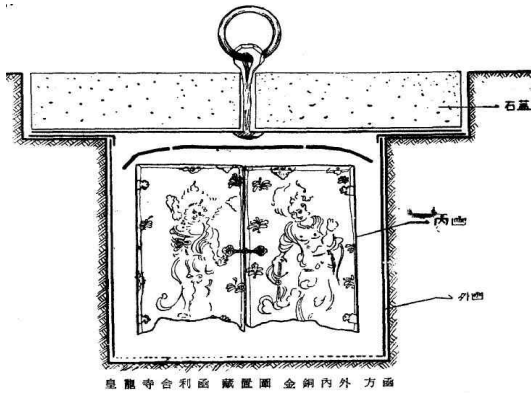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신라의 국찰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부터 30년(574)사이에 창건된 후 성덕왕 19년(720)에 중성되었고, 이후 벽력이나 지진 등으로 손상된 것을 경문왕 8년(868) 3중수하고, 12년(872)에는 구층목탑을 중수하였다.¹⁰⁾ 〈황룡사찰주본기〉 또는 〈황룡사구층목탑사리함기〉라 불리우는 이 찰주본기는 구층목탑 초석의 중앙 심초석에 시설된 사리공(舍利孔)에서 출토된 것으로 처음 1964년에 도굴되었다가 1966년에 회수된 것이다.¹¹⁾ 국립중앙박물관에 귀속되어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¹²⁾ 조성배경에는 경문왕대에 재해로 손상된 탑을 수리한 이유가 크겠지만, 통일신라시대에 널리 유행한 《무구정경》에서 설한 고탑수리(古塔修理)의 공덕과 흥덕왕 사후(836년) 균정계와 헌정계의 왕위 계승전을 마감하고 헌정계의 정통성을 알리는 불사였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당대 최고의 문장가 박거물과 서예가 요극일, 와의 친제인 정치가 김위홍이 동참한 통일신라시대의 기념비적인 기록물이자 금속공예품이다.

폭 30cm, 높이 27.5cm 규모인 사리공에서는 황룡사 창건 시 목탑에 내장된 가로 29.8cm, 세로(현) 24.5cm 크기의 금동사리외함(4면에 2구씩의 神將像) 안에 경문왕대에 새로 조성해 넣은 금동사리내함이 내장되었던 것이다.[삽도1] 금동사리외함, 금동사리내함 모두 저면이 있었으나 부식에 의해 결실되었고, 전형적인 통일신라기의 화려한 보상화문이 시문된 내함의 상면(蓋面)은 훼손이 심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처리 중이다.[삽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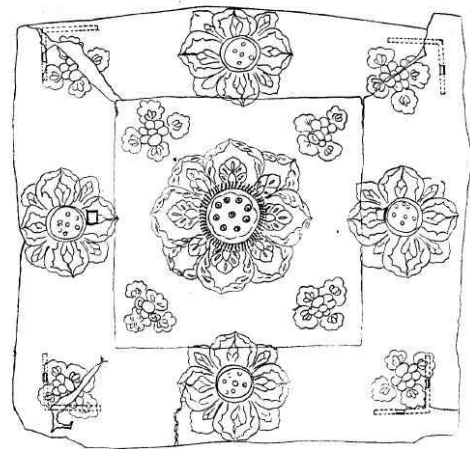
10) 《三國史記》 권11, 〈新羅本紀〉 경문왕 8년 夏六月條, “震皇龍寺塔”, 11년 春正月條, “王命有司 改造皇龍寺塔”, 13년 秋九月條, “皇龍寺塔成 九層高二十二丈”라 중수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1) 찰주본기에 대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황수영,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 刹柱本紀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1973, pp.269~328.

12) 이 외에도 직경 9.2cm, 높이 3.5cm 크기의 대좌와 경문왕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직경 7cm, 높이 3.1cm의 옥개로 이루어진 은제사리탑 부품, 신라말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 팔각사리탑과 杯形銀器, 銀製圓盤, 銀板 등이 함께 수습되었다.



삽도1. 황룡사 금동사리함 內藏圖(황수영, <신라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분기와 그 사리구>, 《동양학》 3, 1973, p.311에서 발췌)



삽도2. 금동사리내함(찰주분기)의 상면 (황수영, 앞 논문, p.292에서 발췌)



삽도3. 금동사리함 內面(兩扉) 인왕상(황수영, 앞 논문, p.290에서 발췌)



삽도4. 금동사리함 내면 兩扉 사천왕상(황수영, 앞 논문, p.291에서 발췌)

○ 내용 및 특징

사리내함은 가로 23.5cm, 세로 22.5cm 크기의 3면과 양비(兩扉)인 1면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면은 경첩으로 연결된 특이한 형식이다.(그림1) 3면의 내외에 찰주분기를 기록했고, 양비면은 내면에 사천왕 2구, 외면에 인왕상 2구를 배치했다.[삽도3, 4] 즉 방형사리함의 양 문비를 제외한 3면의 내면 제1면, 제2면, 제3면, 외면 제3면, 제2면, 제1면 순으로 총 6면에 쌍구체(雙鉤體)로 조성내력과 관련인물들을 전각한 것이다. 하단이 부식되어 한두 글자씩 관독되지 않으나 내면은 한 면에 13~14행 씩, 외면은 한 면에 10행씩 모두 74행이며, 1행에 15자씩 현재 해독할 수 있는 글자는 모두 총 905자이다.(그림2, 3) 명문은 다음과 같다.

[명문]

〈제1판 내면〉

皇龍寺刹柱本紀侍讀右軍大監兼省公臣朴居勿奉教」

詳夫 皇龍寺九層塔者」

善德大王代之所建也昔有善宗郎眞」

骨貴人也少好殺生放鷹摯雉雉出淚」

而泣感此發心請出家入道法號慈藏」

大王卽位七年大唐貞觀十二年我國」

仁平五年戊戌歲隨我使神通入於西」

國 王之十二年癸卯歲欲歸本」

國頂辭南山圓香禪師禪師謂曰吾以」

觀心觀公之國皇龍寺建九層窳塔波」

海東諸國渾降汝國 慈藏持語而還以」

聞乃 命監君伊干龍樹大匠百濟(阿)」

非等率小匠二百人造斯塔焉」

鐫字僧聰惠」

〈제2판 내면〉

其十四年歲次乙巳始構建四月八日」

立刹柱明年乃畢功鐵盤已上高七步」

已下高卅步三尺果合三韓以爲一」

君臣安樂至今賴之歷一百九十」

既于 文聖大王之代」

既久向東北傾國家恐墜擬將改」

致衆材三十餘年其未改構」

今上卽位十一年咸通辛卯歲恨其」

傾乃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爲」

臣寺主惠興爲聞僧及脩監典其人」

大統政法和尚大德賢亮大統兼政法」

和尚大德普緣康州輔重阿干堅其等」

道俗以其年八月十二日始廢舊造新」

鐫字臣小連全」

〈제3판 내면〉

其中更依無垢淨經置小石塔九十九」

軀每軀納舍利一枚陀羅尼四種經」

一卷卷上安舍利一具於鐵盤之上」

明年七月九層畢功雖然刹柱不動」

上慮柱本舍利如何令臣伊干承」

旨取壬辰年十一月六日率群僚而往」

專令舉柱觀之礎白之中有金銀高座」

於其上安舍利琉璃瓶 其爲物也不」
可思議唯無年月事由記廿五日還」
依舊置又加安舍利一百枚法舍利」
二種專命記題事由略記始建之源」
改作之故以示萬劫表後迷矣」
咸通十三年歲次壬辰十一月廿五日記」
崇文臺郎兼春宮中事省臣姚克一奉教書」
鑄字助博士臣連全」

〈제3판 외면〉

成典」
監脩成塔事守兵部令平章事伊干臣金魏弘」
上堂前兵部大監阿干臣金李臣」
倉部卿一吉干臣金丹書」
赤位大奈麻臣新金賢雄」
靑位奈麻臣新金平矜 奈麻臣金宗猷」
奈麻臣金欽善 大舍臣金愼行」
黃位大舍臣金兢會大舍臣金勛幸」
大舍臣金審卷 大舍臣金公立」
道監典」

〈제2판 외면〉

前國統 僧惠興」
前大統政法和尚大德賢亮」
前大統政法和尚大德普緣」
大統僧談裕 政法和尚僧神解」
普門寺上座僧隱田 當寺上座僧允如」
僧榮梵 僧良嵩 僧然訓 僧昕芳」
僧溫融」
維那僧助筆 僧咸解 僧立宗 僧秀林」
俗監典」

涇江鎮都護重阿干臣金堅其」
執事侍郎阿干臣金八元」

〈제1판 외면〉

內省卿沙干臣金咸熙」
臨關郡太守沙干臣金昱榮」
松岳郡太守大奈麻臣金鎰」
當寺大維那 僧香 僧 僧元強」
當寺都維那 僧 僧」
感恩寺都維那 僧芳另 僧連嵩」
維那僧達摩 僧 僧賢義 僧良秀」
僧教日 僧珍嵩 僧又宗 僧孝清」

僧允皎 僧☐☐ 僧嵩惠 僧善裕」
 僧☐☐ 僧☐☐ 僧聰惠 僧春☐」
 法舍利臣忠賢」

위 명문은 박거물이 찬하고, 요극일이 썼으며, 이를 승려인 총혜와 조박사 연전이 전각한 것이다. 사리함의 내부 제1면부터 2면까지는 선덕여왕 때 조성한 황룡사 구층탑에 대해 자장의 창건 연기, 탑의 규모, 백제장인 아버지와 소장인 200명이 조탑한 내용, 문성왕과 경문왕대에 이르는 중수 사실을 기록했고, 제3면에는 《무구정경》에 소의해서 사리 1매씩 넣은 99기의 소탑, 다라니 등을 봉납한 내용을 기록했다. 즉 황룡사탑의 창건 연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준 점은 《삼국유사》에 실린 내용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외부 제3면부터 1면까지는 불사의 실무자격인 성전과 도감전, 속감전, 유나절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쌍구체로 명문을 전각하는 방식은 무진사 동종(745년)부터 보이나,**(그림 4)** 실질적인 유행은 9세기이며 순동판재에 금도금을 한 후 명문을 전각한 염거화상탑지**(그림 5)**,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그림 6)**에 이어 황룡사찰주본기가 그 정점을 이룬다.**[표1 참조]**

표1. 雙鉤體로 조성된 통일신라 금속공예

유물명	년 대	크기(cm)	출토지 및 소장처	특 징
無盡寺 銅鍾	745년	종신 약73 구경 약56	-일본 國府八幡鍾(乾拓) -明治때 鑄潰	-유곽과 유곽사이에 쌍구체 명문(鑄物에 鑄刻) -大角干 金思仁이 후원
廉巨和尚塔誌	844년	가로 17.2 세로 28 글자 1.8	-傳 강원도 원주군 興法寺 址 염거화상 사리탑 -국립춘천박물관	-純銅板에 楷書 -최초의 승려 탑지
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855년	가로 38.2 세로 22.4 글자 0.08	-경주 昌林寺址 三層石塔 출토, 이천 영원사 -용주사효행박물관 기탁	-文成王이 《無垢淨經》에 의해 발원 -純銅板에 王羲之體.
皇龍寺刹柱本記	872년	가로 22.5 세로 22.3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지 심초석 사리공 -국립중앙박물관	-경문왕대의 중수 내용을 금동내함 내외면에 기록.
仲和3年銘舍利器	883년	가로 4.2 세로 19.6 글자 0.8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지 출토 유물과 함께 수습 -국립중앙박물관	-經筒으로 추정 -8行으로 各行 16字 전각 -小塔77基와 함께 봉안
‘會’銘 靑銅五花形盥	통일신라	높이 6.6 구경 23.3	-부여 부소산성 -국립 부여박물관	-바닥에 쌍구체로 會字 -옆에 음각 회자 전각됨
‘民’銘 靑銅水瓶	통일신라	높이 13.7 구경 3.4	-부여 부소산성 -국립 부여박물관	-수병 바닥에 民字 전각 -9세기 이후에 제작됨
‘大寺元盡’銘 靑銅容器片	통일신라	저경 7.9	-경주 동천동유적 부근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청동용기편 바닥에 璽으로 大寺元盡이라 전각됨

조성배경인 《무구정경》에 의하면, 고탑수리(古塔修理), 경전안치, 조탑 등으로 멸죄방법과 수명연장 방법을 설하고, 아울러 무구정광근본다라니의 首가 되는 6종 다라니를 서사(書寫)하여 납탑공양하면 광대한 선근복덕을 얻는다고 한다. 704년에 역출된 《무구정경》은 유학승, 사신들에 의해 빠르게 수용되어 목관활자본의 간행과 석가탑 건립(751) 등 신라사회에 조탑경전으로 정착되었으며, 9세기 전반 문성왕대부터 전성기를 맞이한다.¹³⁾ 특히 발원자 뿐만 아니라 “무구정탑을 보는 사람은 5억죄가 소멸되고, 탑에 달린 풍경소리를 들어도 모든 악업이 소멸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또 탑명만 들어도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새와 짐승들까지 축생에서 벗어나 광대한 복덕을 얻게 된다.”¹⁴⁾는 설법내용은 황룡사탑을 수리함으로써 백성들에게도 그 복덕이 내려지기를 기원한 것임을 시사해준다.

찰주본기가 전각된 금동사리함의 조형은 감은사지 동·서탑의 금동사리함처럼 방형이나 구조는 이전까지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즉 각 면은 뿔을 해서 전각형으로 고정하지 않고 상하 두 군데에 리베팅(못 3개씩)기법으로 경첩을 달아 연결하였고, 1번이 26cm로 약간 사면(斜面)진 상면의 안쪽 모서리에 끼우는 방식이다. 직접 수습하여 연구하신 황수영 선생은 “따로 [ㄱ]자형 金具 4개를 만들어서 상면 4隅角에 파진 2개의 작은 장방형 구멍에 삽입시킴으로써 그 [ㄱ]자형에다 4면의 각 隅角을 끼워서 고정하였던 것이다”라고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¹⁵⁾ 밑판 역시 각 면을 끼워서 고정시키는 방식일 것이다. 이런 구조는 결국 찰주본기의 내용을 죽간처럼 펴볼 수 있게 창안된 것이며, 당시 관장들의 예술성을 전해준다.

제작수법과 문양을 보면 내, 외부 양 문비는 윤곽선을 두르고서 그 안에 외부는 인왕상 2구, 내부는 사천왕 2구를 배치하고 주변에는 마름모형 보상화문과 작은 초화문을 배치하여 화려한 느낌을 준다.(그림7) 내부 제4면 2조에 선각된 사천왕은 용맹한 얼굴에 투구를 쓰고 무장한 모습인데, 가늘고 날카로운 정으로 매우 섬세하게 선각하여서 유려한 느낌을 준다.(그림8) 사천왕이나 인왕은 9세기 신장양식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사천왕의 의문을 확대해 보면 정을 짧게 계속 잇대어 쳐서 곡선이 부드럽고 생생한 느낌이 든다.(그림9) 양비를 잇는 경첩은 4화형 받침에 반구형(半球形) 중심을 두어 우측은 리베팅으로 끼워서 회전할 수 있게 고안한 것이다.(그림10) 각면의 경첩 표면에도 윤곽선을 두르고 안에 문양을 시문하여서 섬세하고 화려함을 더해준다.(그림11)

찰주본기를 금도금된 표면에 전각해나가는 일은 문양을 시문하고 도금을 올리

13) 원선희, 〈신라 하대 無垢淨塔의 건립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신앙〉, 《韓國學論叢》 30, 한국학 연구소, 2008, p.138.

14) 《大正藏》 권19, No.1024, 《無垢淨光大陀羅尼經》, p.719, “若見此塔者滅五逆罪. 聞塔鈴聲消諸一切惡業. 捨身當生極樂世界. 若有傳聞此塔名者當得阿鞞跋致. 下至鳥獸得聞其聲. 離畜生趣永不復受. 當得廣大福德之聚.”.

15) 황수영,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 剎柱本紀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1973, p.293.

는 일반적인 장식기법보다 훨씬 어려워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 그 위에 쌍구체로 글자 획의 순서를 정확히 맞추어 900여개의 공심자(空心字)로 각하는 일은 최고의 장인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각 면 문장 끝에 “전자승총혜(鑄字僧聰惠)”, “전자신소연전(鑄字臣小連全)”라고 밝힌 총혜스님과 조박사 연전은 당시 최고의 장인이었을 것이다.(그림12) 본기의 맨 끝에는 범사리는 충현이 제작했음을 음각으로 남겼다.(그림13)

본기를 쓴 요극일의 필적을 보면 당대 구양순(歐陽詢, 557~641)의 서풍을 따르고 있어 가지런한 해서체의 정연함이 전해진다.16)(그림14)

또한 찰주본기에 기록된 “성전”이라는 용어는 황룡사가 왕실의 조상숭배와 불교계를 통제하던 관사(官寺)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도감전, 속감전, 유나와 함께 신라 성전사원의 구성과 운영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문헌자료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1974

姜在光, 〈文聖王代の政局과 「昌林寺 無垢淨塔願記」 造成의 정치적 배경〉, 《韓國古代史 研究》 7, 2011, pp.97~133.

신용철, 〈신라불탑에 있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2009, pp.333~374.

안귀숙,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秘藏과 出現의 神異〉,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원선희, 〈신라 하대 無垢淨塔의 건립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신앙〉, 《韓國學論叢》 30, 한국학연구소, 2008.

이완우, 〈통일신라시대의 唐代 書風の 수용〉, 《통일신라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출판사, 2001, pp.143~172.

황수영,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 刹柱本紀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1973, pp.269~328.



그림1. 황룡사찰주본기 외면, 가로 23.5cm×세로 22.5cm, 내면 字徑 1cm, 외면 字徑 0.8cm

16) 요극일에 대해서 이완우 선생은 통일신라시대 9세기에 歐陽詢 서풍의 명서가로 《삼국사기》 김생전 말미에 “또 요극일이라는 사람이 있어 벼슬이 시중 겸 侍讀學士에 이르렀는데 필력이 굳세어 歐陽率更(구양순)의 필법을 습득했다. 비록 김생을 따르지는 못했으나 奇品이었다.”는 문헌자료와 필적인 〈大安寺寂忍禪師碑銘〉(866년 경), 〈황룡사찰주본기〉, 〈흥덕왕릉비명〉(836년경) 이 남아 있는데, 파편을 보면 구양순의 해서를 터득했음을 알 수 있다고 평한 바 있다. 이완우, 〈통일신라시대의 唐代 書風の 수용〉, 《통일신라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1, 161~162.

皇龍寺刹柱本記 侍讀右軍大監兼省公臣朴居嗣奉
 詳夫皇龍寺九層塔者
 善德大王代之所建也昔有善宗鄭真
 骨貴人也少好教坐放鷹擊雉雉出渡
 而泣感此發心請出家入道法号慈藏
 大王即位七年大曆貞觀十二年我國
 仁平五年戊戌歲隨我使神通入於西
 國 王之十二年於卯歲故歸本
 國頂嶽南山圓香禪師禪師謂曰吾以
 觀心觀公之國皇龍寺建九層塔波
 海東諸國渾降汝國慈藏持語而還以
 聞乃 命監者伊干龍樹大匠
 非等率小匠二百人造斯塔焉

新羅僧慈藏

그림2. 황룡사찰주본기의 제1면 내면의 쌍구체 全文
 (《황룡사발굴보고서》 19 , p.335.



그림3. 제1면 記文序



그림4. 무진사 동종의 쌍구체 명문(건탁), 745년



그림5. 엽거화상탑지, 844년



그림6.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855년



그림7. 내면 사천왕(제4면 2조)



그림8. 사천왕의 얼굴 표현



그림9. 사천왕의 衣文에 보이는 조각정의 흔적(도금 후 조각)



그림10. 제4면 경첩장식



그림11. 각면 경첩 고정장치(리벳팅)



그림12. 鑄字臣小連全



그림13. 法舍利臣忠賢



그림14. 姚克一의 서체

□

○ 내용 및 특징

이 찰주본기는 원래 황룡사 목탑지의 심초석에 봉안되어 있던 것인데, 1964년 12월 17일 심야 도굴꾼에 의해 약탈되어 민간 수장자에게 매도되었던 것을, 우여곡절 끝에 1971년 7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國家歸屬되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 선덕왕 14년(645) 高僧 慈藏의 건의와 伊干 龍春(본기에는 龍樹)의 주도로 백제인 대장 아버지 등이 세웠다고 한다. 이후 문성왕대(839-856) 탑이 기울자 景文王 11년(871) 왕의 동생인 伊干 魏弘의 주도로 중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려 숙종 원년(1096)에도 重修가 있었지만, 몽고군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이후 복구되지 못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황룡사 목탑은 진평왕의 玉帶, 황룡사의 丈六佛과 함께 신라의 三寶 중 하나여서 그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사리함의 정면은 門扉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 빗장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다. 門扉의 바깥 면에는 근육질의 인왕상이 역동적인 자세로 서 있고, 안쪽 면에는 투구와 갑옷, 칼 등으로 무장한 신장상이 정적인 동세로 서 있어 상호 대조를 이룬다. 내면에 새겨진 신장상은 사천왕상 2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섬세한 상의 표현에서 9세기 후반의 조각경향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사면은 상하에 두 군데 경첩을 달아 연결하였으며, 하단 부분은 부식으로 인하여 네면 모두 손상이 있다.

이 찰주본기는 당대 동양최고의 거탑이었던 황룡사 9층목탑 사리장치의 금동사리함의 내·외면에 建塔과 重修 내용을 雙鉤體로 음각한 塔誌이다. 사리함의 내면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면은 成典과 관련 道俗의 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3판은 황룡사 9층탑의 창건 경위와 중창의 사유를 밝히는 동시에 사리 장치에 안치한 品目 등을 전하고 있다. 외면의 3판은 황룡사 9층탑의 창건과 중창에 관여한 감독과 책임자, 그리고 시발원자 등 56명의 인명을 새겨놓았다. 금동함의 정면이 되는 門扉의 內外 양쪽 면에는 당시의 시대 양식을 담은 인왕상과 사천왕상을 선각하였고, 나머지 三面 내외에는 명문을 새겼고 바닥면은 소실되었다. 밝혀진 탑명의 행수는 모두 74행이며, 자수는 905자이다. 이 탑지는 현전하는 신라시대 유일의 木塔誌이다.

우선 본문의 첫머리에는 이 기명의 제목과 찬자로 생각되는 朴居勿의 관직이 보이고, 이어서 황룡사탑의 건립의 사유와 연대를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탑의 건립을 주창한 慈藏法師의 出家沙門이 된 사정과 入唐 年代를 적고 있다. 다음에는 그가 善德大王 12년 계묘(643)에 이르러 귀국에 앞서 南山의 圓香禪師를 찾아서 그로부터 建塔의 위촉받은 사실과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海東제국이 모두 항복한다는 木塔 건립의 직접적인 동기를 언급하고 있다. 자장은 이 같은 원향선사의 말을 듣고 돌아와 국왕에게 아뢰고 국왕은 이간 龍樹에게 명하여 監君을 삼고 大匠 □濟 □非 등 小匠 2백인을 거느리고 이 대탑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大匠 부분은 글자가 마멸되어 정확히 판독되지 않으나 『三國遺事』 卷3 皇龍寺塔條에 등장하는 百濟 阿非(知)로 추정하고 있다.

본문의 2판에는 『三國史記』 권5 선덕왕 14년조에 보이는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으로, 건립 당초의 찰주 건립에서 畢功의 年代, 탑의 규모, 건립의 목적, 탑의 중수 사유 등을 기록하였다. 탑의 중수는 경문왕대에 이루어졌는데, 탑을 세운지 190여년이 지난 문성왕대 대탑이 동북으로 기울자 나라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여 여러 재목을 모은지 30여년 동안 고쳐짓지 못하고 있다가 경문왕 11년(871)에 마침내 임금의 親弟인 上宰相 伊干 魏弘에게 명하여 寺主 惠興 등 道俗의 힘을 모아 그해 8월 12일에 중수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고 중수 배경과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

본문의 3판에는 경문왕대 중수 시 안치한 사리장치의 품목을 기록하였다. 품목으로는 무구정경에 따라서 小石塔 99구에 각각의 석탑마다 사리 하나씩을 넣고, 다라니 4종류와 經 1권, 다시 그 위에 舍利 1구를 안치하여 鐵盤 위에 넣었다고 한다. 造塔 經典인 無垢淨經에 의해 사리장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리함의 외면 3판에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경문왕대 대탑수리에 관여하였던 道俗의 인명이 그들의 관직명과 함께 새겨져 있다.



도58 경주 황룡사지 구층목탑 금동사리함(찰주본기)

○ 금동사리함 명문

제1판 내면

皇龍寺刹柱本記侍讀右軍大監兼省公臣朴居勿奉教」

詳夫皇龍寺九層塔者」

善德大王代之所建也昔有善宗郎眞」

骨貴人也少好殺生放鷹摯雉雉出淚

而泣感此發心請出家入道法號慈藏」

大王卽位七年大唐貞觀十二年我國

人平五年戊戌歲隨我使神通入於西

國 王之十二年癸卯歲欲歸本

國頂辭南山圓香禪師禪師謂曰吾以

觀心觀公之國皇龍寺建九層窣堵波

海東諸國渾降汝國慈藏持語而還以

聞乃 命監君伊干龍樹大匠□濟□

非等率小匠二百人造斯塔焉

鑄字僧聰惠

제2판 내면

其十四年歲次乙巳始構建四月□□

立刹柱明年乃畢功鐵盤已上高□□

已下高卅步三尺果合三韓以爲□□

君臣安樂至今賴之歷一百九十□□

暨于 文聖大王之代□□

旣久向東北傾國家恐墜擬將改□□

致衆材三十餘年其未改構

今上卽位十一年咸通辛卯歲恨其□
傾乃 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爲□
臣寺主惠興爲聞僧及脩監典其□節
大統政法和尚大德賢亮大統兼政法
和尚大德普緣康州輔重阿干堅其等
道俗以其年八月十二日始廢舊造新

鐫字臣小連全

제3관 내면

其中更依無垢淨經置小石塔九十九
軀每軀納 舍利一枚陀羅尼四種經
一卷卷上安 舍利一具於鐵盤之上
明年七月九層畢功雖然剎柱不動
上慮柱本 舍利如何令臣伊于承
旨取壬辰年十一月六日率群僚而往
專令舉柱觀之礎臼之中有金銀高座
於其上安 舍利琉璃瓶其爲物也不
可思儀唯無年月事由記○廿五日還
依舊置又加安 舍利一百枚法舍利
二種專 命記題事由略記始建之源
改作之故以示萬劫表後迷矣

咸通十三年歲次壬辰十一月廿五日記

崇文臺郎兼春宮中事省臣姚克一奉 教□

鐫字助博士臣連全

제3관 외면

成典

監脩成塔事守兵部令平章事伊干臣金魏弘

上堂前兵部大監阿干臣金李臣

倉府卿一吉干臣金丹書

赤位大奈麻臣新金賢雄

靑位奈麻臣新金平矜 奈麻臣金宗猷

奈麻臣金歆善 大舍臣金愼行

黃位大舍臣金兢會 大舍臣金勛幸

大舍臣金審卷 大舍臣金公立

道監典

제2관 외면

前國統僧惠興
 前大統政法和尚大德賢亮前大統政法和尚大德普緣
 大統僧談裕 政法和尚僧神解
 普門寺上座僧隱田 當寺上座僧允如
 僧榮梵 僧良嵩 僧然訓 僧昕芳
 僧溫融
 維那僧助筆 僧咸解 僧立宗 僧秀林
 俗監典
 溟江鎮都護重阿干臣金堅其
 執事侍郎阿干臣金八元

제1관 외면

內省卿沙干臣金咸熙
 臨關郡太守沙干臣金昱榮
 松岳郡太守大奈麻臣金鎰
 當寺大維那
 僧香□ 僧□□ 僧元强 當寺都維那□□
 感恩寺都維那僧芳另 僧連嵩
 維那僧達摩 僧□□ 僧賢義 僧良秀
 僧教日 僧珍嵩 僧又宗 僧孝清
 僧允皎 僧□□ 僧嵩惠 僧善裕
 僧□□ 僧□□ 僧聰惠 僧春□
 □舍利臣忠賢

* 명문은 『동양학』 3에 수록된 故 황수영박사의 판독에 따름.

○ 문헌자료

黃壽永,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 刹柱本紀와 그 舍利具」, 『東洋學』 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3.
 「皇龍寺刹柱本記」,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신라문화선양회, 2001.

□

○ 현 상

4매의 금동판을 경첩으로 연결하여 접으면 방형의 상자가 되도록 고안된 사리함으로, 그 중 한 면은 다시 2분하여 중앙에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리를 달아 문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문비에는 앞뒤로 각각 2구씩 총 4구의 신장상이 선각되었으며, 나머지 3매 금동판의 앞뒷면에는 얇은 선각으로 황룡사 구층탑의 창건과 보수내역을 기록한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의 서체는 해서체이며, 새김방식은

글자의 윤곽을 따라 선을 새긴 쌍구법이 적용되었다. 모두 74행에 걸쳐 약 900자를 새겼으나 하단의 일부 명문은 결실되었다.

금동판 표면의 도금층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나 일부 부식으로 인한 박락과 오염이 있으며, 특히 금동판 하단부는 사리공의 침수에 의한 부식으로 인해 결실이 심한 편이다. 금동판 사이는 각 면에 2개씩 모두 8개의 경첩으로 연결되었다. 경첩의 날개 끝은 꽃모양으로 꾸미고, 표면에는 화문을 음각하였으며 한쪽에 3개씩 양쪽에 6개의 못을 박아 금동판에 고정하였다. 8개의 경첩 가운데 4개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는 연결구 또는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원래 사리함의 바닥을 구성했던 판은 부식된 파편상태로 일부 수습되었으며, 보상화문이 새겨진 녹색형 뚜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 금동사리함의 뚜껑은 상면 중앙에 방형의 구획 내에 보상화문과 화문을 선각하고, 주연 4면에 다시 보상화문과 화문을 새겨 상면과 측면을 구분하고 있다. 기형은 경사가 급하지는 않지만 압출하는 방식으로 중앙과 네 모서리에 힘을 가하여 모죽임의 기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은 중국의 고대 사리장엄구에서 유행하는 녹색형사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황사 모전석탑의 방형석함과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금·은제사리함에서도 보이는 기형이다.

○ 내용 및 특징

황룡사 구층탑 금동사리함은 872년 구층탑 중수 당시 경문왕의 하명에 따라 찰주본기를 새기기 위해 고안된 독특한 구조의 사리기이다. 전각(篆刻)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사리함의 네 면은 4개의 금동판으로 분리 제작하여 경첩으로 연결했으며, 그 중 3면에는 앞뒷면에 걸쳐 74행 약 900자로 구성된 찰주본기를 새겼다. 그리고 나머지 한 면은 다시 2분하여 4구의 신장상을 새기고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리를 부착하여 문비로 삼았다. 이 문비에 새겨진 4구의 신장상 가운데 외면에 새겨진 2구는 금강역사상으로 파악되지만 내면 2구의 신장상은 아직까지 명확한 존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금동판 3매의 앞뒷면에 새겨진 찰주본기의 구성은 내면에는 황룡사 구층탑의 창건과 중수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외면에는 황룡사 성전(聖典)과 탑중수에 관여한 승려와 속인의 인명이 나열되어 있다.

찰주본기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면의 기록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층탑 건립의 발원자인 자장율사의 행적과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층탑을 창건한 경위에 관한 것으로 초빙된 건축가 아버지와 완공된 탑의 규모 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성왕대에 이르러 탑이 동쪽으로 기울어져 중수를 하고자 재목을 모은 지 30여년이 흘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문왕 11년(871) 8월 12일부터 그 이듬해 7월에 걸쳐 중수를 완료하였다는 기록이다. 세 번째는 구층탑 중수가 완료된 이후 찰주본기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는 창건당시 사리장엄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추가로 봉안한 사리장

업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사리장엄 연구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찰주본기의 찬자는 박거물(朴巨勿)이고, 서자는 요극일(姚克一)이며, 글씨를 새긴 인물로는 승려 총혜(聰惠)와 조박사 연전(連全)이 분업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찰주본기의 내용을 분석하면 찰주본기가 새겨진 금동사리함의 제작은 불과 20일 이내에 완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황룡사찰주본기는 국내에 현존하는 고대 금속공예품 가운데 유일하게 제작에 소요된 기간을 알 수 있는 작품이라는 의의가 있다.

○ 기타

- 소장경위: 1964년 12월 황룡사 구층목탑지 심초석에서 도굴되었다가 1966년 도굴범들이 검거되면서 회수됨

5. 금동염거화상탑지(金銅廉巨和尚塔誌)

가. 심의사항

‘금동염거화상탑지’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4.2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였음.
- 예고기간 중 이견이 접수되어 <붙임1>로 첨부하여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금동염거화상탑지(金銅廉巨和尚塔誌)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춘천박물관)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국립춘천박물관
- 수 량: 1점
- 규격(cm): 가로 17.2 세로 28.8
- 재 질: 동(銅)
- 제작연대: 통일신라 844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염거(廉居, ?~844년)는 신라 후기의 선승(禪僧)으로서 염거(廉巨)라고도 하며, 가지산파(迦智山派)의 2대 조사(祖師)이다. 도의(道義)의 제자로서, 도의가 진전사(陳田寺)에서 입적할 때 의발을 전수받았다고 전해진다. 주로 설악산 억성사(億聖寺, 지금의 禪林院址)에 머무르면서 선종을 널리 알리는데 힘썼고, 체징(體澄)에게

법맥을 전하여 가지산과를 대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문성왕 6년(844년)에 입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거화상탑은 원래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흥법사(興法寺) 터에 있었다고 전해져 ‘전(傳)흥법사 염거화상탑’으로 불리워진다. 1916년 발행된 『朝鮮古蹟圖譜』에는 ‘廢興法寺 廉巨和尚塔’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흥법사 眞空大師塔’과 함께 일본인에 의해 옮겨지면서 원래의 소재지가 분명치 않다. 이후 이 탑은 1914년에 탑골공원에 옮겨졌고 경복궁을 거쳐 2005년 다시 현재의 위치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전되었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04호로 지정되었으며 높이 1.7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일본인에 의해 원래 위치에서 옮겨올 때, 해체되면서 금동탑지(金銅塔誌)가 발견되었고 오랜 기간 떠돌다가 1919년 총독부박물관에서 이 탑지를 구입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탑지를 통해 염거의 입적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한국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승탑의 효시가 되는 염거화상탑의 가치를 높게 해 준 자료가 바로 이 탑지란 점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보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염거화상탑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로 알려져 부도만 “전 흥법사 염거화상탑”이라는 명칭으로 국보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탑지가 갖고 있는 의의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탑지는 염거화상이 입적한 명확한 시점과 불멸 년대까지 알려주고 있고,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 제2조의 부도탑지라는 점에서 불교사적 의의가 있는 점, 9세기에 유행하는 쌍구체 전각법이 도입된 선례로서 서체는 남북조-초당대의 유풍을 보이고 있어 통일신라 금속공예기술사적, 서예사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교섭사적 의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문화재의 명칭은 “염거화상탑지” 또는 “염거화상금동탑지”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명문은 모두 48자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서풍을 녹여내어 격도를 높였고 특히 이체자를 간간히 사용함으로써 고금을 넘나드는 세심함으로 신성함이라던지 신비의 세계를 함축하고자 했던 심상을 대할 수 있음이 그 빼어남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역사성이나 예술성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영원사의 무구정탑원기와 더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물 지정
- 명칭은 '동제염거화상탑지' 로 함.

조사보고서



○ 명문

會昌四季歲次甲子季
秋之月尙旬九日遷化
廉巨和尚塔去釋迦牟
尼佛入涅槃一千八百四
季矣
當此國慶膺大王之時

회창 4년(신라 문성왕 6년, 844년) 갑자년 9월 29일에 돌아가신 염거화상의 탑이다.
석가모니불이 열반한 때로부터 1,804년이 지났다. 이 나라 경응대왕(문성왕)의 때이다.

○ 현상과 특징

동관에 새겨진 탑지의 내용은 비록 소략하지만 가지산파의 2대 조사이며 당대의 최고의 선승이었던 염거화상의 승탑을 명확히 밝혀준 중요한 자료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이 탑지를 통해 염거화상이 통일신라 문성왕 6년(844)에 입적을 한 점과 승탑 역시 그와 유사한 시기에 세워진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탑지는 긴 장방형의 판을 납작하게 주조한 뒤 그 전면의 외곽을 장방형의 구획으로 그은 뒤 내부를 다시 거의 유사한 6줄의 등 간격으로 나누었다. 이 안으로 1행, 2행, 3행은 9자씩을, 4행은 10자, 5행은 2자, 마지막 6행에 9자씩 도합 48자를 새겼다.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은 당시 유행한 쌍구체의 유려한 글씨로서 축조(蹴彫)를 이용하여 획과 획을 분명하면서도 또렷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획의 순서에 맞게 구획의 연결부를 새겨나간 것은 동일한 시기의 황룡사 찰주본기나 국왕경응조 무구정광탑원기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앞쪽에서 깊게 축조하여 글씨를 새겨 넣음으로써 뒷면에까지 도두라진 부분이 여러 곳에 보인다. 매끄럽게 다듬은 전면에 비해 뒷면은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이 탑지에서 주목되는 것은

방향의 네 귀에 뚫린 구멍과 이를 메운 못자국이다. 관통된 소공 한곳을 제외하고 녹이 슨 못자국이 보이는 점에서 원래 어느 곳에 고정시켰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견 당시 어떠한 상태였는가에 대해 알려져 있지않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비록 단순한 내용의 염거의 입적을 기록한 명문이지만 단정한 글씨체는 당시의 서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축조의 정교한 끝 자국은 금속공예 기술의 우월함을 잘 대변해 준다. 무엇보다 이 몇 줄의 명문을 통해 당대 최고의 고승인 염거의 행적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승탑의 효시가 되는 염거화상탑의 축조시기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이미 국보로 지정된 염거화상탑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 현 황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염거화상탑지는 얇은 금동판에 통일신라 선종승인 염거화상이 844년에 천화한 내용을 해서체(楷書體)로 쌍구체(雙鉤體)기법으로 전각한 것이다.(그림1, 2) 가장 이른 승려묘탑지인 이 탑지는 국보 제104호(1962.12.20 지정)인 전 흥법사 염거화상탑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하며, 일제강점기에 이미 《조선고적도보》(1915년~1935년 발간)에 “탑내발견금동패(塔內發見金銅牌) 본부장(本府藏)”이라며 염거화상탑과 함께 소개된 유물이다.(그림3) 염거화상탑은 “폐흥법사염거화상탑(廢興法寺廉巨和尚塔) 금재경성(今在京城)”이라 기록되어 있다. 즉 서울로 옮겨져 한때 탑골공원에 있었다가 1931년에 총독부박물관에 이전되었고, 이후 상륜부가 결실된 채 경복궁 뜰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있다.(그림4, 5) 그런데 원래 흥법사에는 진공대사묘탑(眞空大師墓塔)이 있었고, 이 묘탑과 묘탑 지하에서 발견된 석관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전시되어 있다.(그림6) 염거화상 묘탑은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조선고적조사약보고》(1911.09)에 원주 흥법사지에서 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1929년 3월에 오가와 게이기치(小川敬吉)가 흥법사지를 현지조사하고서 “염거화상 탑지(塔址)는 위치불명”이라고 판명한 것이다.¹⁷⁾

염거화상(?~844)은 진전사 원적선사(元寂禪師) 도의(道義)의 제자로,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비(普照禪師彰聖塔碑)>에 체징(體澄, 804~880)이 당에서 귀국하여 선을 설하고자 하였으나 때가 아님을 알고 설산(雪山) 역성사(億聖寺)로 온

17) 오가와 게이기치는 “파고다 공원에서 염거화상묘탑과 진공대사묘탑을 박물관으로 이전하려 할 때, 훌륭한 2기의 묘탑 모두 지대석이 없어 당시 원주에서 경성으로 운반한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니 염거화상탑은 지대석이 너무 커서 운반이 어려워 가져오지 못했으므로 현장에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지대석을 갖추고자 현지조사를 떠난 것이었다. 그런데 현장에는 지대석도 없었고 舊位置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진공대사 석관과 지대석 일부만 가져왔다”고 했다. 附錄 <1929년 3월 小川敬吉 現地調査>, 《興法寺址-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 原州市, 2000. pp.131-136.

거하면서 염거선사에게 부법(付法)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산문(迦智山門)의 2조(祖)로 알려진 인물이다.

염거화상 금동탑지는 네 모서리에 못으로 고정했던 구멍이 있으므로 어떤 물체에 부착했던 것인데, “탑내 발견”이라지만 탑 안에는 내장될 공간이 없고 탑 표면에는 부착 흔적도 없어 현재까지 출토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분명한 점은 염거화상이 입적한 해와 불멸(佛滅)년대까지 알려주고 있고,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열리는 9세기의 가지산문 제2조의 부도탑지라는 점에서 불교사적 의의가 있는 점, 서체와 쌍구체(雙鉤體) 기법의 수용은 통일신라 서예사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 내용 및 특징

염거화상탑지는 성분비(성분비) 동(Cu) 99% 이상인 순동을 얇은 판재로 만들어 길이 28.9cm, 폭 17.2cm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오린 후 구획과 계선을 긋고 해서체의 명문을 쌍구체 수법으로 전각한 것이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

[명문]

會昌四季歲在甲子季」
秋之月兩旬九日遷化」
廉居和尚塔去釋迦牟」
尼佛入涅槃般一千八百四」
季矣」
當此國慶膺大王之時」

즉 “회창 4년 갑자년 9월 29일에 돌아간 염거화상의 탑이며, 석가모니불이 열반한 때로부터 1804년이 지났다. 이 나라 경응대왕(文聖王)의 때이다.”라는 뜻이다. 염거화상이 천화한 844년은 석가모니불이 열반한지 1804년이 된다는 기록이어서 석가의 입적연대가 기원전 960년 임을 시사해 준다.

승려의 묘탑지로 가장 이른 염거화상탑지는 표면이 아주 깨끗해서 공기와 차단되어 내장된 것임을 직감케 한다. 우측상단에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고 4개의 납작사각형 철못으로 리베팅한 사각형 흔적이 표면에 남아있다.(그림7) 리베팅은 뒤에서 뚫어 앞에서 고정한 것인데, 국립춘천박물관측의 정밀조사에 의하면 전면 리베팅부는 평균함유량 Cu 77.62%, Fe 20.67%이며, 뒷면에는 Cu 75.93%, Fe 8.94%, Pb 13.53%로 확인되어 납 성분이 있는 재질에 부착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⁸⁾ 금동판은 반듯하고 정연한 느낌을 주는 해서체의 명문이 뒷면에도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얇게 만들었는데, 계선과 쌍구체 명문을 가늘고 날카로운 정으로 짧게 계속 잇대어 쳐가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그림8, 9) 예컨대 ‘백(百)’자를 보면 점선처럼 이어진 획선과 주변의 불림감이 생긴 판재, 여석(礪石)으로 표면을

18) 허일권·정재웅·안송이·박학수, <염거화상동판묘지의 제작기법 조사 및 보존>, 2013 참조.

연마한 직선흔이 잘 드러난다.(그림10)

명문을 쓴 쌍구체는 당대에 유행한 공심자(空心字) 서법으로 통일신라 금속공예 품에는 8세기 무진사종(745년)¹⁹⁾에 처음 보였다가 9세기 이후 금동판재에 전각한 염거화상탑지와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황룡사찰주본기》, 기명인 중화3년 명 금동사리기, 부소산성 출토 청동용기 등 총 8점 뿐 그 사례가 적다.²⁰⁾ 명문의 서법은 왕희지의 7대손인 영혼사 승 지영(智永, 6세기)²¹⁾과 그의 제자인 우세남(虞世南, 558년~638년) 유풍이 엮보이는데,²²⁾ 염거화상탑지 서체의 획 모양은 수대 맹현달비(孟顯達碑, 600년)나 우세남의 공자묘당비(孔子廟堂碑)에 보이는 획과 매우 유사하다.(그림11)

상술했듯이 묘탑을 떠나 여러 곳을 유전한 염거화상탑지의 불분명한 출처에 대해서는 당대 서안과 낙양의 승려탑 구조와 홍법사 진공선사 부도 및 석관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섬서성 호현 초당사의 구마라집탑은 팔각당형부도로 팔각의 한 면에 묘주에 대한 명문이 있지만, 이런 방법은 통일신라의 주 석재인 화강암에는 용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존 최고 팔각평면탑인 송산 회선사 정장선사탑(淨藏禪師塔, 746년)이나 낙양 보응사유지에 있는 선종 7조 하택신회(荷澤神會)의 묘탑 등은 모두 탑기에 석실(單室)이 있다. 신회의 행장문도 석실내 동벽의 안쪽에 음각되어 있었고,²³⁾ 홍법사 진공선사 석함도 탑기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초창기 선종승들의 묘제는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선종승들에 의해 당제를 충실히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염거화상이 입적한 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조성된 묘탑도 이를 따랐다면 탑지도 석함의 내부 뚜껑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 춘천박물관측의 조사보고서에 “뒷면 리벳 부분에 납성분이 있어 납이 함유된 재질에 붙였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금속물이라면 직접 음각하면 되지 굳이 금동판에 기문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부착대상이 납성분이 많이 함유된 활석제이거나 리벳구멍을 뚫은 도구가 납이 함유된 사각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 참고문헌

西安碑林博物館 編, 《西安碑林博物館》, 陝西人民出版社, 2000, p.35

19) 일본 國府八幡鐘으로 알려진 이 종은 明治시기에 鑄潰되었는데, 남아있는 乾拓本에 의하면 유곽 사이에 쌍구체로 명문이 전각되어 있다.

20) 이 외에도 10세기 작인 서산 普願寺址 五層石塔 내 사리공에서 발견된 金銅方形舍利盒 밑면에 쌍구체로 “緣起法頌”이라 線刻되어 있다.

21) 智永은 수대 서예가로서 왕희지(王羲之)의 7대손으로 글씨를 빼어나게 잘 썼으며 후세에 큰 영

향을 끼쳤다. 형 惠欣과 함께 佛門에 들어 浙江省 왕희지의 분묘 근처 永欣寺에서 살았다. 왕희지와 子 왕휘지의 유업을 계승, 서예에 정진하여 희지의 서체를 공부한지 30년 만에 楷書, 草書를 병서한 《眞草千字文》을 남겼다.

22) 지영과 우세남의 유풍에 대해서는 유물조사 시 조사위원이셨던 선주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임을 밝혀둔다.

23) 洛陽市文物工作隊, 〈洛陽唐神會和尚身塔塔基清理〉, 《文物》1992-3, pp.64-67, p.75.

《興法寺址-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 原州市, 2000. pp.103-104
 이순우,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나》, 하늘재, 2002, pp.20~80
 洛陽市文物工作隊, 〈洛陽唐神會和尚身塔塔基清理〉, 《文物》1992-3, pp.64-67, p.75

[도판]



그림1. 염거화상탑지 전면, 통일신라
844년



그림2. 염거화상탑지 후면(4개의 고정 못 흔적: 凹形)



그림3. “塔內發見金銅牌 本府藏”, 《朝鮮古蹟圖譜》5, No.1568



그림4. “廢興法寺廉居和尚塔 今在京城 (江原 原州郡地正圖”, 《朝鮮古蹟圖譜》5, No.1569



그림5. 염거화상탑, 통일신라 844년, 국립중앙박물관(상륜부 없어진 상태)



그림6. 흥법사 진공대사탑과 석관(향좌), 고려 초(940년 하한)



그림7. 탑지 우측상단의凸형 리벳팅 흔적과 찢어진 부분



그림8. 3行 “巨和尚塔” 4行 “佛入涅槃”의
鑄字수법



그림9. 3行 “巨和尚塔” 4行 “佛入涅槃”의
뒷면



그림10. 표면연마 흔적과 조각정의 흔적



그림11. 우세남, 공자묘당비
부분, 당 626년, 북송 960-968년
摹刻



○ 내용 및 특징

- 동판의 크기와 형태 및 내용

염거화상동판묘지에 새겨져있는 會昌 4년(844)은 당말 武宗의 연호와 즉위년도이며 통일신라 文聖王(名 慶膺) 6년에 해당된다.

묘지동판의 크기는 가로 17.2cm 세로 28.9cm이며 그 안에 세로로 6간의 칸막이 공간을 만들어 5간에 각각 9 · 9 · 9 · 10 · 2자를 쌍구하여 음각으로 새겼으며 마지막의 약간 좁은 공간에는 약간 작은 글씨로 9자가 새겨져있다.

새긴 방식은 앞면을 磨整한 동판에 쌍구한 글씨를 미세한 鈍釘을 두드려 완성한 것으로 드러난다. 뒷면에까지 필세가 통한 이른바 ‘力透紙背’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子’자에서와 같이 실수가 들어난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필순에 따라 새긴 것이 확연하다. 이는 거의 같은 시기에 새겨진 이천 영원사 무구정탐원기의 방식과 동일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會昌四年 歲次甲子季秋之月 兩旬九日遷化 廉巨和尚塔去釋迦牟尼入涅槃 一千八百四年矣
當此國慶膺大王之時
회창4년 갑자해 9월 29일 입적하였으니 염거화상탑은 석가모니불이 열반해 든 해와의 거리가 1804년이다.
이 나라 경응대왕 때에 해당된다.

- 서풍과 異體字의 사용

염거화상동판묘지의 서풍은 삼국 魏대 鍾繇의 宣示表나 薦季直表에서 보이는 결구법과 납작한 體勢를 엿볼 수 있으며 왕희지의 樂毅論 · 黃庭經등에서 나타나는 단아함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다 陳에서 隋에 활동한 왕희지의 칠세손인 智永禪師의 세련된 露鋒필법이 가미되어있고 또 起筆 및 收筆 그리고 趯法에서 지영선사의 친제자로서 초당시기에 활동한 虞世南의 필법이 많이 드러난다.

종합하면 중 · 왕의 기저에다 지영선사의 화려함을 더하고 당대의 여럿유평가운데에서도 특히 우세남의 외유내강과 圓融 및 迺麗의 특징이 잘 어우러진 풍격이라고 하겠다.

異體字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年’자를 ‘季’자로 서사했는데 이는 전서의 전형적인 글꼴에서 나온 것이며 예서에서는 물론 남북조에서 수당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용되어진 자형이다.

‘兩’자에서 세로획을 길게 가장 마지막에 굽는 예는 북위 · 북제등 북방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당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형태이다.

‘遷’자는 ‘西’아래를 ‘寸’자로 처리했는데 이는 수의 元公墓誌나 寧贊碑등에 보인다.

‘釋’자의 경우 ‘采’부를 ‘米’로 쓰고 다음의 ‘四’에다 점을 옮겨 쓰는 것은 왕희지의 集字聖教序와 북위의 글씨에서 보이며 당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여진 형식이다.

‘尼’자에서 ‘匕’를 ‘工’으로 쓰는 것은 북위의 侯太妃造像에서 보이며 수를 지나 당에서는 보편화되어진 자형이다.

‘國’자에서 ‘口’안에 ‘王’자를 쓴 예는 동위 李顯族造像에서 나타나며 북제 · 북주에서도 쓰여졌고 수의 龍山公墓誌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당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은 형태이다.

<붙임1>

추경부대 있는 출렁사회, 깨끗하게 거름난 대한민국



국립춘천박물관

수신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보물 지정 예고 국가지정문화재(염거화상탑지) 성분분석 결과 알림

-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유형문화재과-967(2015.02.23.)호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된 우리 박물관 소장 <염거화상탑지(본관6145)>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 : 염거화상탑지(본관6145)
 나. 성분분석 결과 : 구리(Cu) 99.02 ~ 99.14 ㎖%(세부 내용 붙임 참조)

- 붙임 : 1. 염거화상탑지 성분분석 결과 1부
 - 2. 국립춘천박물관 소장품 조사연구보고서 『선림원종염거화상탑지』 1권(별첨)
- 끝. 』

국립춘천박물관장



학예연구사	간담배	심장	전담지	국립춘천박물관 2016. 3. 6. 관장 최성주
필르자				
시할	학예연구실-239	(2016. 3. 6.)	경수 무형문화재과-1233	(2016. 3. 6.)
우	200-932	국립춘천시 조사과 산27-1(주석로70)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	/ chuncheon.museum.go.kr	
전화번호	033-260-1629	팩스번호	033-260-1629	/ kathy@museum.go.kr / 대국민 공개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염거화상탑지 성분분석 결과

- 조사 대상

염거화상탑지(본관6145), 크기 28.9×17.2cm,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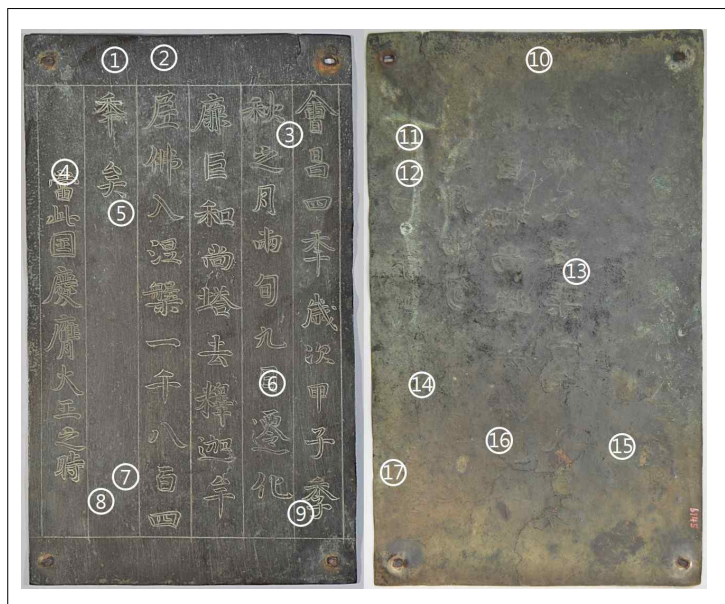
조사방법		장비	비고
성분분석	P-EDXRF	X-MET 5100, Oxford, United Kingdom	한 포인트 당 2~3회씩 측정하여 평균치를 기입

- 성분분석 결과

염거화상탑지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Cu) 함량이 99.02 ~ 99.14 wt%인 순도 높은 동판으로 확인됨. 현미경으로 표면 전체를 관찰하였으나 도금층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총 17곳 41회의 성분분석 결과에서도 도금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금이나 수은 성분은 측정되지 않았음.

No. (성분분석 위치 번호)	위치	원소(wt%)	
		평균	표준편차
1 ~ 9	앞면	99.14	0.41
		99.02	0.24
10 ~ 17	뒷면	99.14	0.41
		99.02	0.24

- 성분분석 위치



6.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

가. 심의사항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6.2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춘천박물관)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 수 량: 1구
- 규격(cm): 높이18.6 어깨폭 5.54 무릎폭 9.48 무릎 높이 1.8
- 재 질: 금동
- 제작연대: 14세기 후반 ~ 15세기 초
- 제작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강원도 회양군 장연리출토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원 황실 관영공방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우수한 조각으로 티벳불교미술의 요소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와 같은 불교조각의 영향이 여말선초 조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한국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원과 고려, 조선 불교조각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춘천박물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 전신을 뒤덮은 화려한 장신구, 높고 화려한 보관, 커다란 원반형 귀걸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에 가로로 긴 눈, U자형 영락장식 등은 티베트나 네팔, 혹은 티베트계 중국불상에서 확인된다. 반면 세 겹으로 연꽃잎이 겹쳐진 양련으로만 이루어진 대좌는 요대의 불상대좌를 비롯하여 고려불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좌는 양복련을 대칭으로 맞붙이고 상단과 하단에 연주문을 돌린 소위 티베트식 불상의 대좌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특징은 같은 금강산에서 출토된 1429년 아미타삼존불좌상이나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1453년명 금동아미타삼존불상 중 관음보살상, 1468년 순천시 매곡동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등과 같이 중국화한 티베트양식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불상양식을 결합하여 조선초에 새롭게 창출해 낸 상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춘천박물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가슴부터 무릎까지 덮고 여러 갈래로 이어진 장신구는 송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원대까지 이어졌고, 고려에도 유입된 전통적인 장식 요소이다.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출토된 금강산은 잘 알려진 것처럼 예부터 신앙의 중심지로 많은 사찰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려 후기에는 원 황실이나 고려내의 친원 인사들이 발원한 불상이 제작되어 봉안된 곳이기도 하다. 춘천박물관의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티베트계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은 한국불교조각에서 가장 이국적인 상 중 하나로 그 의미가 크며, 티베트계 중국불교미술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이 관음보살상에 보이는 오엽보관, 원반형의 큼직한 귀걸이, 파상형을 이루며 어깨 위로 흘러내린 보발, 꽃잎 모양의 완혼, 여러 겹 쌓아 올린 보발, 잘록한 허리, 가슴 앞으로 치U형으로 치렁치렁 늘어선 영락장식 등은 원·명대 라마양식의 보살상과 공통하는 요소이나, 세부적인 표현에서 명대 선덕연간 보살상과 좀 더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얼굴표정, 날씬한 허리, 균의의 주름단과 허리띠, 전신의 복잡한 영락장식, 연꽃대좌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14세기말 내지 15세기의 보살상으로 추정된다.

이 보살상은 손상된 부분이 거의 없고 표면의 도금도 온전하게 남아 있다. 관

음보살의 정확한 도상적 특징을 보여주고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세련된 표현기법과 뛰어난 조형미와 예술적 감성을 보여 주는 이 시기 이 유형의 불상을 대표한다. 특히 여말선초 크게 유행한 금강산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살상으로, 이 시기 불교신앙 연구 및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 보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도1.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보관, 앞 머리 부분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중인 이 금동보살좌상은 금강산(강원도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군데군데 도금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푸른 녹이 슬은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보살상의 세부를 보면, 여성적인 동그란 얼굴에 아래로 내려뜬 반개(半開)한 눈의 눈꼬리가 길게 새겨지고, 콧날이 오뚝하며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어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귀에는 커다란 원형의 귀걸이를 달았고,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관대(冠帶)의 위, 아래 테두리는 연주문(連珠文)으로 둘러졌고, 그 표면은 2줄의 사선으로 구획된 삼각형 공간 속에 각각 3개의 원문(圓紋)이 음각된 삼보(三寶) 문양으로 채워져 있으며, 같은 문양이 귀걸이 뿐 아니라 치마[裙]

를 묶은 허리띠에도 새겨져 있다.

관대의 중앙과 좌우에 둥근 원형의 장식이 모두 5개 양각되어, 그 위로 다섯 개의 입식(立飾) 서있으며, 그 가운데 중앙의 입식에 양각된 여래좌상[化佛]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식(偏袒右肩式)으로 대의(大衣)를 착의하였고 수인(手印)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두 손을 마주 포개어 선정인(禪定印, 아마도 阿彌



도2.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머리 뒷면, 보계 부분

陀定印)을 결(結)한 것으로 보인다(도 1). 이마 위쪽에 새겨진 앞머리는 중앙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 각각 앞쪽이 나선형으로 말려져 있고, 뒷머리에도 모발이 새겨져 있는데, 머리가닥이 부드럽고 양감이 느껴지도록 조각되었다. 높이 솟은 보계(寶髻)의 하부는 연결고리 모양의 장식이 둘러싸고 정상에는 연화대좌에 받쳐진 화염보주(火焰寶珠)가 올려져 있으며, 머리에서 양 어깨위로 수발(垂髮) 늘어져 있다(도 2).

몸통은 가늘고 가슴 부분은 약간 융기하여 양감이 느껴지며 동그랗게 젖꼭지가 표현되었다. 어깨에는 천의(天衣)를 쇼올처럼 두르고 그 끝자락은 아래로 늘어져 팔목을 감고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으며, 팔과 손목에는 2줄의 구슬로 이루어진 팔찌를 차고 있다. 장신구는 매우 화려하여 목과 가슴은 목걸이와 영락으로 가득 덮혀 있다. 목걸이는 2줄의 연주문(連珠文)으로 이루어지고 영락은 보관 관대와 귀걸이에서 보이는 원형의 장식문양이 이어진 형태로서 거기에 연주문의 장식이 매달려 늘어진 모습이다. 영락의 가닥은 복부의 화문(花紋)에서 모였다가 다시 3가닥은 아래로 내려와 연화대좌 위로까지 흘러내리고, 2가닥은 등 뒤로 돌아 위로 올라간다. 가슴과 허리 사이에 복부를 가로지르는 넓고 굽은 띠가 돌출해 있고, 그 아래로 옷주름이 앞, 뒷면의 좌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치마 아래에 또 한 벌의 옷(아마도 內衣)을 입었다고 생각된다.

손과 발은 사실적으로 조각되었으며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깊게 금을 새긴 것이 눈에 띈데, 손에는 원래 연화(蓮花)의 가지로 지물(持物)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화대좌는 양련좌(仰蓮座)로서 윗 열은 2중 복엽(複葉)의 연잎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잎의 사이로 부채꼴의 간엽(間葉)이 표현되었고, 2열부터는 테두리가 음각된 단엽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좌 바닥은 내부 직경 6.6 x 4.3cm 가량의 구멍이 뚫려있고 내부의 깊이는 16cm 정도 되는데, 얇은 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복장물을 납입하고 덮개[봉함판]를 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몸통 뒷면에 광배와 연결되는 광배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불감(佛龕) 등에 넣어져 봉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살상의 내부는 매우 깔끔하여 뛰어난 주조기술을 가진 장인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도3. 금동보살좌상, 고려 14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도4.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어깨 위의 수발부분), 고려 1330년

○ 내용 및 특징

본 관음보살좌상에서는 중국 원대에 황실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상이 머리에 쓰고 있는 5입식 형태의 보관과 세부 장식은 일반적인 고려후기의 보살상들의 통형(筒形) 보관과는 차이가 있다(도 3). 보계(寶髻) 하부에 표현된 연결고리 형태의 장식이나 보계정상에 화염보주를 표현한 것도 고려후기 조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이다. 특히, 이 보살상에서는 머리에서 양 어깨로 늘어진 수발(垂髮)의 형태가 웨이브 있는 한 다발의 머리다발 묶음이 어깨위로 늘어져 있는데(도 1), 고려후기 조각에서는 수발이 양 어깨로 내려와 여러 갈래의 둥근 고리형태를 이루면서 흘러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도 4). 또한 이 보살상 보관의 관대와 영락에 보이는 원형의 문양도 독특하며 대좌를 이루고

있는 연잎의 형태도 다른 고려조각들과 다르다. 따라서 본 관음보살좌상의 제작국적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원 황실에서 고려의 금강산에 대한 신앙이 크게 일어나, 1343년 순제(順帝, 1333~1368)의 황후 기씨(奇皇后)가 황제와 태자를 위해 금 천 정(千錠)과 장인들을 보내서 금강산 장안사(長安寺)를 대대적으로 중창하는 불사(佛事)를 일으켰던 시기에 이 보살상들이 원 황실로부터 직접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다. 주조기술이 뛰어나고 조형적으로 우수한 점에서 볼 때, 원 황실 관영공방의 장인이 제작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도5. 금동대세지보살좌상 傳 강원도 회양군 장연리 출토, 높이 16cm, 호림미술관

이 보살상과 거의 같은 크기의 금동대세지보살(호림미술관 소장, 도 5) 역시 회양군 장연리출토로 전해오는데, 같은 세트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형태나 세부표현에서 상당히 유사한 금동보살좌상이 두부를 잃은 상태로 파리 기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이들 관음보살좌상의 착의형식이나 세부장식의 표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상들이 고려말·조선초에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산에서 출토한 금동보살좌상으로 오른쪽 무릎을 세운 국립춘천박물관의 유희좌(遊戲坐) 금동보살좌상이나, 국립전주박물관 소장의 안락좌 금동보살좌상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여말선초 보살상들에서는 얼굴의 표정이나 가슴의 영락장식과 대좌형태 등의 세부표현에서 여말선초 조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현 상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금강산에 위치한 강원도 회양군(淮陽郡) 장연리(長淵里)에서 출토된 상인데, 현재 국립춘천박물관(본11724)에 있다. 전체높이가 18.6cm인 작은 크기이며, 머리에는 化佛이 새겨진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관음보살좌상이다. 이 보살좌상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국적인 모습이다. 특히 이처럼 보주로 장식된 화려한 보관과 전신을 덮은 영락장식은 한국불교조각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화려한 보관의 정 중앙에는 편단우견에 선정인을 한 化佛이 앉아 있으며, 보관의 양 옆으로 冠帶가 내려와 있다. 보관뿐만 아니라 높이 솟은 寶髻 위에도 보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자그마한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입가에 미소가 있는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다. 원반형의 커다란 귀걸이는 마치 수막새와 같이 중앙의 원형 장식 주위를 8개의 연판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 천의가 걸쳐진 양 어깨를 제외하고는 전신에 걸쳐 영락으로 장식되어 있다. 왼팔위에 올려둔 왼손의 손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원래 지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좌는 삼단의 양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대좌위에까지 영락장식과 천의자락이 드리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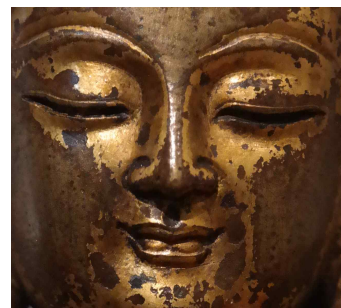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춘천박물관의 금동관음보살좌상과 유사한 예는 호림박물관의 대세지보살좌상, 기메박물관의 머리와 양 팔이 없는 보살좌상 등이 있는데, 특히 호림박물관의 대세지보살좌상은 원래 한 세트였던 것으로 여겨질 만큼 서로 유사하다. 이들 작품의 화려한 보관, 寶髻 위의 장식, 커다란 원반모양의 귀걸이, 전신을 덮은 영락장식 등은 통일기 신라와 고려 전기를 비롯한 이전 시기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이 상의 국적문제, 편년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어왔다.



<사진1> 춘천박물관 금동관음보살좌상

우선 국적문제에 있어서는 이들 작품이 매우 이국적인 특징을 지니기는 하였지만, 얼굴모습, 신체 표현 등에서는 티베트불상 혹은 티베트계 중국불상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티베트불상 혹은 티베트계 중국불상이 역삼각형의 얼굴형에 강한 인상의 얼굴모습이라면, 이 상은 둥근 얼굴에 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티베트계 불상의 눈썹, 눈, 입술에 새겨진 선명한 윤곽선 때문이다(사진 1,2). 가슴과 가느다란 허리를 강조하고 있는 원대 후



<사진2> 티베트계 중국불상

은 명대 티베트계 상들에 비하여 완만한 신체의 곡선을 지녔다는 점 또한 다르다.



<사진3> 춘천박물관
금동관음보살좌상

아울러 티베트계 중국불상에서 표현되는 천의나 군의 가장자리의 무늬가 있는 장식띠가 없다는 점(사진 3,4), 그리고 원반형의 커다란 귀걸이의 연판 문양이나(사진 5,6), 양련만으로 구성된 대좌의 형식 또한 전형적인 티베트계 중국불상과는 다른 점이다. 대좌의 경우 세 겹의 양련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련과 복련이 서로 맞붙어 있는 통상적인 티베트계 불상대좌에서는 벗어나 있다(사진7).



<사진4> 티베트계 중국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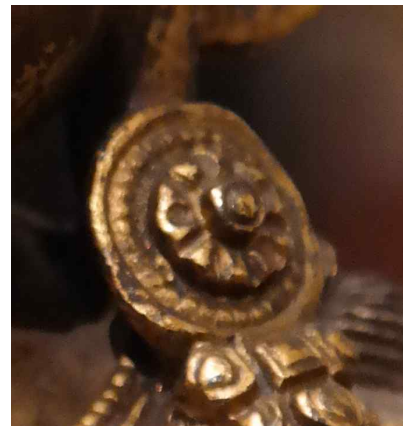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편년에 관한 것이다. 춘천박물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비롯하여 호림박물관 상, 기메박물관 상들은 모두 편년에 논쟁이 있는 작품들인데, 대체로 고려시대 작이라는 의견과 조선시대 작이라는 의견으로 크게 엇갈린다. 고려시대 작으로 보는 견해는 이 작품들이 원대 금동보살좌상과 유사하다는 점, 또 금강산이 고려시대에도 신앙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찰이 존재하였고, 특히 고려 후기에는 원 황실이나 고려 내의 친



<사진5> 춘천박물관
금동관음보살좌상 귀걸이

원 인사들이 발원한 불상이 제작되어 봉안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금강산 장안사의 경우 원나라 順帝의 황후인 奇皇后의 원당 사찰이었다는 사실도 이들 작품이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이다. 반면에 조선시대 작으로 보는 견해는 이들이 명대 금동보살좌상과 보다 더 유사할 뿐만 아니라, 원보다는 명대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금동보살상이 제작되었으며, 명의 사신들이 조선 왕실에 예를 갖추어 종종 불상을 헌납하였던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년명이 있는 금강산 은정골 출토 1451년명 금동아미타삼존불상 중 관음보살상(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장), 1468년 순천시 매곡동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춘천박물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요소들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인 장식 요소를 조화시킨 고려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조선 초의 예들은 보관의 형태나 대좌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춘천박물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사진6> 티베트계 중국불상
귀걸이

가슴부터 무릎까지 덮고 여러 갈래로 이어진 장신구는 송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원대까지 이어졌고, 고려에도 유입된 전통적인 장식 요소인데, 1451년명 금강산 은정골 상이나 1468년 순천 매곡동 상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찾아볼 수 없어 구별된다.



<사진7>티베트계 중국불상, 기메박물관



<사진8> 1451년 금강산 은정골 금동아미타삼존불상,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 조사내용

이 像은 강원도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 오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이며,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제1047호 금동대세지보살상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마도 단독의 보살상으로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아미타여래의 협시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살상의 보계는 3개의 능을 이룬 삼릉형 보계로, 뒷면에서 보면 두 가닥의 머리카락을 교묘하게 땡아 올려 복잡하고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고, 보계의 끝은 보주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마감하였다. 좌우로 가지런히 빗어 정돈한 보발은 자연스럽게 보관의 턱을 이루고 있고, 보관은 다섯 개의 꽃잎을 세운 五葉形 寶冠이다. 보관의 테두리의 상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슬문을 장식하였고, 그 내면에는 거치문으로 얇게 새겨 넣었다. 거치문 사이사이의 공간에는 3개의 어자문을 찍어 눌러 三寶紋을 이루도록 시문하였으나 정연하지는 않다. 테두리의 다섯 곳에 둥근 보주 장식을 덧붙이고, 그 위에 넝쿨이 서로 상승하며 등을 맞대 만들어낸 꽃잎형 장식을 세워 보관을 이루게 하였다. 중앙의 가장 큼직한 꽃잎 장식에는 化佛을 표현하여, 이 상이 관음보살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化佛은 편단우견에 아미타정인을 취하였다. 각각의 꽃잎형 입식에는 중앙에 네모형의 보석을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十’ 字形태로 아몬드형 보석을 감입하듯이 배열하여 장엄하였다. 이러한 장식은 15세기 明代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보관 아래로는 머릿결이 드러나게 보발을 빗질하여 보관의 턱이 되도록 하였고, 뒷머리도 중심을 향해 정갈하게 빗어 정돈하여 소홀함 없이 표현하였다.

귀는 약간 정면을 향했으며, 이륜을 둥글게 돌리고 상하각의 연골은 짧고 깊게 파내었다. 귓구멍은 곡옥모양으로 깊게 파내었다. 길게 늘어진 귓불에는 원반 모양의 큼직한 화문의 귀고리를 부착하였다. 이마는 넓고 반반하며, 백호는 표현되지 않았다. 둥글게 휘어진 눈썹은 오뚝한 콧날로 반듯하게 이어졌으며, 콧방울은 크고 실재감 있게 묘사하였다. 도톰하게 부푼 눈두덩 사이에는 고요하게 선정에 잠긴 그윽한 눈매를 나타내었다. 깊은 인중 아래로는 도톰한 입술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었다. 얼굴은 역사감형의 가름한 형태이며, 광대뼈는 약간 돌출하였으나 볼살이 부드럽게 올라와 전반적으로 자비로운 관세보살상의 尊格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양감이 절제된 단정한 얼굴은 원·명대 라마불상의 영향으로 제작된 보살상에서 공통하는 요소이다.

天衣는 양어깨와 팔뚝을 감싸고 흘러 내렸는데,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팽팽한 탄력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왼쪽 팔꿈치 부근에는 작은 ㄴ형 주름을 표현하여 시대적 특성을 담고 있다. 목에는 이중의 연주문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가슴에는 큼직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영락을 걸치고 있다. 이 영락장식에서는 다시 3가닥의 U자형 영락장식이 상호 교차하며 늘어져 있으며, 중앙과 좌우에서 흘러내린 영락은 중앙의 큼직한 화문으로 연결되고 다시 허리와 다리 등 온몸으로 퍼져 나

가게 하였다. 이러한 복잡하면서도 화려한 영락식도 元·明代 라마불상 양식의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고, 호림박물관 금동대세지보살상이나 파리 기메박물관 금동보살좌상에서도 볼 수 있다.

裙衣는 가슴까지 바싹 올려 입었고, 잘록한 허리에는 腰衣를 걸쳤다. 요의는 보관의 테두리 장식과 마찬가지로 연주문과 거치문, 그리고 어자문 3개를 三寶紋처럼 넣은 벨트로 고정하였다.

수인은 오른손은 들어 손바닥을 위로하여 엄지로 자연스럽게 구부린 중지와 약지를 맞대듯하였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여 단전에 부근에 두었고, 지물은 없다.

반타원형의 연꽃대좌는 세련된 연잎을 세 겹으로 중첩하였는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승하며 단판에서 중판으로 변화를 주었고, 또한 꽃잎의 크기를 달리하여 상승감을 고조시켰다. 대좌의 앞쪽으로는 천의자락과 영락장식이 자연스럽게 드리워 기교를 더 하였다.

이 보살상은 호림박물관상 금동대세지보살상(보물)과 프랑스 기메박물관 금동보살좌상 등 여말선초 원·명대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일련의 불상들과 공통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불상은 거의 같은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동일한 계통의 작품을 범본이나 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인다. 특히 이러한 소형의 금동불상은 여말선초 금강산 신앙의 유행에 따라 이 일원에 많이 봉헌, 봉납되었다.



전 회양 금동관음보살좌상 정면



전 회양 금동관음보살좌상 배면



금동대세지보살좌상(보물 제1047호)



금동대세지보살좌상의 배면

7.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 (原州 鶴城洞 鐵造藥師如來坐像)

가. 심의사항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6.2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原州 鶴城洞 鐵造藥師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춘천박물관)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 수 량: 1구
- 규격(cm): 높이 109, 무릎 폭 76, 무릎 높이 17.5
- 재 질: 철조
- 제작연대: 나말여초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원주출토 철조약사여래좌상은 조형적으로 우수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나말여초기의 불상으로 철불의 제작기법 뿐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약사여래의 도상을 알려주며 원주지역에서 유행했던 조각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므로 한국조

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립춘천박물관 철조약사불좌상은 인간적인 얼굴 모습, 물결모양의 옷주름, 왼쪽 어깨 위의 가사를 묶은 띠매듭, 가슴까지 올려 든 오른손의 약그릇 등이 특징이다. 특히 물결모양으로 표현된 특이한 옷주름은 같은 원주지역의 봉산동 석불좌상과 일산동 석불좌상을 비롯하여 1020년 현화사 칠층석탑 부조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약그릇을 든 손을 가슴까지 높여 들고 있는 점 또한 이 불상의 특징인데, 통일기 신라 이전에는 그 예가 드물어 대략의 조성시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원주는 철의 주요생산지는 아니지만, 인근에 위치한 충주는 철이 풍부하다. 이런 이유로 남한강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인근 충주의 철을 이용하여 이곳 원주에서 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특히 이 철불이 있었던 원주 읍옥평은 원주천변에 위치해 있어 가능성이 있다. 원주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개경과 통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특히 고려전기 원주는 불교 및 정치적인 면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고려전기, 이곳 원주와 관련된 왕사, 국사가 4명이나 있으며, 원주 일대의 세곡을 모아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개경으로 운반하는 흥원창(興原(元)倉)이 있었던 곳이다. 아울러 물길을 이용하여 많은 주상(舟商)으로 부를 누렸고, 이를 통해 생겨난 재원은 원주나 충주의 대사찰 건립에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원주는 고려 개국 때부터 최소한 11세기 말까지 약 2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 왔고, 아울러 수로를 통한 인근지역과의 밀접한 교류, 그리고 풍부한 재원의 확보로 불교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들은 이곳 원주가 나말여초 이후 고려전기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곳 원주에서 발견된 5구의 철불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며, 춘천박물관의 철조약사불좌상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철조약사불좌상은 현재 광배와 대좌는 없지만, 남아있는 佛身의 상태가 양호하며, 철불 중 그 예가 드문 약사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고려전기 불교미술의 중심지역 중 하나인 원주의 대표작이라는 점도 이 철불을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호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이다.

○

이 불상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신체 비례와 단아한 형태미를 보여주고, 왼쪽 팔꿈치부근에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된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다. 특히 약기인을 취한 유일한 철불로서 그 조각사적 의의를 더해준다.

이 불상은 빈약한 머리에 불분명한 육계, 가름한 얼굴형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호, 가늘고 긴 목 등에서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 등 9세기를 풍미했던 현실적 사실주의 경향을 뚜렷하게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시대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를 가미하여 색다른 불상 양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어깨에 표현된 불꽃처럼 표현된 주름이라든가 오른 발목에 표현된 독특한 잔물결의 띠주름과 외매듭으로 묶어 나팔처럼 늘어뜨린 가사 끈의 표현, 꼬불꼬불 거리며 무릎 아래로 늘어뜨린 부채살 주름 등에서 시대적, 지역적 특색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철불은 9세기를 풍미한 전통적인 조형감을 바탕으로 고려 전기의 시대적, 지역적 특색을 가미하여 이룩한 완성도 높은 불상으로 평가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이 철조약사여래좌상(도 1)은 일제강점기까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읍옥평) 들판에 방치되어 있던 다섯 구의 철불 가운데 하나로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불상은 전체높이 110cm로 등신대(等身大)에 가깝고, 어깨는 둥글게 처진 모습이며, 신체 비례가 살아있는 사람과 흡사하다.

머리에는 나발이 표현되었는데 일부 훼손된 부분도 눈에 띠며 육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마는 넓지 않으나 머리로 이어지는 발제선이 부드럽고 중앙에 작은 백호(白毫)가 얇게 새겨져 있다. 얼굴의 눈꼬리가 길고 코끝은 다소 뭉툭하며 인중이 넓고 긴 편인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 양쪽 귓불은 끝이 절단되어 훼손된 상태이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는데 양감이 느껴지며, 가슴은 약간 앞으로 융기하였다.

왼쪽 어깨 아래로 대의(大衣)의 매듭장식이 리본처럼 표현되었고 팔과 복부, 다리를 덮은 대의와 치마의 주름은 물결처럼 새겨져 있다.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올려서 약발(藥鉢)을 받쳐들고 왼손은 무릎 위에 내려놓아 약기인(藥器印)의 수인을 나타내고 있다. 불상의 뒷면을 보면, 등판의 위쪽으로 광배와 연결되었던 광배축이 돌출되어 있고 가사의 뒷면이 사선으로 새겨져 있으며 옷주름은 물결처럼 양각되어 있다. 불상의 하부는 크게 열려있고 내부에는 균데균데 회색의 조형토가



도1. 철조약사여래좌상, 나말여초 10세기, 국립춘천박물관

보이고 붉은 녹이 슬어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철조약사여래좌상의 특이한 점은 철붙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주조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철붙은 분할주조법(piece mold cast, 삭중자주조법)으로 주조하게 되면, 외형틀을 분할하여 떼어냈다가 다시 잇기 때문에 분할선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철조약사여래좌상에서 분할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할주조법이 아닌 밀납을 사용한 실납법(失蠟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제작기법 외에도 철조약사여래좌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속적인 상호(相好)인데, 콧망울이 크고 콧구멍까지 깊게 새긴 얼굴표정은 같은 원주에서 출토한 철조아미타여래좌상의 얼굴(도 2)



도2. 철조아미타여래좌상, 나말여초, 원주 학성동출토, 국립중앙박물관



도3. 석조약사여래좌상, 나말여초, 원주 봉산동출토, 원주시역사박물관



도4. 석조약사여래좌상, 통일신라 889년, 경북 영양

에서처럼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철조약사여래좌상에서 보이는 옷주름의 표현도 독특하다. 복잡하고 동적(動的)인 물결모양의 옷주름은 원주지역에서 유행했던 듯한데, 원주 봉산동출토 석조약사여래좌상(도3)과 비교하면 지물을 든 손이 왼손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재료가 화강암과 철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옷주름이 상당히 유사하다.

철조약사여래좌상이 들고 있는 발우형태의 지물은 만당기(晩唐期) 도상의 영향

으로 신라하대부터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둥근 보주(寶珠) 또는 약함(藥盒) 형태였던 약사여래의 지물(持物)이 신라하대에 와서는 영양 연당동 석조약사여래좌상(889년, 도4)에서 보이듯이 ‘뱀’이 가득 담긴 발우(鉢)같은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발우 형태의 지물은 고려시대 조각으로 이어져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1346년)의 지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현 상

국립춘천박물관의 철조약사불좌상은 강원도 원주에서 발견된 것이다. 현재 원주 철불은 모두 5구가 남아있다. 이 중 3구는 동일한 양식을 지닌 편단우건의 철불좌상이며, 나머지 2구 중 하나가 바로 이 철조약사불좌상이다. 3구의 편단우건 철불좌상과 이 철조약사불좌상은 모두 원주 本部面 邑玉坪(옥뜰)에서 발견된 것인데, 읍옥평은 지금의 학성동 일대에 해당하며 원주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철조약사불좌상은 편단우건의 철불좌상 3구와 함께 읍옥평 뜰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朝鮮古蹟圖譜』 7, 圖3200), 1916년 조선총독부로 옮겨왔고,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중이다.

이 철불좌상은 오른손을 가슴까지 들어 손에 藥器를 받들고 있는 약사불이다. 나발의 머리에 육계는 낮게 표현되어 있어 머리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눈은 가늘고 길며, 이마 중앙에는 크기도 작고 깊이도 얇은 작은 백호공이 있다. 양귓불은 파손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긴 목에는 삼도가 선명하다. 통견 법의에 옷주름이 물결모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에는 가사를 묶은 띠매듭이 선명한데, 이는 이 철불이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오른쪽 어깨 위의 띠매듭은 경주 남산의 삼릉계 석불좌상과 용장계 석불좌상을 비롯하여 같은 원주지역의 봉산동 석불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철불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또 오른손을 가슴까지 들어 약그릇을 들고 있는데, 통상 왼손을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두고 그 위에 약그릇을 두는 경우가 많은 점을 상기하면 이 점 역시 이 불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철불 중 약사불은 장곡사 상대웅전의 약사불 등 몇몇 예가 있지만, 대부분 약그릇을 잃어버렸으며, 원주 철불처럼 약그릇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드물다. 등에는 광배를 꽂았던 고리가 있지만, 광배는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대좌는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유리원판사진(유리원판번호 M25-10 『유리원판목록집』 제V 권-312)에는 이 철조약사불좌상이 방향의 部材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사진1). 아울러 사진 속 불상과 배경과의 관계로 짐작해 보면 상이 바닥면과 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발견 당시 불상을 받치고 있는 석재는 상당한 높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방향의 석재가 원래 이 약사불의 대좌인지, 맞는다면 일부분만 남아있었는지, 혹은

전체가 모두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철조약사불좌상을 근정전으로 옮겨온 후에 찍은 또 다른 유리원판사진(유리원판번호 M768-12 『유리원판목록집』 제IV권 p. 116)에는 이 상이 삼단팔각대좌에 앉아 있다(사진 2).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진 속 대좌의 모양이나 상태로 판단해 보면 원주에서 근정전으로 옮겨온 후 원주 철불들을 봉안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옮겨온 편단우견 철불좌상의 유리원판사진(유리원판번호 M768-11)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대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장의 사진 속 대좌, 즉 읍옥평 뜰 사진에서의 방형 대좌와 근정전 사진 속 대좌와의 관계는 이 후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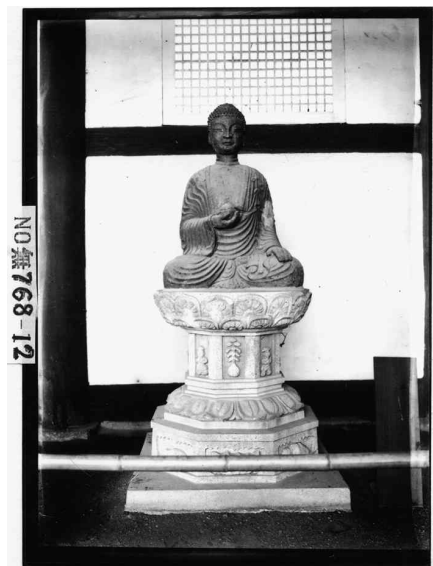
이 철조약사불좌상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녔다. 물결모양의 독특한 옷주름, 왼쪽 어깨 위의 세모꼴로 접힌 가사와 띠매듭, 오른손을 가슴까지 들어 약그릇을 들고 있는 손 등은 이 철불좌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원주지역의 봉산동 석불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불상 뒷면의 옷주름에 이르기까지 봉산동 석불좌상과 같아 이들을 동일 형식을 지닌 동일 유형의 작품들로 보아도 무방하다(사진 3,4). 철조약사불좌상과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의 경우처럼 약함을 가슴까지 올려두고 있다거나 왼쪽 어깨위의 세모꼴로 접힌 가사 주름이 표현된 점은 1085년 지광국사 현묘탑 옥개석의 불좌상과 동일한 형식이어서 지광국사 현묘탑과 시기적으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물결모양의 가사 주름은 1020년 현화사 칠층석탑 부조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이 철조약사불좌상의 조성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원주지역은 9세기경 9주5소경의 한 곳이었다가 고려 초기 110여개 主縣의 하나로 바뀌었다. 고려 초 원주는 4명의 왕사와 국사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는 당시 개경에서 배출한 왕사·국사와 같은 숫자이다. 특히 흥법사의 진공대사(眞空大師) 충담(忠湛 869~940), 거돈사의 원공국사 지종(圓空國師 智宗 930~1018), 그리고 법천사의 지광국사 해린(智光國師 海麟 984~1070)의 경우 사후 그들의 승탑과 탑비가 원주에 조성되었다. 불교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원주 원씨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원주가 이처럼 불교 및 정치적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데에는 원주의 지리적 위치가 큰 몫을 하였다. 남한강 물길을 따라 개경과 통하는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곳 원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주의 지리적 이점은 남한강 유역에 위치한 원주가 수도인 개경과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지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이유로 또 이 곳 원주에는 주변의 세곡을 일단 모았다가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여 개경으로 운반하는 전국 12개 조창 중 하나인 흥원창(興原(元)倉)이 있었으며, 물길을 이용한 주상(舟商)으로 부를 누렸다. 이를 통해 생겨난 재원이 결국 귀족들이 원주나 충주에 대사찰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곳 원주는 고려 개국 때부터 최소한 11세기 말까지 약 2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어 왔고, 아울러 수로를 통한 인근지역과의 밀접한 교류, 그리고 풍부한 재원의 확보로 불교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들은 이곳 원주가 라말여초 이후 고려전기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춘천박물관의 철조약사불좌상은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원주 봉산동 석불좌상



<사진 4> 원주 철조약사불좌상



○ 조사내용

이 약사여래좌상은 원래 原州郡 本府面 邑玉坪의 노천에 항마촉지인을 결한 철불좌상 3구와 함께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16년 조선총독부로 옮겨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으며, 현재는 같은 곳에 있던 항마촉지인 철불 2구와 함께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대개 鐵佛은 높은 용점으로 인하여 분할주조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 결과 불상의 표면에는 외형틀을 이어붙인 분할선의 자국이 남게 된다. 그런데 이 불상은 鐵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할선이 보이지 않고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어 밀납주조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과학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머리는 정수리로 갈수록 좁고 뽕족하게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밤톨모양처럼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머리와 육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머리칼은 나발로 빈틈없이 처리하였다. 가름한 얼굴에 눈썹은 날렵하게 휘어져 복스럽게 생긴 큼직한 콧날로 이어졌고, 얇은 입술에는 입가를 눌러 차분한 미소를 만들어 내었다. 눈매는 버들잎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 그윽하게 처리하였으며, 시선은 고개를 꼴꼴이 들어 정면향을 취하였다. 귓불은 손상되었고, 상하각의 연골은 불분명하며 귓구멍은 曲玉모양으로 깊게 파내었다. 가늘고 긴 목에는 링일 두른 듯 굵은 삼단의 삼도를 표현하였다. 노출된 가슴은 쇠골선을 드러내지 않고 미묘하게 처리하여 부드러운 모델링을 보여주고, 등 뒤에는 광배를 꽂았던 축이 남아 있다.

착의법은 상의(上衣) 위에 대의(大衣)를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뒷면에 두 장의 대의가 교차하는 모습을 분명히 표현하였다. 특히 이 불상은 편단우견으로 걸친 대의의 끝단을 왼쪽어깨 뒤로 바로 넘기지 않고 승려의 가사처럼 끈으로 묶어 고정된 점이 특색이 있고, 이 때 생기는 주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대의를 끈 장식으로 묶어 마무리한 것은 동화사 입구 마애여래입상이나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여주 금사리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같은 원주지역인 원주 봉산동 석조약사여래 등 나말여초기에 조성된 불상에서 많이 보인다. 특히 大衣의 단에 석류모양의 장식을 덧대고 여기에 끈을 달아 낸 모습과 단출하게 묶은 띠매듭, 그리고 그 아래로 나팔처럼 벌어진 주름의 형태 등은 같은 지역에서 제작된 원주 봉산동 석조약사여래좌상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이 철불은 이러한 석불들과 같은 범본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른손은 복부 부근에 가지런히 들어 고봉으로 담긴 藥盒을 받쳐 들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손등을 보인 채 축지인으로 내려놓았다. 이러한 수인 또한 손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봉산동 석조약사여래좌상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불신에 표현된 옷 주름은 입체적으로 날선 주름이 물결치듯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는데, 특히 오른쪽 上膊을 불꽃처럼 피어오르듯 휘감은 물결 주름이 인상적이다. 이러한 주름은 傳 적조사지 철조여래좌상이나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서산 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949년경) 등 고려전기 철불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양식

적 특징이어서 이 불상의 편년설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주름은 후대로 갈수록 좀 더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충주 단호사와 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등 고려 중기 불상에서도 이러한 여운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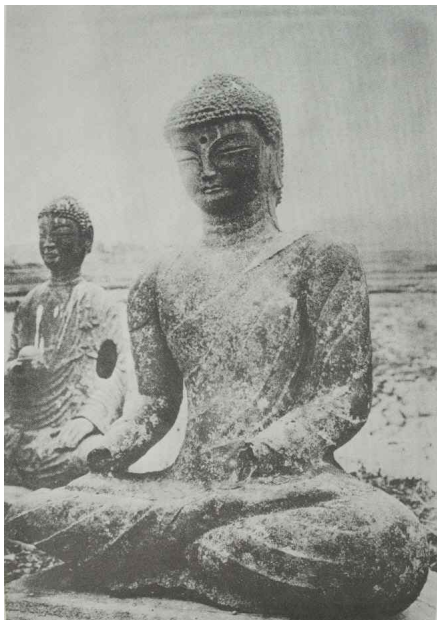
길상좌로 앉은 무릎에는 가지런히 반복된 호형의 주름으로 처리하였고, 오른 발목을 덮고 늘어진 띠 주름에 U자형의 잔 물결주름을 반복적으로 집어넣은 점이 특색이 있고, 무릎 앞으로는 꼬불꼬불 율동적으로 처리한 부채살 주름을 펼쳐 놓았다. 이러한 주름 표현 역시 원주 봉산동 석조약사여래좌상이나 일산동 석조비로자나불상 등 원주 일대에서 제작된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어 하나의 지역적 특징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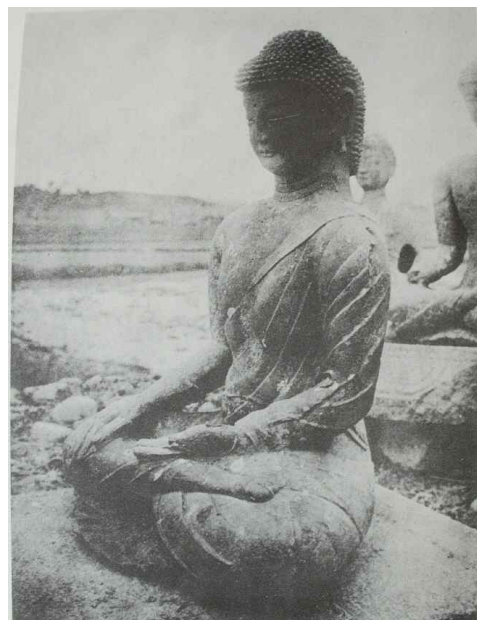
원주 철조약사여래좌상



원주 철불상 전시현황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원주철불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원주철불

8.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順天 梅谷洞 石塔 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三尊坐像)

가. 심의사항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9.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順天 梅谷洞 石塔 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 수 량: 불감 1점, 불상 3구, 발원문 8매
- 규격(cm): 아미타여래 높이 12.5, 상높이 9.73, 어깨폭 3.5, 무릎폭 5.54
관음보살 높이 11.5, 상높이 9.5, 어깨폭 3.5
지장보살 높이 9.8, 상높이 8.8, 어깨 폭 2.9, 무릎폭 4.5
청동불감 높이 24.6, 전체너비 24.6×12.8
발원문 가로 48.2~49, 세로 6.6~8.7
- 재 질: 청동, 금동
- 제작연대: 1468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순천 매곡동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제작시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조선초기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의 기년작(紀年作)으로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조각적으로도 우수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 삼존상은 여말선초기에 유행했던 아미타·관음·지장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 도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탑내 봉안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佛龕세 트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불상과 불감, 발원문 모두 온전하게 남아 있어 그 가치를 더 해준다. 한편 청동불감은 불감으로서는 드물게 팔각지붕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왓골은 물론 용마루의 치미나 귀마루와 추녀마루의 잡상까지 표현하여 당시 건축물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이 본존불상과 지장보살상은 전통적인 조형 양식에 외래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대양식을 만들어 내었으며, 관음보살상은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된 이목구비, 역삼각형의 가름한 얼굴형태, 잘록한 허리, 앙복련이 맞붙은 삼각형의 연화대좌 등에서 여말선초기에 유행했던 원·명 라마불상 양식의 영향 아래 제작된 불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삼존불과 불감은 1468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一禪과 牧庵 등의 조성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조선 초기 불상 연구의 기준작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

순천 매곡동 석탑의 사리공의 불감안에서 발견된 아미타불·관음보살상·지장보살상은 발원문과 복장유물이 함께 발견되어 1468년에 조성된 것이 확실한 기년작으로 중요작품이다. 삼존불은 단정하고 이 시기 다른 불상에서도 나타나는 명상에 잠긴 정적인 분위기를 하고 있다. 청동불감은 견고한 형태의 팔각지붕이며 지붕에는 치미나 잡상까지 표현되어 있어 당시 건축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순천 매곡동 석탑안에서 발견된 청동불감과 아미타삼존불상은 제작시기가 분명하고 출토지가 확인되었을 뿐만아니라 단정하고 정제된 조각기법을 통해 명상에 잠긴 정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수작으로, 조선초기 불교조각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함께 출토된 복장품<발원문 2조(8매)와 불사리 4과, 수정제 구슬 3개, 청동팔엽판 1개, 청동원형판 1개, 광물(은으로 추정) 3개, 수정조각 3개>들도 일괄로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동아미타삼존상은 관음과 지장으로 이루어진 아미타삼존불의 형식이라든지 각이 진 지장보살상의 두건 표현 등 조선전기 15세기적 특징을 드러내며 이는 1468년 이라는 제작시기와도 부합된다. 반면 불감은 탑에서 유출되면서 임의로 수리되어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불감 안에 불상을 안치했을 경우 그 규격이 잘 맞고 전각형 불감이라는 형식적인 특징에서 1468년이라는 불상의 제작시기와 부합되며, 지붕의 곡선과 구조 등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작품이다.

따라서 순천 매곡동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금동불감은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연대가 밝혀졌고 15세기 불상과 불감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귀중한 작품이며, 그 예가 없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불감의 형식 등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도 1 순천 매곡동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2003년 전남 순천의 어느 주택가에 있던 석탑부재에서 발견된 청동불감과 그 안에 들어있던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도 1)은 복장에서 발견된 백지묵서의 발원문을 통하여 세조 14년(1468) 4월 15일에 전라도 순천부 별량리(別良里, 현 별량면)의 죽사(竹寺)에서 일선(一禪)을 비롯한 280여명의 시주자들이 발원조성하여 석탑내에 봉안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발원문은 모두 2벌이 발견되었는데, 1벌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얼룩이 지고 먹색이 흐려져서 판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청동불감과 아미타삼존불상은 석탑의 1층

육개석 윗면에 납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불감은 팔각지붕의 전각형으로 아(亞)자형의 이중기단이 받치고 있는데, 지붕에는 균열이 있고 문비는 양쪽 모두 보수되었으며 우측에 균열이 있다. 지붕 용마루의 치미와 중앙의 돌기는 파손되었으나 선명한 기왓골과 귀마루 등에 원형돌기를 3개씩 두어 잡상을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삼존불상은 본존 아미타불의 좌우에 관음과 지장보살이 협시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상이다. 본존 아미타불상은 체구에 비해 두부가 크고 어깨와 좌쪽은 좁은 편이다. 육계는 크고 우뚝한데 중앙계주(中央髻珠)가 양각되어 있고 방형에 가까운 얼굴에는 반개한 두 눈과 큼직한 코, 꼭 다문 입술의 차분한 상호(相好)가 나타난다. 대의 옷주름은 비교적 유려하며 가슴에는 내의를 묶은 매듭이 표현되었고 두 손은 서로 가슴 높이로 올려서 엄지와 중지가 서로 가까이 마주 향한 수인(手印)을 결하고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 아래로 옷자락이 흘러내려 대좌를 덮고 있으며 대좌는 금색이 벗겨져 검은 색을 띠고 있다. 연판(蓮瓣)에 가느다란 세로선이 음각되어 있는 양련과 복련이 서로 맞붙어 있는데, 이처럼 중대가 표현되지 않고 상·하단에 연주문이 돌려져 있는 대좌 형태에서 티벳불교미술의 요소가 발견된다.

관음보살상 역시 몸매에 비해 두부가 크고 몸통이 가늘고 길다. 머리에는 높은 중앙 입식(立飾)이 있는 보관을 쓰고 있는데, 중앙에 화불(化佛)이 양각되어 있다. 어깨로 흘러내린 머리다발은 세가닥으로 늘어지고, 양 어깨에 쇼올처럼 걸쳐진 천의는 복부 앞에서 X자로 교차된 다음, 팔목을 감고 다시 아래로 늘어져 있다. 목걸이는 구슬로 표현되었는데, 섬세함이 떨어진다. 치마 자락은 대좌 윗면에 늘어져 꽃잎 같은 형태를 이루고, 대좌 형태나 양 손의 수인은 본존상과 동일하다.

지장보살좌상은 머리에 두건[風帽]을 쓴 두건형 지장보살상으로 관음보살상과 마찬가지로 가름한 얼굴에 이마에는 백호(白毫)가 양각되었고 두 눈은 반개하였으며 코는 크고 오뚝하고 입은 작은 편이어서 여성적인 상호를 보인다. 가사를 입고 왼손에 둥근 보주를 지물로 들고 있는 점 외에는 관음보살상과 거의 동일하다.

○ 내용 및 특징

순천 매곡동 석탑출토 아미타삼존불좌상은 고려후기부터 유행하였던 관음과 지장보살을 좌우 협시(脇侍)로 하는 아미타삼존불상으로서 세조 17년 4월에 점안된 것으로서 왕실불교가 한창이던 조선초기의 불교조각의 일면을 보여준다. 도상이나 양식면에서는 고려말이래의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이국적인 티벳불교미술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모습이 드러난다. 관음보살의 보관형태를 비롯해서 양련좌와 복련좌가 중대(中臺)의 표현 없이 서로 맞붙어 있는 대좌형식 또한 고려말에 원(元)으로부터 전래된 티벳불교미술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관음과 지장을 좌우협시로 하는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은 금강산에서 출토된 예도 전하고 있어 조선전기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금강산에서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1429년명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도 2)과 1451년 금동아



도 2 금동아미타삼존여래좌상, 조선시대 1429년,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도 3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조선시대 1451년,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미타삼존불좌상(도 3)은 순천 매곡동 아미타삼존불좌상과 함께 조선초에 금동으로 제작된 아미타삼존불상의 예로서 주목된다. 그런데 매곡동 삼존불상의 본존 아미타불좌상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이나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82년)과 같은 일부 15세기 불상에서처럼 육계(肉髻)가 산봉우리처럼 뽕죽하고 그 위에 정상계주가 표현되는 특징을 보이지 않고, 관음보살상의 보관이나 영락의 표현에서도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점은 순천 매곡동 아미타불좌상의 조성배경이 되는 발원자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 조사내용

이 청동삼존불감은 순천시 매곡동 북정리에 있는 화강암제 석탑에서 2003년에 발견되었다. 삼존불상에서는 불상의 제작시기와 제작주체를 알려주는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다. 백지에 묵서쓴 발원문은 가로로 긴 장방형으로, 4매를 이어 붙여 하나의 발원문이 되도록 하였다. 발원문에 따르면, 이 청동불감과 금동삼존좌상은 成化 4年 戊子年(1468년) 4月 朝鮮國 全羅道 順天府 南村 別良里의 竹寺 道人 一禪과 施主 牧庵, 正悟, 金用 등의 발원으로 彌陀, 觀音, 地藏 三尊을 제작한 것이다.

청동불감은 3개의 받침을 둔 낮은 기단 위에 난간을 돌리고 그 위에 사각형의 감실과 팔작지붕을 올린 불전형 불감이다. 용마루의 양끝에는 치미를 표현하였고, 기왓골도 선명하게 나타내었다. 귀마루와 추녀마루에는 3개씩의 원형돌기 모양으로 雜像을 표현하였다. 감실에는 문을 달아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문고리는 남아 있으나 자물쇠는 사라진 상태이다. 門扉와 내부에는 아무런 장엄이나 장식이 없으며, 바닥에는 몸체와 통하는 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시기에 제작된 불감은 대체로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 불감은 팔작지붕을 취하고 있어 특색이 있다. 이와 같은 팔작지붕형 불감은 남양주 수종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 불감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 불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양식이다. 한편 수종사 불감은 두들겨서 제작하고 지붕과 몸통을 따로 제작하여 연결하였으나, 매곡동 불감은 주물로 기단, 몸통, 지붕 등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기법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삼존상은 발원문의 기록대로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관음과 지장을 협시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크게 유행했던 아미타삼존형식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역사박물관 소장 전 금강산 출토 선덕4년명 금동아미타삼존좌상, 경태 4년명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좌상으로 이어진다. 제작기법은 대좌와 불신 전체를 한 틀에서 뽑아낸 일주식이며, 내부는 머리까지 뚫린 중공식으로 구조되었다.

본존불상은 覆鉢形의 큼직한 육계를 갖추었으며, 머리와 육계의 경계 지점에 둥근 계주를 표현하였다. 둥근 얼굴은 양감이 강조되었으며, 이목구비는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되었다. 귀는 둥글게 돌린 귓바퀴와 짧게 드리워진 귓불을 가졌으며, 상하각의 연골은 불분명하지만 귓구멍은 이 시기의 불상의 특징인 크고 작은 원 두개를 맞붙인 열쇠구멍 형태로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길고 두터운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며 가슴의 쇠골선은 뚜렷하지 않으나 약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실제 신체의 윤곽을 의식하고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佛衣는 양어깨를 덮은 통견으로 걸쳤으며,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균의와 이를 묶은 띠 자락이 표현되었다. 주름은 날이 선 힘 있고 입체적인 주름을 사용하였다. 낮고 좁은 무릎에는 상반신의 주름과 달리 얇고 간결한 주름으로 처리하였고, 걸가부좌한 두 발은 노출하였다. 무릎의 중앙과 좌우 측면에는 3곳에는 대의자락이 나뭇잎 모양으로 대좌 위로 드리워져 상현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현좌는 불교조각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려 불화나 조선 초기에 제작된 지은원 소장 관경변상도(1465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도(1476년), 수종사 금동불감의 후면불화 등 불교회화에서 더러 확인되므로 회화적 표현요소로 볼 수 있다. 수인은 두 손을 가슴에 타이트하게 들어 상하로 마주 대하게 하고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하품중생인을 결하였다. 대좌는 양복련이 맞붙은 삼각형 모양의 연화좌이며, 꽃잎을 작고 도톰하게 표현하여 양감이 있다. 상하 테두리에는 톱니바퀴처럼 거칠게 연주문을 돌려 장식하였다.

관음보살상의 무릎 앞으로는 중첩된 衣褶이 면발처럼 꼬불꼬불 거리며 펼쳐진 것이 특징적이다. 가슴에는 단조로운 영락이 드리워져 있으며, 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는 복부에서 ×자형으로 교차시켜 양 팔목으로 걸쳐 내렸다. 천의자락이 신체와 분리시켜 구조하여 입체감을 준다. 허리는 잘록하고 얼굴은 고요하게 선정에 잠긴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보관은 3개의 꽃잎을 입체적으로 세운 삼엽형 보관인데, 전체적인 형태는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존상의 협시보살상의 보관이나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상의 보관 등 조선 초기에 제작된 소형 금동보살상의 보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머리에는 불뚝 솟은 보계가 별다른 기교 없이 단순한 기둥처럼 표현되었다. 보관의 턱이 되는 보발은 가운데 가르마를 타 머릿결이 드러나게 가지런히 빗질하였는데, 이마의 중앙이 마치 아치형을 이루고 있어 인상적이다. 구렛나루와 귀밑머리를 타고 내린 두 가닥의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서 둥근 고리모양으로 엮고 다시 이를 3가닥으로 뽑아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웠다.

지장보살상은 관음보살상과 대응되게끔 손의 위치를 달리하여 수인을 표현하였고, 역시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었다. 머리에는 세로로 예리하게 날이 선 몇 개의 주름을 잡은 두건을 착용하였다. 가름한 얼굴에는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이목구비를 작고 오밀조밀하게 표현하였다. 불의는 통견식이며, 가슴에는 균의의 수평단이, 왼쪽 가슴에는 가사의 끈 장식이 표현되었다. 결가부좌한 두 발은 모두 노출시켰으며, 무릎 아래로는 관음보살상과 마찬가지로 꼬불꼬불 거리며 펼쳐진 주름을 나타내었다. 대좌는 양복련이 맞붙은 삼각형의 연화좌이다.

□

○ 현 상

2003년 순천매곡동 석탑을 옮기는 과정에서 청동 불감佛龕과 금동삼존불상, 그리고 불상 속에서 나온 발원문發願文, 사리를 포함한 복장물腹藏物이 석탑 부재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이후 밀거래를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되다가 문화재청 사법단속반에 의해 적발, 회수 되어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탑의 일층옥개석 위쪽 사리공의 불감안에 아미타불·관음보살상·지장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리고 불상안에서 흰 종이에 먹으로 쓴 발원문 2조(8매)와 불사리 4과, 수정제 구슬 3점, 청동팔엽판 1개, 청동원형판 1개, 광물(은으로 추정) 3개, 수정조각 3개 등 발원문과 복장유물이 함께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들 복장물들은 세 구의 불상 중 어느 불상의 복장물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어려우며, 그 중에 일부 복장유물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삼존불상과 함께 발견된 청동제 불감은 전각형태이며 지붕의 좌측과 뒷면에 일부 균열이 있다. 이 불감은 견고한 형태의 팔작지붕이며 지붕에는 치미나 잡상까지 표현되어 있어 당시 건축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삼존불은 아미타불상·관음보살상·지장보살상 삼존의 구성으로 본존불인 아미타불상을 다른 상들보다 크게 조성하여 본존불임을 나타내었다. 수인은 모두 아미타하품인을 하였고 보살상들의 수인은 좌우대칭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대세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을 배치하여, 지장보살-아미타불-관음보살상으로 이루어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유행했던 아미타삼존불의 구성 형식을 따르고 있다.

본존상은 육계가 높고 정상계주가 없이 중간계주만 있으며 백호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었고, 머리가 신체에 비해 큰 편이다. 측면에서 보면 머리의 뒷부분과 몸통이 납작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발은 두꺼우며 귀는 뒤로 젖혀져 편편하다. 두껍게 입은 대의는 양 어깨에 걸쳐져 가운데식으로 입었으며, 양 끝 옷자락을 가슴에 끼어 넣었다. 승각기는 가슴까지 올라와 있으며 양 무릎쪽은 어깨와 거의 같은 너비이다. 대의 자락이 나뭇잎모양으로 대좌를 덮은 형태인데, 이는 조선초

기에 조성된 과제사 보살상에서도 나타나는 형식이다.

관음보살상의 보관은 통도사아미타삼존불(1450년)가운데 보살상의 보관과 같은 수목형의 형태이다. 옷은 천의식으로 입고 있는데, 양 어깨에 걸쳐진 천의 자락은 가슴에서 교차하여 내려오며, 군의는 프릴형으로 무릎앞에 모아져 있다.

지장보살상은 두건을 쓴 형태로 옷을 입은 형식은 본존불과 같으나 왼쪽 가슴에 가사치레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양 무릎 아래로 모아진 옷의 표현은 관음보살상의 표현과 같다.

삼존불의 대좌는 모두 티벳식 대좌표현으로, 연꽃잎을 상하 맞물려 돌리고, 대좌의 위, 아래부분은 연주문으로 돌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들 불상의 양식은 외래양식의 영향에서 조선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삼존불의 보관과 의습의 표현에서 나타난 장식적인 경향에서 조선초기 불상의 양식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 규 격

①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전체 높이 : 17.0cm
불신 높이 : 13.0cm
무릎 너비 : 5.6cm 높이 : (왼) 1.0cm (오른) 1.0cm
대좌 너비 : 6.95cm
무게 : 367.17g

② 금동지장보살좌상

전체 높이 : 9.8cm
불신 높이 : 7.7cm
무릎 너비 : 4.5cm 높이 : (왼) 0.9cm (오른) 0.95cm
대좌 높이 : 2.1cm 너비 : (상부)5.15×4.6cm (하부)5.9×5.01cm
무게 : 196.84g

③ 금동관음보살좌상

전체 높이 : 11.5cm
불신 높이 : 9.65cm
무릎 너비 : 4.5 cm 높이 : (왼) 0.95 cm (오른) 0.95 cm (발 제외) 0.6cm, 0.65cm
대좌 높이 : 4.3 cm 너비 : (상부)×cm (하부)4.7×5.6cm
무게 : 220.44g

④ 청동 불감

전체 높이 : 25.7cm
지붕 너비 : 25.5cm 폭 13.5 치미 (좌): 1.8cm, (우): 1.7cm 합각 높이 : 4.7cm
기단부 상대 : 22.0 × 10.3cm 하대 : 21.2 × 10.2 cm

높이 : 하대 : 1.6cm 상대 5.5cm 중대 : 1.3cm

대좌 내부 : 12 × 3.7cm 구멍이 있음.

문 : (후보 된 듯) 8.5 × 8.0cm, 8.3 × 8.1cm



○ 현상 및 특징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과 금동불감이 다. 순천시 매곡동 석탑은 현재 탑의 옥개석과 지대석만 남아있으며, 탑의 부재를 옮기던 시점에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발견경위는 남아있지 않다.

삼존불상이 있었던 청동제불감은 팔각지붕 형태의 전각형으로 지붕 기와골까지 세부적으로 표현하였다. 불감의 하부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독특한데 그 용도는 확실하지 않으며 유사 사례도 없다.

아미타삼존불은 아미타여래좌상, 관음보살좌상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좌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로서 고려후기부터 조선전기까지 유행한 아미타삼존 형식을 갖추고 있다. 모두 자세가 곧으며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크고 어깨가 좁으며 무릎높이가 낮아 불균형적인 신체비율을 보인다. 얼굴은 장방형이고 작고 가느다란 눈, 작은 코와 입술을 표현하여 평면적이면서도 온화한 인상을 준다. 아미타불상은 중앙계주에 통견식 대의를 입었으며 옷자락이 대좌 밑으로 흘러 내린 모습이다. 관음보살은 머리에는 정병이 있는 수목형 보관을 쓰고 있고 양련과 복련으로 구성된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으며 관음보살의 착의법은 천의형 착의로 양 어깨 위에 두른 천의는 복부에서 X자형으로 교차하고 그 끝자락을 양 팔목 위로 걸쳐 대좌 위까지 흘러 내려 특이하고, 뒷면은 짧은 솔을 입은 듯 표현하였다. 팔에는 원반형 귀걸이, 세 개의 구슬형 수식이 달린 간결한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지장보살상은 관음과 마찬가지로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고 머리에는 두건을 썼으며 통견식 대의를 입었는데 목 주위로 목깃을 표현하듯 한 단이 접혀 있다. 두건은 이마선에 띠를 두르고 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수리에 두 개의 도드라진 주름이 잡혀 있고, 뒷면은 아무런 무늬나 장식없이 매우 밋밋하다. 장식은 관음보살과 다르게 목걸이가 생략되는 등 간결한 인상을 준다.

이들 삼존상은 각각의 대좌와 불상이 하나로 제작되었으며 상의 내부에서 복장 발원문과 함께 여러 복장물이 수습되었는데, 사리, 수정제 구슬, 금속 및 석제 잔편, 종이·실·양면원경과 팔엽개, 종이 문치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발원문은 두 벌로 백지에 묵서된 형식이다. 한 벌은 네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의 앞부분에 아미타, 관음, 지장의 삼존상을 발원하여 향후 구품연대에 태어나 삼존의 원만한 모습을 친히 보고 수기를 받고자 하는 발원의 내용이 밝혀져 있다.

또한 발원문의 제1장 가장 앞부분에 불상의 제작연대와 봉안장소, 발원 및 시주

자도 밝히고 있다. 매곡동 금동아미타삼존상의 제작연대는 ‘成化4年 戊子 四月日’ 이라고 기록되어 1468년 4월임을 알 수 있고 같은달 보름에 점안했다. 즉 이 불상은 석가탄신일 전후로 제작되었다. 봉안장소는 ‘전라도(全羅道) 순천부(順天府) 남촌(南村) 별량리(別良里) 죽사(竹寺)’라고 밝혀져 있는데 현재의 순천시 매곡동에서 남서쪽 방향인 별량면에 위치했던 죽사였음도 알 수 있다. 시주자는 도인 일선(一禪)을 비롯한 승려와 속인 277명이 기록되어 있다. 승려로 추정되는 인물은 5-60여명이고 성씨가 있는 재가신자는 120명 정도이며, 나머지 90여명은 莫非, 莫德, 德加伊, 訥加伊, 於叱伊, 甄女伊 등 한글명의 한자표기 등이 많아 평민 이하 신분층도 불상 조성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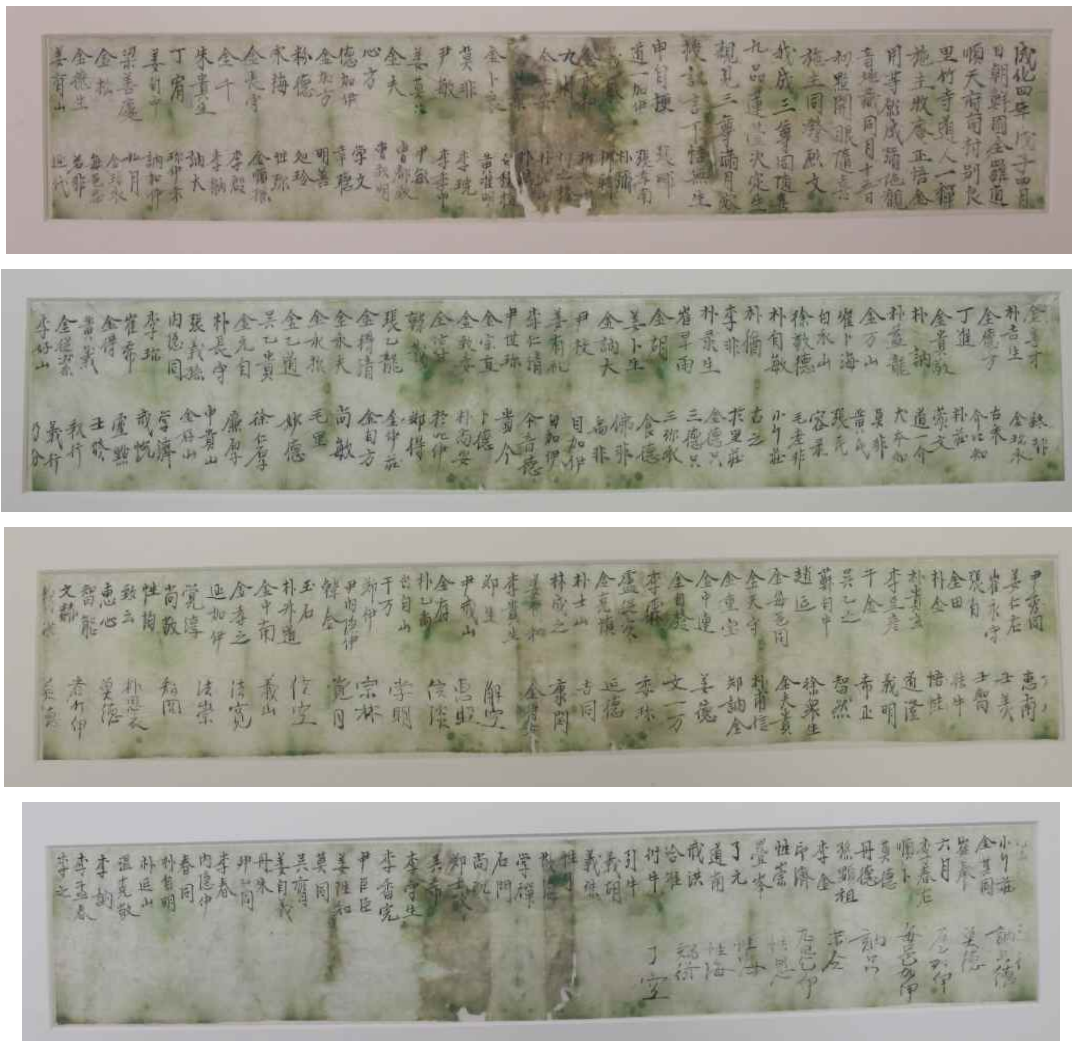
청동제 불감과 금동아미타삼존상은 많이 훼손된 상태의 탑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청동제불감은 지붕의 곡선이라든지 앞 부분의 열린 상태, 밑바닥의 방형 뚫림 등 이전에서 잘 보이지 않던 특징들을 보인다. 현재 이 불감은 유출된 다음 다시 찾았고 외부에서 수리하였음을 밝히고 있어 현재 문은 완전하게 제 것은 아니며 수리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도 1 순천 매곡동 청동불감



도 2 순천 매곡동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도 3 순천 매곡동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조성발원문

9. 정선필 풍악도첩(鄭敼筆 楓嶽圖帖)

가. 심의사항

‘정선필 풍악도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10.27.)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정선필 풍악도첩(鄭敼筆 楓嶽圖帖)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4폭
- 규격(cm): 세로 26.6~37.8 가로 23.0~37.6
- 재 질: 비단에 수묵채색
- 형 식: 화기 1폭을 포함한 14폭이 각각 낱장으로 개별 장황되어 있음
- 제작연대: 1711년(숙종 37)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신묘년풍악도첩>은 바로 현재까지 알려진 정선의 작품 중 가장 이른 연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훌륭한 기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주목된다. 초기작이므로 후기의 원숙한 화풍에 비해 일면 미숙한 부분도 엿보이긴 하지만, 풍악도첩에 수록된 그림들은 한결같이 화가

초창기의 활력과 열의로 가득 차 있다. 금강산을 처음 대하는 화가의 정서적 반응, 그리고 우리나라 산천을 앞에 두고 이에 가장 걸맞는 표현방식을 모색해내려는 겸재 필 진경산수화의 형성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신묘년풍악도첩>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선의 작품 중 현존하는 최초의 기년작이고, 제작시기와 배경, 유전 과정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준작이며, 정선 화풍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18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금강산 관련 기행을 담은 진경산수화 작품으로서도 가장 이른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볼 때, 이 작품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정선 필 <풍악도첩>은 1711년이라는 제작시기가 확실한 작품으로 조선시대 진경산수화를 대표하는 정선의 비교적 이른 시기의 대표작으로 꼽을만하다. 특히 <풍악도첩>의 주제인 금강산은 정선이 다룬 진경산수화의 가장 대표적인 제재이며, <풍악도첩>은 실제로 금강산을 여행하고 그린 紀行寫景의 결과물이다. 화풍과 필치에서 이른 시기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을 잘 보여주므로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전개와 발달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작이 되는 작품이다.

이와 같이 정선 필 <풍악도첩>은 한국회화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선 개인의 예술적 성취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화격을 보여주는 작품품이다.

따라서 작가와 제작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풍악도첩>은 미술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부족함 없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묘년풍악도첩>은 겸재 정선(1676-1759)의 작품이다.

조선후기 실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은 천부의 재능을 타고난 데다 어려서 부터 백악산 아래 살면서 畫興이 일 때 마다 산을 寫生함으로써 畫道를 수련해나 갔다. 그는 고전을 익히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자연의 원리를 궁구하고자 주역연구에 힘썼다. 또한 그는 당시 조선성리학의 굳건한 사상적 기반 아래 관념적이고 보수적인 누습을 벗어나 혁신적인 자연관을 지니고 있었던 三淵 金昌翁(1653-1722) 등으로 부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요인들은 그가 실경산수화의 대가가 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실경산수화는 17세기에 <北塞宣恩圖>(한시각 필), <谷雲九曲圖>(조세걸 필) 등 다른 화가의 작품들에서도 시도되었지만, 정선에 의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다.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금강산그림이다. 그는 생애 동안 세 차례 금강산 여행을 했다고 전해온다. 첫 번째는 1711년 정선 나이 36세 때로서, 이 때 <신묘년풍악도첩>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는 37세 때인 1712년으로 <海嶽傳神帖>이 그려졌지만, 현재 작품은 전해오지 않는다. 세 번째는 72세 때인 1747년으로서, 이 때 그려진 것이 현재 간송미술관에 전해오는 <海嶽傳神帖>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묘년풍악도첩>은 바로 1711년 제1차 금강산 여행 때 제작되었다한다. 총 13폭의 그림과 1폭의 발문이 습帖되지 못하고 모두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찍이 이왕가박물관 소장이었을 때부터 이와 같은 상태였다. 화첩 어느 곳에도 겸재 정선의 낙관이나 字號, 서명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일견해서 겸재 그림임을 바로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특유의 화법이 잘 드러나 있다.

풍악도첩의 내력은 발문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원 쪽 명주 바탕 풍악도 13폭은 우리 고조공 백석공께서 만년에 금강산의 명산을 다시 편답하시면서 정겸재와 마음대로 그리시며 폭마다 품평을 붙이시고, 또 당시의 詞友 諸公과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신 것이다.”라고 하여 이 <신묘년풍악도첩>이 백석공과 겸재가 함께 금강산 여행을 하면서 제작되었고, 원래는 백석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제시품평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문을 쓴 백석공의 고손자 당시에도 이미 唱和했던 시문들은 그림들과 분리되어 선대에 꾸며놓은 酬唱錄에 실려 있었기에, 이를 안타까이 여긴 나머지 자신이 시문들을 별지에 등사(臨書)하여 原圖의 아래와 해당 쪽의 좌우에 옮겨 적어 보기에 편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말미에는 발문을 쓴 시기(1807년)와 아울러 <신묘년풍악도첩>을 芹坊(과주로 추정) 別墅에 대대로 소장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오랜 동안 발문에 등장하는 ‘백석공’이란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그가 바로 ‘辛泰東’이라는 인물이며, 발문을 쓴 이는 백석공의 고손자인 辛泳이라는 사실이 규명되었다.(이경화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 1711년 금강산여행과 진경산수화의 형성」)

신태동은 자를 季享, 호를 白石이라 하며, 만년에 음사로 출사하여 용담현령을 지냈기 때문에 辛龍潭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辛應時(1532-1585)라는 훌륭한 선조를 둔 명망 있는 집안 출신으로 청풍계 인근에 거주하며 선대의 교유를 바탕으로 안동김문과 세교를 유지했고, 검재와 일생동안 친분이 돈독했던 李秉淵(1671-1751) 趙正萬(1654-1739) 같은 노론 학맥의 여러 명사들과 교유하였다. 신태동이 정선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떠났던 것은 정선 역시 백악산 아래 거주했으므로 오랜 동안 한 동네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일종의 동리인이라는 인간적 유대 관계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신묘년(1711년)에 백석공과 검재가 금강산여행을 했다는 것은 상술한 발문에서 만 확인될 뿐 여타 방증자료는 없다. 또한 당시 함께 갔던 다른 동행인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인지, 당시의 여행경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렵다.

<신묘년풍악도첩>에 수록된 그림의 내용을 기존연구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1. 金城披襟亭 2. 斷髮嶺望金剛 3. 金剛山內總圖 4. 長安寺 5. 碧霞潭 6. 佛頂臺 7. 百川橋 8. 海山亭 9. 三日湖 10. 高城門岩日出 11. 甕遷 12. 叢石亭 13. 侍中臺로 순으로 여행경로가 정리된다. 이것은 서울에서 시작되는 금강산 여행일정에 따른 것으로, 피금정과 단발령을 넘는 장면이 화첩의 시작으로 추정할 견해였다. 이에 반해, 그림의 내용이나 시인들의 제화, 품평시를 분석하여 정선이 金昌翁, 金時保(1658-1734) 일행과 동행이었다는 전제 하에 그 순서를 고성의 읍성에서 제작한 해산정, 문암관일출로 부터 시작하여 외금강으로 들어가는 백천교, 외금강과 내금강의 경계에서 그린 불정대, 내금강 중 가장 풍광이 뛰어난 명소를 그린 벽하담과 보덕굴, 내금강 입구인 장안사, 금강산을 나오며 그린 단발령망금강,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린 피금정의 순으로 여행경로를 보는 견해 또한 새로 제시되었으며, 일면 설득력을 지닌다.

이처럼 <신묘년풍악도첩>은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 작품은 검재의 진경산수화풍을 이해하는데 있어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묘년풍악도첩>의 그림들은 한결 같이 초창의 열기와 조심성으로 가득 차 있고 초행의 미숙성과 대담한 실험정신이 화폭마다 넘친다. 김창흡과 조유수(1663-1741)를 비롯하여 이병연, 이하곤(1677-1724) 등 당대 일급문사들이 남긴 제시, 제사, 발문의 내용이 <신묘년풍악도첩>의 그림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검재와 이들 문인들 간의 교유관계를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신묘년풍악도첩>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 작품들로부터

우리는 금강산을 초대면하는 화가 정선의 감흥과 함께 금강산의 정신을 간파하고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으로 이를 형상화려는 진취적 기상과 의지가 역력하다는 점이다. 그가 그 때까지 연구하여 체득했던 여러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원용되었으며, 결국 우리나라 산천에 적합한 독창적인 회풍이 창안되었다.

<신묘년풍악도첩> 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종류의 표현형식이 나타나 있다. 하나는 <시중대> <총석정><용천>, <해산정>, <문암관일출> 등 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형식의 실경산수화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며, 또 하나는 금강산 입산 이후의 작품들로서,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백천교에서 시작하여 단발령을 거쳐 피금정에 이르는 작품들이다. 후자의 화풍은 전자보다 능숙하고 다채로운 필묵법으로 구사되어 있으며, 화면구성이나 정취 또한 더욱 더 개성적인 장면들이 등장한다. 백천교에서 산행 중 휴식을 취하는 일행 주변의 松林에 다양한 농담을 구사하여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깊은 공간을 표현한다든가, 중심부분에 여행객과 시중드는 승려들을 포치하여 어떤 친숙한 정황을 보여준 점 등은 그 호례이다. 또한 米法山水나 『唐詩畫譜』와 『顧氏畫譜』 『三才圖繪』 등에서 여러 요소들을 발취해내어 그것을 실경을 해석하는 데 원용하는 방식 또한 겸재의 새로운 시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겸재 특유의 표현방식은 이후 자신의 실경산수화에서 더욱 더 개발되고 정제되었으며, 일면 매너리즘화 되기도 하면서 겸재 특유의 독특한 화풍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겸재양식은 조선 후기 실경산수화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문헌자료

최완수 『겸재 정선』 I 현암사 2009

이경화 「鄭敎의 辛卯年楓嶽圖帖: 1711년 금강산여행과 진경산수화의 형성」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11호 사회평론 2012



○ 유 래

이 작품은 1908년 이왕가박물관에서 개인에게 구입, 소장하다가 1930년 경 덕수궁에 이왕가미술관 지은 후 이관,소장되었다. 1962년 문화재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가 1970년 덕수궁 소장품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되면서 소장번호 덕901-10014로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현 상

본 작품은 현재 각기 날 장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1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13면의 그림과 1면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은 모두 동일한 견본이며 발문의 견본은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림과 발문의 크기는 각기 상이하지만, 그림의

경우 모두 화면 중앙 부분에 상하로 접혔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본래 화첩이었다가 과첩된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견본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채색도 잘 보존되어 있다.

○ 내용과 특징

이 작품은 현재 검재 정선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화면에는 정선의 관서와 인장이 없다. 다만 발문의 내용을 통해 이 작품이 정선의 작품으로 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의 화풍 상의 특징도 정선 특유의 필치와 기법 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선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과 관련된 제작배경, 제작시기, 화가, 화첩의 제목 등 주요한 사실들은 발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발문의 내용을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左袖本楓嶽圖十三幅 則我高祖考白石公 晚年再遍金剛內外名勝 而與鄭謙齋 隨意圖寫 逐段題品 又與當時詞友諸公酬唱 余自髫鬢 從篋笥間 窺見世藏舊 錄 而詩自詩看 畫自畫看 不知合見然後意趣 到今更翫 則詩中有畫 畫中有詩 方謀合粧 而白石公詩若評本草 暨諸公唱和手墨 已載先粧酬唱錄 今無由更覓 謹此謄寫于別紙 付諸原圖之下 其題韻記評 移錄于當幅之左右 以更合觀 噫 謹稽星霜 事亦在再去辛卯(순조7,1807년) 今歲九十又七年矣 時當宇丁卯流火 之上澣也 芹坊別墅世藏

발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풍악도>13폭이라고 기록된 이 작품은 白石公이라는 분이 鄭敼을 데리고 금강산의 내외명승을 여행하면서 그리게 하였고, 각 장면에 화제를 붙인 뒤 당시 여러 친구들에게 시를 지어 酬唱하게 하였다. 이 그림과 기록들은 발문을 쓴 필자의 집안에 전해져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백석공의 제평과 수창시 등 기록 부분은 수창록으로 따로 장황되었고, 그림 만 별도로 전해지게 되었다. 발문을 쓴 백석공의 고손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백석공의 글과 수창시 등을 종이에 필사하여 원래 그림 아래에 부쳐 함께 볼 수 있게 꾸미고 이 발문을 썼다. 발문의 말미에는 이 일이 있는지 두 번 다시 돌아온 丁卯年이라고 했는데, 정선의 생몰년 등을 감안하여 보면 금강산 여행과 화첩의 제작은 1711년이고, 발문을 쓴 때는 1807년 7월 상순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이왕가박물관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그림과 발문만 따로 분리된 상태였고, 이후 그러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렀다.

발문에 기록된 백석공은 이경화의 연구에 의하여 한양 장동에 살던 노론계 선비인 白石 辛泰東이고, 발문을 쓴 고손은 辛泳으로 밝혀졌다. 북악산 대은암 근처에 대를 이어 살던 명문가 선비 신태동이 부근에 살던 정선을 초빙하여 함께 내외 금강산과 관동 팔경 중 일부를 여행하고 이 작품을 제작하게 한 것이다.

이 작품은 발문을 보대로 한다면 현존하는 정선의 작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기년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각 장면의 構成과 筆墨法, 皴法과 樹枝法, 石法과 水波描 등 화풍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정선의 초기작으로서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기록된 대로 정선의 숨씨임을 알 수 있다. 정선은 13장면을 그리면서 경물의 조건과 형세를 잘 파악하여 반영하는, 對境에 따라 화풍을 조정하여 하나의 화첩이면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즉, <長安寺>, <碧霞潭>, <碧霞潭> 등 금강내외산의 경관을 그릴 때에는 중심 대상이 되는 경물을 크게 부각시키고 정선 특유의 구성법인 密密之法, 즉 뾰뾰한 구도를 애용하였다. 그러나 <碧霞潭>, <碧霞潭> 등 물가의 경관을 그릴 때에는 공간과 여백을 많이 두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등 화법을 조절하는 등 정선 특유의 화풍이 이미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에서 통천으로 가는 길 중간에 위치한 <瓮遷>과 같은 해안가 절벽을 그린 장면에서는 정선 특유의 과감한 구도인 대각선 구도로 절벽과 바다를 대비시키고, 바위를 표현하면서 강한 필치로 짙은 먹을 반복해서 그어대는 積墨皴擦法을 구사하였다. 정선 특유의 기법으로 유명한 이 기법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30대 중반 경 시도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30대 중반의 정선이 구사한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와 묘사력이 돋보이고 있는데, 동시에 이후 전성기 시절에 완성된 정선 특유의 화풍이 시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 화면에는 화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 제작된 금강산 여행을 기록한 화첩과 두루마리 그림의 일반적인 순서를 감안하여 각 장면의 순서를 재배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金城披襟亭, 2. 斷髮嶺望金剛山 (금강산 이전),
3. 金剛內山總圖, 4. 長安寺, 5. 碧霞潭, 6. 佛頂臺, 7. 百川洞(금강내외산),
8. 海山亭, 9. 三日湖, 10. 高城門巖觀日出, 11. 瓮遷, 12. 叢石亭, 13. 侍中臺(동해가 명승 및 관동팔경 중 일부)

금강산 여행과 관련된 현존작품들은 각기 약간씩 차이가 있는 장면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파악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는 본 작품의 순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정선의 <풍악도첩>에 대해서 거론한 대표적인 연구자들인 최완수, 박은순, 이경화는 본 화첩의 순서를 약간씩 다르게 배열하였다.

○ 문헌자료

최완수, 『겸재 정선』, 현암사, 2009

박은순,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1997.

이경화, 「정선의 《신묘년풍악도첩》」, 『미술사와 시각문화』 11, 2012.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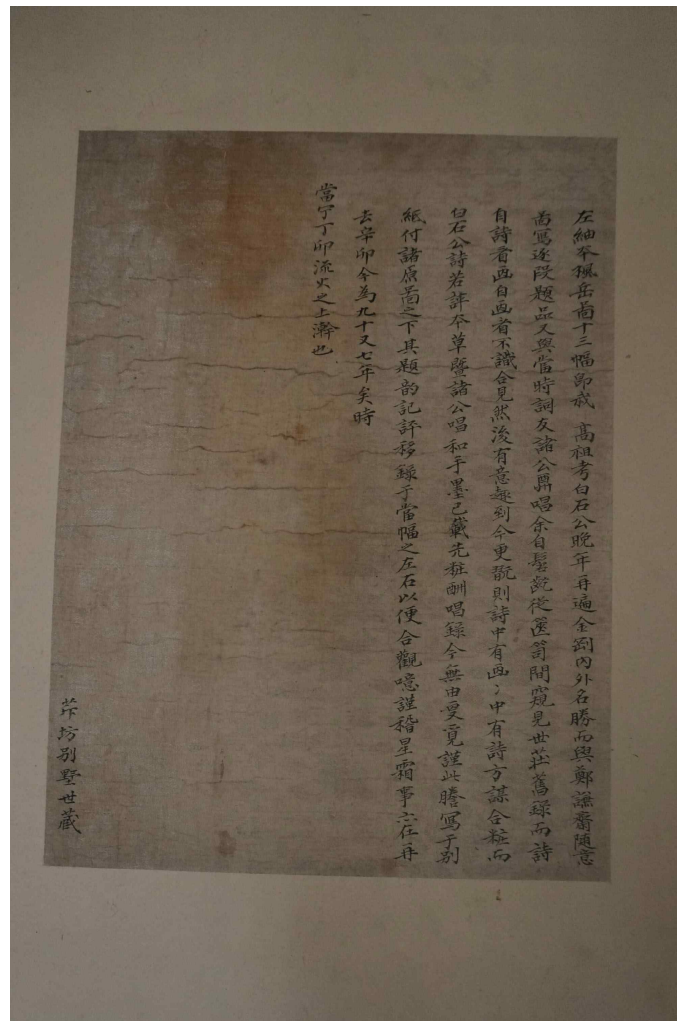
<정선 필 풍악도첩>은 현재 作帖者의 畫記 1폭(세로 33.0cm, 가로 23.0cm))과 그림 13폭 등 총 14폭이 낱장으로 장황되어 있다. 화기를 통해 白石公이란 인물이 여러 詩友諸公과 금강산을 두 번째 여행했을 때인 신묘년(1711)에 鄭澈(1676-1759)을 동행시켜 그림을 제작하게 하였음과, 원래는 동행한 사람들의 글을 모은 酬唱錄과 화평 등을 임서하여 그림 좌우에 붙인 시화첩을 만들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화기는 그러한 경위를 담아 정묘년(1807년) 음력 7월에 백석공의 高孫子가 쓴 것이다. <정선 필 풍악도첩>은 원래의 장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애초의 그림순서를 알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각각의 그림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3폭의 그림을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정리해놓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斷髮令望金剛>(세로 36.1cm, 가로 37.6cm) : 근경의 단발령과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毘盧峯 일대를 생략적인 구도와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하였다.
2. <金剛內山摠圖>(세로 35.9cm, 가로 37.0cm) : 내금강 全景을 부감시로 포착하고 토산과 골산을 조화시킨 정선 특유의 금강전도식 구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3. <四仙亭>(세로 36.0cm, 가로 37.0cm) : 관동팔경의 하나인 三日湖의 한 가운데에 있는 사선정을 그린 것이다.
4. <叢石亭>(세로 37.8cm, 가로 37.3cm) : 관동팔경의 가장 대표적인 명승지로서 정선은 네 개의 돌기둥과 총석정, 건너편의 환선정, 멀리 보이는 작은 섬들까지 한 화면에 포치하였다.
5. <長安寺>(세로 35.6cm, 가로 36.0 cm) : 금강산의 3대 사찰 중의 하나인 장안사와 그 앞의 虹橋를 그린 것이다.
6. <百川橋>(세로 36.1cm, 가로 37.6cm) : 외금강의 물이 모여 흘러가는 백천교는 금강산을 나가거나 들어오는 관문이였다. 그림에서도 쉬어가는 선비들의 모습이 그려지거나 가마를 가지고 마중 나온 승려들을 볼 수 있다.
7. <金城披襟亭>(세로 35.7cm, 가로 33.6cm) : 내금강을 갈 때 반드시 거치는 금성의 피금정을 그린 것이다. 남대천을 따라 늘어선 화보풍의 수목과 미점으로 처리된 원산에서 남종화풍이 뚜렷하다.
8. <門巖觀日出>(세로 35.9cm, 가로 37.6cm) : 삼일호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문암에서 동해의 일출을 바라본 모습을 그렸다.
9. <甕遷>(세로 26.6cm, 가로 37.4cm) : 마치 향아리를 엮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바위 절벽 甕遷을 화면 좌측에 치우치게 배치하고 나머지는 일렁이는 파도로 채운 대담한 구도이다.
10. <佛頂臺>(세로 37.2cm, 가로 34.3cm) : 화면 중앙에 수직의 암봉 형태의 불정대를 배치하고 여기서 바라보이는 12폭포를 원경에 배치하였다. 외나무다리와 오솔길을 따라 불정대에 이르는 길이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11. <普德窟>(세로 36.3cm, 가로 35.9cm) : 화면 중앙의 碧霞潭, 왼편의 金剛峯, 우측의 보덕굴을 그린 것이다.
12. <海山亭>(세로 26.8cm, 가로 37.3cm) : 고성(高城)의 대표적인 정자인 해산정을 중심으로 龜岩, 帶湖亭, 赤壁, 그리고 해금강에 솟은 七星峯까지 그 주변의 명소를 그렸다.
13. <侍中臺>(세로 36.5cm, 가로 26.4cm) : 관동팔경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시중대와 그 주변을 비교적 소상하게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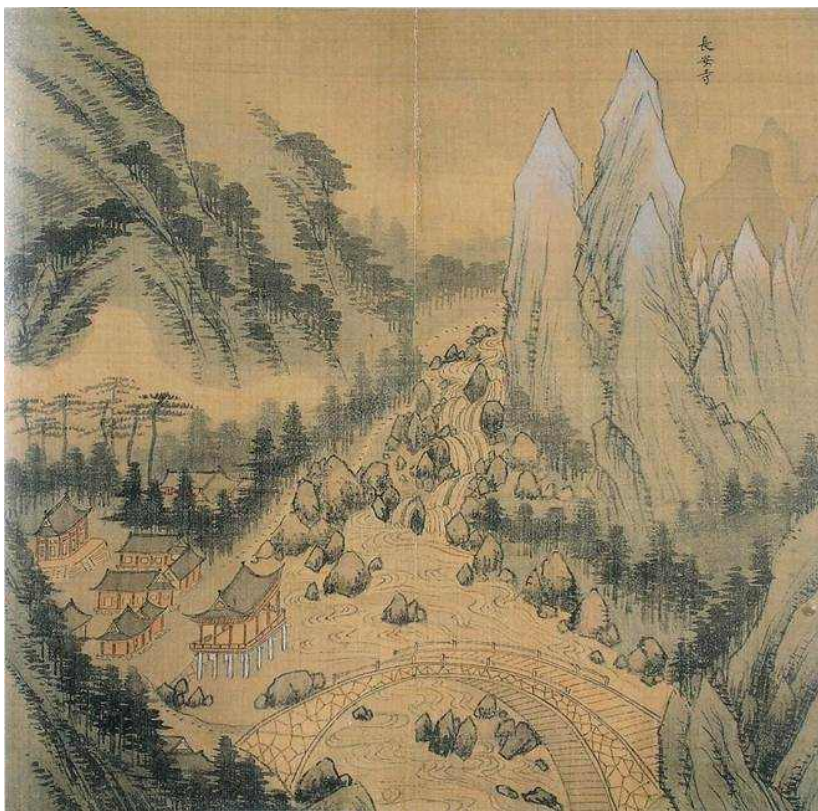
정선 필 <풍악도첩>은 암산 부분에 흰 채색을 가하고, 길을 뚜렷하게 표시하였으며, 주요 경관과 지형지물에 묵서로 명칭을 써 넣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방식과 상통하여 정선의 초기 진경산수화풍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풍악도첩>에는 수직준, 미점의 구사, 一字를 겹쳐 그린 상록수 표현 등 정선 특유의 화법이 다소 경직되고 조심스런 필치이지만 이미 잘 나타나 있다.



발문



금강내산총도



장안사

10. 완산부지도(完山府地圖)

가. 심의사항

‘완산부지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를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11.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완산부지도(完山府地圖)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죽고개로 249
- 수 량: 10폭
- 규격(cm): 190×537(장황 포함), 170×529(장황 제외)
- 재 질: 지본담채
- 형 식: 병풍
- 제작연대: 1875년 이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완산부지도>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회화식 지도로서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그 규모가 크고 장대하다. 그려낸 기량이 뛰어나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화사의 숙달된 솜씨로 추정된다. 이 작품에 관해서는 아직 까지 본격적인 논문이 없으며 아직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제작연대는 비록 19세기 후반으로 내려 오지만, 규장각 소장 <전주지도>와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주부지도> 4폭병

풍과 아울러 ‘전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회화식 지도라고 볼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이 작품은 지도로서의 기록적인 특징과 회화적인 표현성을 겸비한 작품으로서 19세기에 유행한 회화식 군현지도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

이 작품은 특히 산을 그릴 때 회화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회화성이 돋보이는 지도가 되었다. 회화적인 표현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이 지도를 제작한 화가가 당시 궁중의 화원이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특히 19세기 초 <동궐도>에 나타나는 산의 표현과도 비교가 되는 요소가 있고, 그에 준할 만큼 회화성이 뛰어난 점에서 주목된다. 이 지도는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전주부지도> 4폭 병풍과 비교가 된다. 본 작품은 전북대본에 비하여 제작시기는 늦지만, 전체적인 규모와 기록된 내용의 풍부성, 회화적인 표현의 우수함 등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조선시대 전주부가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는 현재 약 30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지도들은 형태와 묘사방법을 바탕으로 볼 때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널리 제작된 형태로 18세기 중반부터 만들어진 회화식 지도로 군현지도책에 삽입된 전주부지도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해동지도(海東地圖)』(권7, 규장각), 『여지도(輿地圖)』(권3, 규장각), 『지승(地乘)』(권4, 규장각), 『광여도(廣輿圖)』(권3, 규장각), 『여지도(輿地圖)』(2권, 국중), 『각읍지도(各邑地圖)』(전라도, 국중), 『전라도여지도(全羅道輿地圖)』(영남대 박물관), 『팔도지도초(八道地圖草)』(고려대도서관), 『동국여도(東國輿圖)』(고려대박물관) 등의 군현 지도책이다. 1리 방안위에 그려진 지도로는 규장각에 소장된 『호남지도(湖南地圖)』(권2)가 있다. 20리 방안위에 그려진 지도로는 『팔도지도(八道地圖)』(호남방여, 국중),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건, 국중), 『지도(地圖)』(충청·전라도, 장서각)이 있다.

이들 지도가 고을의 정보를 수합하여 중앙에서 편집한 지도인 것과는 달리 지방 화원들이 그린 지도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호남읍지(湖南邑誌)』(1871, 규장각), 『호남읍지(湖南邑誌)』(1895, 규장각) 등의 지리지에 삽입된 것이다. 조선 사회에서 19세기에 제작된 전국 지도는 18세기에 제작된 20리 방안 지도를 근거로 하였다. 지도가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지리 정보가 편집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진다. 이들 지도의 대표적인 것이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이다.

이와 같이 전국 지도가 방안 위에서 재구성되는 흐름과는 다르게 회화 형태로 지도가 제작되며 이는 이전의 지도에 비해 대축척의 형태로 재현된다. 대표적인 지

도가 1872년 제작된 『지방군현지도』(1872, 규장각)이다. 평양, 진주 등 중요 고을에 대해 회화지도가 제작되며 전주를 대상으로는 『전주지도(全州地圖)』(규장각), 『전주부지도(全州府地圖)』(전주대학교 박물관)과 『완산부지도10곡병풍』이다. 이들 회화지도는 족자식으로 만들어지나 일부 지도는 병풍식으로 제작된다. 지도가 병풍식으로 제작되는 것은 이전의 책자나 족자 형태와는 다르게 실내에서 항상 펼쳐져 있음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지리 정보를 학습사고 동시에 공유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에서 병풍식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1602년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기 효시로 볼수 있다. 이어서 『양의현람도』, 『(회입)곤여만국전도』, 『곤여전도』 등의 세계 지도가 조선에서 제작된다. 이들 지도는 이미지와 함께 지도의 여백을 이용하여 주기를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조선에서 병풍 지도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관방지도로 『요계관방지도』(규장각), 『조선팔도지도』(규장각)이다. 그러나 이들 지도는 주기가 없다.

19세기 들어 고을을 회화식으로 표현하여 병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진주성도』(계명대), 『거제부도』(동아대박물관), 『평양성도』(각 소장기관), 『경기감영도』(호암박물관), 『전주부지도』 등이다 그러나 이들 병풍 회화지도의 경우 지명만 기재한 채 주기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완산부지도10곡병풍』에서 기존 전주부 지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주부성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주기면을 제1폭과 제10폭에 첨부할 뿐만 아니라, 지도 구성에서 기존의 지도와 완전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제작 당시 지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던 내용에 대해 생각을 주는 지도로, 당시 지도 발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지도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부지도>는 10폭으로 된 병풍형식으로서, 회화식 지

도에 속한다.

繪畫式地圖란 지도가 표현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산수화법이나 건물도형 등 회화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원용함으로써, 그 지역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지도라고 정의된다. 지도를 통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은 물론 인문적 요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지역의 특징을 한 눈에 보여준다. 그리하여 축척식 지도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상까지도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화식 지도는 규모가 큰 조선전도나 도별도 보다는 도성도, 군현도를 비롯한 산도, 도서지도, 목장지도 등 특수지도와 같이 비교적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화식 지도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실경산수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회화식 군현지도가 증가하면서 지도와 회화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방 일선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역량 있는 畫師軍官들이 파견되고 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이유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도들은 기본적으로 군현의 입지, 주요 건물과 사적, 시장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여 지방행정과 통치를 위한 공적인 용도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완산부지도> 역시 이런 정치적 의도 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히 숙달된 화사의 솜씨가 엿보이는 수준 높은 작품이다.

10폭 병풍으로 된 <완산부지도>의 제1폭과 제10폭은 주기로서, 후백제 이래 전주부의 간략한 연혁과 행궁, 산선, 성루, 사우, 별전, 누각 등과 원호(한 집을 단위로 호적에 든 집), 인구, 제언, 장시 등 地誌의 형식으로부터 분류하여 상술하였다.

그런데 ‘전주부’ 대신 이미 사용되지 않는 ‘완산부’라는 명칭을 왜 굳이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마도 전주부(완산부)는 후백제의 도읍지였고, 國朝 始祖의 貫鄉이자, 전라도 감영소재지라는 유구한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2폭부터 제9폭에 걸쳐 병풍에 그려진 완산부(전주부) 전도의 구도는 규장각 소장 <전주지도>같은 축 형태의 전주 지도와는 달리, 남북으로 긴 지형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남북을 지도의 좌우로 길게 배치하였다.

북쪽 건지산을 진산으로 정한후 남쪽에 곤지산을 안산으로 하여 건곤이 남북으로 正位하여 전주부성을 천지가운데 위치시킴으로써 하늘과 땅 사이에 전주가 으뜸이라는 우주사상을 반영하였다. 읍성 위쪽의 건지산은 실제로 매우 낮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진산이기 때문에 강조되어 그려졌다. 전주의 지세가 북쪽이 공허하여 氣脈이 흘러나간다는 설에 의해서 건지산과 가련산 사이에 인공적 둑을 세워 만든 德津堤는 풍수적 관념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이는 진산을 배경으로 입지를 만들고 발전해온 조선시대 도시계획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읍치 주변 산의 배치는 부성을 중심으로 주변 산들이 밖으로 향해 누워있는 전형적인 開花形 山圖 형식을 따르고 있다. 성내에는 동헌, 내위, 선화당, 경기전이 있고, 읍성에는 豐南門, 패서문, 완동문, 공북문과 망루들이 표시되어 있다. 1767년(영조 43) 화재로 남, 서문이 소각되어 재건될 때, 풍남문, 패서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도는 1767년 이후에 제작된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성벽은 도성과 같은 자로 단정하게 표현하고 성내와 주변인가는 부드러운 米點으로 마을을 구획하였다. 주변 산수의 표현은 점법과 부드러운 피마준, 謙齋 鄭澈式 樹枝法 등에 의해 실경산수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규장각 소장 <전주지도>처럼 오밀조밀하고 부드러운 채색처리는 없지만, 흑백으로 된 무게감있는 필묵처리와 당당한 규모의 대형지도로서 눈길을 끈다.

<완산부지도>의 제작시기는 그 동안 18세기로 알려져 왔지만, 주기에 전주부 원호가 21,176호, 인구가 72, 773이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19세기 말의 完山誌(규장각 소장) 호구 조와 일치하여 이 무렵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간인당’을 설명하면서 ‘今上 乙亥云云’라는 글귀가 보이는데, 여기서 ‘今上’이란 高宗(재위 1863-1907)으로서, 을해년은 1875년을 말한다. 따라서 <완산부지도>는 적어도 1875년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문헌자료

정은주 「朝鮮 後期 繪畫式 郡縣地圖研究」 『文化歷史地理』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12

박은순 「19世紀 繪畫式 郡縣地圖와 地方文化」 『韓國古地圖研究』 제1권 제1호,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06

□

전주성을 중심으로 그 쪽의 관아와 민가 및 성 밖의 경관을 기록하고, 그린 <완산부지도>이다. 재질은 지본담채이고, 형식은 10폭 병풍으로 제1폭과 제10폭에는 관련 기록이 묵서되어 있고, 제2폭부터 제9폭까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림크기는 171×531.4cm, 병풍 전체 크기는 190×537cm이다. 병풍은 본래의 상황은 아니다.

1967년 전주시립박물관이 김선기씨에게 매입하여 수장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 전주시립박물관에서 국립전주박물관으로 이관, 수장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수령할 당시와 같은 상태이다. 각 폭은 위, 아래 두 쪽의 종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폭의 상단 종이는 124cm이고, 아랫단 종이는 47cm의 크기이다. 각 폭의 크기는 첫째 폭이 51.3cm으로 조금 작은 것을 제외하면 53.5-53.8cm 정도로 거의 동일하다. 종이의 질은 거의 유사하여 기록과 그림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폭 화면 접합부에 일부 박락된 곳들이 있고, 화면 종이도 부분적으로

박락된 곳들이 있다. 기록부분과 그림 부분의 먹은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내용과 특징

10폭 병풍으로 제작된 <완산부지도>는 제 1폭과 제 10폭에는 후백제 이래 전주부의 연혁을 비롯하여 행궁, 산성, 성루, 사우, 별전, 누각 등과 元戶, 인구, 제언, 장시 등에 관한 사항을 地誌의 형식으로 분류하여 상술하였다. 제 2폭부터 9폭에 걸쳐서 전주부 지도를 부감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본래는 남북으로 긴 지형을 병풍형식에 맞추어 남북을 좌우로 포치하도록 재배열하여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전주지도들이 남북으로 긴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그려지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구별되는 구성으로 표현되었다. 『海東地圖』, 『廣輿圖』, 『輿地圖』, 『地乘』 등 18,19세기에 제작된 주요한 군현지도집에서 전주는 남북을 세로로 포치한 구성으로 재현되었다. 또한 18세기 중엽 경 제작된 규장각의 <전주지도>와 19세기에 제작된 전북대 박물관 소장의 <전주지도>같은 독립 군현지도에서도 전주는 남북을 세로축으로 하는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그런데 본 작품은 그러한 전통을 깨고 남북을 가로축으로 배치하여 재현한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화면의 중심에는 읍치가 비교적 크고 자세하게 부각되도록 재현하였고, 주요한 관아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건물의 명칭을 기록하였다. 민가는 지붕을 부각시키며 대략적인 형태만을 표현하였다. 화면 우측 읍성의 바깥쪽으로도 많은 민가들이 재현되어 번성하던 전주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이외의 오목대와 한벽당 등 주요한 경관과 건물들도 자세하게 재현하고 명칭을 기록하였다. 그림 속에 재현, 기록된 내용은 제1폭과 제10폭에 주기된 내용보다 훨씬 많아서 전주의 전통적인 모습을 추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작품의 제작 시기는 기록된 내용과 그려진 건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기록 상으로 볼 때 여러 건물과 지형지물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대가 기록되어 있어서 참고가 된다. 그 중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제10폭 중 ‘南川石橋’부분에 기록된 ‘今上 甲戌’年과 ‘乙亥’年이라는 기록이다. 앞선 여러 기록을 통해서 이 작품이 19세기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으며, 19세기에 갑술년과 을해년은 각기 1814년과 1874년, 1815년과 1875년에 해당된다. 그러나 南固山城과 관련된 기록 중에 ‘純祖辛未(1811)’라는 연기가 나와서 ‘금상’이란 高宗을 지칭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병풍의 제작시기는 1875년 이후, 19세기 말로 추정할 수 있다.

화면에 나타나는 전각 등의 상황을 참고로 하여 본다면, 우선 남문에 豊南門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1767년 화재 이후 재건된 상태를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1771년에 창건된 조경묘, 1875년 흥교로 복원된 남천석교 등도 충실하게 재현되어 있어서 19세기 말 전주의 경관을 성실하게 담아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기에 기록된 전주부의 원호가 21,176호, 인구가 72,773명이라는 내용은 19세기 말 『완산지』의 「호구」 조와 일치해서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에 제작된 작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지도로서의 기록적인 특징과 회화적인 표현성을 겸비한 작품으로서 19세기에 유행한 회화식 군현지도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 풍남문을 제외한 城樓와 府城 내의 건물들은 사방으로 드러누운 다초점 투시법으로 묘사되어 전통적인 건물도형의 제작 기법을 따르고 있다. 채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홍살문은 선명한 주색으로 그리고 있고 민가를 제외한 건물의 지붕은 어두운 회색으로 담채하고, 열은 주색을 채색해 간략하게 선으로 표현된 민가보다 부각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은 특히 산을 그릴 때 회화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회화성이 돋보이는 지도가 되었다. 회화적인 표현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이 지도를 제작한 화가가 당시 궁중의 화원이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산세의 표현을 살펴보면, 부성을 중심으로 주변산들이 밖으로 향해 누운 전형적인 開花形 山圖의 형식을 하고 있으며, 열은 朱色으로 淡彩하고 披麻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산을 표현하고 있으며 遠山은 渲染法으로 표현하였다. 산봉우리를 다소 복잡하게 중첩시키는 수법은 청대 사왕과의 영향을 받은 원채화풍을 연상시킨다. 특히 19세기 초 <동궐도>에 나타나는 산의 표현과도 비교가 되는 요소가 있고, 그에 준할 만큼 회화성이 뛰어난 점에서 주목된다.

樹枝法을 살펴보면 나무들은 채색을 사용하지 않고 선묘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목대 부분에서는 T자형의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나무들은 짙은 먹 선으로 줄기와 가지를 그리고, 그보다 연한 먹색을 사용하여 米點을 찍는 방식으로 나뭇잎을 표현하는 회화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다. 도로는 정갈하게 구획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묘 대신에 열은 먹색으로 음영을 넣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이 작품의 전체 구성 중 이전의 전주지도들과 비교하여 확연하게 눈에 띄는 점은 전주의 북쪽 부분을 크게 확장하여 그린 점이다. 현재의 화면에서는 건물도 거의 없는 화면 좌측 부분이 큰 여백처럼 두드러져 보인다.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전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려져 있다. 이처럼 새로운 과격적인 구성을 가진 전주지도를 제작한 것은 특별한 제작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용이 정밀하고 풍부하며, 회화성이 뛰어난 이러한 전주지도가 제작된 배경은 제작시기를 감안하면서 본다면, 1872년 <태조어진>의 제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로 남겨둔다.

한편 이 지도는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전주부지도> 4폭 병풍과 비교가 된다. 전북대본은 1폭 가운데 부분에는 ‘31개 면에 15,998호가 있는데, 전주성 내 4면은 3,783호, 성의 바깥 면은 12,215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본 작품에는 21106호로 호구수가 기록되어 있어서 전북대본이 좀더 이른 시기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전북대본은 제2, 3폭 중앙에 둥근 네모로 전주성을 표현하고 네 방

위에 4대문을 그리고 있다. 전주성을 칩칩이 둘러싸고 있는 산을 배경으로 전주부치의 모습을 부각시켰고, 지명 등을 적어 넣는 등 지도적인 내용과 회화적인 수법을 구사한 회화식 군현지도이다. 제작시기는 앞서지만, 본 작품에 비하여 기록된 내용이 적은 편이고, 특히 회화적인 면에서는 본 작품에 비하여 정교함과 회화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작품은 전북대본에 비하여 제작시기는 늦지만, 전체적인 규모와 기록된 내용의 풍부성, 회화적인 표현의 우수함 등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작품의 명칭에 대해서는 ‘전주지도’보다는 ‘완산부지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명칭은 본 작품의 제작배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1 폭에 기록된 내용에 의거하여 ‘완산부지도’로 할 것을 제안한다.

<완산부지도> 의 기록

* 제1폭

本百濟完山新羅眞興王置完山州 旋廢府 文王復置完山州 景德王改今名以備九州 孝恭王時甄萱建都於此稱後百濟 高麗太祖討平神??安南都護府復爲全州 成宗稱承化節度按撫使置十二州 節度使號?義軍隸江南道 顯宗陞安南大都護府 後改全州牧 恭愍王以囚元使桵思不花 降爲部曲 復爲完山府本朝

太祖以御鄉 陞完山留守府

乾止山(在府北十里) 完山(在府南三里) 高德山(在府南十里) 母岳山(在府西南三十里) 麒麟峯(在府東六里) 鉢山(在府東三里) 昆止山 黃華臺(在府西四里) 萬景臺(在高德山北麓) 黃鶴峯(在府南五里) 梧木臺(在鉢山下) 南川(在府南三里) 德眞池(在府北十里) 00?利民不000家者多0000荒南國人才之淵藪

邑城(石築周五千三百五十六尺高八尺) 鐘閣(在明見樓西 邑城設築之初四門皆懸巨鍾 丁酉兵燹俱毀 萬曆己酉年間 乃鑄一鍾懸於南門而體小聲細)

豐南門樓(則明見樓也 太祖大王舉義回軍之年 觀察使趙顯命掇舊城 建門樓) 沛西門樓(則相西門觀察使趙顯命重築) 完東門樓(則判東門 英宗乙未觀察使徐浩修重建) 拱北門樓(卽中0門 英宗乙未觀察使徐浩修重建) 拱北亭(在府西北五里府尹李蕃通判崔漬重建) 萬化樓(在鄉校前) 寒碧堂(在府南五里故參判崔霏構成亭閣 肅廟癸亥觀察使李師命別刵層閣) 鎮北亭(在府東北城內) 多佳亭(在府西四里) 君子亭(在府西南四里) 揖讓亭(0府南0里) 清水亭(在玄武池東丁巳判官尹光垂刵建)

中營將兼討捕使?威鳳山城(在府東四十里石00五千九十七把高八尺女堞二千四百三十七砲樓十一哨門六千七百四 城門三暗門00有井四十五 池塘九 鹽山一 肅廟乙卯兼府尹權大載啓 聞刵築) 守城將(判官兼) 山城別將(武從五品) 行宮(在山城內 肅廟乙卯兼府尹權大載啓 聞營建又移 眞殿護衛別營軍十七哨屬之本城脫有緩急移安 影幘于此使(?)之環城擁衛也) 南固山城(在府東南七里許 純祖辛未(1811)觀察使李相瓚以萬馬開(?)築城事啓 聞刵築 癸酉觀察使0壽0築山城 啓 聞設鎮体城 周回二千六百九十三步 女堞一千九百四十四雉城十六步 女堞十一堞東甕城十五步 女堞十堞北雉城八步 女堞五

堞南00九間北將臺四間東門樓一西門樓一虹霓四面砲樓各一暗門三水門三倉舍一井十五池塘二)山城別將(武從五品)乾止山(諺傳 司空公墓在此00000去傍近)

*제10쪽

高德山城(在府東南十里甄萱所築今廢) 將軍樹(似0鉢山0諺傳 穆祖爲兒戲嬉聚群童習陳法於大樹下時人名其樹曰將軍樹) 虎隕石(在寒碧堂前一里許 諺傳 穆祖少時與群兒遊於鉢山南麓下遇暴風雨避岩下有大虎吼於前 穆祖語群兒曰虎000諸人只0一人00 先以投0試之群兒曰君年長先以衣投之即如其言虎噬之群兒挽出 穆祖虎即跳去崖忽崩墜群兒盡壓 穆祖得免其石至今宛在水中矣) 諫納臺(在鉢山下梧木坵之右州人李興淳起淳兄弟以司諫獻納退居于府東城外日夕逍遙于此 故後人名之曰諫納臺)

肇慶廟(在府東城內 英宗辛卯(1771) 卍建奉安 司空公位版)

慶基殿(在府南城內 永樂庚寅(1410)卍建奉安 太祖大王晬容 壬辰倭亂移 奉于 行在所殿亦隨燬至光海甲寅(1614)觀察使李慶全重建始還 奉馬) 別殿(肅廟丙辰(1676)卍建有事則移安 影幀) 文廟(在府南城外五里鉢山南麓 舊在南城內 永樂間移建于華山西麓 萬曆癸卯又改卜於此) 希顯堂(在府西四里 肅宗庚辰(1700)觀察使金時傑卍築 此堂設置屯田選一道有文才者爲莊修之所)

宣化堂(開營之初卍建 宣廟丁酉(1597)兵燹堂毀 戊戌觀察使黃慎重建 中間廢閣 英宗辛卯觀察使尹東昇改建 正宗壬子(1792)又毀 觀察使鄭民始重建 觀察使尹東昇重修) 觀風閣(在宣化堂東) 凝清堂(在宣化堂北) 燕甲堂(在宣和堂北 肅廟戊辰觀察使李濡卍建) 豐沛館(卍客館在宣化堂東北) 豐樂軒(在豐沛館東判官廳事) 看劔堂(在南城外中營將廳事)

松廣寺(在終南山府東三十里 東陽尉申翊聖開卍) 鳳棲寺(在西方山府東北二十五里) 南固寺(在萬景臺後府東南十里) 威鳳寺(在威鳳城內 府東四十里)

南川石橋(在府南三里 中宗己巳防川石築長六00頽圯 每值霖雨川水泛溢西南城外民居蕩析 正宗甲辰(1784)觀察使趙時偉大加修築水患始息??川水合爲參禮驛 南又與高山熊峙之水合而西流橫灘潮水至焉錄綠沃野利城爲新倉津舊矗石爲平橋年久頽圯 正宗辛亥(1791)觀察使鄭民始重修改制爲虹橋 今 上甲戌(1874?)爲大水頽圯 乙亥(1875)重築) 坊里(三十一面) 元戶(二萬一千一百六戶) 人口(七萬二千七百七十三口) 田賦(二萬九百二十結六貢(?)六束) 堤堰(五十七處) 場市(十一)

鄉里記言(舊傳州治坐東向西不知何時改爲南向 論者以前高後缺爲欠而堪與家云云此乃行舟形不通無以導其流至以乾虛藪之障空爲處未知然否 南大川舊從梧木臺下流去川道至今尙存閭閻之中掘地深尺則往往皆沙礫想是舊日水流處滄田陵谷之變信不虛矣 噫山川之移易尙復如此古今風俗之不同又安得不然也 聖朝屢因道狀儒疏收議庭臣輒皆岐異寢而不行其文蹟詳載 本殿臚錄)

*박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글자는 0으로 표기하였고, 관독이 애매한 글자는 ?로 표시하였다.

○ 참고문헌

『한국지도학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 2009.

박은순, 「19世紀 繪畫式 郡縣地圖와 地方文化」, 『한국고지도연구』 1,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09.

정은주, 「조선후기 繪畫式 郡縣地圖 연구」, 『문화역사지리』 2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 현상

- 형태상

- ① 19세기에 평양, 진주 등을 대상으로 널리 제작된 병풍식 지도의 하나이며
- ② 조선 후기에 『곤여만국전도』, 『곤여전도』 등의 세계지도 등이 병풍식으로 제작되나
- ③ 병풍 회화 지도중 지리지를 함께 담은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는 유일본으로 판단됨

- 내용상

① 제2~9폭(지도)

- ▷ 조선 풍패지향인 전주를 그린 기존의 회화 지도와 비교하여 볼때 공간 구성을 전혀 새롭게 구성한 형태의 지도임.
- ▷ 전주성 중심의 구도이나 지리적인 정보는 기존 회화 지도의 정밀성을 뛰어 넘음
- ▷ 지명의 기재 방법을 통해 산의 원근을 표현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② 제1·10폭

- ▷ 이곳에 담은 지리지는 기존 지리지의 체계의 구조를 따라 편집된 것임
- ▷ 지도를 제작하면서 지리 지식이 편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드문 사례로 판단됨.
- ▷ 『호남읍지』(1871), 『호남읍지』(1895)에서 선별적으로 추출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됨

○ 내용 및 특징

- 조선 태조의 관향인 풍패지향이며 전라도 감영의 소재지였던 전주부를 10폭 병풍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제1폭에는 전주부의 건치연혁을 비롯하여, 산천, 풍속 등 전주부의 지리를 지리지 형식으로 담고 있다. 제2~8폭에는 전주부 일대를 회화식으로 그렸다. 제2폭을 남쪽, 제8폭을 북쪽으로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방위 배치는 전주부 지리의 구성을 병풍식 회화로 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지도의 구성(2폭~9폭)

지도의 구성은 지도의 우측인 3~4폭에 전주부성을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지, 하천과 저수지, 방리, 사찰, 누정, 여단, 치소, 향교 등 읍치 관련 건축물 등 주변의 지리적인 내용을 지명을 통해 표현하였다.

(1) 산지와 하천

① 산지

산지 표현은 전형적인 개화형 산도 형식을 따르고 있다. 채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섬세한 피마준법을 산지 모습과 선염법을 이용한 원산의 표현, 식생을 T자형의 수지형태로 표현한 것은 제작 당시의 화풍을 잘 반영한다.

산지 지명에서 제2폭의 위쪽에 고달산, 아래쪽에 전주부의 동남쪽에 있는 모악산을, 4폭 상단에 기린봉, 6폭 상단에 위봉과 봉서산, 6폭의 중앙부에 삼태봉과 미륵산을 기재한 것은 지도에서 구현하려는 지리적 범위를 나타내려는 의도이다. 이중 6폭의 봉서산 지명의 경우 산의 실체는 없으나 준봉으로 표현된 앞의 산지와는 달리 산의 모습을 선염법을 이용하여 흐린 음영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지의 원근을 표현하였다. 2폭의 모악산과 8폭에서 미륵산의 경우 산의 실체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는 지명만을 기재함으로써 원거리에 있는 산지를 표현한 기법이다.

산지 표현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산은 4폭에서 전주성의 상단에 표현된 기린봉과, 제2폭의 남고산성에 표현된 고달산이다. 이들 산지는 다른 산에 비해 높고 험준하게 묘사되었다. 기린봉에서 시작된 산줄기는 남쪽으로 이어져 승암을 지며 전주천의 상류까지 이어진 후 묘사는 끊어진다. 다시 이어진 산지는 고달산으로 연결되고, 이어서 동남쪽으로 이어진 산줄기는 옥녀봉을 거쳐 부의 서쪽을 감싸돌며 진북정을 지나 가련산으로 이어진다. 기린봉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산줄기는 위봉과 봉성산을 거쳐 묘사되어 전주부의 북동쪽을 감싸는 것으로 표현된다. 북쪽으로 묘사된 산줄기는 삼태봉까지 이어지며, 중간에서 갈라진 산지는 건지산을 이룬다.

② 하천

지도에 표현된 물줄기는 지금의 전주천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제2폭 상단의 만마동 경계에서 시작된 하천은 전주부로 들어와 부성의 서쪽으로 흐르면서 남천교와 서천교를 지나 부성을 감싸된다. 이어 북쪽으로 흐르면서 읍성의 패서문 앞에서 삼하교를 거쳐 지나 돌아 북쪽으로 흐른다. 제9폭의 덕진지에서 남쪽으로 흘러 전주천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지금의 조경천이며, 부성 위쪽에서 관선교가 묘사된 유로는 지금의 건산천 유로로 추정된다. 다른 지도에서 표현된 추천(지금의 삼천)의 유로는 지도에 그려져 있지 않다. 유로의 하류 부분에는 숲을 묘사하고 ‘藪’ 지명이 기재되어 있고 지리지의 내용으로 보아 거허수(乾虛藪)인 것으로 보인다.

하천 유로에 표현된 교량으로는 제3폭에 남천교와 서천교가 있으며 가까이에

각각 남진과 서진이 묘사되어 있다. 남천교에 대해서는 제10폭의 주기면에 1874년에 큰 홍구나 나서 무너지고 1875년에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 이 지도의 제작 연대를 가늠하게 한다. 제3폭에는 관선교와 삼하교가 그려져 있다.

(2) 방리 사찰

제1폭에는 전주천 발원지 부근에 ‘사대’ 마을이 민가 묘사와 함께 그려져 있다. ‘이석동’은 남고산성 서쪽 산록에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제3폭에는 옥류동, 자사동 등 곤지리 등 8개 지명과 장터 지명이 있다. 이중 옥류동은 이목대의 북쪽 산록에 민가와 함께 지명이 그려져 있고, 벽석역촌은 남천교의 우측에 지명만 나타난다. 전주천 하안에 묘사된 곤지리의 경우 지도의 8폭에 묘사된 건지산과 대응되는 지명인 곤지산의 좌측 산록에 기재되어 있다. 제5폭에 기재된 인봉리는 인봉제와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 보인다. 제6폭에는 반당산 서쪽에 석보리 지명이 있으며, 제7폭에는 내검암리와 외검암리 지명이 있다.

사찰로는 제4폭의 관선암과 제6폭에 진북사가 기재되어 있다. 이중 진북사에 대해 『호남읍지』(1871)에 견허수에 있으며 부의 북쪽 5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완산지』(1906)에는 폐한 것으로 나타나 19세기 말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관방 및 읍치 관련 건물

지도에 그려진 관방 시설로는 3~4폭의 전주성외에 제2폭에 남고산성, 제3폭에 중진영을 담고 있다. 남고산성은 『호남읍지』(1871)에 ‘관아의 동남쪽 7리쯤에 있으며 별장 1명, 무관 종5품을 둔다’라고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완산지』(1907)에는 순조 신미년에 관찰사 이상황에 의한 축조 경위와 성의 규모를 상세히 적고 있다. 또한 지도의 제10폭에 동일한 담겨 있어 지리지의 내용이 편집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도에서 고달산²⁴⁾ 북쪽 산록에 묘사된 남고산성은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 형태로 그려져 있다. 산능선을 따라 축성된 성벽에 여장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시설로서는 서문에 문루가 그려져 있으며, ‘鎭’을 기재하여 관방임을 나타내요 북장대와 장대가 묘사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치성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이 성은 고덕산성으로 부르기도 한다. 『호남읍지』(1861)에 관아의 동남쪽 10리에 있으며 견훤때 쌓은 성이라는 기사가 담겨 있다.

지도의 제3폭에는 중진영이 그려져 있다. 이는 19세기 당시 전라도에 있던 순천부의 전진영, 운봉현 좌진영, 나주목 우진영, 여산현 후진영, 전주에 중진영의 5진영 중 하나이다. 『호남읍지』(1871)에 위치와 1654년(효종 5)에 설치된 기록이 있으며 『완산지』(1906)에는 이를 관리하는 인력들도 담고 있다. 지도에서는 남천교 북쪽에 묘사되어 있다. 건물의 전면에 홍살문이 적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호경루, 군사청, 군기 등의 13개 건물이 묘사되어 있다.

(4) 고적, 누정 및 기타

24) 다른 지도에 고덕산으로 기재되나 오류인지 혹은 이칭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도에는 고적과 누정이 전주성 주위로 그려져 있다. 제3폭에는 적취정, 한벽정, 양사재 등 10곳, 제4폭에는 간납대와 임풍정 등 3곳, 제5폭에는 산정, 연무정 등 6곳, 제6폭에 공북루가 기재되어 있다. 이중 간납대와 관련하여서는 『호남읍지』(1871)에 우참판 이흥발의 형제들이 밤낮없이 여기에서 거닐며 노닐었기 때문에 지명이 유래하였다는 기사가 담겨 있다. 제6폭에 기재된 공북루는 공북정의 오기이다. 『호남읍지』(1871) 「누정」조에 부윤 이번과 통관 최지가 다시 세웠다는 기록과 함께 서거정의 기문을 담고 있다.

2) 전주성

전주성은 삼남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북쪽에서는 평양과 함흥, 남쪽에서는 전주와 대구 성곽이 가장 규모가 컸으나, 대구성은 전주의 2/3 정도에 불과하였다. 황해도 해주, 강원도 원주, 충청도의 공주 등의 감영이 있던 곳은 관아만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도로 매우 규모가 작았다. 지도에서는 성곽을 지도 크기에 비해 매우 과장하여 그려 전주성에 대한 기록이 지도 제작의 주 목적임을 보여준다.

(1) 구성

지도에서는 성곽의 정방형의 성곽 모습과 함께 성내의 관아 건물의 배치, 민가 모습 뿐만 마을의 나무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남문인 풍남문이 우측에 표현되었으나 객사, 선화당, 동헌 등의 성안 건축물의 이름을 풍남문에서 북문인 공북문으로 향하여 기재하고 건물의 묘사도 대부분 북쪽을 향하게 묘사함으로써 지도의 시선이 풍남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4대문은 실제 건축물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남문인 풍남문은 다른 성문과 다르게 2층 누각으로 묘사되었으며 종각과 수문장소가 그려져 있고, 옹성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성문 묘사에서 북문인 공북문만 ‘曲城’을 기재하고 이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옹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각 성문마다 ‘수문장소’가 그려져 있고, 성벽에는 포루가 12곳이 묘사되어 있다. 성벽 안쪽으로는 ‘玄武池’, ‘清水亭’, ‘獄’, ‘貞烈閣’, ‘上直幕’, ‘府司’, ‘府訓練廳; 등이 기재되어 있다.

풍남문에서 북쪽으로 직선으로 이어진 대로가 객사를 향하고 있으며, 객사의 뒤편으로는 북문인 공북문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그려져 있다. 동~서 방향의 도로는 동문인 판동문에서 서문인 패서문으로 이어지며, 객사 앞에서 남~북 대로와 교차된다. 이들 간선도로외에 성내의 각 장소를 연결하는 격자형의 도로들이 그려져 있다.

(2) 관아 건물

지도에서는 관아 건물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지명의 기재 방향을 볼 때 지도의 중앙보다 약간 위쪽에 객사를 배치하였다. 객사를 중심으로 볼 때 우측에 전라 감영인 선화당, 좌측에 전주부영인 동헌을 그렸다. 지도의 동쪽 아래에는 경기전과 조경묘를 배치하여 묘사하였다. 관아의 경계는 담장의 모습

으로 나타냈으며, 건물의 지붕은 갈색으로, 벽체는 연한 적색으로 채색하였다. 건축물의 묘사 방향은 기본적으로 북쪽을 향하되 일부는 건물의 마당을 중심으로 본 시선으로 그렸다.

3) 주기면 내용(제1·10쪽)

지도의 제1쪽에는 전주부의 건치연혁을 비롯하여, 산천, 풍속, 성지, 누정, 관방, 총묘, 10쪽에는 고적, 묘전, 학교, 공해, 불우, 교량, 방리, 호구, 전부, 제언, 장시, 향리기언을 담고 있다. 형식은 이전에 편찬된 지리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내용도 일부 내용을 추출하여 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기에서 담고 있는 지리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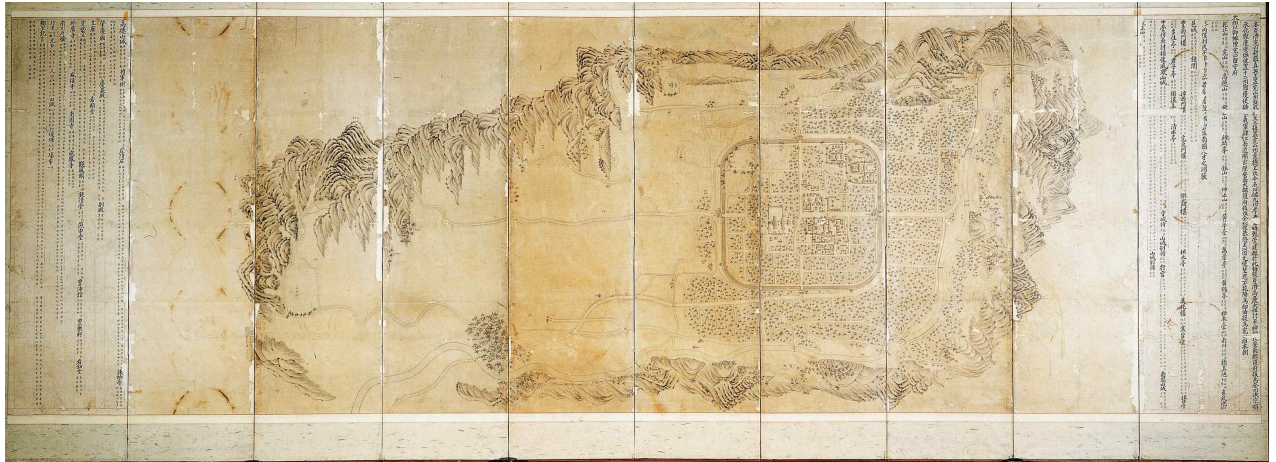
조(條)	지리 항목
[제1쪽]	
[건치연혁]	本百濟完山 新羅眞興 置完山州 旋廢 神文王復置完山州 景德王 改今名 以備九州 孝恭王時 甄萱建都於此 稱後百濟 高麗太祖 討平神劔 改安南都護府 復爲全州 成宗稱承化節度安撫使 置十二州節度使 號順義軍 隸江南道 顯宗陞安南大都護府 後改全州牧 恭愍王 以囚元使桡思不花 降爲部曲 復爲完山府 本朝 太祖 以御卿 陞完山留守府
[산천]	乾止山 完山 高德山 母岳山 麒麟峯 鉢山 坤止山 黃華臺 萬景臺 黃鶴峯 梧木臺 南川 德眞池 玄武池
[풍속]	俗尙儂利 民不樵朴 治家者 多蓄穀以備凶荒 南國人才之淵藪
[성지]	邑城 鍾閣
[누정]	豐南門樓 沛西門樓 完東門樓 拱北門樓 拱北亭 萬化樓 寒碧堂 鎮北亭 多佳亭 君子亭 揖讓亭 清水亭
[관방]	中營將兼討捕使 威鳳山城 守城將 山城別將 行宮 南固山城
[총묘]	乾止山
[제10쪽]	
[고적]	高德山城 將軍樹 虎隕石 諫納臺
[묘전]	肇慶廟 慶基殿 別殿
[학교]	文廟 希顯堂
[공해]	宣化堂 觀風閣 凝淸堂 燕申堂 豐沛館 豐樂軒 看劔堂
[불우]	松廣寺 鳳棲寺 南固寺 威鳳寺
[교량]	南川石橋
[방리]	坊里
[호구]	元戶 人口
[전부]	田賦
[제언]	堤堰
[장시]	場市
[鄉里記言]	

주기면에 담긴 내용은 『호남읍지』(1871), 『호남읍지』(1895) 기존 지리지의 체계의 구조를 따라 편집된 것이며, 내용에서 기존 지리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 혹은 보완한 내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 지도는 19세기 회화지도가 제작되면서 지리 지식의 편집 내용을 볼수 있는 귀중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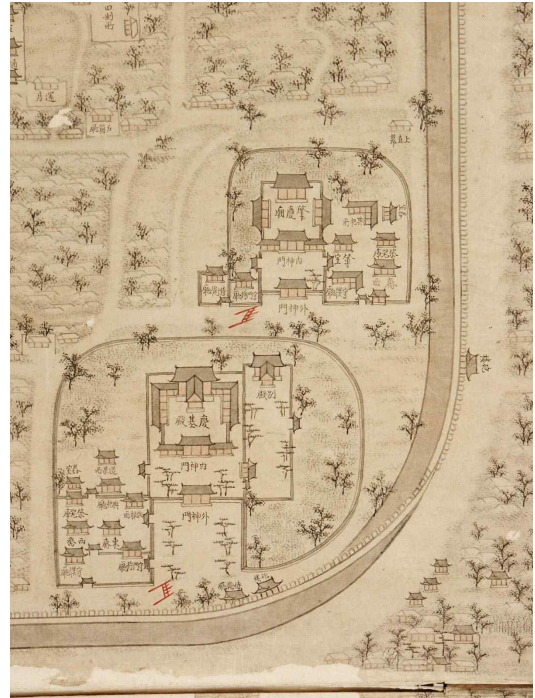
○ 기타

- 지도의 명명

이 지도는 지도의 구성과 건치 연혁 등에서 담긴 내용으로 볼 때 『전주지도(全州地圖)』(규장각), 『전주부지도(全州府地圖)』(전주대학교 박물관)과는 달리 전주의 지리적인 내용을 회화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뛰어 넘어 조선의 풍패 지향의 위엄을 보이하고자 한 지도로 판단된다. 이 지도의 현재 이름은 1392년 조선 개국과 동시에 완산유수부로 승격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본래 지도 명명 당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었다. 기존에 『전주부지도』, 『전주지도』가 지도 이름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현재 사용되는 『완산부지도십곡병풍』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완산부지도



11.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 (奉化 太子寺 朗空大師塔碑)

가. 심의사항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10.13.)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
(奉化 太子寺 朗空大師塔碑)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기
- 규격(cm): 비신고 209~209.3, 비신 너비 102~102.3, 비신 두께 25.5
자경 (김생집자2.8~3, 추기 대5.8, 소2.5, 박늘서 3.8~4)
- 재 질: 화강암
- 형 식: 비(碑)
- 제작연대: 954년(고려 광종 5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김생의 글씨를 집자해서 새긴 태자사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는 몇 가지 측면에

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글씨로 이름난 우리나라 역대 서가書家들은 모두들 전통적인 서법을 익힌 바탕 위에 나름대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 김생의 글씨는 여타 서가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강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글씨는 당시 유행하던 중국 왕희지풍의 서풍을 멀리 벗어나서 능숙한 운필로 법도를 넘어선 활달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펼쳐보이고 있으며, 힘차고 묵중하면서도 소산疏散하고 방일放逸하며 야취野趣가득한 풍격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의 글씨가 보여주는 남다른 독자성과 탁월한 예술성은 우리나라 역대 서가 가운데 첫 손을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김생 글씨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최고最古의 금석문 자료가 바로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이다.

이 비는 희소성 혹은 대표성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동안 김생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로 알려진 것이 꽤 여럿 있어 왔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각첩刻帖이나 각본刻本으로 《비해당집고첩匪懈堂集古帖》·《해동명적海東名迹》·《동국명필東國名筆》·《대동서법大東書法》·《고금역대법첩古今歷代法帖》·《해동역대명가필보海東歷代名家筆譜》 등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 소개된 김생 필적은 낭공대사비에서 재집자하여 편집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외에 공공기관 혹은 개인 소장자의 공개, 미공개 자료들도 몇몇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신빙성이 높지 않거나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또 조선후기에 세운 서명구徐命九 묘비, 조계趙槩 묘비, 이현서李玄緒 묘비 등이 1999년, 2000년, 2004년 잇달아 김생 글씨를 집자하여 세운 비석으로 새롭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들이 김생 필적의 신자료로 추가되어 이 방면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됨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낭공대사비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낭공대사비는 <전유암산가서>와 함께 김생의 필적을 추적하는 데 절대적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 희소성과 대표성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는 불교사 연구, 나아가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긴요한 1차 사료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낭공대사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계의 동향, 불교계와 정치계의 관계, 나말여초의 사회적 변화 등 많은 사실을 추적할 수 있다. 이 비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어 현존하고 있는 여러 고승들의 탑비가 역사자료로서 지닌 무게를 생각한다면 불교사는 물론 고대사 연구에서 낭공대사비가 차지하는 중대한 가치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낭공대사비에 새겨진 김생의 글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점의 하나가 그 글씨의 독자성일 것이다. 그것은 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을 진원지로 한 시대의 조류를 충분히 소화한 뒤 이룩한 수준 높은 자기화의 결과였다. 후대 사람들이 김생의 글씨를 상찬해 마지않았던 이유도 그가 보여준 모방을 넘어선 독창의 세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김생과 그

의 필적이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외래의 문화를 수용하되 그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행로를 꾸준히 걸어갔던 선구적인 모습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낭공대사비는 온갖 문화현상이 뒤섞여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요소를 우리의 미의식과 미감에 맞게 변주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문화를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가치와 의의를 고려할 때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낭공대사비는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고 남아있는 비신의 손상은 있으나 그 내용을 살필 수 있을 정도의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 김생글씨의 진면목을 그 어느 자료에서 보다는 가장 주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바로서 만지지탄의 감이 있는 문화재지정가치에 충분 이상이라고 하겠다.

○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는 신라말 고려초의 고승인 朗空大師 行寂 [832(흥덕왕7)~ 916(신덕왕5)] 의 탑비이다. 비문의 찬자는 당대 문장으로 평가받았던 崔仁浺과 대사의 門下法孫인 釋純白이다. 또한 문하승인 승려 端目이 명필 金生의 행서 글씨를 집자하여 승려 嵩太, 秀規, 淸直, 惠超 등이 새겨 954년(광종 5)에 세운 비이다.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는 신라말 고려초의 고승인 朗空大師 行寂의 일생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비석의 立碑와 관련하여 비문의 撰, 비문의 集子, 비문을 건립하는데 관여한 인물 등 당시의 사회와 문화상을 고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김생의 글씨를 연구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는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현상 및 소장 경위

봉화奉化 태자사太子寺 낭공대사백월서운탑비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이하에서는 백월비라 약칭)는 통일신라 말기의 고승인 낭공대사朗空大師 행적行寂(832~916)의 생애와 자취를 기록한 석비이다. 비문의 글을 지은 사람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에 활동한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최인연崔仁漉(868~944)이다. 비문의 글씨는 통일신라시대의 전설적 서예가인 김생金生(711~790년 이후)의 글씨를 승려인 석단목釋端目이 집자集字하고, 역시 승려인 송태嵩太·수규秀規·청직淸直·혜초慧超 등이 새겼다. 비의 건립연대는 고려 광종 5년(954)이다.

원래 백월비는 태자산 태자사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언제인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태자사가 폐사되는 바람에 백월비는 그 터에 방치되었다가 곡절 끝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백월비가 건립된 원위치인 태자사터를 떠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기까지의 사정과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태자사터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다. 적어도 19세기 말 이전의 기록들은 모두 태자사터가 봉화현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573-1(안동시 도산면 태자로 158-18)에 있는 절터를 태자사터로 추정하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양자는 서로 다른 지점이 아니라 실은 동일한 곳이다. 태자사터는 원래 봉화현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곳이 안동군 도산면으로 편입되었다가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안동군 전역이 안동시로 바뀌면서 현재의 주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태자사터가 백월비가 서 있던 절터, 다시 말해 백월비가 처음 건립된 태자사터가 확실한가? 거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백월비가 이 절터에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나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태자사터에는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8호로 지정된 귀부와 이수가 남아 있다. 이 유물이 바로 백월비의 귀부와 이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들은 백월비가 아닌 다른 비석과 짝을 이루던 것들로 봄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백월비의 비신과 이들은 크기로 보아 함께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월비의 비신 상단에는 이수의 하단 홈에 끼우도록 되어 있는 축이 솟아 있다. 이 축의 규격은 너비 92.5cm, 두께 18cm, 높이 8.4cm이다. 반면 태자사터 이수 하단의 홈 크기는 너비 84cm, 두께 14cm, 깊이 12cm이다. 이로 본다면 백월비 비신 상단의 축이 태자사터 이수 하단의 홈에 들어갈 수 없음은 자명하므로 양자는 한 세트의 유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점은 1965년 태자사터를 답사하고 귀부와 이수를 조사한 바 있는 고 진홍섭 교수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동일한 이유로 태자사터 귀부와 백월비의 비신 또한 한 세트를 이루는 유물로 보기 어렵다. 백월비의 비신은 너비가 102cm, 두께가 25.5cm이다. 귀부와 비신의 일반적인 결합 방식으로 볼 때 이 크기의 비신이 귀부 상단에 마련된 비좌의 홈에 들

어가야 한다. 그러나 태자사터 귀부 비좌에 마련된 홈은 너비 □□cm, 두께 □□cm의 크기여서 전혀 그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우리는 현재 태자사터에 남아 있는 귀부와 이수는 백월비의 귀부와 이수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추정해 볼 만한 단서가 없지는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봉화현 <불우佛宇>조에는 태자사가 “태자산에 있다. 신라 병부시랑兵部侍郎 최인연崔仁浺이 지은 승려 낭공朗空의 탑명塔銘과 고려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김심언金審言이 지은 승려 통진通眞의 탑명이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이로 미루어 보자면 현재 태자사터에 남아 있는 귀부와 이수는 통진스님 탑비의 귀부와 이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태자사터에 현존하는 귀부와 이수가 백월비의 그것이 아니라면 태자사터에 백월비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다른 물증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현재까지는 그럴만한 어떠한 물증도 확인된 바 없으며, 기록을 통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상 현재의 태자사터가 백월비를 건립했던 태자사의 옛터일 개연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선부른 판단일 수 있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절터에 대한 발굴이나 기타 조사를 기다려 최종적인 단안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백월비가 언제, 어떻게 태자사터를 떠나 어떤 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다만 몇몇 기록을 통해 대강의 경위를 살필 수는 있다. 가장 확실한 기록은 백월비 자체에 새겨진 추기追記이다. 이 추기는 비를 앞에서 바라볼 때 왼쪽 측면에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젊은 시절 <비해당집고첩匪懈堂集古帖>에서 김생의 필적을 얻어 보고 그 용이 뛰고 호랑이가 누운 듯한 기세를 사랑하면서도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음을 한스러워 했었다. 내가 영주榮州에 (군수로) 와서 이웃 고을인 봉화현奉化縣의 옛 절터에 홀로 남은 비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김생의 글씨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 세상에 드문 지극한 보물[希世之至寶]이 풀덫 불 사이에 매몰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아무도 거두어 보호하는 이가 없기에 들소가 여기에 빨로 같지는 않을까, 목동이 부싯들로 삼지는 않을까 모두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영주군 사람인 전 참봉參奉 권현손權賢孫과 더불어 (비석의) 이전을 도모하여 자민루字民樓 아래에 안치하였다. 거기에 난간을 두르고 빗장과 문을 단단히 설치하여 만일 탁본하는 사람[打模之人]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함부로 건드릴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김생의 필적이 그 무렵 널리 전해져서 사대부 호사가들[搢紳好事之徒]이 앞을 다투어 완상하게 되었다. 아! 천백년 동안 황폐한 골짜기에 버려졌던 돌이 하루아침에 큰 집으로 옮겨져 세상이 보배로 여기게 되었으니, 대저 사물의 드러남과 감추어짐 또한 운수가 있음인저! 내가 비록 재능이 얕고 졸렬하여 창려昌黎 한유韓愈의 넓은 학식과 단아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물건이 감상자를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산岐山의 석고石鼓와 다름이 없으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정덕貞德 4년(1509, 조선 중종 4년) 가을 8월 군수郡守 낙서洛西 이항李沆 기록하고 박눌朴訥 쓰다.

이 기록으로 보아 백월비는 1509년 영주군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항의 주도로 원래의 위치를 떠나 당시의 영주 읍치로 옮겨졌고, 이때 이미 태자사는 폐사되어 절터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항은 백월비를 영주 관아로 옮기면서 나름대로 보호조치를 강구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안전조치가 영구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이 비석이 옛날에는 영남의 영주에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곳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상고자尙古子 김광수金光遂가 이웃 고을의 군수로 있을 때 밭 가운데서 발견하여 관아로 옮겨 놓고 탁본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내[홍양호洪良浩]가 경주 부윤府尹으로 있을 때 매부妹夫 김형대金亨大가 영주 군수로 있었는데, 내가 영주에 가서 백월비를 찾아보니 황폐해진 정원에 버려져 흙에 반쯤 묻혀 있었다. 서둘러 관사官舍 앞 행랑으로 옮기도록 하고 술로 닦아내니 여전히 글자를 분별할 수 있었다. 이에 십수本을 탁본하여 세상에 널리 전하고, 주인에게 부탁하여 목갑木匣을 만들어 덮어 비바람을 막도록 했다.

홍양호(1724~1802)의 문집인 《이계집耳溪集》 권7 <제백월사비題白月寺碑>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1509년 영주로 옮겨졌던 백월비는 길게 잡아도 250년쯤이 경과되기 이전에 다시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게 되었던 듯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럴 때마다 서화 애호가이자 대수장가였던 상고당 김광수(1696~?)나 금석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홍양호와 같은 분들에 의해 재차 삼차 수습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된 점이라 하겠다.

백월비의 전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기록이 있다. 역매亦梅 오경석吳慶錫(1831~1879)이 편저하여 1858년 간행한 《삼한금석록三韓金石錄》이 그것이다. 이 책에서 오경석은 백월비에 대해 “비가 지금은 갈라져 두 조각이 되었지만 아직도 (글씨는) 완전하리만큼 좋아 떨어져 나가거나 닳아 없어진 것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백월비가 현재와 같이 두 동강난 것이 적어도 1858년 이전임을 알 수 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두 덩어리로 절단된 것 말고는 비문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곡절을 겪으며 전해지던 백월비가 공공기관에 의해 공식적인 관리에 놓이게 되는 것은 20세기를 넘어선 뒤이다. 1918년 백월비는 경복궁에 있던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전후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약간 남아 있다. 1917년 10월 12일자 [매일신보]에 백월비가 두어 달 전 경상북도 영주에서 발견되었으며, 조만간 그것을 총독부박물관으로 가져오기로 되어

있다는 기사가 실렸으며, 이튿날인 10월 13일자에는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의 이름으로 백월비에 대한 해설 기사를 실고 있다. 또한 [조선휘보] 1919년 1월호에는 대정 7년(1918)년 경북 영주군 영주면에 있던 백월비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해 8월호 [조선휘보]에는 전년도에 백월비의 운반에 착수했으나 금년도에 박물관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올라 있다. 1919년 6월 11일에 작성된 조선총독부박물관 수장품카드에는 백월비가 ‘진열품번호#본관6754’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1917년 여름 무렵 그 동안 영주에 전해오던 백월비의 존재가 조선총독부에 알려졌고, 이에 총독부에서는 곧바로 백월비의 총독부박물관으로의 이운을 추진, 1918년 그 작업에 착수하여 1919년 상반기 안에 모든 일을 완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주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져 오랫동안 경북궁 근정전 회랑에 진열되어 있던 백월비는 1986년 당시의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 의해 옛 중앙청-지금은 철거된 조선총독부 건물로 이사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입고된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용산에 새로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되면서 수장고에서 나와 전시실에 전시되어 오늘에 이른다.

2015년 2월 현재 백월비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가운데 서예실에 전시되어 있다. 원래의 귀부와 이수를 잃고 비신만 전해졌기 때문에 화강암을 다듬어 직육면체 형태로 새로 만든 받침대 위에 얹혀 있다. 비신의 하단은 받침대에 마련된 홈 안으로 감입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감입되었는지, 하단의 형태는 어떠한지 지금으로서는 살필 수 없는 실정이다. 받침대 위로 노출된 비의 크기는 폭 102cm, 두께 25.5(26)cm, 높이 218(208.5)cm이다. 비신의 상단에는 이수와 결합되었던 축이 솟아 있다. 이 축의 규격은 폭 92.5cm, 두께 18cm, 높이 8.4cm이다. 비신의 재질은 화강암인데, 표면을 곱게 물갈기한 다음 비문의 글씨를 음각으로 새겼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중간 부분에서 왼쪽 아래쪽으로 약 40° 정도 기울기로 비스듬히 절단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절단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늦어도 1858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절단되었던 것을 지금과 같이 이어붙인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마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듯한데, 추정일 따름이다. 보존 상태는 긴 세월 동안 갖은 풍상을 겪은 것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정성들여 곱게 채탁한다면 절단된 부분의 결락된 글자들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의 글씨들을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이다.

○ 내용 및 특징

비문은 정면에서 바라보아 오른쪽 측면을 제외한 3면에 새겨져 있다. 비양碑陽, 곧 비의 앞면에는 최인연이 지은 글을 단목스님이 집자한 김생의 글씨로 새긴 비의 본문이 담겨 있다. 뒷면, 곧 비음碑陰에는 954년 비를 세울 무렵 낭공대사의 문하법손門下法孫인 승려 석순백釋純白이 찬술한 후기後記와, 각자승刻字僧을 비

못하여 비를 세우는 일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좌측면에는 1509년 태자사터에서 영주로 비를 옮길 때 이항이 지은 글을 박눌의 글씨로 쓴 추기追記를 새겼다.

비양의 글씨는 행서이다. 각 글자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일정치 않은데, 대체로 자경字徑은 2~3cm 정도이다. 비문은 모두 31행이며, 매 행마다 83자씩 배열됨이 기본이나 간자법間字法이 적용된 곳, 행갈이를 한 곳 등이 있어서 약간씩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글자수는 2,386자이다. 글씨는 집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연결이 자연스러우며 매우 강한 개성과 독창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한 글자 안에서도 굵고 가는 획이 자유자재로 뒤섞이고 있으며, 곧은 획과 굽은 획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여 변화의 묘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 필법은 “상투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짜임과 활달한 운필을 구사했기 때문에 과격적인 풍미가 잘 나타나 있다.” 글자의 형태에 있어서도 종으로 약간 긴 것이 아니라 횡으로 조금 납작한 모양을 띠는 등, 기필起筆과 수필收筆이 강조되어 있다든지, 횡획橫劃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게 구사한다든지 하여 독특한 형태미를 표출하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비의 주인공인 낭공대사 행적의 일대기를 서술한 뒤, 그것을 압축한 사詞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832년 태어난 스님은 일찍이 불교에 뜻을 두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출가한 뒤 해인사 등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가 855년 복천사福泉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강릉의 굴산사掘山寺로 통호대사通曉大師 범일梵日(810~889)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고, 870년에는 입당入唐하여 유학길에 올라 15년 동안 명산을 두루 찾고 석상 경저石霜慶諸 등 선지식을 참방하다가 885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통호대사의 법을 이어 산문을 열고 가르침을 퍼던 스님은 효공왕과 신덕왕의 초청을 받아 906년과 915년 두 차례 서라벌에 올라와 머물기도 했고, 김해지방의 실력자였던 소율희蘇律熙(뒤에 김율희로 개명)의 귀의를 받기도 했다. 만년에는 명요부인明瑤夫人의 청에 응해 석남산사石南山寺에 머물다가 916년 2월 입적入寂하니 세수歲壽 85, 승납僧臘은 61세였다. 스님의 타계 뒤 제자들이 여러 차례 청하자 경명왕은 시호를 ‘낭공대사朗空大師’, 탑호를 ‘백월서운지탑白月栖雲之塔’이라 하사하고, 최인연에게 명해 비문을 짓도록 했다.

위 비문 내용으로 보아 최인연이 비문을 지은 것은 경명왕 재위기간인 917년~923년 사이 어느 때쯤인 듯한데, 비가 세워지는 것은 그로부터 30여 년이 경과한 954년이다. 이렇게 비문이 작성된 때와 비가 세워진 시기가 크게 벌어진 이유를 후기에서는 “세상은 어지럽고 사람들은 교활하여 성대한 일을 이루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세월은 자꾸 흘러가도 비를 세우지 못하다가 고려가 4군四郡을 평정하고 삼한三韓을 바로잡기에 이르자 현덕顯德 원년(고려 광종 5년, 954) 이 큰 비를 태자산太子山에 세우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짐작컨대 아마도 멸망을 코앞에 둔 신라로서는 비를 세울 여력도 의지도 없었을 듯하고, 여기에 후삼국 말

기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겹쳐져서 비의 건립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결국 고려 건국 후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되자 일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싶다.

비음의 글씨 역시 행서이다. 비문은 모두 22행인데, 제1행부터 제18행까지는 후기이고, 제19행은 입비 연월일이며, 나머지 제20행부터 제22행까지는 비 건립 관계자 명단이다. 추기 글씨의 크기는 비양과 거의 비슷하지만 글자 사이의 간격이 비양에 비해 훨씬 넓다. 입비 연월일의 글씨는 자경이 6cm 남짓이며, 건립 관계자 명단 글씨는 대략 자경이 3~4cm 정도로 균일하지 않다. 후기는 매 행마다 47자 내외의 글씨가 배열되었는데, 비양과 마찬가지로 간자법이 적용되거나 행갈이가 이루어져 18행을 모두 합친 글자수는 721자이다. 입비 연월일을 기록한 제19행은 14자, 건립 관계자 명단은 3행의 글자수를 합해 51자이다. 따라서 비음에 새겨진 글자수는 도합 786자가 된다.

후기의 내용은 낭공대사의 제자들에 관해 간략히 서술한 것인데,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비의 건립이 늦어진 이유를 밝힌 대목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대사의 고족高足 양경讓景을 소개하고 있고, 셋째 부분에서는 그 밖에도 9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부분에서는 9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윤정允正 장로를 별도로 강조하면서 양경의 쌍둥이 아우인 그가 어머니의 태몽부터 남달랐음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 부분에서는 낭공대사의 문인으로서 비문을 지은 최인연이 훌륭한 집안 출신으로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 중국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실과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빛낸 점 등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 보아 비의 좌측면에는 1509년 이항이 작성하고 박눌이 글씨를 쓴 추기가 새겨져 있다. 추기의 글씨는 해서이다. 글자의 크기는 비교적 고른 편으로, 자경은 3cm 정도이다. 추기는 5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행부터 제4행까지는 매 행 동일하게 49자씩 글자가 배열되어 있고, 제5행은 42자가 새겨져 있어서 전체의 글자수는 238자이다. 내용은 앞에서 인용한 그대로이다.

백월비의 글씨를 쓴 김생은 우리나라의 첫 손 꼽히는 명필로 널리 회자되는 인물이다. 흔히 ‘동방서성東邦書聖’으로 불릴 만큼 명성이 높지만, 막상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그나마 전하는 내용들도 전설이나 민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화 등과 뒤섞여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가운데 그에 대해 가장 믿을 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삼국사기》 권48에 실린 그의 열전일 것이다. 아래가 그 전체 내용이다.

김생은 부모가 한미하여 그 집안 내력[世系]을 알 수 없다. 경운景雲 2년(711, 신라 성덕왕 10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는데, 평생 그 밖의 다른 기예를 배우지 않고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붓 잡기를 쉬지 않아서 예서와 행서, 초서가 모두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도 이따금 그의 친필 글씨[眞蹟]가 남아 있어서 학자들이 보배로 전하고 있다.

송녕崇寧 연간(1100~1125)에 학사 홍관洪灌(?~1126)이 진봉사進奉使를

따라 송나라에 들어가 변경汴京의 객관客館에 머문 적이 있었다. 그때 한림대조翰林待詔 양구楊球와 이혁李革이 황제의 조칙을 받들고 객관에 와서 그림 족자에 글씨를 쓰게 되었다. 홍관이 김생의 행초서行草書 글씨 한 권을 보여 주니, 두 사람은 크게 놀라며 “오늘 왕우군王右軍(=왕희지)의 친필 글씨를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했다. 홍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라 사람 김생이 쓴 글씨입니다.”라고 하였으나, 두 사람은 웃으며 “천하에 왕우군을 빼놓고 어찌 이와 같은 묘필妙筆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홍관이 누차 말했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입전入傳된 이래 김생의 글씨에 대한 사대부, 문사, 학자들의 상찬과 언급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고려시대의 이인로李仁老(과한집), 이규보李奎報(동국이상국집), 안축安軸(동국여지승람), 권홍權弘(평론서결) 등과 조선시대의 서거정徐居正(필원잡기), 성현成峴(용재총화), 조신曹伸(소문쇄록), 퇴계退溪 이황李滉(퇴계집), 이항李沆(백월비 후기), 창강蒼江 조속趙涑, 미수眉叟 허목許穆(미수기언),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약천집),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원교서결후편),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이계집), 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청성집), 정동유鄭東愈(주영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여유당전서), 한치윤韓致胤(해동역사), 성근묵成近默(과재집), 역매亦梅 오경석吳慶錫(삼한금석록) 등이 그 두드러진 예가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생의 글씨가 얼마나 높이 평가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고래로 크게 존송되었던 김생의 필적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의심의 여지없이 믿을 만한 것은 더욱 드물어 겨우 <전유암산가서田遊巖山家序>와 백월비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백월비의 가치는 쉽게 가늠할 수 없을 만치 크다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근역서화정》

秦弘燮, <奉化太子寺址 調査概要>(《考古美術》 통권65호), 1965. 12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下, 해안, 1996

李完雨, <金生과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옛 탁본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역사》 한국서예사특별전 18-韓國의 名碑古拓 논문집), 예술의 전당, 1998

朴孟欽, 《金生の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서풍 연구》(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서예문화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文

新羅國故 兩朝國師 教諭朗空大師白月栖雲之塔碑銘并序

人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院事賜紫金魚袋臣崔仁浣奉

教撰

金生書

釋端目集

聞天壤境希夷女津杳渺澄如滄海瀛若太虛智舟何以達其涯慧駕莫能尋其際況復去聖逾遠滯凡既深靡制心猿難意馬由是徇虛奔實者俱懷逐塊之情執有迷空者盡起起炎之想若非哲人出世開士時高演廣宗廣宣善誘何以爰重玄之理屬歸衆妙之潛認醫珠密傳心印達斯道者豈異人乎大師是也

大師法諱行寂俗姓崔氏其先周朝之尚父遐苗齊國之丁公遠裔其後使乎克那留萬離林今爲京萬河南人也祖諱全避世隱榮幽居養志父諱佩常年登九歲學冠三冬長牽投筆之心仍效止戈之藝所以繫軍旅充職戎行母薛氏夢見僧謂曰宿因所迫願爲阿嬈之子覺後感其靈瑞倍倍所天自屏臆動爲胎教以和六年十二月三十日誕生 大師生標骨有異凡流遊戲之時須爲佛事每聚沙而造塔常摘以爲香爰自青襟尋師經帳業則都忘寢食臨文則物括宗源嘗以深信金言志遺塵俗謂父曰所願出家修道以報罔極之恩其父知有宿根合符前夢不阻其志愛而許之遂迺削染披緇苦遊學欲尋學海

選名山至於伽耶海印寺便謁宗師精探經論統雜花之妙義該貝葉之圖文師謂學徒曰釋子多願生好學昔聞其語今見其人豈可青眼赤髭同年而語哉大中九年於福泉寺官壇受其具戒既而浮囊志切草情深教之宗已勞力學玄機之旨蓋以心求所以杖策挈瓶下山尋路詣岷山謁通曉大師自投五體虔啓衷懷大師便許昇堂遂令人至從此服膺數載勤苦多方雖至道 目擊成山之志而常齊淡神疲煮海之勞則知歷試諸難多能鄙事每於坐臥只念遊方遂於咸通十一年投入僞朝使金公繁榮西笑之心備陳所志金公情深傾蓋許以同舟無何利涉大川達于西岸此際不遠千里至於上都尋蒙有司具事由奏聞 天降降勅宜令左街寶堂寺孔雀王院安置大師所喜神居駐足勝境栖心未幾降誕之辰 勅徵入內 懿宗皇帝遽弘弘至化度仰玄風大師曰遠涉滄溟有何求事大師對曰貧道幸觀風 上國問道 中華今日叨沐 鴻恩親盛事所求通遊靈跡追尋赤水之珠還耀吾鄉更作青丘之印 天子厚加寵養甚善其言猶如法秀之逢晉文墨鸞之對梁武古今雖異名德尤同以後至五臺山

花嚴寺求感於文殊大聖先上中臺忽遇神人肩皓尔叩頭作禮膜拜祈恩請大師曰不易遠善哉佛子莫淹此地速向南方認其五色之霜必沐曼摩之兩大師含悲頂別漸次南行行符一年至成都俯謁靜衆精舍禮無相大師影堂大師新羅人也因謁寫真圖遺美爲唐帝導師 玄宗之師同鄉唯恨異其時後代所求追其迹企圖石霜慶諸和尚啓如雲之室演迦葉之宗道樹之陰禪流所聚大師殷勤禮足曲虔誠仍栖方便之果果摩尼之寶俄而追遊衡岳參知識之禪居逸至瀘溪祖師之寶塔傍東山之遐秀採六葉之遺芳四遠參尋無方不到雖觀空色豈忘偏陞以中和五年來歸 故國時也至於岷嶺重謁

師大師云且喜早歸豈期相見後學各其賜念茲在茲所以再屏運不離左右中忽携瓶鉢重劫水雲或錫飛於五嶽之初暫栖天柱或盃渡於三河之後方住水精至文德二年四月中岷山大師寢疾使注山精勤侍疾至於歸化付囑傳心者唯在大師一人而已初錫於朔州之建子若緣修茅舍始啓山門者如雲朝三暮四頃歲時當厄運世屬此蒙災星長照於三韓毒露常鋪於四郡况於巖谷無計潛藏軋寧至止王城簾簾蜀於焚香之寺光化末旋歸野郡植檀於雜草之墟所恨正值魔軍宣佛道 孝恭大王驟登寶位欽重禪宗以大師獨步海東孤標天下特遣正法賢等聊飛 鳳筆徵赴 皇居大師謂

人曰自欲安禪須助化音道之流於末代外護之恩也乃以天祐三年秋九月初忽出漢郊方歸 京邑至十六日引登 秘殿孤坐禪床 主上預淨宸襟整其冕服待以國師之禮虔申鑽仰之情大師隨色從神儀自若尊道說義軒之術治邪 堯舜之風鏡忘疲洪鍾待扣有親從上 殿者四人曰行謙遠安信宗讓讓景行超十哲名蓋三禪探玄鄉之秘宗論絕境之幽技 聖人見頻迴塵尾甚悅龍顏忽於明年

未午別 京畿略遊海嶠至金海府 蘇公忠子知府及弟律熙領軍莫不敬袵欽風開襟慕道居名寺冀福蒼生十大師可以栖遲暗垂慈化掃妖煙於泰外灑甘露於山中 神德大王光臨不圖寵徵赴至貞明元年春大師遂携禪衆乘至 帝鄉依前命南山實際寺安之此寺則先是 聖上以黃閣潛龍禪局附鳳尋付大師水爲禪宇此時奉迎 行所重謁慈顏爰開有待之心再聽無爲之說辭還之際特良

爰有女弟子明瑤夫人懿島宗枝鳩林冠族仰止高山尊崇佛理以石南山寺請爲領承以住持秋七月大師以甚懷雅懷始謀栖止此寺也遠連四岳南溟溪澗爭流酷似金與之谷巖巒巒峻疑如紫蓋之

城招隱之幽亦栖禪之佳境者也大師遍探靈巖未有定居初至此山以爲終焉之所至明年春二月初大師覺其不念稱染微痾至十一日詰旦告衆曰生也有涯吾行矣守而勿失汝等勉旃跣坐繩床儼然

滅報齡八十五闕六十二于時雲霧晦冥山巒震動有山頂五色光氣衝於空中中有一物上天宛然金柱豈止智順則天垂花蓋法成則空斂靈棺而已哉於是人等傷割五情若亡天屬至十七

敬奉色身假慧于西峯之麓 聖考大王忽聆遷化良惻仙襟特遣中使監護葬儀仍命祭至三年十一月中改鑿於東巒之頂去寺三百餘步 全身不散神色如常門下等重親慈顏不勝感慕仍施石戶封

大師資靈河岳稟氣星辰縷縷之英應黃裳之吉由是早栖禪境久拂客塵碑一主於兩朝濟群生於三界邦家安太魔賊歸降則知大覺身觀音後體啓玄關而敷揚至理開慈至而汲引玄流生命示亡效鶴

歸之跡化身如在追難峯住寂之心存教化人始弘道可謂定慧無方神通自在者焉 弟子信宗禪師周解禪師林侶禪師等五百人共保一心皆居上足常勤守護永切追攀每念巨海塵飛風電絕累

魏闕樹豐碑今上克繼洪基恭承寶錄欽崇禪化不異前朝贈諡曰朗空大師塔名白月栖雲之塔爰命微臣宜修鑿曰仁浣固不免唯命是從輒課菲詞式揚餘烈譬如提壺酌海莫知溟渤之深執管闢天難

穹蒼之闕然而早蒙慈眷以宗盟唯以援筆有情者文無愧強名玄道將報法恩其詞曰

至道無爲 猶如大地 萬法同歸 千一致 粵惟正覺 誘彼群類 聖凡有殊 開悟無異 慈嚴禪伯 生我海東 明同日月 量等虛空 名由德顯 智與慈融 去佛法要 乘化重蒙 水月

心 煙霞匿曜 忽飛美譽 頻降佳召 扶贊兩朝 闡揚玄教 瓶破燈明雲開月昭 哲人去世 緇素傷心 徒願切 國主恩深 塔封巒頂 碑倚溪溇 芥城雖盡 永曜禪林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霞塔碑陰記

新羅國石南山故國師碑銘後記

下法孫釋白述

恭惟 我國大師始自出胎於沒齒生緣眷屬觸事因緣卽生金長老允正所修鑿具之圖人崔大相仁浼所撰碑述之今白之所記者 以大師於唐新羅國景明王之天祐年中化緣畢已 明王諡號銘塔仍 崔仁浼侍郎使撰碑文然以世雜人狃難爲盛事是以年新月古未立碑文至後 麗國九平四郡鼎正三韓以顯德元年七月十五日樹此豐碑於太子山者良有良緣者乎爰有國師之 神足國主寺之 頭軋聖院和尚者法諱讓景俗姓金氏字曰舉國爲師而或 或心爲王而乍耳日將恐芳 風掃 詠雲消黃絹將爛翠琰弗植 師恩雀報自立龜碑和尚王父諱元聖王之表 孫憲康王之外庶舅清廉諱聒於街路忠孝譽酣於尊卑內知執事侍郎外任涇江都護父詢禮才兼六藝學價五經月下風前屬緣情 物之句春花夜月呈撫絃韻竹之聲內至執事含香外赴朔州長史和尚始自華色 於雙身動止言謨行蹤風格可 備別錄此略言焉且 國師碑之 可記而未記者曰龍潭式照 聖讓景驚口惠希宥襟允正清龍善觀靈長玄甫石南迴閣嵩山可言太子本定右九師者 國師存日羽翼在卯未 青雲之際國師歿後角足成 始遊碧海之中 師之在時法席牛毛之數師之入滅禪座財鐘乳之多人謂之評曰九乳若鐘養九方之佛子一面如鏡正一國之君臣古所謂翼衆說說茲焉在焉其允正長老者軋聖同胎之弟也戒 持者名出有人存歿言行 人別錄其母氏夢任孟之日日入於寢室娠季之月月入於密窟果誕軋聖 有襟也豈翊曇諦阿母夢二物之徵慧住阿孃獲二果之瑞而已哉其仁浼者辰韓茂族人也人所謂 一代三崔金榜題迴曰崔致遠曰崔仁浼曰崔承祐猶中中人也學圍海岳加二車於五車才包風雲除三步於七步實君子國之君子亦大人鄉之大人是或折桂中花扇香風於上國 多羅域曜榮色於東鄉承 大師重席之恩撰 大師鴻碑之記白也執尺占天那 近遠傾聽酌海豈度小多然則言而不當默猶不可後 君子取之捨之而已

顯德元年歲在甲寅七月十五日立

句當事 迦虛長老

刻字 嵩太尙座 秀觀尙座 清直師 惠超師

院主 高賢長老 典座 清良 維那 秀宗 史 日言 直歲 規言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霞塔碑 側面 追記

余少時得金生筆跡於匪懈堂集古帖愛其龍跳虎臥之勢而傳世恨不多及來于榮開隣邑奉化縣有碑獨存於古寺之遺墟金生之書也余惜其希世之至寶埋沒於草莽之間而無人收護野牛之礪角牧童之敲火咸可慮也遂與郡人前參奉權賢孫共謀移轉而安置於字民樓下繚以欄檻固其扇戶苟非打模之人使不得出入恐其妄有犯觸也由是金生之筆跡廣傳於時而搢紳好事之徒爭先賞翫億千百年荒谷之棄石一朝輸入大廈而爲世所寶夫物之顯伏亦有其數歟余雖才能薄劣不及昌黎之博雅此物之遇賞則固不異於岐山之石鼓夫豈偶然哉貞德四年秋八月郡守洛西李沆記 朴訥書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문(표점각주)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文

新羅國 故 兩朝國師 教諭 朗空大師 白月栖雲之塔碑銘 并序

人 翰林學士 守 兵部侍郎 知瑞書院事 賜紫金魚袋 臣 崔仁洸 奉教 撰 金生 書 釋端目 集

夫 境希夷 玄津杳渺, 澄如滄海 邈若太虛, 智舟何以達其涯 慧駕莫能尋其際. 況復去聖逾遠 滯凡既深, 靡制心猿 難調意馬! 由是 徇虛棄實者 俱懷逐塊之情, 執有迷空者 盡起起炎之想. 若非哲人出世 開土乘時, 高演 宗 廣宣善誘, 何以爰 重玄之理 歸衆妙之? 潛認髻珠 密傳心印 達斯道者 豈異人乎? 大師是也.

大師 法諱 行寂, 俗姓 崔氏. 其先 周朝之尙父遐苗 齊國之丁公遠裔. 其後 使乎兎郡 留寓雞林, 今爲京萬河南人也. 祖諱 全, 避世辭榮 幽居養志. 父諱 佩常, 年登九歲 學冠三冬, 長牽投筆之心 仍效止戈之藝, 所以 繫名軍 充職戎行. 母 薛氏 夢見僧, 謂曰 “宿因所迫 願爲阿孃之子.” 覺後 感其靈瑞 啓所天, 自屏膾腴 勤爲胎教, 以大和六年 十二月 三十日 誕生.

大師 生標奇骨 有異凡流. 遊戲之時 須爲佛事, 每聚沙而造塔 常摘葉以爲香. 爰自青襟 尋師 帳, 請業則都忘寢食 臨文則忽括宗源. 嘗以深信金言 志遺塵俗, 謂父曰 “所願 出家修道 以報 罔極之恩.” 其父知有宿根 合符前夢, 不阻其志 愛而許之. 遂迺削染 緇 苦求遊學, 欲尋學海 歷選名山. 至 伽耶海印寺 便謁宗師 精探經論, 統雜花之妙義 該貝葉之 文. 師謂學徒曰 “釋子多 顏生好學, 昔 其語 今見其人, 豈 青眼赤髭 同年而語哉!”

大中九年 福泉寺官壇 受其具戒. 既而浮囊志切 繫草情深, 像教之宗 已勞力學, 玄機之旨 盍以心求? 所以 杖策挈瓶 下山尋路, 詣 嶺山 謁通曉大師 自投五體 虔啓衷懷. 大師 便許昇堂 遂令入室. 從此服膺數載 勤苦多方. 雖至道 目擊 成山之志 而常齊淡薄 神疲增煮海之 勞 則知歷試諸難 多能鄙事 每 坐臥 只念遊方. 遂 咸通十一年 投入僞朝使 金公緊榮, 西笑之 心 陳所志, 金公 情深傾蓋 許以同舟. 無何 利涉大川 達于西岸.

此際 不遠千里 至 上都. 尋蒙有司 特具事由 奏 天聽, 降 宜令 左街寶堂寺 孔雀王院 安置 大師. 所喜 神居駐足 勝境栖心. 未幾 降誕之辰 徵入內. 懿宗皇帝 遽弘至化 虔仰玄風, 大 師曰 “遠涉滄溟 有何求事?” 大師對 曰 “貧道 幸獲觀風上國 道中華, 今日 叨沐鴻恩 窺 盛事. 所求 遍遊靈跡 追尋赤水之珠, 還耀吾鄉 更作青丘之印.” 天子 厚加寵賚 甚善其言, 猶如 法秀之逢晉文 曇鸞之對梁武, 古今雖異 名德尤同.

以後 至五臺山 投花嚴寺 求感 文殊大聖. 先上中臺 忽遇神人 眉皓介, 叩頭作禮 膜拜 恩,

25) 비문에는 ‘披’로 되어 있으나, ‘被’로 써야 옳다.

26) 비문에는 이 부분에 두 글자가 들어갈 만한 공백이 있다. 다른 곳의 공백은 이른바 ‘間字法’이 적용된 곳이지만, 이 곳은 그러하지 않음에도 비어 있다. 그 까닭은 확실치 않다. 두 글자가 있다면 글의 형식에서 對偶가 이루어지게 되니, 아마도 두 글자가 들어가야 할 듯하다.

謂大師曰“不易遠來善哉佛子! 莫淹此地 速向南方, 認其五色之霜 必沐曇摩之雨.” 大師 含悲頂別 漸次南行. 亂符二年 至成都俯²⁷⁾巡謁, 到靜衆精舍 禮無相大師影堂, 大師 新羅人也. 因謁 寫真具圖遺美, 爲唐帝導師 玄宗之師. 同鄉唯恨 異其時, 後代所求 追其迹.

企圖 石霜慶諸和尚 啓如來之室 演迦葉之宗, 道樹之陰 禪流所聚, 大師 殷勤禮足 曲盡虔誠, 仍栖方便之圖 果得摩尼之寶. 俄而追遊衡岳 參知識之禪居, 遠至潛溪 孔祖師之寶塔, 傍東山之遐秀 採六葉之遺芳, 四遠參尋 無方不到.

雖觀空色 豈忘偏陞! 以中和五年 來歸故國時 也至岷嶺 重謁大師. 大師云“且喜早歸 豈期相見! 後學 各渴其賜 念茲在茲.” 所以 再托扉蓮 不離左右. 中間 忽携瓶鉢 重訪水雲, 或錫飛五嶽之初 暫栖天柱, 或盃渡三河之後 方住水精. 至文德二年四月中 岷山大師寢疾, 便泐故山精勤侍疾. 至歸化 付囑傳心者 唯在大師一人而已.

初錫朔州之建子若²⁸⁾ 纔修茅舍 始啓山門, 來者如雲 朝三暮四. 頃歲 時當厄運 世屬此蒙, 災星長照三韓 毒露常鋪四郡, 况巖谷 無計潛藏! 軋寧初 至止王城 薰蒼蒿焚香之寺, 光化末 旋歸野郡 植檀薙草之墟. 所恨 正值魔軍 宣佛道.

孝恭大王 驟登寶位 欽重禪宗, 以大師獨步海東 孤標天下, 特遣僧正法賢等 聊飛鳳筆 徵赴 皇居. 大師謂人曰“自欲安禪 終須助化. 吾道之流末代 外護之恩也.” 乃以天祐三年秋九月初 忽出溟郊 方歸京邑. 至十六日 引登秘殿 孤坐禪床, 主上 預淨宸襟 整其冕服, 待以國師之禮 虔申鑽仰之情. 大師 辭色從容 神儀自若, 尊道說義軒之術 治邦談堯舜之風, [如]²⁹⁾鏡忘疲 洪鍾待扣. 有親從上殿者四人 曰 行謙 遂安 信宗 讓規. 讓景 行超十哲 名蓋三禪, 探玄鄉之秘宗 論絕境之幽技. 聖人見頻迴塵尾 甚悅龍顏.

忽明年夏末 乍別京畿 略遊海嶠 至金海府. 蘇公忠子知府 及第³⁰⁾律熙領軍 莫不斂衽欽風 開襟慕道, 請居名寺 冀福蒼生. 十大師³¹⁾ 可以栖遲 暗垂慈化, 掃妖煙塞外 灑甘露山中.

神德大王 光統丕圖 寵徵赴闕. 至貞明元年春 大師遽携禪衆 來至帝鄉, 依前命 南山實際寺安之. 此寺則先是 聖上 以黃閣潛龍 禪局附鳳 尋付大師 永爲禪宇. 此時 奉迎行所 重謁慈顏, 爰開有待之心 再聽無爲之說.

辭還之際 特結良因. 爰有女弟子明瑤夫人 龍島宗枝 鳩林冠族. 仰止高山 尊崇佛理, 以石南山 寺請爲領袖 永以住持. 秋七月 大師 以甚愜雅懷 始謀栖止. 此寺也 遠連四岳 高駝南溟, 溪澗爭流 酷似金與³²⁾之谷, 巖巒鬪峻 疑如紫蓋之峯, 誠招隱之幽窟 亦栖禪之佳境者也. 大師 遍探靈巖

27) 비문에는 ‘俯’로 되어 있으나, ‘府’로 써야 옳다.

28) 비문에는 ‘建子若’로 되어 있으나, 아마도 ‘建子蘭若’에서 ‘蘭’자가 빠진 것이 아닌가 싶다.

29) 비문에는 없지만, 문맥으로 볼 때 여기에 한 글자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광조사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의 비문에 동일한 구절이 실려 있어서, 그 글자는 ‘如’로 추정할 수 있다.

30) 비문에는 ‘第’로 되어 있으나, ‘弟’로 써야 옳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1) 비문에는 ‘十大師’로 되어 있는 듯하나, 절단된 부분이라 명확치 않다. 만일 ‘十大師’로 되어 있다면 내용으로 볼 때 ‘十’자는 없어야 오히려 옳을 듯하다.

未有定居，初至此山 以爲終焉之所。

至明年春二月初 大師 覺其不念 稱染微痼，至十二日詰旦 告衆曰“生也有涯 吾將行矣。守而勿失 汝等勉旃。”趺坐繩床 儼然就滅，報齡八十五 僧臘六十一。于時 雲霧晦冥 山巒震動。有山下人望山頂者 五色光氣 衝空，中有一物上天 宛然金柱，豈止智順則天垂花盖 法成則空斂靈棺而已哉！**柩**是 **闍**人等 傷割五情 若亡天屬，至十七日 敬奉色身 假隸于西峯之麓。聖考大王 忽聆遷化 良惻仙襟，特遣中使 監護葬儀 仍令吊祭。至三年十一月中 改葬**柩**東巒之頂，去寺三百**來**步。全身不散 神色如常，門下等 重覩慈顏 不勝感慕，仍施石戶封**閉**。

大師 資靈河岳 稟氣星辰，居縷褐之英 應黃裳之吉。由是 早栖禪境 久拂客塵，裨二主**柩**兩朝 濟群生**柩**三界，邦家安太 魔賊歸降，則知大覺**真**身 觀音後體，啓玄關而敷揚至理 開慈室而汲引玄流。生命示亡 效鶴樹歸**真**之跡，化身如在 追雞峯住寂之心，存歿化人 始**終**弘道，可謂定慧無方 神通自在者焉。

弟子 信宗禪師·周解禪師·林侶禪師 等五百**來**人 共保一心 皆居上足 常勤守護 永切追攀。每念巨海塵飛 **高**風電**絕**，累趁魏闕 請樹豐碑。今上 克纘洪基 恭承寶籙，欽崇禪化 不異前朝，贈諡曰朗空大師，塔名 白月栖雲之塔。爰命微臣 宜修**壙**³²⁾曰，仁澆 固辭不免 唯命是從。輒課菲詞 式揚餘烈，譬如提壺酌海 莫知溟渤之深，執管闢天 難測穹蒼之闊。然而早蒙慈**悔** 眷以宗盟，唯以援筆有情 著文無愧，強名玄道 將報法恩。其詞曰

至道無爲 猶如大地， 萬法同歸 千**一**一致。 粵惟正覺 誘彼群類， 聖凡有殊 開悟無異。
懿歟禪伯 生我海東， 明同日月 量等虛空。 名由德顯 智與慈融， 去傳法要 **來**化童蒙。
水月澄心 煙霞匿曜， 忽飛美譽 頻降佳召。 扶贊兩朝 闡揚玄教， 瓶破燈明 雲開月昭。³⁴⁾
哲人去世 緇素傷心， **徒**願切 國主恩深。 塔封巒頂 碑倚溪潯， 芥城雖盡 永曜禪林。

32) 비문에는 ‘興’로 되어 있으나, ‘輿’로 되어야 옳다.

33) 비문에는 ‘壙’로 되어 있으나, ‘壙’로 써야 옳다.

34) 비문에는 ‘瓶破燈明雲開月昭’로 되어 있다. 銘은 너 자씩 띄워서 글씨를 새겼으므로 ‘瓶破燈明 雲開月昭’로 해야 일관성이 유지된다.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陰記

新羅國 石南山 故 國師 碑銘 後記

下法孫 釋純白 述

恭惟 我國大師 始自出胎 終於沒齒，生緣眷屬 觸事因緣，卽生金長老允正 所修錄具之，人崔大相仁澆 所撰碑述之。今白之所記者 卽以 大師於唐新羅國 景明王之天祐年中 化緣畢已。明王 諡號銘塔 仍崔仁澆侍郎 使撰碑文。然以 世雜人猾 難爲盛事。是以 年新月古 未立碑文。至後高麗國 几平四郡 鼎正三韓，以顯德元年七月十五日 樹此豐碑於太子山者，良有良緣者乎。

爰有國師之神足 國主寺之僧頭 軋聖院和尚者，法諱 讓景 俗姓 金氏 字曰 舉國。爲師而或 或心 爲王而乍耳乍目。將恐芳風掃 美跡雲消，黃絹將爛 翠琰弗植，師恩雀報 自立龜碑。和尚王父 藹 元聖王之表孫 憲康王之外庶舅。清廉謠聒於街路，忠孝譽 酣於尊卑。內知執事侍郎 外任涇江都護。父 詢禮 才兼六藝 學慣五經，月下風前 屬緣情物之句，春花夜月 呈撫絃韻竹之聲。內至執事含香 外赴朔州長史。和尚 始自華色 終於叟身，動止言謨 行蹤風格，可備別錄 此略言焉。

且國師碑之與錄 可記而未記者。曰 龍潭式照 軋聖讓景·鶯口惠希·宥襟允正·清龍善觀·靈長玄甫·石南迴閑·嵩山可言·太子本定。右九師者 國師存日 羽翼在卯 未翻青雲之際，國師歿後 角足成 始遊碧海之中。師之在時 法席 牛毛之數，師之入滅 禪座財鐘乳之多。人謂之評曰 “九乳若鐘 養九方之佛子，一面如鏡 正一國之君臣。” 古所謂 翼衆洗洗 茲焉在焉。

其允正長老者 軋聖同胎之弟也。戒高持者 名出有人，存歿言行 人別錄。其母氏 夢任 孟之日 日入於寢室，娠季之月 月入於密窟，果誕軋聖與宥襟也。豈翅曇諦阿母 夢二物之徵，慧住阿孃 獲二果之瑞而已哉！

其仁澆者 辰韓茂族人也。人所謂 ‘一代三崔 金榜題迴’，曰崔致遠·曰崔仁澆·曰崔承祐，猶中中人也。學圍海岳 加二車於五車，才包風雲 除三步於七步，實君子國之君子 亦大人鄉之大人。

35) 이 부분은 한 글자는 비어 있고, 한 글자는 박락되어 무슨 글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36) 뒤의 구절과 對偶를 이루는 형식으로 미루어 여기에 한 글자가 있어야 할 듯하다.

是或折桂中花 扇香風於上國，**得**多羅域 曜榮色於東鄉，承大師重席之恩 撰大師鴻碑之記。

白也 執尺占天 那**終**近遠，傾蠡酌海 豈度小多。然則 言而不當 默猶不可，後**來**君子 取之捨之而已。

顯德元年歲在甲寅七月十五日 立

句當事**僧** 迥虛長老

刻字**僧** 嵩太尚座 秀**規**尚座 清直師 惠超師

院主**僧** 嵩賢長老 典座**僧** 清良 維那**僧** 秀宗 史**僧** 日言 直歲**僧** **規**言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 側面 追記

余少時 得金生筆跡於匪懈堂集古帖 愛其龍跳虎臥之勢 而傳世恨不多。及來于榮 聞隣邑奉化縣 有碑獨存於古寺之遺墟 金生之書也。余惜其希世之至寶 埋沒於草莽之間 而無人收護，野牛之礪角 牧童之敲火 咸可慮也。遂與郡人前參奉權賢孫 共謀移轉 而安置於字民樓下，繚以欄檻 固其扃戶。苟非打模之人 使不得出入 恐其妄有犯觸也。由是 金生之筆跡 廣傳於時，而搢紳好事之徒 爭先賞翫。噫！千百年荒谷之棄石 一朝輸入大廈 而爲世所寶，夫物之顯伏 亦有其數歟。余雖才能薄劣 不及昌黎之博雅，此物之遇賞 則固不異於岐山之石鼓，夫豈偶然哉。貞德四年 秋八月 郡守 洛西 李沆 記 朴訥 書。



○ 현 상

봉화군 소재 태자사의 낭공대사비는 954(광종5)에 세워졌다. 신라 말 고려 초에 활동한 낭공대사(832-916)의 행적을 적은 것으로 비문은 최인연이 지었다. 純白이 지은 비음과 함께 김생의 글씨를 승려 端目이 집자하여 완성한 것이다.

비신의 중앙부분이 빗기어 절단되어 있고 개석은 물론 篆額조차 없지만 비문의 글씨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비문은 낭공대사가 입적한 다음해에 지어졌고 세워지기는 38년 이후의 일이다. 음기는 대사의 직계자손인 승려 純白의 문장인데 당시에 곧장 비를 세우지 못한 이유를 쓰고 다시 대사의 제자인 讓景과 允正에 대해 서술하고 비문의 찬자인 최인연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여타의 비와 다르다.

이 비는 절터의 잡초에 묻혀있었는데 1509년(중종4)에 당시 영주군수였던 李沆이 字民樓로 옮긴 후 그 내력을 朴訥에게 쓰게 하여 비의 왼쪽 측면에 비문의 글씨보다도 더 큰 글씨로 새겨놓았다. 이는 사료적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비의 존엄이나 위상을 손상한 감이 짙다.

1918년에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옮겨져 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치되었다.

탁본은 『해동명적』이나 『대동금석서』 등에 편린이 실려 있고 1966년에 일본에서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白月碑」 천지인 삼권의 탁본으로 그 전모를 대할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일찌기 김생을 해동서성이라고 했듯이 명불허전의 글씨면목이다.

단목이 집자 할 때는 김생의 생존시로부터 약 300년 이후의 일이다. 김생의 육필이나 필획이 당시에 얼마나 남아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완미에 가까운 집자의 면모로 볼 때 김생의 글씨가 꽤 남아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겠다. 물론 단목의 집자도 매우 빼어나다.

김생이 창림사비를 썼다고 전하는데 탁본조차 없는 것이 아쉽다. 지금 대할 수 있는 <元和帖>은 김생의 필치에 방불치 못하며, <田遊巖山家序>도 글씨의 수준이나 글자의 숫자로 볼 때 낭공대사비에는 턱없이 못 미쳐 김생의 진면목은 대할 수 없다.

혹자는 랑공대사비에 대해서 “필력은 건경하나 필치에 무리와 과장이 많을 뿐 아니라 전체에 풍기는 누기가 심하다. 그 동안 극찬해 온 것은 해동서성이라는 선입관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으며 높은 서명에 비해 손색이 크다(한국미술사. 대한민국의예술헌원. 1984.376pp 참조)” 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왕희지의 범이면서도 왕희지와 다른 이른바‘王底金面’의 결구법이 도처에 드러나고 대소의 參差와 획의 粗細 등의 변화 등 독구면목의 개성

과 우리의 토속적인 풍치가 묻어나 있는 자랑스러운 글씨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지난해 말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에서 주최한 한국서예명적발간기념전에 마침 낭공대사비조에 속하여 이에 〈金生集字白月棲雲碑〉라는 제목의 시를 지어 출품한 바 있는데 이로서 말미를 대신하고자 한다.

海東書聖在	우리나라에도 서성 있으니
崛起寒微中	한미한 가문에서 불쑥 일어나
一生迷晉韻	일생을 썸風의 신운에 넋을 잃고는
逼真自會通	핍진하여 절로 회통 하였다네
精妙縱橫盡	정묘함과 자유자재를 다하여
羲之莫比功	왕희지도 그 공력엔 비할 수 없고
曾示宋顯貴	일찌기 송의 고관에게 보였을 제
羅迹不信終	끝내 신라의 필적으로 믿지를 못 했다네
字姿頑厚樸	글씨의 자태 우둔한 듯 두터워
土俗滋味豐	우리의 토속미 가득하고
筆勢勁且澁	필세의 굳세고 깔끄러움
銹露鐵心同	씩여져 드러난 鐵心이어라
端目集白月	단목이 집자한 백월비
可媿懷仁工	회인의 빼어남과 필적 할 만 하고
獨具唯得見	김생의 독구면목 오직 이에서 볼 수 있으니
傳寶永無窮	영원무궁토록 보물로 전해야 하리라



○ 현상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는 본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1082번지에 위치하였던 태자사 터에 있었으나, 사찰이 폐사된 이후 조선 중종때 영천시 영천면 휴천리로 옮겨졌고, 다시 1918년 경북궁 근정전 회랑으로 비신만이 옮겨져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다. 사찰터에 남겨진 귀부 및 이수(太子寺址龜趺 및 螭首)로 지정(1985.08.05)되어 있다.

비신은 현재 중앙이 절단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太子寺郎空大師白月栖雲塔碑」는 朗空大師 行寂 [832(흥덕왕7)~ 916(신덕왕5)]의 탑비이다. 대사는 河東崔氏로 佩常의 아들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가야산 해인사에서 화엄의 妙義를 배웠다고 전한다. 문성왕 9년(847)에 福泉寺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 掘山寺의 通曉大師를 찾아가 수년 동안 수행하였고, 이후 경문왕 10

년(870) 조공사 金聚榮을 따라 당에 건너가 寶堂寺 孔雀王院에 머물렀다.

대사는 헌강왕 1년(875)에 成都의 靜衆精舍에 가서 신라승 無相大師의 影堂에 예배하였고, 다시 靑原 문하의 石霜으로부터 心印을 전하여 받았다.

885년에 귀국하여 다시 掘山寺의 通曉大師를 모시며 그의 법을 이어받았는데, 897년 효공왕이 즉위하여 대사를 國師의 예로써 대우하였고, 신덕왕도 國師로 삼고 915년(신덕왕 4) 남산의 實際寺를 禪刹로 바꾸어서 머무르게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石南山寺에 머무르다가 입적하였다. 시호는 朗空大師, 塔號는 白月栖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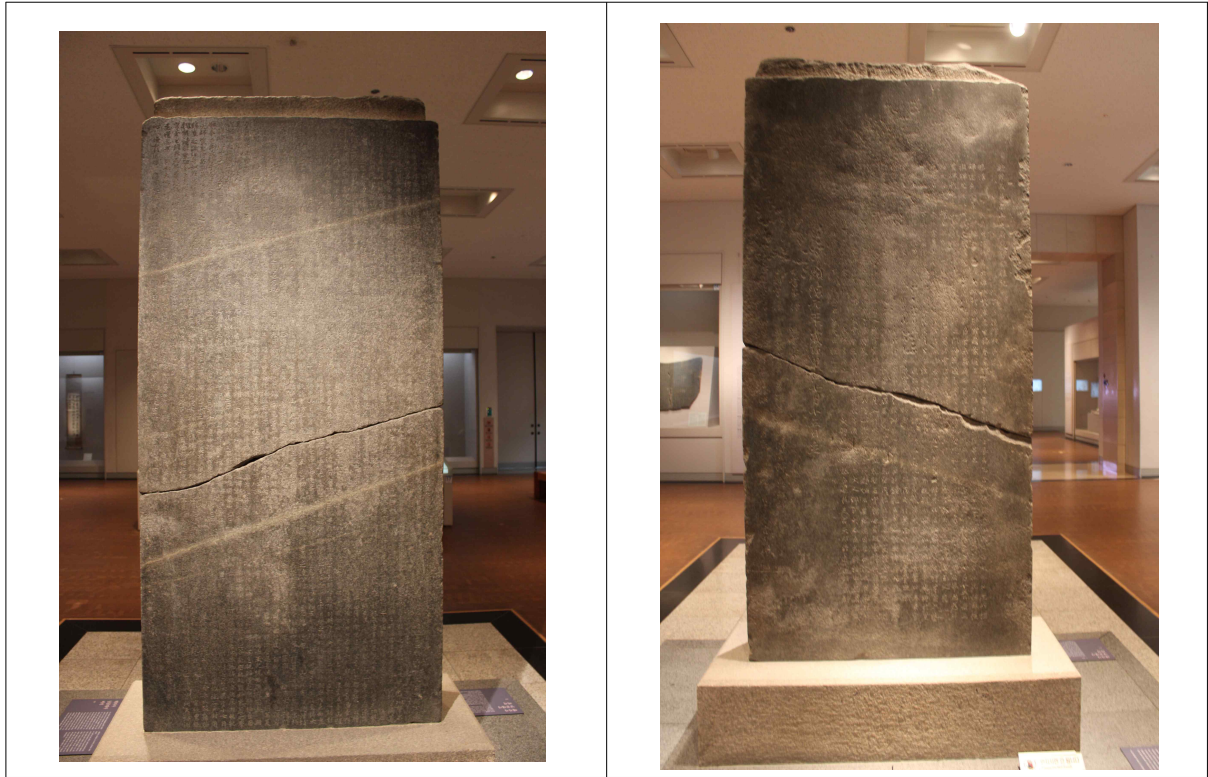
비문은 앞면을 崔仁澆이 짓고, 뒷면은 대사의 門下法孫인 釋純白이 지었다. 이를 승려 端目이 명필 金生의 행서 글씨를 집자하여 승려 嵩太, 秀規, 淸直, 惠超가 새겨 954년(광종 5)에 세웠다. 전체 비문은 31행에 1행 83자이다.

한편 비의 측면에는 조선 중종 4년(1509)에 영천군수 李沆이 태자사지로부터 영천의 字民樓로 옮겨온 사실이 朴訥의 글씨로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낭공대사의 행적으로 태어나 해인사로 출가하고 사굴산문 범일의 제자가 되어 당에 건너가 石霜慶諸의 법을 잇고 돌아와 효공왕의 초빙도 받고 김해 호족인 김윤희의 귀의도 받다가 입적한 생애가 기술되어 있다.

음기는 954년에 비를 세울 때 純白이 대사의 제자인 讓景과 允正에 대해 길게 서술하고 비문 찬자인 최인연에 대해서도 기술한 것이 특색이다. 마지막에 건립 담당 승려와 각자, 확대된 三綱職이 나온다.

김생의 글씨를 연구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당시 유행하던 歐陽詢類의 글씨를 따르지 않고, 짙과 南朝의 필의를 모방하면서도 획에 太細曲直의 변화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新羅國故 兩朝國師 教謚朗空大師白月棲雲之塔碑銘并序」

門人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院事賜紫金魚袋 (臣)崔仁滾奉教撰」

金生書 釋端目集

聞夫眞境希夷玄津杳渺澄如滄海邈若太虛智舟何以達其涯慧駕莫能尋其際況復去聖逾遠滯凡既深靡制心猿難調意馬由是徇虛棄實者俱懷逐塊之情執有迷空者盡起趨炎之想若非哲人出世開士乘

時高演眞宗廣宣善誘何以爰重玄之禮得歸衆妙之門認警珠密傳心印達斯道者豈異人乎大師是也」

大師法諱行寂俗姓崔氏其先周朝之尚父遐苗齊國之丁公遠裔其後使乎兗郡留寓雞林今爲京萬河南人也祖諱全避世辭榮幽居養志父諱佩常年登九歲學冠三冬長牽投筆之心仍效止戈之藝所以繫名」

軍旅充職戎行母薛氏夢見僧謂曰宿因所迫願爲阿孃之子覺後感其靈瑞備啓所天自屏臆勤爲胎教以大和六年十二月三十日誕生 大師生標奇骨有異凡流遊戲之時須爲佛事每聚沙而造塔常摘葉」

以爲香爰自青襟尋師絳帳請業則都忘寢食臨文則惣括宗源嘗以深信金言志遺塵俗謂父曰所願出家修道以報罔極之恩其父知有宿根合符前夢不阻其志愛而許之遂迺削染披緇苦求遊學欲尋學海歷

選名山至於伽耶海印寺便謁宗師精探經論統雜花之妙義該貝葉之眞文師謂學徒曰釋子多聞顏生好學昔聞其語今見其人豈與青眼赤髭同年而語哉大中九年於福泉寺官壇受其戒旣而浮囊志切繫

草情深像教之宗已勞力學玄機之旨盡以心求所以杖策挈瓶下山尋路徑詣岫山謁通曉大師自投五體虔啓衷懷大師便許昇堂遂令入室從此服膺數載勤苦多方雖至道阻且難成山之志而常齋淡簿」

神疲增煮海之勞則知歷試諸難多能鄙事每於坐臥只念遊方遂於咸通十一年投入僭朝使金公繁榮西笑之心備陳所志金公情深傾蓋許以同舟無何利涉大川達于西岸此際不遠千里至於上都尋蒙有司特

事由奏聞 天聽降敕宜令左街寶堂寺孔雀王院安置大師所喜神居駐足勝境栖心未幾降誕之辰來敕徵入內懿宗皇帝遽弘至化虔仰玄風問大師曰遠涉滄溟有何求事大師對 勅曰貧道幸獲

觀風 上國問道 中華今日叨 沐鴻恩得窺盛事所求遍遊靈跡追尋赤水之珠還耀吾鄉更作青丘之印 天子厚加寵賚甚善其言猶如法秀之逢晉文曼鸞之對梁武古今雖異名德尤同以後至五臺山投

花巖寺求感於文殊大聖先上中臺忽遇神人鬢眉皓爾叩頭作禮膜拜祈恩謂大師曰不易遠來善哉佛子莫淹此地速向南方認其五色之霜必沐曇摩之雨大師含悲頂別漸次南行乾符二年至成都俯巡謁到

靜衆精舍禮無相大師影堂大師新羅人也因謁寫眞聞遺美爲唐帝導師 玄宗之師同鄉唯恨異其時後代所求追其跡企聞石霜慶諸和尚啓如來之室演迦葉之宗道樹之陰禪流所聚大師殷勤禮足曲盡

虔誠仍栖方便之門果得摩尼之寶俄而追遊衡岳叅知識之禪居遠至漕溪禮祖師之寶塔傍東山之遐秀採六葉之遺芳四遠參尋無方不到雖觀空色豈忘偏陋以中和五年來歸 故國時也至於岫嶺重謁大

師大師云且喜早歸豈期相見後學各得其賜念茲在茲所以再託扉蓮不離左右中間忽携瓶鉢重訪水雲或錫飛於五嶽之初暫栖天柱或盃渡於三河之後方住水精至文德二年四月中岫山大師寢疾便往故

山精勤侍疾至於歸化付囑傳心者唯在大師一人而已初懇錫於翔州之建子若纔修茅舍始啓山門來者如雲朝三暮四頃歲時當厄運世屬此蒙災星長照於三韓毒露常鋪於四郡況於巖谷無計藏軋寧初

至止王城薰營於焚香之寺光化末旋歸野郡植旃檀於薙草之墟所恨正值魔軍將宣佛道 孝恭大王驟登寶位欽重禪宗以大師獨步海東孤標天下特遣僧正法賢等聊飛 鳳筆徵赴 皇居大師謂門

人曰自欲安禪終須助我吾道之流於末代外護之恩也乃以天祐三年秋九月初忽出溟方歸 京邑至十六日引登 秘殿孤坐禪床主上預淨宸襟整其冕服待以國師之禮虔申鑽仰之情大師辭色從容

神儀自若尊道說義軒之術治邦談 堯舜之風鏡忘疲洪鍾待扣有親從上 殿者四人曰行謙邃安信宗讓規讓景行超十哲名蓋三禪探玄鄉之秘宗論絕境之幽致所聖人見之尚頻迴塵尾甚悅龍顏忽於明年夏

末乍別 京畿略遊海嶠至金海府 蘇公忠子知府及第律熙領軍莫不欽衽欽風開襟慕道請居名寺冀福蒼生十六師四可以栖遲暗垂慈化掃妖煙於塞外灑甘露於山中 神德大王光統丕圖寵徵赴 闕

至貞明元年春大師遽携禪衆來至 帝鄉依前命南山實際寺安之此寺則先是 聖上以黃閣龍禪局附鳳尋付大師永爲禪宇此時奉迎 行所重謁慈顏爰開有待之心再聽無爲之說辭還之際特結良因

爰有女弟子明瑤夫人龔島宗枝鳩林冠族仰止高山尊崇佛理以石南山寺請爲收領永以住持秋七月大師以甚愜雅懷始謀栖止此寺也遠連西岳高壓南溟溪澗爭流酷似金輿之谷巖巒峻疑如紫蓋之峰

誠招隱之幽樞亦栖禪之佳境者也大師遍探靈壑未有定居初至此山以爲終焉之所至明年春二月初大師覺其不忿稱染微病至十二日詰旦告衆曰生也有涯吾將行矣守而勿失汝等勉旃跌坐繩床儼然就

滅報八十五僧臘六十一于時雲霧晦冥山巒震動有山下人望山頂者五色光氣衝於空中中有一物上天宛然金柱豈止智順則天垂花蓋法成則空歛靈棺而已哉於是門人等傷割五情若忘天屬至十七日

敬奉色身假隸于西峯之麓

聖考大王忽聆遷化良惻仙襟特遣中使監護葬儀仍令邑祭至三年十一月中改葬於東巒之頂去寺三百來步全身不散神色如常門下等重觀慈顏不勝感慕仍施石戶封閉」

大師資靈河岳稟氣星辰居縷褐之英應黃裳之吉由是早栖禪境久拂客塵裨二主於兩朝濟群生於三界邦家安太魔賊歸降則知大覺真身觀音後體啓玄關而敷揚至理開慈室而汲引玄流生命示亡效鶴樹」

歸真之跡化身如在追雞峯住寂之心存歿化人始終弘道可謂定慧無方神通自在者焉 弟子信宗禪師周解禪師林偁禪師等五百來人共保一心皆居上足常勤守護永切追攀每念巨海塵飛高風電絕累趨」

魏闕請樹豐碑今上克纘洪基恭承寶籙欽崇禪化不異前朝贈諡曰朗空大師塔名白月栖雲之塔爰命微臣宜修壘白仁滾固辭不免唯命是從輒課非詞式揚 餘烈譬如提壺酌海莫知溟渤之深執管闕天難測」

穹蒼之闕然而早蒙慈誨眷以宗盟唯以援筆有情著文無愧強名玄道將報法恩其詞曰」

至道無爲 猶如大地 萬法同歸 千門一致 粵惟正覺 誘彼群類 聖凡有殊 開悟無異 懿歟禪伯 生我海東 明同日月 量等虛空 名由德顯 智與慈融 去傳法要 來化童蒙 水月油澄」

心 煙霞匿曜 忽飛美譽 頻降佳召 扶贊兩朝 闡揚玄教 瓶破燈明 雲開月昭 哲人去世 緇素傷心 門徒願切 國生恩深 塔封巒頂 碑倚溪潯芥城雖盡 永曜禪林」

(陰記)

新羅國石南山故國師碑銘後記」

門下法孫釋純白述」

恭維 我國大師始自出胎終於沒齒生緣眷屬觸事因緣即門生金長老允正所修錄之門人崔大相仁滾所撰」

碑述之今白之所記者 罔以大師於唐新羅國景明王之天祐年中化緣畢已 明王諡號銘塔仍勅崔仁滾侍郎使」

撰碑文然以世雜人狃難爲盛事是以年新月古未立碑文至後高麗國几平四郡鼎正三韓以顯德元年七月十五日樹此」

豐碑於太子山者良有良緣者乎爰有國師之門神足國主寺之僧頭乾聖院和尚者法諱讓景俗姓金氏字曰舉國爲師」

而或體或心爲王而乍耳乍目將恐芳塵風掃美跡雲消黃絹將爛翠琰弗植 師恩雀報自立龜碑和尚王父藹」

元聖王之表來孫憲康王之外庶舅清廉聒於街路忠孝譽酣於尊卑內知執事侍郎外任涇江都護父詢禮才兼六藝」

學慣五經月下風前屬緣情體物之句春花夜月呈撫絃韻竹之聲內至執事含香外赴朔州長史和尚始自華色終於叟」

身動止言謨行蹤風格可備別錄此略言焉且 國師碑之與錄可記而未記者曰龍潭式照乾聖讓景鶯囀希宥」

襟允正清龍善觀靈長玄甫石南迴閑嵩山可言太子本定右九師者 國師存日羽翼在卯未翥青雲之際」

國師歿後角足成體始遊碧海之中 師之在時法席牛毛之數師之入滅禪座財鍾乳之多人謂之評曰九乳若鍾養」

九方之佛子一面如鏡正一國之君臣古所謂翼衆誦誥茲焉在焉其允正長者乾聖同胎之弟也戒高持者名出有人存」

破言行門人別錄其母氏夢任孟之日日入於寢室娠季之月月入於密窟果誕乾聖與有襟也豈翹曇諦阿母夢二物之」

徵慧住阿孃獲二果之瑞而已哉其仁滾者辰韓茂族人也人所謂一代三崔金榜題迴曰崔致遠曰崔仁滾曰崔承祐猶」

中中人也學圍海岳加二車於五車才風雲除三步於七步實君子國之君子亦大人鄉之大人是或折桂中花扇香風」

於上國得多羅域曜景色於東鄉承 大師重席之恩撰 大師鴻碑之記白也執尺占天那終近遠傾蠡酌海豈 度小多然則言而不當默猶不可後來君子取之捨之而已」

顯德元年歲在甲寅七月十五日立」

句當事僧 迥虛長老」

刻字僧 嵩太尚座 秀規尚座 清直師 惠超師」

院主僧 嵩賢長老 典座僧 清良 維那僧」

秀宗史僧 日言 直歲僧 規言」

신라국(新羅國) 고양조국사(故兩朝國師) 교시낭공대사(敎諡朗空大師) 백월서운지탑비명(白月栖雲之塔碑銘)과 아울러 서문.

문인(門人) 한림학사(翰林學士) 수병부시랑(守兵部侍郎) 지서서원사(知瑞書院事) 사자금어대(賜紫金魚袋) 신(臣) 최인연(崔仁淹)이 왕명을 받들어 짓고, 석단목(釋端目)이 김생(金生)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여 새기다.

듣건대 진리의 경계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현현(玄玄)한 진리의 세계로 가는 나무터는 멀고도 아득하니, 맑기는 푸른 바다와 같고 멀기는 높은 허공과 같도다. 분별의 배로써 어찌 그 끝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오. 지혜(智慧)의 수레로써도 능히 그 끝까지 이를 수 없으니, 하물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되었고, 범부(凡夫)의 어둠이 더욱 깊어져서 원숭이처럼 날뛰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삐 없는 말처럼 떠도는 의식을 조복받기란 더더욱 어렵도다. 이로 인하여 헛된 것만 따라가고 진실을 저버리는 자들이 모두 축귀(逐塊)하는 뜻을 품고 유(有)에 고집하고 공(空)의 이치에 미혹한 이는 모두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로 잘못 알고 그 곳으로 쫓아가려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만약 철인(哲人)이 출세(出世)하고 개사(開士)인 도사(導士)가 때때로 나타나 진종(眞宗)을 나타내며 참된 방편을 널리 선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중중현현(重重玄玄)한 진리를 분석하여 중묘(衆妙)의 문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으리오.

그윽이 계주(髻珠)를 찾고 비밀리 심인(心印)을 전수하여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분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낭공대사(朗空大師)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대사의 법휘(法諱)는 행적(行寂)이며, 속성은 최씨(崔氏)이다. 그의 선조는 주조(周朝)의 상보(尙父)인 강태공(姜太公)의 먼 후예이며, 또한 제(齊)나라의 정공(丁公)인 여급(呂伋)의 후손인데, 그 후 토군(兎郡)에 사신으로 왔다가 계림(鷄林)에 남게 되었으니, 지금의 경만(京萬) 즉 하남(河南) 사람이다. 할아버지의 휘(諱)는 전(全)이니, 세상의 영화를 모두 던져버리고 숨어 살면서 뜻을 지켰다. 아버지의 휘(諱)는 패상(佩常)이니, 9살 때 이미 관(冠)을 쓰고 약 삼동(三冬) 동안 공부하다가 자라서는 영원히 학문할 마음을 던져 버리고 무예(武藝)를 본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름을 군려(軍旅)에 두고 무술(武術)을 익히는데 열중하였다.

어머니는 설씨(薛氏)이니, 꿈에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숙세(宿世)의 인연을 좇아 아양(阿孃)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 하거늘, 꿈을 깬 후 그 영서(靈瑞)를 감득하고는, 그 일을 소천(所天)에게 낱낱이 여쭙었다. 그로부터 어머니는 비린내 나는 육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태교를 하였다. 그 후 태화(太和) 6년 12월 30일에 탄생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골상이어서 보통사람과는 달랐다. 아이들과 놀 때에는 반드시 불사(佛事)를 하였으니, 항상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고 풀잎을 따서 향으로 삼았다. 푸른 옷을 입는 어릴 때부터 학당(學堂)으로 선생을 찾았으며, 공부를 할 때에는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잊었고, 문장(文章)에 임해서는 그 뜻의 근본을 총괄하는 예지가 있었다.

일찍부터 부처님 말씀을 깊이 믿었고, 마음으로는 세속을 떠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아버지에게 고하되 “나의 소원은 출가수도(出家修道)하여 부모님의 끝없는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입니다”라 하니, 아버지 또한 숙세(宿世)부터 선근(善根)이 있어, 전날의 태몽과 합부(合符)하는 줄 알고는 그 뜻을 막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였으나, 슬픔을 머금고 승낙하였다.

드디어 머리를 깎으며 먹물 옷을 입고 고행을 일삼아 배우기를 구하되, 큰 가르침을 찾아 명산대찰을 두루 다니다가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에 이르러 종사(宗師)를 친견하고, 경론(經論)을 깊이 탐구하여 잡화(雜花)의 묘의(妙義)를 통괄하고 경전의 참 뜻을 해통(該通)하였다. 어느 날 스님께서 학도(學徒)들에게 이르시되, “석자(釋子)는 다문(多聞)이요 안생(顔生)은 호학(好學)이라 하였는데, 옛날에는 그 말만 들었지만 이제 참으로 그런 사람을 보았으니, 어찌 청안(靑眼)과 적자(赤髭)를 비교해 같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대중(大中) 9년 복천사(福泉寺) 관단(官壇)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는 부낭(浮囊)에 대한 뜻이 간절하였고, 초계비구(草繫比丘)와 같이 자비의 정이 깊었다. ‘상교(像敎)의 중지(宗旨)는 이미 최선을 다하여 배우고 힘썼지만, 현기(玄機)의 비밀한 뜻을 어찌 마음에서 구하지 않으랴’하고는 행장을 꾸려 지팡이를 짚고 하산하여 길을 찾아 곧바로 굴산(崛山)으로 나아갔다. 통효대사(通曉大師)를 친견하고 스스로 오체(五體)를 던져 예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품은 뜻을 여쭙었다. 대사는 곧 입방(入榜)을 허락하고 드디어 그로 하여금 입실(入室)하게 하였다. 스님은 이로부터 수년 동안 대사를 모시되 근고(勤苦)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비록 지극한 도(道)는 어려움이 없다하지만, 마치 평지(平地)에 산을 만들 듯이 굳은 뜻을 다하였다.

그러나 정신적 피로는 항상 압박하여 마치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려는 수고로움을 더하였으며, 모든 난관을 겪되 아무리 굴욕적이고 비굴한 일이라도 능히 이겨내었다. 앓으나 누우나 항상 운수행각(雲水行脚)하면서 입당구법(入唐求法)할 생각이 간절하였다. 드디어 함통(咸通) 11년 당나라에 비조사(備朝使)로 가는 김진영공(金鎰公)을 만나 입당유학(入唐遊學)하려는 서소지심(西笑之心)을 자세히 말하였다. 김공(金公)이 가륵하게 여기고 뜻이 통하여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편하게 바다를 건너 서안(西岸)인 중국땅에 도달하였다. 그 곳에서 천리를 멀리 여기지 아니하고 상도(上都)에 이르렀다. 한 담당관이 있어 특별히 구법(求法)연유를 자세히 의종황제(懿宗皇帝)에게 알리니, 칙명(勅命)을 내려 좌우승록(左街僧錄)으로 하여금 보당사(寶堂寺) 공작왕원(孔雀王院)에 대사를 편안히 모시게 하였다. 기꺼운 바는 거처가 머무르기 좋은 환경이었고, 그 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께서 강탄(降誕)하신 날에 칙명으로 궁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의종황제는 “지극한 교화를 넓히고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불교인 현풍(玄風)을 드날리나이다”라 하였다. 황제가 대사에게 묻되 “머나 먼 바다를 건너오신 것은 무엇을 구하려 함입니까”하였다. 대사가 황제에게 대답하되, “빈도(貧道)는 상국(上國)의 풍속을 관찰하고 불도(佛道)를 중화(中華)에게 묻고자 하였는데, 오늘 다행히도 홍은(鴻恩)을 입어 성사(盛事)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소승(小僧)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루 영적(靈跡)을 살살이 참배하여 적수(赤水)의 구슬을 찾고, 귀국하여서는 우리나라를 비추는 청구(靑丘)의 법인(法印)을 짓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천자(天子)가 스님의 말을 듣고 기꺼워하며 후하게 총궐(寵賚)을 더하고 그 말을 매우 훌륭하게 여긴 것은 마치 법수대사(法秀大師)가 진(晉)나라의 문제(文帝)를 만난 것과 담란법사(曇鸞法師)가 양무제(梁武帝)와 대좌한 것과 같았으니 고금(古今)이 비록 다르나 이름난 대덕(大德)의 일은 더욱 같다 하겠다.

그 후 오대산(五臺山) 화엄사(花嚴寺)에 들러 문수대성전(文殊大聖前)에 기도하면서 감응(感應)을 구하게 되었다. 먼저 중대(中臺)에 올라가 홀연히 머리카락과 눈썹이 하얀 신인(神人)을 만나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가호를 빌었다. 신인이 대사에게 이르되 “멀리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선재(善哉)라 불자(佛子)여! 이 곳에 오래 머물지 말고 속히 남방(南方)을 향하여 가서 오색지상(五色之霜)을 찾으면 반드시 담마(曇摩)의 비에 목욕하리라”고 일러 주거늘, 대사는 슬픔을 머금고 이별하여 점차로 남행(南行)하였다. 건부(乾符) 2년 성도(成都)에 이르러 이리저리 순례하다가, 정중정사(靜衆精舍)에 도달하여 무상대사(無相大師)의 영당(影堂)에 참배하게 되었으니 대사는 신라 사람이었다. 영정에 참배한 후 스님에 대한 아름다운 유적을 자세히 들으니, 한 때 당제(唐帝)인 현종(玄宗)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모국은 같건만 오직 그 시대가 달라서 후대에 법을 구하러 와서 그의 자취를 찾게 됨이 한이 될 뿐이라 했다. 그 당시 석상경제화상(石霜慶諸和尚)이 여래의 집을 열고 가섭(迦葉)의 종(宗)을 연설하여 도수(道樹)의 그늘에 많은 선류(禪流)들이 운집하여 수도하고 있었다. 낭공대사(朗空大師)는 그 곳을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입방(入榜)을 허락받아 그 곳에 머물게 되었으며, 방편(方便)의 문(門)에서 과연 마니(摩尼)의 보배를 얻었다. 그 후, 그 곳을 떠나 형악(衡岳)으로 가서 선지식(善知識)이 있는 선거(禪居)를 참배하였고, 다시 멀리 조계산으로 가서 6조대사의 탑에 예배하고 곁으로 동산홍인(東山弘忍)의 자취를 찾고 6조까지의 유적을 모두 순례하였다. 이어 사방으로 다니면서 가 볼만한 곳은 두루 참방하였다. “비록 이와 같이 공색(空色)을 관(觀)하여 국경을 초월하였다고는 하나, 어찌 편수(偏陲)인 고국을 잊을 수 있으리요”하고 중화(中和) 5년에 귀국하였다. 그 때 바로 굴령(掘嶺)으로 가서 다시 통효대사(通曉大師)를 배알(拜謁)하니 대사가 이르시되 “일찍 돌아와서 반갑구나. 어찌 다시 서로 만나 볼 줄이야 기약조차 하였겠는가”하였다. 후학들이 각각 그로부터 법을 이어 받으면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으니, 대사의 비련(扉蓮)에 있으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얼마를 지난 후 홀연히 병발(瓶鉢)을 휴대하고 운수행각(雲水行脚)의 길을 떠나니, 때로는 석장(錫杖)을 오악(五嶽)의 처음에 날려 잠깐 천주사(天柱寺)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배를 삼하(三河)의 뒤에 띄워 행각하다가 수정사(水精寺)에 주(住)하기도 하였다. 문덕(文德) 2년 4월 중에 굴산대사(崛山大師)께서 병환에 있으므로 곧 고산(故山)으로 돌아가 정성껏 시봉하였으니, 열반할 때 이르러 부촉(付囑)하고 전심(傳心)을 받은 이는 오직 낭공대사 한 사람 뿐이었다. 처음 삭주(朔州) 건자난야(建子蘭若)에 주석(住錫)하고 겨우 초막을 수축하자마자 비로소 산문(山門)을 여니, 찾아드는 자가 구름과 같이 모여들어 아침에 셋, 저녁엔 넷으로 이어져 끊이질 않았다.

때는 시대가 액운(厄運)에 당하여 세상은 몽매한 때였으므로 재성(災星)이 길을 삼한(三韓)에 비추고 독로(毒露)는 항상 사군(四郡)에 퍼져 있음인즉, 하물며 암곡(岩谷)에도 숨어 피난할 곳이 없었다. 건녕초년(乾寧初年)에 왕성(王城)에 가서 머물면서 담복향을 내불당(內佛堂)에 분향하고, 광화말년(光化末年)에는 곧 야군(野郡)으로 돌아가서 풀을 깎아낸 유허(遺墟)에 전단향을 심기도 하였으나, 유감스러운 것은 마군(魔軍)의 시대를 만난 것이었다. 장차 불도(佛道)를 선양하고자 할 때, 마침 효공대왕(孝恭大王)이 보위(寶位)에 오르고 특히 선종을 흠모하여 받들었다. 당시 대사는 해동에 있어 독보적일 뿐만 아니라, 그 고고함이 천하에 우뚝 드러났으므로 특별히 승정(僧正)인 법현(法賢) 등을 보내어 봉필(鳳筆)을 전달하여 황거(皇居)인 왕궁(王宮)으로 초빙하였다. 대사가 문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 안선(安禪)함으로부터 하화중생(下化衆生)인 교화를 마칠 때까지 우리의 불교가 말대(末代)에 이르시기까지 유통됨은 국왕 대신들의 외호(外護)의 은혜이다”라 하고는 천우(天祐) 3년 9월 초에 홀연히 명주(溟州) 교외를 나와 경읍(京邑)에 도착하였다. 16일에 이르러 비전(秘殿)으로 인도하여 고고하게 법상(法床)에 올라 설법하니, 주상이 그 마음을 맑게 하고, 면류관과 조복(朝服)을 정돈하여 국사(國師)의 예로써 대우하며 경건하게 찬양(贊仰)의 정을 퍼거늘, 대사는 말씀과 안색이 중용(從容)하고 신의(紳儀) 또한 자약하였다. 도(道)를 높이 숭상함에는 북희씨와 현원씨의 술(術)을 설하여 주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풍도(風道)를 일러 주었는데, 대사는 설법하거나 남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마치 거울이 물상(物像)을 비추어 주되 피로함을 잊은 것과 같이 하였고, 물음에 답할 때에는 종이 치기를 기다려 울리는 것과 같이 하였다. 친히 상전(上殿)하여 법을 받은 제자가 4인이니 행겸(行謙)·수안(邃安)·신종(信宗)·양규(讓規) 등이요, 양경(讓景)은 행(行)이 10철(十哲)을 뛰어넘고 이름은 삼선(三禪)을 덮었으며, 진리의 근본을 탐색하고 절대경의 심오한 이치를 논하였다.

성인(聖人)은 자주 진미(塵尾)인 불자(拂子) 휘두름을 보이니 이러한 설법으로 임금을 기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홀연히 다음 해 하말(夏末)에 잠깐 경기인 서울을 하직하고 바닷가로 행각하다가 김해부(金海府)에 이르니, 지부급제(知府及第)이며 동령군(同領軍)인 충자(忠子) 소율희공(蘇律熙公)이 옷깃을 여미고 덕풍(德風)을 흠모하던 중, 옷깃을 열고 도(道)를 사모하여 이름난 큰절에 주석하도록 청하였는데, 이는 창생을 복되게 하기를 희망한 것이었다. 십사(十師)가 함께 산중에 서지(棲遲)하니, 그옥이 자비의 교화(教化)를 드리워 요망한 액운(厄運)의 연기는 모두 나라밖으로 쓸어버리고 감로(甘露)의 법수(法水)를 산중에 뿌리게 되었다.

신덕대왕(神德大王)이 비도(丕圖)를 빛나게 통어(統御)하려 하여 왕위에 올라 은총으로 스님을 궁중으로 초빙하였다. 정명(貞明) 원년 봄에 대사는 약간의 선중(禪衆)을 거느리고 제향(帝鄉)에 이르니, 전날과 같이 명에 의하여 남산(南山) 실제사(實際寺)에 계시도록 하였다. 이 절은 본래 성상(聖上)이 아직 보위(寶位)에 오르기 전 황궁(黃宮)에 있을 때 잠룡(潛龍)하던 곳인데, 이를 선방(禪房)으로 만들어 스님께 헌납하여 영원히 선우(禪宇)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이 때에 대사를 행소(行所)로 맞이하여 거듭 스님의 자안(慈顏)을 배알하고, 이에 기다렸던 마음을 열어 다시 무위의 설법을 들었다. 하직하고 돌아가려 할 때에 특히 왕과 사자(師資)의 좋은 인연도 맺었다.

이 때에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명요부인(明瑤夫人)이고 오도(鰲島)의 후손이며 구림(鳩林)의 관족(冠族)이었다. 스님을 우러름이 고산(高山)과 같았고, 불교를 존중하는 돈독한 불자(佛子)였다. 석남산사(石南山寺)를 스님께 드려서 영원히 주지하시라 청하니, 가을[秋] 7월에 대사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고 비로소 이 절에 주석(住錫)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절은 멀리는 4악(四岳)을 연(連)하였고, 높기로는 남쪽의 바다를 눌렀으며, 시냇물과 석간수가 다투어 흐르는 것은 마치 쇠로 만든 수레를 계곡으로 끄는 것과 같았다. 암만(岩巒)이 다투어 빼어난 것은 자색(紫色) 구슬을 장식한 거개(車蓋)가 하늘로 치솟은 것과 같았으니, 참으로 은사(隱士)를 초빙하여 유거(幽据)하게 할만한 곳이며, 또한 선(禪)을 닦기에 좋은 가경(佳境)이라 하겠다. 대사는 오래전부터 영산(靈山)을 찾아 다녔으나 정거(定居)할 곳을 구하지 못하다가, 이 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지막 열반할 곳으로 삼았다.

그 다음 해 봄 2월 초에 대사는 가벼운 병을 앓다가 12일 이른 아침에 대중을 모아 놓고 이르시되 “생명이란 마침내 끝이 있는 법. 나는 곧 세상을 떠나려 하니 도(道)를 잘 지키고 잃지 말 것이며, 너희들은 정진에 힘써 노력하고 게을리하지 말라”하시고 승상(繩床)에 가부좌를 맺고 단정히 앉아 엄연히 열반에 드시니 세수는 85세요, 승랍(僧臘)은 61이었다. 그 때에 구름과 안개가 마치 그림처럼 캄캄하였고 산봉우리가 진동하였다. 산 아래 사람이 산정(山頂)을 올라다 보니 오색(五色)의 광기(光氣)가 하늘로 향해 뻗어 있고, 그 가운데 한 물건(物件)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마치 금으로 된 기둥과 꼭 같았다. 이것이 어찌 지순(智順)스님이 열반할 때 방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하늘로부터 화개(花盖)가 드리운 것과 법성(法成)스님이 입적(入寂)함에 얽힌 시신을 감마(紺馬)가 등에 업고 허공으로 올라가는 것뿐이라 하겠는가! 이 때에 문인(門人)들은 마치 오정(五情)을 잘라내는 것과 같이 애통(哀痛)해 하였으니 천속(天屬)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17일에 이르러 공경히 색신(色身)을 모시고 서봉(西峰)의 기슭에 임시로 장례를 지냈다. 성고대왕(聖考大王)이 홀연히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진실로 선금(仙襟)을 아파하면서 특별히 중사(中使)를 보내어 장례를 감호(監護)하는 한편, 조의(吊儀)를 표하게 하였다. 3년 11월 중순에 이르러 동만(東巒)의 정상(頂上)으로 이장하였으니, 절과의 거리는 약 300보였다. 이장하려고 열여 보니 전신(全身)이 그대로 제자리에 있어 조금도 흩어지지 않았으며, 신색(神色)도 생전(生前)과 같았다. 문하생(門下生)들이 거둬 자안(慈顏)을 보고, 감모(感慕)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하면서 석호(石戶)를 마련하여 봉폐(封閉)하였다.

대사께서는 영정(靈精)을 하악(河嶽)에서 받아 태어났고, 기질은 성신(星辰)으로부터 품받았다. 신분(身分)은 누더기 걸치는 황납(黃衲)에 속하나, 황상(黃裳)의 길상(吉相)에 응하였다. 이런 연유로 일찍이 선경(禪境)에 깃들었고 오랫동안 수도하여 객진번뇌(客塵煩惱)를 모두 털어 버렸으며, 두 임금을 양조(兩朝)에 걸쳐 보비(補裨)하고 군생을 삼계고해(三界苦海)에서 구제하였다. 그리하여 나라가 태평들하고 마적(魔賊)을 모두 귀향(歸降)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대각의 진신(眞身)이며 관음의 후신(後身)인 줄 알겠도다. 현관(玄關)을 열어 지묘(至妙)한 이치를 부양하고, 자실(慈室)을 열어 미혹한 중생을 인도하다가 열반을 보이시니, 이는 부처님께서 학수(鶴樹)에서 진적(眞寂)으로 돌아가신 자취를 본받은 것이요, 화신(化身)이 살아 있는 것 같으니, 가섭존자가 계족산(鷄足山)에서 멸진정(滅盡定)에 들어 있는 것과 같다 하겠다. 살아있을 때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교화하고 시종(始終)에 걸쳐 도를 넓히시니, 가히 정혜(定慧) 무방(無方)하며 신통이 자재(自在)한 분이라고 할만 하도다. 제자 신종선사(信宗禪師)와 주해선사(周解禪師), 임엄선사(林儼禪師) 등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함께 일심으로 다져졌으니, 모두 상족(上足)의 위치에 있어서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여 길이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거해(巨海)에 먼지가 날듯, 강한 바람에 번갯불이 꺼지듯, 스님의 고매한 위적(偉跡)이 점점 연멸할까 염려하여, 여러 차례 위궐(魏闕)에 주달하여 비명 세우기를 청하였다.

지금 임금이 홍기(洪基)에 올라 공손히 보록(寶籙)을 계승하고, 아울러 선화(禪化)를 흠숭(欽崇)하시기를 전조(前朝)와 다름없이 하였다. 그리하여 시호를 낭공대사(朗空大師)라 하고, 탑명(塔名)을 백월서운지탑(白月栖雲之塔)이라 추증하였다. 이에 미신(微臣)인 저에게 명하여 “경은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제구(齏臼)인 명문(名文)을 지으라”하였다. 인연(仁澆)은 고사(固辭)하였지만 끝내 면치 못하여 명을 따라 나름대로 천박한 비사(非詞)를 나열하여 스님의 빛나는 유덕(遺德)을 찬양하려 하니, 마치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려는 것과 같아서 바닷물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으며, 또한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는 것과 같아서 창천(蒼天)의 광활함을 측량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일찍부터 스님으로부터 자비하신 가르침을 입었으며, 종맹(宗盟)으로써 임금의 보살핌을 입은 것에 보답하는 뜻으로 붓을 잡아 정성을 다하였으니, 지은 글에 크게 부끄러움은 없다. 역지로 현도(玄道)라 이름하여 이로써 법은(法恩)을 갚고자 한다.

그 찬사(讚詞)에 이르되,
 지극한 도리는 본래 무위법(無爲法)이니
 마치 대지가 무념무작(無念無作)한 것과 같네.
 차별한 만법이 마침내 동귀(同歸)하니
 천문무행(千門無行) 그 근원은 일치하도다.
 깊고도 오묘한 정각(正覺)의 높은 경지
 방편(方便)을 베풀어서 군생(群生)을 제도하네.
 성인(聖人)과 범부(凡夫)가 다르다곤 말하지만
 진리를 깨고 보면 조금도 다름없네.
 석상(石霜)을 이어받은 위대한 선백(禪伯)이여!
 동방(東方)에 빛나는 해동(海東)에 태어났도다.
 지혜의 총명함은 일월(日月)보다 더 하고
 풍도(風度)의 높고 넓음은 허공(虛空)과 같도다.
 이름은 덕(德)으로 인하여 나타났지만
 지혜는 자비와 더불어 융통했으니,
 당(唐)나라에 들어가 법인(法印)을 전해 왔고
 본국(本國)에 돌아와선 동몽(童蒙)을 개도했네.
 마음은 맑고 맑아 수중(水中)의 달과 같고
 은하고 고요함은 연하(煙霞)와 같으며,
 임금은 숙연하게 도덕(道德)을 흠모하여
 친서를 보내 왕궁으로 초빙하였네.
 진성(眞聖)과 효공(孝恭)의 양조(兩朝)를 부찬(扶贊)하였고
 불교(佛敎)의 교리를 곳곳에 드날려서
 지혜의 등을 밝혀 무명(無明)을 깨뜨리고
 무명(無明)의 구름 사라지니 밝은 달 비추네.
 도(道)와 덕(德)이 높으신 철인(哲人)은 떠나가고
 승속(僧俗)의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하네.
 문도(門徒)들은 혜명(慧命)의 책무 더욱 느끼고
 임금님의 베푸신 은혜 깊고도 깊네.
 봉정(峰頂)에는 사리탑(舍利塔)이 우뚝이 솟았고
 큰스님의 비석은 시내 곁에 서 있네.
 개자겁(芥子劫)의 긴 세월(歲月) 비록 다하더라도
 오래도록 이 비석 선림(禪林)을 비출지이다.

신라국(新羅國) 석남산(石南山) 고국사비명(故國師碑銘) 후기(後記)
문하법손(門下法孫) 석순백(釋純白) 지음.

공손히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대사께서 출태(出胎)로부터 몰치(沒齒)에 이르기까지 생연(生緣)과 권속들, 그리고 모든 촉사(觸事)에 대한 인연은 문생(門生)인 김장로(金長老) 윤정(允正)이 지은 기록에 갖추어 기록되어 있으며, 문인(門人) 최대상(崔大相)인 인연(仁澆)이 지은 비문에 서술하였으니, 지금 순백(純白)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오직 대사께서 당신라국(唐新羅國) 경명왕(景明王) 때인 천우년중(天祐年中)에 화연(化緣)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을 때, 명왕(明王)이 시호와 탑명(塔名)을 추증하고 이어 최인연(崔仁澆) 시랑(侍郎)에게 칙명을 내려 비문을 짓게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복잡하고 인심은 교활하여 뜻있는 일을 하기에 더욱 어려운 시대였다.

그 후 해가 바뀌고 여러 달이 지났지만 비석을 세우지 못하다가, 후고려(後高麗)가 사군(四郡)을 평정하고 삼한(三韓)이 정정(鼎正)됨에 이르러서 현덕(顯德) 원년(元年) 7월 15일에 태자산(太子山)에 이 큰 비를 세우게 되었으니, 참으로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사(國師)의 문하(門下)에 제일 신족(神足)은 국주(國主)인 임금이고, 사찰(寺刹)의 승두(僧頭)는 건성원(乾聖院)의 화상이니 휘는 양경(讓景)이요, 속성은 김씨이며, 자는 거국(擧國)이다. 낭공대사(朗空大師)에게 경우에 따라 몸이 되고 마음이 되어 보필하였으며, 국왕(國王)의 편에 스스로 귀가 되고 눈이 되어 보국(補國)하였다. 장차 방진(芳塵)이 바람에 날아가고,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아름다운 위적(偉蹟)도 구름처럼 잊혀져 빛나는 기록마저 연멸되리니, 취염(翠琰)도 세우지 않으면 대사의 법은(法恩)은 작보(雀報)만이 스스로 세워진 비가 되리라.

화상(和尚)의 왕부(王父)는 애(藹)이니, 원성왕(元聖王)의 표래손(表來孫)이자 헌강왕(憲康王)의 장인이다. 청림결백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자자하였고, 충효는 높아 낮은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칭송되었다. 안으로는 집사시랑(執事侍郎)을 지냈고, 밖으로는 패강(溟江) 도호(都護)를 역임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순례(詢禮)니, 재주는 육예(六藝)를 겸하였고, 학문은 오경(五經)을 관통하였다. 월하(月下)와 풍전(風前)에서 읊으면 연정체물(緣情體物)의 시구(詩句)에 속하고, 봄꽃과 달밤에는 무현(撫絃)과 운죽(韻竹)의 소리를 나타내는 풍류(風流)가 있었다. 내직(內職)으로는 집사함향(執事含香)에 이르고, 외임(外任)으로는 삭주장사(朔州長史)를 역임하였다. 화상의 젊은 시절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의 행동거지와 언모(言謨)와 행적(行蹤)과 풍격(風格) 등은 모두 별록(別錄)에 실려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국사(國師)의 비문과 어록에 마땅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들만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용담식조(龍潭式照), 건성양경(乾聖讓景), 연혜희(鵝惠希), 유금윤정(有襟允正), 청룡선관(淸龍善觀), 영장현보(靈長玄甫), 석남형한(石南迥閑), 숭산가언(嵩山可言), 태자본정(太子本定)이 있으니, 앞에 열거한 아홉 분의 스님은 국사가 생존시에는 날개가 알 속에 있어서 아직 청운(靑雲)의 뜻을 펴지 못하였으나, 국사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각족(角足)이 발달하고 완전한 몸체가 이루어져 비로소 자유롭게 푸른 바다 가운데로 유희(遊戲)하게 되었다. 스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법석(法席)의 대중이 우모(牛毛)처럼 많았으나, 입멸(入滅)하신 후에는 선좌(禪座)가 겨우 종유(鍾乳)의 수에 불과(不過)하였다. 흔히 사람들이 평하기를 구유(九乳)는 종과 같아서 그 젖으로 구방(九方)의 불자(佛子)를 기르되 일면(一面)은 거울과 같다하였으니, 마치 일국(一國)의 군신(君臣)과 같은 격이라 하였다. 이른바 날개와 같은 대중이 많다고 한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한 것 같다. 윤정장로(允正長老)는 건성양경(乾聖讓景)과 동태(同胎)의 동생이다. 계(戒)를 고상하게 가져 이름이 뛰어났던 것과 생몰연대(生歿年代)와 언행(言行) 등은 모두 그의 문인이 따로 기록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태양이 침실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고, 만삭이 되어 해산하려는 달에는 달이 밀굴(密窟)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니, 과연 꿈대로 건성양경(乾聖讓景)과 유금윤정(有襟允正)을 분만하였다. 어찌 석담체(釋曇諦)의 어머니가 이물(二物)의 상징을 꿈꾸고, 혜(慧)의 아양(阿孃)이 이과(二果)의 상서를 얻은 것 뿐 이겠는가. 최인연(崔仁澆)은 진한(辰韓)의 무족(茂族) 사람이다. 이른바 일대(一代)의 삼취(三崔)가 모두 당나라에 유학하여 금방(金榜)으로 급제하고 귀국하였으니 최치원(崔致遠), 최인연(崔仁澆), 최승우(崔承祐) 등인데, 인연(仁澆)은 그 중간에 속하는 사람이다. 학문은 해악(海岳)을 두루 덮었고, 열람한 책은 오거(五車)에 이거(二車)를 더하였으며, 재주는 풍운(風雲)을 모두 말아 칠보시(七步詩)의 재능에서 삼보(三步)를 제하였으니, 실로 군자국(君子國) 군자(君子)이며 또한 대인향(大人鄉)의 대인(大人)이라 하겠다.

이는 월계수(月桂樹)의 가지를 중화(中華)에서 꺾었고, 향풍(香風)은 상국(上國)에서 드 날렸으며, 다라국(多羅國)에서 불교를 배워 동향(東鄉)인 우리나라를 빛나게 하였다. 대사의 무거운 은혜를 입었기에 스님에 대한 홍비(鴻碑)의 기록을 순백(純白)이 찬술하였으나, 마치 잣대로 하늘의 높이를 재려함과 같으니 어찌 그 가깝고 멀음을 알 수 있으며, 달팽이 껍질로 바닷물을 짐작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그 많고 적음을 헤아릴 수 있으리오. 그렇다면 말을 해도 부당하고, 또한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어도 옳지 않으니, 후래(後來)의 군자(君子)들은 취하거나 버리는 것을 각자 자의(自意)에 맡길 뿐이다.

현덕원년(顯德元年) 세재갑인(歲在甲寅) 7월(七月) 15일(十五日) 세우다.

句當事僧：迥虛長老

刻字僧：嵩太尙座 秀規尙座 淸直師 惠超師

院主僧：高賢長老

典座僧：淸良

維那僧：秀宗

史 僧：日言

直歲僧：規言

【追記側面】

내가 어릴 때 김생(金生)의 필적(筆蹟)을 비해당집고첩[匪懈堂集古帖(安平大君 1418 ~ 1455)]에서 얻어보니, 그 필법(筆法)이 마치 용이 날뛰고 호랑이가 누워있는 것과 같아서, 그 기세(氣勢)를 보고 크게 좋아하였다. 그러나 세상에 전함이 많지 않음을 한탄하여 오던 중 근래(近來)에 영주(榮州)의 인읍(隣邑)인 봉화현(奉化縣)에 김생(金生) 글씨의 비석(碑石)이 홀로 고사(古寺)의 유허(遺墟)에 남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는 이와 같은 희세(希世)의 보배가 초망지간(草莽之間)에 매몰되어 있으나 수호하는 사람이 없어 야우((野牛)의 뿔에 부딪쳐 상하거나, 목동들의 불장난 등이 모두 염려되었다. 그리하여 군인(郡人)인 전참봉(前參奉) 권현손(權賢孫)과 공모(共謀)하여 자민루(字民樓) 아래에 이전하여 안치하고 사방(四方)으로 난함(欄檻)을 둘러 출입을 통제하였다. 탁본(托本)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출입을 금하였으니, 함부로 만져 손상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김생(金生)의 필적(筆蹟)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그 후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감상하러 찾아 들었다. 슬프다. 천백년(千百年) 동안 폐허에 버려져 있던 비석이 하루아침에 큰 집으로 옮겨져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리고 보면 물건의 나타나고 숨는 것도 또한 운수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비록 재주가 미천하고 창려[昌黎(韓愈의 封號)]와 같은 박학(博學)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비석을 만나 상완(賞翫)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진실로 기산(岐山)의 석고[石鼓 : 주(周)의 선왕(宣王) 2대 사주(史籀)의 송(頌)을 대전(大篆)으로 새긴 10개의 석고(石鼓)이니, 중국에서 제일로 꼽는 보물로서 현재 북경(北京)의 구국자감(舊國子監) 대성문(大城門) 좌우에 있음]와 다를 바가 없다 하겠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정덕(正德) 4년(1509) 가을[秋] 8월 군수(郡守)인 낙서(洛西) 이항(李沆)이 짓고 박눌(朴訥)이 쓰다.

출전 :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1994)

○ 문헌자료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上, 1919.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亞細亞文化社, 1984.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伽山文庫, 1994.

○ 기 타(지정사례)

「僧塔碑」의 國家文化財 指定事例는 다음과 같다.

- 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保寧 聖住寺址 郎慧和尚塔碑)
1962.12.20.지정
-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河東 雙碓寺 眞鑑禪師塔碑)
1962.12.20.지정
- 국보 제59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原州 法泉寺址 智光國師塔碑)
1962.12.20.지정
- 보물 제1301호 함천 해인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 (陝川 海印寺 弘濟庵 四溟大師塔 및 石藏碑) 2000.09.28.지정 등 다수

- * 보물 제359호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비(忠州 淨土寺址 弘法國師塔碑)
- 보물 제360호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堤川 月光寺址 圓朗禪師塔碑)
- 보물 제361호 양평 보리사지 대경대사탑비(楊平 菩提寺址 大鏡大師塔碑)
- 보물 제363호 창원 봉림사지 진경대사탑비(昌原 鳳林寺址 眞鏡大師塔碑) 등
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

12.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가. 심의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로부터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신청(2013.4.1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7.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20호(2011.12.29)
- 명 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소유자(관리자): 양덕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342 양덕사
- 수 량: 2권 1책
- 규격(cm): 세로 24.7(18.3) × 가로 16.0(13.8)
- 재 질: 닥종이(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380년(고려 우왕 6년)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크고(大) 방정하고(方) 광대한(廣) 원각(圓覺)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수다라(修多羅) 중에서 으뜸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흔히 ‘圓覺經’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그 동안 많은 판본들이 刊印 혹은 活印되었으나, 고려시대 판본으로는 4종만이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희귀

하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우왕 6(1380)년에 독자적인 板下本을 마련하여 간행한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佛經 및 佛敎學 研究와 書誌學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려시대 木板印刷文化의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지류문화재보존수리 전문가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양덕사 소장인 이 판본은 우왕 6년(1380) 4월에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판하본을 마련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고려의 대장경에 편입된 『원각경』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 공개된 『원각경』 판본으로는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다. 보물 제1518호와 동일한 판본으로, 상호 보완되는 고려의 고간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卷末의 刊記와 李穡의 跋文으로 보아 宋本을 底本으로 宗岫이 板下本을 새로이 써서 우왕 6년(1380)에 간행한 판본으로 고려시대 판본 및 불교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 調査本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佛陀多羅(?~?, 唐) 奉詔譯 ; 孝宗皇帝(1127~1194, 宋) 註.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禩王 6(1380) 推定].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8.3×13.8cm, 無界, 8行20字 註雙行22字, 細黑口, 上下內向黑·白混魚尾 ; 24.7×16.0cm. 楮紙. 線裝(改裝).

題簽題: 圓覺經

序 題: 大方廣圓覺經略鈔序, 大方廣圓覺了義經略疏序,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序

卷頭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末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版心題: 圓覺, 經

第一序: 大方廣圓覺經略鈔序 / 映月思齊述…時皇宗康定二年辛巳(1041)歲杓建鶉味月望日謹書
(筆寫)

第二序: 大方廣圓覺了義經略疏序 / 金紫光祿大夫守中書侍郎兼戶部尚書同中書門下平章事裴休
(797~870)述

第三序: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序 / 英奇(筆寫)

卷上末: 大/ 圓/ 覺/ 受持者摩耶祖師/ 清雲庵雲行仙比丘奇雲/ 海雲英奇禪師(墨書)

卷上末: 釋道淵歇了志修檀越判事吳明利副正吳稱吉與諸善/ 士同發心或爲法界有情或爲先亡父母刊圓覺經將俾/ 一世同入如來大光明藏其心可謂廣大矣夫圓無不包/ 覺無不知聖人事業盡於此矣其澤物也又何有彼此之/ 間哉睹是經者當求所以去無明訂法性以踐三世平等/ 之地斯不負施經之意矣母徒曰我目此我口此亦足矣/ 可也幸垂鑒焉青龍庚申(1380, 禩王 6)三月日/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前重大匡政堂文學右文館大/ 提學領藝文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上護軍韓山牧隱/ 李穡(1328~1396)跋

卷上末: 桂月 海雲 英奇 (以上墨書)/ 志道 禪哲 志祥 勝海刻/

卷上末: 募緣 志峯 覺海/ 安德 白夫 筵芝 金阿乙加勿/ 李延 朴波豆 龍月 台月

卷上末: 檢校中郎將 李元奇/ 奉常大夫前開城少尹 吳稱吉/ 奉翊大夫前版圖判書 咸石柱/ 通憲大夫判司宰寺事 鄭乙珎/ 功德主正順大夫前判典義寺事吳明利

卷 末: 經書比丘 宗岫/ 云首 中昊/ 奎空/ 平山/ 性閑/ 向聰/ 勝空

卷 末: 庚申(1380)四月 開板

印 文: □□□□(第1張), □□/圖書/館印(第2張), 山□(卷末張)

表 紙: 後代 改裝

狀 態: 一部の 진한 褐色으로의 變色과 누습의 흔적이 있으나 대체로 良好한 편임

所 藏: 蔚山博物館(蔚山廣域市 南區 斗旺路 277)

傳來歷: 2008년 6월경에 大韓佛敎天台宗의 여러 寺刹들이 서울특별시 鍾路區 仁寺洞길 55-1의 通文館에서 공동구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7길 111의 大韓佛敎天台宗 觀門寺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배분한 古書로 書背와 裏面의 下端에는 관리를 위한 登錄番號와 分類番號 및 圖書番號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스탬프印이 찍혀 있다

既指定: 보물 제1518호(국립고궁박물관)

要修正: 현재 기록유산포털을 검색하면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2가지로 著錄되어 있으나 장차 통일된 書名으로 著錄의 修正이 요망된다

○ 현 상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2008년 6월경에 大韓佛敎天台宗의 여러 寺刹들이 서울특별시 鍾路區 仁寺洞길 55-1의 通文館에서 공동구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7길 111의 大韓佛敎天台宗 觀門寺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배분한 典籍文化財로 書背와 裏面의 下端에는 관리를 위한 登錄番號와 分類番號 및 圖書

番號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스탬프印이 찍혀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소유자는 蔚山廣域市 蔚州郡 彦陽邑 於音路 36-56의 陽德寺 주지 세운이며, 현재 蔚山廣域市 南區 斗旺路 277의 蔚山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현재 상태는 전체가 누런색으로 변색되어 있고 특히 一部에 진한 褐色으로의 變色과 漏濕의 흔적이 있으나 대체로 良好한 편이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크고(大) 방정하고(方) 광대한(廣) 원각(圓覺)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수다라(修多羅) 중에서 으뜸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흔히 ‘圓覺經’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唐朝에 北印度 계빈국의 고승인 佛陀多羅(?~?)에 의해 漢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에는 산스크리트어 原本이 없어 중국에서의 僞經이라는 학설이 우세하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 佛敎專門講院의 四敎科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불경으로, 釋迦牟尼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도합 12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文殊菩薩章>은 經의 안목이 되는 부분으로 如來因行의 근본과 果相을 설하고 있는데, 因地에 원각을 닦는 자가 모든 현실이 허공의 꽃이요 몽환인 줄을 알면 곧 생사윤회가 없어질 뿐 아니라 생사가 곧 열반이 되고 윤회가 곧 해탈이 된다는 것이다. 제2장부터 제12장까지는 이러한 원각을 닦고 증득하는 데 필요한 觀行을 설하고 있다. 제2장의 <普賢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원각의 淸淨境界를 듣고 수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하고 있으며, 제3장의 <普眼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住持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제4장의 <金剛藏菩薩章>에서는 ① 만일 중생이 본래 성불한 것이라면 왜 다시 일체의 無明을 설하였는가, ② 만일 무명이 중생이 본래 가진 것이라면 어떤 인연으로 본래가 성불한 것이라고 설하였는가, ③ 만일 본래 불도를 이루고 다시 무명을 일으켰다면 여래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킬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 제5장의 <彌勒菩薩章>에서는 윤회를 끊는 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제6장의 <淸淨慧菩薩章>에서는 聲聞性·緣覺性·菩薩性·如來性·外道性 등 五性의 所證差別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제7장의 <威德自在菩薩章>에서는 중생의 세 가지 根性에 따른 수행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제8장의 <辯音菩薩章>에서는 圓覺門에 의하여 修習하는 길에 대해 설하고 있다. 제9장의 <淨諸業障菩薩章>에서는 末世衆生을 위한 將來眼에 관하여 설하고 있으며, 제10장의 <普覺菩薩章>에서는 수행하는 자

가 닦아야 할 法과 行, 제거해야 할 병과 발심하는 방법, 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법 등을 설하고 있다. 제11장의 <圓覺菩薩章>에서는 圓覺境界를 닦기 위하여 安居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12장의 <賢善首菩薩章>에서는 經의 이름과 信受奉行하는 방법, 경을 受持하는 공덕과 이익 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고려의 普照國師 知訥(1158~1210)이 깊이 신봉하여 ‘了義經’이라 한 뒤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시대 초기에 涵虛 己和和尚(1376~1433)이 「圓覺經疏」 3권을 짓고 英祖朝에 蓮潭 有一禪師(1720~1799)와 義瞻禪師(?~?)가 각각 「私記」를 지은 뒤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그 후로 널리 독송되고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는데, 이는 이經에 훌륭한 이론과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現存本으로는 禡王 6(1380)년에 牧隱 李穡(1328~1396)의 跋文이 있는 高麗本을 비롯하여, 世祖年間에 乙亥字로 간행한 活字本과 세조 11(1465)년에 涵虛 己和和尚이 주석을 달고 언해한 것을 10권으로 개판한 刊經都監本, 그리고 이를 저본으로 11(1465)년에 乙酉字로 찍어낸 활자본 등이 전래되고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의 寺刹本으로 선조 3(1570)년에 전라도 安心寺에서 刊經都監版을 覆刻한 판본을 비롯한 12종이 유포되어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禡王 6(1380)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2권 1책 완본이다. 표지는 근래 새로 개장하였으며, 卷首에는 裴休가 「圓覺經略疏」에 대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首題는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宋孝宗皇帝註’라는 註解者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經文의 체제는 大文 아래에 宋朝 孝宗의 註疏가 小字雙行으로 부기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宋本을 저본으로 高麗에서 板下本을 새로이 써서 板刻한 판본으로 판단된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행자수는 8행 20자씩이며, 판심부에는 상하로 黑魚尾가 보이고 있고 魚尾 사이에 ‘圓覺’이란 약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로 장수 표시가 나타나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卷末題 다음에 ‘經書比丘 宗岫’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宗岫이 板下本을 쓴 인물로 생각된다. 卷末題 후면에는 ‘中昊’ 등의 6인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로 보인다. 그 말미에는 ‘庚申四月開刊’이라는 간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다음 장에는 ‘庚申三月’에 李穡(1328~1396)이 지은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干支로 기재된 ‘庚申’은 李穡이 생존했던 시기에 해당되는 고려 우왕 6(1380)년에 해당된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卷末의 刊記와 李穡의 跋文으로 보아 宋本을 底本으로 宗岫이 板下本을 새로이 써서 우왕 6(1380)년에 간행한 판본으로 고려시대 판본 및 불교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과 동일한 고려 판본이 보물 제1518호(국립고궁박물관)로 지정되어 있다.

○ 문헌자료

- 蔚山廣域市 編,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조사보고서(윤상기·송정숙의 조사보고서). 울산, 울산시 文化財委員會, 2011.
- 松廣寺 聖寶博物館 編, 「松廣寺 聖寶博物館 佛書展示 圖錄」. 순천시 : 松廣寺 聖寶博物館, 2004.
- 김미경·강순애. “「圓覺經」 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6輯(2010. 9). pp. 329-370.
- 옥영정. “장서각 소장 보물 「楞嚴經」과 「圓覺經」의 인쇄문화적 가치”. 「藏書閣」 제20집(2008. 10). pp. 5-31.

○ 기 타

현재 기록유산포털을 검색하면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2가지로 著錄되어 있으나 장차 통일된 書名으로 著錄의 修正이 요망된다.



○ 현 상

누습의 흔적이 많음. 개장되었으며, 마지막 장의 후 반엽은 근자에 보각 인출하여 보완해 놓았음.

○ 내용 및 특징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당나라 때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문으로 번역한 불교의 대승경전의 하나이며, 『대방광원각경』, 『원각수다라요의경』, 『원각요의경』, 『원각경』 등으로 약칭한다. 내용은 원각묘심(圓覺妙心)을 깨닫기 위한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강원에서 사교과 과정의 필수과목이다.

양덕사 소장의 이 판본의 책머리에는 대방광원각경약초서(大方廣圓覺經略鈔序, 思齊 述, 1장), 대방광원각요의경약소서(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序, 裴休 述, 3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서(8장) 등 3편의 서문이 있다. 이 중에서 배후의 약소서(略疏序)를 제외한 두 편은 필사보충된 것이다. 이 두 편 of 서문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후대에 덧붙여 함께 엮어 놓은 것이다. 8행에 필사된 대방광원각경략초서(사제 술)은 1행 당 약간의 출입이 있으나 대개 18자형식이다. 서문이 끝난 뒤

원래 찬술시기인 “皇宋康定二年辛巳[歲]构建鶉味月」望日謹書”는 하단에 황으로 2행에 걸쳐 필사해 놓았다. 배후의 약소서의 오른쪽 하단에는 「□□圖書館印」이라는 보라색 소인(消印)이 찍혀 있다. 이러한 보라색 소인(스탬프)이 20세기 이후에 사용된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세기에는 도서관의 소장본이었음을 보여준다. 판심제는 권상은 『圓覺』, 권하는 『經(下)』와 같이 권에 따라 다른 것이 특이하다. 어미는 상하내향어미인데 권상은 흑백어미가 혼재되어 있다.

권수제 아래는 “송효종황제주(宋孝宗皇帝註)”라는 주석자 표시가 있고, 처음 4행에 걸쳐 “대방광”, “원”, “각”, “수다라”, “요의경”등으로 경명을 나누어 그 의미를 세자로 설명해 놓았다. 권상의 마지막장 뒤 반엽에는 “大圓覺 受持者摩耶祖師 清雲庵行仙比丘奇雲 海雲英奇禪師”가 묵서되어 있다.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의 옛 소장자와 관련된 기록으로 판단되나 마야, 영기, 기운, 청운암 등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 상권과 하권사이에 우왕 6년(1380) 3월에 목은 이색(李穡)이 쓴 발문과 시주질 그리고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색은 발문에서 “승려 도연(道淵), 혈료(歇了), 지수(志修)가 시주자인 판사(判事) 오명리(吳明利), 부정(副正) 오칭길(吳稱吉)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동심발원으로 모든 생명체와 먼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간행한다.”고 하였다. 당시 정순대부(正順大夫) 전판전의시사(前判典儀寺事) 오명리와 봉상대부(奉常大夫) 전개성소윤(前開城少尹) 오칭길 외에도 통헌대부(通憲大夫)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정을진(鄭乙珍), 봉익대부(奉翊大夫) 전판도판서(前版圖判書) 함석주(咸石柱), 검교중랑장(檢校中郎將) 이원기(李元奇) 등도 함께 발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봉(志峯), 각해(覺海) 등은 모연(募緣) 그리고 지도(志道), 선철(禪哲), 지상(志祥), 승해(勝海) 등은 각수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하권이 끝난 뒤에 “경서비구 종불(經書比丘 宗晞)”에 이어 “운수(云首), 중호(中昊), 본공(本空), 평산(平山), 성한(性閑), 향충(向聰), 승공(勝空)” 등이 보이는데 이들이 종불(宗晞)과 같이 서사를 맡았던 인물로 생각되거나 분명하지는 않다. 끝에는 “경신사월 개판(庚申四月 開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문은 1380년 3월에 쓰여 졌고, 개판은 다음 달인 4월에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앞부분에 필사 추가된 사제(思齊)의 대방광원각경약초서(大方廣圓覺經略鈔序)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서(8장) 서문은 옛 소장자가 덧붙여 장책한 것이다. 앞표지는 녹색바탕에 격자무늬가 있는 천, 뒤표지는 흰색의 양지(洋紙) 등 서로 다른 재질의 표지로 개장되었다. 더욱이 흰색 무명실의 오침과 짙은 보라색 바탕의 제첩에 『원각경』이라는 묵서 제명 등 장책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아 세련되지 못하다.

양덕사 소장의 이 판본은 우왕 6년(1380) 4월에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판하본을 마련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개별로 간행된 『원각경』 판본으로는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며, 보물 제1518호로 지정된 것과 동일한 고려말기의 고간본으로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더욱이 보물 제1518호에서 판독할 수 없는 문자들을 이 판

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등 기 지정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치도 가지고 있다. 보물 제1518호와 다른 점은 이색의 발문이 권말이 아닌 중간 부분에 있고, 망실된 마지막 장의 뒤 반엽은 보물 제1518호의 그 부분을 모각 인출하여 앞 반엽과 이어 붙여 완전한 것처럼 해 놓는 점이다.

이 판본은 누습된 부분이 적지 않고, 마지막 장의 후 반엽이 모각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물 제1518호와 상호 보완되는 고려의 고간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윤상기, 송정숙,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조사 보고서』(울산광역시, 2011)
『송광사 성보박물관 불서전시 도록(松廣寺 聖寶博物館 佛書展示 圖錄)』(송광사 성보박물관, 2004)

문화재청(www.cha.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www.nl.go.kr/korcis)



書誌事項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佛陀多羅(?~?, 唐) 奉詔譯 ; 孝宗皇帝(1127~1194, 宋) 註.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禩王 6(1380) 推定].

2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8.3×13.8cm, 無界, 8行20字 註雙行22字, 細黑口, 上下內向黑·白混魚尾 ; 24.7×16.0cm. 楮紙. 線裝(改裝).

題簽題: 圓覺經

序 題: 大方廣圓覺經略鈔序, 大方廣圓覺了義經略疏序,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序

卷頭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末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版心題: 圓覺, 經

第一序: 大方廣圓覺經略鈔序 / 映月思齊述...時皇宗康定二年辛巳(1041)歲杓建鶉珠月望日謹書(筆寫)

第二序: 大方廣圓覺了義經略疏序 / 金紫光祿大夫守中書侍郎兼戶部尚書同中書門下平章事裴休(797~870)述

第三序: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序 / 英奇(筆寫)

卷上末: 大/ 圓/ 覺/ 受持者摩耶祖師/ 清雲庵雲行仙比丘奇雲/ 海雲英奇禪師(墨書)

卷上末: 釋道淵歇了志修檀越判事吳明利副正吳稱吉與諸善/ 士同發心或爲法界有情或爲先亡父母刊圓覺經將俾/ 一世同入如來大光明藏其心可謂廣大矣夫圓無不包/ 覺無不知聖人事業盡於此矣其澤物也又何有彼此之/ 間哉睹是經者當求所以去無明訂法性以踐三世平等之地斯不負施經之意矣母徒曰我目此我口此亦足矣/ 可也幸垂鑒焉青龍庚申(1380, 禩王 6)三月日/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前重大匡政堂文學右文館大/ 提學領藝文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上護軍韓山牧隱/ 李穡(1328~1396)跋

卷上末: 桂月 海雲 英奇 (以上墨書)/ 志道 禪哲 志祥 勝海刻/

卷上末: 募緣 志峯 覺海/ 安德 白夫 筵芝 金阿乙加勿/ 李延 朴波豆 龍月 台月
 卷上末: 檢校中郎將 李元奇/ 奉常大夫前開城少尹 吳稱吉/ 奉翊大夫前版圖判書 咸石柱/ 通憲
 大夫判司宰寺事 鄭乙珣/ 功德主正順大夫前判典義寺事吳明利
 卷 末: 經書比丘 宗暲/ 云首 中昊/ 牟空/ 平山/ 性閑/ 向聰/ 勝空
 卷 末: 庚申(1380)四月 開板
 印 文: □□□□(第1張), □□/圖書/館印(第2張), 山□(卷末張)

○ 현 상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2008년 6월경에 大韓佛敎天台宗의 여러 사찰들이 서울특별시 鍾路區 仁寺洞길 55-1의 通文館에서 공동구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7길 111의 大韓佛敎天台宗 觀門寺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배분한 典籍文化財로 書背와 裏面의 하단에는 관리를 위한 登錄番號와 分類番號 및 圖書番號 등을 기입한 스탬프印이 찍혀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소유자는 蔚山廣域市 蔚州郡 彦陽邑 於音路 36-56의 陽德寺 주지 세운이며, 현재 蔚山廣域市 南區 斗旺路 277의 蔚山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현재 전체가 누런색으로 변색되어 있고 특히 일부에 진한 갈색으로의 변색과 漏濕의 흔적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禡王 6년(1380)에 목판으로 간행된 2권 1책의 완본이다. 卷首에는 裴休가 『圓覺經略疏』에 대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頭題는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宋孝宗皇帝註’라는 註解者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經文의 체제는 大文 아래에 宋朝 孝宗의 註疏가 小字雙行으로 부기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宋本을 저본으로 高麗에서 板下本을 새로이 써서 板刻한 판본으로 판단된다.

한편 卷末題 다음에 ‘經書比丘 宗暲’이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宗暲이 板下本을 쓴 인물로 생각된다. 卷末題 후면에는 ‘中昊’ 등의 6인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로 보인다. 그 말미에는 ‘庚申四月開刊’이라는 간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다음 장에는 ‘庚申三月’에 李穡(1328~1396)이 지은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干支로 기재된 ‘庚申’은 李穡이 생존했던 시기에 해당되는 고려 우왕 6년(1380)년에 비정된다.

기 지정된 보물 제1518호와 다른 점은 이색의 발문이 권말이 아닌 중간 부분에 있고, 망실된 마지막 장의 뒤 반엽은 보물 제1518호의 그 부분을 모각 인출하여 앞 반엽과 이어 붙여 완전한 것처럼 해 놓는 점이다. 또한 판독이 어려웠던 내용을 이 판본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는 가치도 있다.

○ 지정사례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과 동일한 고려 판본이 보물 제1518호(국립고궁박물관)로 지정되어 있다.

○ 문헌자료

- 윤상기·송정숙,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조사보고서』, 울산시, 2011.
- 松廣寺 聖寶博物館 編, 『松廣寺聖寶博物館 佛書展示圖錄』, 松廣寺 聖寶博物館, 2004.
- 김미경·강순애, 『「圓覺經」 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6輯, 2010, pp. 329~370.
- 옥영정, 『장서각 소장 보물 「楞嚴經」과 「圓覺經」의 인쇄문화적 가치』, 藏書閣 제20집, 2008, pp. 5~3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표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이색발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간기

13. 진실주집(眞實珠集)

가. 심의사항

‘진실주집’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로부터 ‘진실주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2013.4.15)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7.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3호(2011.12.29)
- 명 칭: 진실주집(眞實珠集)
- 소유자(관리자): 양덕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342 양덕사
- 수 량: 3권 1책
- 규격(cm): 세로 25.0(18.2) × 가로 17.0(13.4)
- 재 질: 닥종이(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62년(세조 8년)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眞實珠集」은 중국 宋朝의 倪妙行(?-?)이 여러 禪師와 文人들의 歌·銘·心要·法語·詩·文 등에서 禪과 관련된 것들을 선별하여 3권으로 편찬한 佛書이다.

조사본 「眞實珠集」은 世祖에 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된 刊經都監에서 세조 8(1462)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刊經都監版이다. 조사본 「眞實珠集」은 刊經都

監版이라 板刻이 精巧하고 印刷가 선명한 善本이며, 조사본과 동일한 刊經都監版 『眞實珠集』은 보물 제921호(강태영)와 보물 제1014호(구인사)로 지정되어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은 드물게 전래되고 있는 板本으로 佛經과 佛敎學 및 書誌學 등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 術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眞實珠集』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양덕사 소장의 『진실주집』은 지금까지 알려진 간경도감판(刊經都監版)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며, 판각도 정교하다. 동일한 판본으로 보물로 기 지정된 것으로는 아단문고 소장의 보물 제921호와 단양 구인사 소장의 보물 제1014호가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사본 『眞實珠集』은 世祖에 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된 刊經都監에서 세조 8년(1462)에 목판으로 간행된 刊經都監版이다. 조사본과 동일한 刊經都監版 『眞實珠集』은 보물 제921호(강태영)와 보물 제1014호(구인사) 등이 있다.

따라서 조사본 『眞實珠集』은 드물게 전래되고 있는 板本으로 國家文化財로 指定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 書誌記述 : 調査本 『眞實珠集』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眞實珠集 / 倪妙行(?~?, 宋) 集 ; 黃伍信(?~?, 朝鮮) 書. -- 木板本(刊經都監本). --
[刊行地不明] : [刊經都監], [世祖 8(1462) 推定].

3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8.2×13.4cm, 有界, 11行17-18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5.0×17.0cm. 藁精紙. 線裝(改裝).

表題: 眞實珠集

序題: 佛祖公卿眞仙碩德歌銘教言, 心法眞實珠

目錄題: 眞實珠集

卷頭題: 眞實珠集

卷末題: 眞實珠集

版心題: 眞實珠

卷一末: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 教雕造/ 進義副尉臣黃伍信書

卷二末: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 教雕造/ 進義副尉臣黃伍信書

卷三末: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 教雕造/ 進義副尉臣黃伍信書/ 威毅將軍行龍驤衛攝護軍知製教臣尹弼商校勘/ 館編修官兼判軍資監事知戶曹事臣盧思慎校勘/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充春秋/ 嘉善大夫中樞院副使臣韓繼禧校勘

卷頭序: 佛祖公卿眞仙碩德歌銘教言; 無住大居士將斷貫索穿作一串日/ 爲心法眞實珠然古人千說萬說/ 只是說人人分上有一顆無價寶珠/ 昭昭然於行住坐卧視聽食息之間/ 忽被人索此珠時小比丘也只得叉/ 手近前無言可對無理可伸却有/ 一句子叮嚀切不得道傾出一栲栳/ 豈至元甲申(1284)結制日荆山智塔書/ 于普向雪庭西簷

卷頭序: 心法眞實珠序/ 見性成佛人人有分只爲情生智隔/ 想變體殊從此一塵涉境漸成憂漢/ 高峯滴水興波終至吞舟巨浪將欲/ 返初復本其奈日薄途遙故我/ 祖師西來興慈運悲唱第一義指彼/ 妄心復乎真性後之人雖不耳聆面/ 命由其遺言悟入者多矣妙行根鈍/ 才疎因病識藥敬於傳燈錄內撮其/ 歌銘玄旨與夫大善知識要截語/ 句集爲三卷刊梓流通所貴簡而易/ 覽覽而易入可謂示眞實珠利用無/ 盡傾秘密藏施惠何窮猶貧乏財之/ 人值大寶聚若渴甘露之者遇清涼/ 池隨所修持應願充足仰冀/ 諸上善人速下一乘之圓種具深信/ 士早期三會於龍華虛空可量此願/ 無盡共弘斯道圖報/ 佛恩鉅宋咸淳甲戌(1274)孟春古杭參學/ 無住居士倪妙行謹序

卷頭序: 吾佛世尊住世四十九年三百六十七會說/ 法度人如蓮華出現泊入滅後四衆厭故憺/ 新由是菩薩出世宗經說論開發未悟如蓮/ 華開敷去聖浸遠性因習移達磨西來直指/ 人心見性成佛如華落蓮成也學者工夫亦/ 當序進故此集首以歌銘玄談從聞思修入/ 三摩地次以祖祖心傳師師口授撤重闕之/ 鑰露全提之秘分身應世接物利生不壞假/ 名而談實相又以三教聖賢微言妙句合於/ 斯道有補世教者貫而通之則知教未嘗三/ 焉是集如百千燈光照一室其光遍滿無壞/ 無雜忽有人問即心是佛喚作直指早是透/ 曲了也箇一絡索堪作甚麼即掩其口云止/ 止不須說我法妙難思這裏悟去試與從頭/ 看過則一字一句皆心法眞實珠庶不孤無/ 住老人三十年婆心云爾

內容: 一卷1; 傅大士心王銘, 誌公和尚十二時歌, 誌公和尚十四科, 三祖璨大師信心銘, 明州布袋和尚歌, 永嘉大師證道歌, 杯渡禪師一鉢歌, 石頭遷和尚草庵歌, 樂普和尚浮漚歌, 蘇溪和尚牧護歌, 韶山普和尚心珠歌, 騰騰和尚了源歌, 南嶽懶殘和尚歌, 道吾和尚樂道歌, 石頭遷和尚參同契, 同安察禪師十玄談. 一卷2; 達磨大師心要, 三祖璨大師心要, 四祖信禪師心要, 馬祖一大師心要, 靜上座法語, 圭峯密禪師法語, 百丈海禪師法語(二), 白雲端禪師法語, 黃龍南禪師法語, 靈源清禪師法語, 五祖演禪師法語, 晦堂心禪師法語, 雪堂行禪師法語, 圓悟勤禪師法語(三), 宏智覺禪師法語(二), 大慧杲禪師法語(三), 孝宗皇帝詔印禪師遠禪師光禪師問道, 唐相國杜鴻漸謁無住禪師問道, 侍郎文公韓愈謁大顛禪師問道, 睦州陳尚書操勘辨行脚僧, 朗州刺史李翱謁藥山禪師問道, 張無盡居士謁堯率悅禪師問道. 一卷3; 唐德宗詔曇光法師問道, 長蘆曠禪師齋僧儀, 者庵彬和尚叢林公論(二), 長蘆曠禪師坐禪儀, 天台智者止觀, 李長者華嚴論(圭堂居士論附), 張無盡居士昭化院記(李長者造論所), 晁文元公道院集(二), 李昌齡感應篇注, 龍舒淨土說文, 平叔真

人戒定慧解, 即心即佛頌, 採珠歌, 楊無爲居士選佛堂記, 楊無爲居士注莊子序, 楊無爲居士淨土文, 濟川馮居士施藏經文, 濟川馮居士施藏經發願文, 龐居士詩(四), 寒山子詩(三), 拾得子詩(三), 佛眼遠禪師詩(六), 李太白詩, 蘇東坡遊廬山詩(二), 柳子厚詩, 陳體常詩(二), 劉興朝詩, 邵堯夫先生詩(三), 慈受深和尚詩(三).

印 文: 智塔(卷頭序), 荊山(卷頭序), 倪妙/行□(卷頭序), 無住居士(卷頭序), □□/□□(卷末)

表 紙: 後代 改裝

狀 態: 일부의 下端에 漏濕의 흔적이 있고 초보적인 紙類保存處理로 인하여 損傷된 정도가 적지 않으며 다수의 補筆도 散見되나 原形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所 藏: 蔚山博物館(蔚山廣域市 南區 斗旺路 277)

傳來歷: 2008년 6월경에 大韓佛敎天台宗의 여러 寺刹들이 서울특별시 鍾路區 仁寺洞길 55-1의 通文館에서 공동구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7길 111의 大韓佛敎天台宗 觀門寺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배분한 古書로 書背와 裏面의 下端에는 관리를 위한 登錄番號와 分類番號 및 圖書番號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스탬프印이 찍혀 있다

既指定: 보물 제921호(강태영 소장본), 보물 제1014호(구인사 소장본)

要修正: 보물 제921호와 보물 제1014호는 同一한 板本임에도 국가문화재 지정번호가 서로 다르므로 指定番號의 修正이 요망 된다

○ 현 상

조사본 「眞實珠集」은 2008년 6월경에 大韓佛敎天台宗의 여러 寺刹들이 서울특별시 鍾路區 仁寺洞길 55-1의 通文館에서 공동구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7길 111의 大韓佛敎天台宗 觀門寺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배분한 典籍文化財로 書背와 裏面의 下端에는 관리를 위한 登錄番號와 分類番號 및 圖書番號 등을 기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스탬프印이 찍혀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의 소유자는 蔚山廣域市 蔚州郡 彦陽邑 於音路 36-56의 陽德寺 주지 세운이며, 현재 蔚山廣域市 南區 斗旺路 277의 蔚山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의 현재 상태는 일부의 下端에 漏濕의 흔적이 있고 초보적인 紙類保存處理로 인하여 損傷된 정도가 적지 않으며 다수의 補筆도 散見되나 原形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전문가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眞實珠集」은 중국 宋朝의 倪妙行(?-?)이 여러 禪師와 文人들의 歌·銘·心要·法語·詩·文 등에서 禪과 관련된 것들을 선별하여 3권으로 편찬한 것으로, 특히 唐朝 儒學者들의 佛敎에 대한 敎理質疑書와 唐宋朝 文人들의 詩까지 함께 수록하여 한결같이 心法의 歸結은 一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의 目錄題·卷頭題·卷末題 등은 ‘眞實珠集’이고 版心題는 ‘眞實珠’이며,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본문의 行字數는 11행 17-18자이고 註文은

小字雙行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紙質은 楮紙에 벗짚 등의 혼합재료가 섞인 藁精紙이다.

조사본 「眞實珠集」의 卷首에는 至元 甲戌(1274)년에 荊山 智瑫이 쓴 <佛祖公卿眞仙碩德歌銘教言>의 序文과 같은 해에 編者인 無住居士 倪妙行이 쓴 <心法眞實珠序>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1편의 無住居士의 卷頭序에 이어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목록 다음 장에 ‘眞實珠集’의 卷頭書名과 다음 행에 ‘古抗無住居士倪妙行集’의 편자표시가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의 卷1에는 <傳大士心王銘>·<誌公和尚十二時歌>·<誌公和尚十四科>·<三祖璨大師信心銘>·<明州布袋和尚歌>·<永嘉大師證道歌>·<杯渡禪師一鉢歌>·<石頭遷和尚草庵歌>·<樂普和尚浮漚歌>·<蘇溪和尚牧護歌>·<韶山普和尚心珠歌>·<騰騰和尚了源歌>·<南嶽懶殘和尚歌>·<道吾和尚樂道歌>·<石頭遷和尚參同契>·<同安察禪師十玄談>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2에는 <達磨大師心要>·<三祖璨大師心要>·<四祖信禪師心要>·<馬祖一大師心要>·<靜上座法語>·<圭峯密禪師法語>·<百丈海禪師法語(二)>·<白雲端禪師法語>·<黃龍南禪師法語>·<靈源清禪師法語>·<五祖演禪師法語>·<晦堂心禪師法語>·<雪堂行禪師法語>·<圓悟勤禪師法語(三)>·<宏智覺禪師法語(二)>·<大慧杲禪師法語(三)>·<孝宗皇帝詔印禪師遠禪師光禪師問道>·<唐相國杜鴻漸謁無住禪師問道>·<侍郎文公韓愈謁大顛禪師問道>·<睦州陳尚書操勘辨行脚僧>·<朗州刺史李翱謁藥山禪師問道>·<張無盡居士謁堯悅禪師問道>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3에는 <唐德宗詔曇光法師問道>·<長蘆曠禪師齋僧儀>·<者庵彬和尚叢林公論(二)>·<長蘆曠禪師坐禪儀>·<天台智者止觀>·<李長者華嚴論(圭堂居士論附)>·<張無盡居士昭化院記(李長者造論所)>·<晁文元公道院集(二)>·<李昌齡感應篇注>·<龍舒淨土說文>·<平叔真人戒定慧解>·<卽心卽佛頌>·<採珠歌>·<楊無爲居士選佛堂記>·<楊無爲居士注莊子序>·<楊無爲居士淨土文>·<濟川馮居士施藏經文>·<濟川馮居士施藏經發願文>·<龐居士詩(四)>·<寒山子詩(三)>·<拾得子詩(三)>·<佛眼遠禪師詩(六)>·<李太白詩>·<蘇東坡遊廬山詩(二)>·<柳子厚詩>·<陳體常詩(二)>·<劉興朝詩>·<邵堯夫先生詩(三)>·<慈受深和尚詩(三)>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의 各卷末에는 “天順六年壬午(1462, 세조 8)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彫造”의 原刊記와 “進義副尉(臣)黃伍信(?-?)書”의 板下書者가 기록되어 있으며, 권3의 말미에는 “威毅將軍行龍驤衛攝護軍知製教臣尹弼商校勘/ 館編修官兼判軍資監事知戶曹事臣盧思愼校勘/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充春秋/ 嘉善大夫中樞院副使臣韓繼禧校勘”의 校勘者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사본 「眞實珠集」은 尹弼商(1427-1504)·盧思愼(1427-1498)·韓繼禧(1423-1482) 등이 校勘하여 黃伍信(?-?)이 정서한 板下本으로 세조 8(1462)년에 刊經都監에서 목판으로 새겨 刊行한 刊經都監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 후 성종 3(1472)년에 仁粹大妃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印經이 이루어졌을 때 재차 印出되기도 하였다.

조사본 「眞實珠集」은 世祖에 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된 刊經都監에서

세조 8(1462)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刊經都監版이다. 조사본 「眞實珠集」은 刊經都監版이라 板刻이 精巧하고 印刷가 선명한 善本이며, 조사본과 동일한 刊經都監版 「眞實珠集」은 보물 제921호(강태영)와 보물 제1014호(구인사)로 지정되어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은 드물게 전래되고 있는 板本으로 불결과 佛敎學 및 書誌學 등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朝鮮時代 初期의 木板印刷術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 문헌자료

- 蔚山廣域市 編, <「眞實珠集」 조사보고서(윤상기·송정숙의 조사보고서). 울산, 울산시 文化財委員會, 2011.
-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0 흥두선 기증유물특별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10.
-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기 타

조사본 「眞實珠集」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물 제921호(강태영 소장본), 보물 제1014호(구인사 소장본)가 있으며, 보물 제921호와 보물 제1014호는 同一한 板本임에도 國家文化財 指定番號가 서로 다르므로 指定番號의 修正이 요망된다.



○ 현 상

전장(全張)을 배접하였으며, 몇 군데는 글자가 결락되어 필사 보완 해 놓았음.

○ 내용 및 특징

『진실주집』은 송나라의 예묘행(倪妙行)이 여러 선사의 가(歌)·명(銘)·심요·법어·시·문 등에서 선에 관련된 것들을 선별하여 3권으로 엮은 것이다. 특히 당나라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교리질의서와 당송 문인들의 시까지 엮어 모두 심법(心法)의 귀결이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권수에는 지원 갑술(至元 甲戌, 1274)년에 형산(荊山) 지용(智瑢)이 쓴 “불조공경진선석덕가명교언”이라는 이름의 서문, 같은 해에 편자 무주거사(無住居士) 예묘행이 쓴 “심법진실주집서(心法眞實珠集序)”와 예묘행의 서문 등 3종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마지막 서문은 보물 제921호로 지정된 동일 판본인 아단문고 소장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어 3권에 대한 목록이 있고, 본문이 시작된다.

각 권의 권미에는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와 “진의부위신황오신서”와 같이 판서자가 황오신임을 밝혀 놓았다. 권3의 권미에는 한계희(韓繼禧, 1423~1482)·노사신(盧思愼, 1427~1498)·윤필상(尹弼商, 1427~1498) 등이 교감자로 참여하였음이 부기되어 있다.

이 판본은 권미의 “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와 같이 세조 8년(1462)에 간경도감에서 새긴 초간본으로 판단된다. 당시 판하본은 진의부위(進義副尉)였던 황오신(黃悟信)이 정서하였으며, 교감은 한계희(韓繼禧)·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 등이 맡았다.

이 판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간경도감판(刊經都監版)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며,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교정에 참여할 정도로 내용에 정성을 기울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판각도 정교하다. 동일한 판본으로 보물로 기 지정된 것으로는 아단문고 소장의 보물 제921호와 단양 구인사 소장의 보물 제1014호가 있다.

한편 이 판본은 성종 3년(1472)에 인수대비(仁粹大妃)의 주도로 다시 후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인본에 있는 김수운의 갑인자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후인본 중에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보물 제1775호)은 인쇄와 보존 상태가 동일 판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 문헌자료

윤상기, 송정숙,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울산광역시, 2013.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書誌事項.

眞實珠集 / 倪妙行(?~?, 宋) 集 ; 黃伍信(?~?, 朝鮮) 書. -- 木板本(刊經都監本). -- [刊行地不明] : [刊經都監], [世祖 8(1462) 推定].

3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8.2×13.4cm, 有界, 11行17-18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5.0×17.0cm. 藁精紙. 線裝(改裝).

表 題: 眞實珠集

序 題: 佛祖公卿眞仙碩德歌銘教言, 心法眞實珠

目錄題: 眞實珠集

卷頭題: 眞實珠集

卷末題: 眞實珠集

版心題: 眞實珠

卷一末: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 教雕造/ 進義副尉臣黃伍信書

卷二末: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 教雕造/ 進義副尉臣黃伍信書

卷三末: 天順六年壬午歲(1462)朝鮮國刊經都監奉/ 教雕造/ 進義副尉臣黃伍信書/ 威毅將軍行龍驤衛攝護軍知製教臣尹弼商校勘/ 館編修官兼判軍資監事知戶曹事臣盧思愼校勘/ 通

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充春秋/嘉善大夫中樞院副使臣韓繼禧校勘

卷頭序: 佛祖公卿真仙碩德歌銘教言; 無住大居士將斷貫索穿作一串目/ 爲心法眞實珠然古人千說萬說/ 只是說人人分上有一顆無價寶珠/ 昭昭然於行住坐卧視聽食息之間/ 忽被人索此珠時小比丘也只得叉/ 手近前無言可對無理可伸却有/ 一句子叮嚀切不得道傾出一栲栳/ 豈至元甲申(1284)結制日荆山智塔書/ 于普向雪庭西簷

卷頭序: 心法眞實珠序/ 見性成佛人人有分只爲情生智隔/ 想變體殊從此一塵涉境漸成憂漢/ 高峯滴水興波終至吞舟巨浪將欲/ 返初復本其奈日薄途遙故我/ 祖師西來興慈運悲唱第一義指彼/ 妄心復乎真性後之人雖不耳聆面/ 命由其遺言悟入者多矣妙行根鈍/ 才疎因病識藥敬於傳燈錄內撮其/ 歌銘玄旨與夫大善知識要截語/ 句集爲三卷刊梓流通所貴簡而易/ 覽覽而易入可謂示眞實珠利用無/ 盡傾秘密藏施惠何窮猶貧乏財之/ 人值大寶聚若渴甘露之者遇清涼/ 池隨所修持應願充足仰冀/ 諸上善人速下一乘之圓種具深信/ 士早期三會於龍華虛空可量此願/ 無盡共弘斯道圖報/ 佛恩鉅宋咸淳甲戌(1274)孟春古杭參學/ 無住居士倪妙行謹序

卷頭序: 吾佛世尊住世四十九年三百六十七會說/ 法度人如蓮華出現泊入滅後四衆厭故悅/ 新由是菩薩出世宗經說論開發未悟如蓮/ 華開敷去聖浸遠性因習移達磨西來直指/ 人心見性成佛如華落蓮成也學者工夫亦/ 當序進故此集首以歌銘玄談從聞思修入/ 三摩地次以祖祖心傳師師口授撤重闕之/ 鑰露全提之秘分身應世接物利生不壞假/ 名而談實相又以三教聖賢微言妙句合於/ 斯道有補世教者貫而通之則知教未嘗三/ 焉是集如百千燈光照一室其光遍滿無壞/ 無雜忽有人問即心是佛喚作直指早是透/ 曲了也箇一絡索堪作甚麼即掩其口云止/ 止不須說我法妙難思這裏悟去試與從頭/ 看過則一字一句皆心法眞實珠庶不孤無/ 住老人三十年婆心云爾

內 容: 一卷1; 傅大士心王銘, 誌公和尚十二時歌, 誌公和尚十四科, 三祖璨大師信心銘, 明州布袋和尚歌, 永嘉大師證道歌, 杯渡禪師一鉢歌, 石頭遷和尚草庵歌, 樂普和尚浮漚歌, 蘇溪和尚牧護歌, 韶山普和尚心珠歌, 騰騰和尚了源歌, 南嶽懶殘和尚歌, 道吾和尚樂道歌, 石頭遷和尚參同契, 同安察禪師十玄談. 一卷2; 達磨大師心要, 三祖璨大師心要, 四祖信禪師心要, 馬祖一大師心要, 靜上座法語, 圭峯密禪師法語, 百丈海禪師法語(二), 白雲端禪師法語, 黃龍南禪師法語, 靈源清禪師法語, 五祖演禪師法語, 晦堂心禪師法語, 雪堂行禪師法語, 圓悟勤禪師法語(三), 宏智覺禪師法語(二), 大慧杲禪師法語(三), 孝宗皇帝詔印禪師遠禪師光禪師問道, 唐相國杜鴻漸謁無住禪師問道, 侍郎文公韓愈謁大顛禪師問道, 睦州陳尚書操勘辨行脚僧, 朗州刺史李翱謁藥山禪師問道, 張無盡居士謁堯率悅禪師問道. 一卷3; 唐德宗詔曇光法師問道, 長蘆曠禪師齋僧儀, 者庵彬和尚叢林公論(二), 長蘆曠禪師坐禪儀, 天台智者止觀, 李長者華嚴論(圭堂居士論附), 張無盡居士昭化院記(李長者造論所), 晁文元公道院集(二), 李昌齡感應篇注, 龍舒淨土說文, 平叔真人戒定慧解, 即心即佛頌, 採珠歌, 楊無爲居士選佛堂記, 楊無爲居士注莊子序, 楊無爲居士淨土文, 濟川馮居士施藏經文, 濟川馮居士施藏經發願文, 龐居士詩(四), 寒山子詩(三), 拾得子詩(三), 佛眼遠禪師詩(六), 李太白詩, 蘇東坡遊廬山詩(二), 柳子厚詩, 陳體常詩(二), 劉興朝詩, 邵堯夫先生詩(三), 慈受深和尚詩(三).

印 文: 智塔(卷頭序), 荆山(卷頭序), 倪妙/行□(卷頭序), 無住居士(卷頭序), □□/□□(卷末)

○ 현 상

조사본 『眞實珠集』은 2008년 6월경에 大韓佛敎天台宗의 여러 寺刹들이 서울 특별시 鍾路區 仁寺洞길 55-1의 通文館에서 공동구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 7길 111의 大韓佛敎天台宗 觀門寺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배분한 典籍文化

財이다. 書背와 裏面의 下端에는 관리를 위한 登錄番號와 分類番號 및 圖書番號 등을 기입한 스탬프印이 찍혀 있다.

조사본 『眞實珠集』의 소유자는 蔚山廣域市 蔚州郡 彦陽邑 於音路 36-56의 陽德寺 주지 세운이며, 현재 蔚山廣域市 南區 斗旺路 277의 蔚山博物館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현재 原形은 유지되고 있으나, 補筆도 많이 보이고, 일부 下端에 漏濕의 흔적이 있고 초보적인 紙類保存處理로 인하여 상당 부분 損傷되어 있는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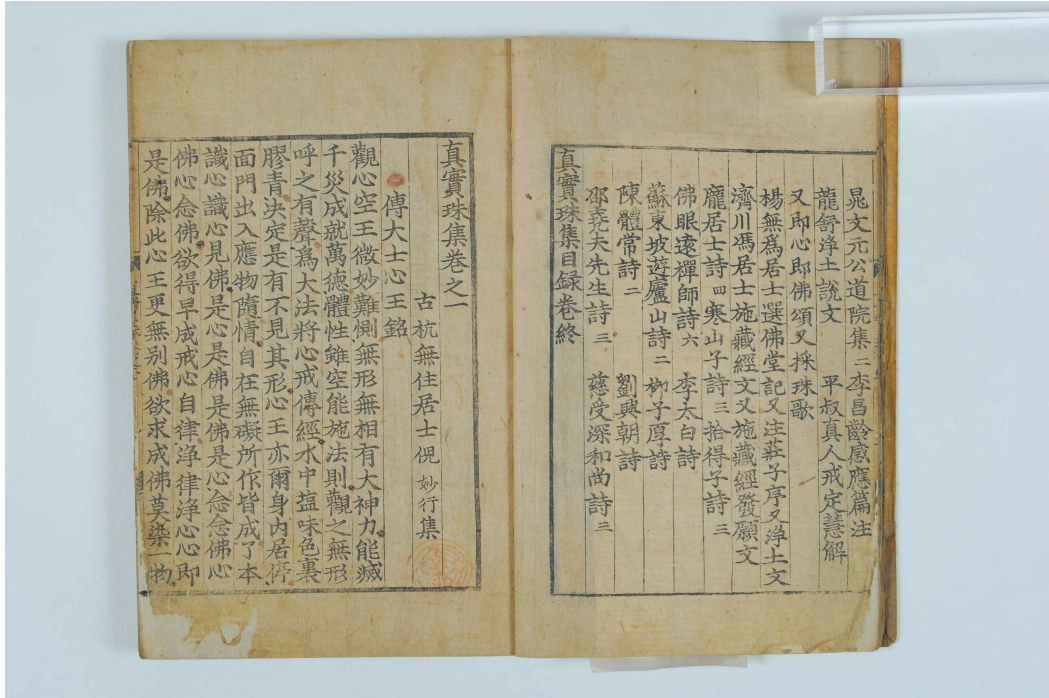
조사본 『眞實珠集』의 卷首에는 至元 甲戌(1274)에 荊山 智瑢이 쓴 「佛祖公卿眞仙碩德歌銘教言」의 序文과 같은 해에 編者인 無住居士 倪妙行이 쓴 「心法眞實珠序」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1편의 無住居士의 卷頭序에 이어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목록 다음 장에 ‘眞實珠集’의 卷頭書名과 다음 행에 ‘古抗無住居士倪妙行集’의 편자표시가 있다.

또한 各卷末에는 “天順六年壬午(1462, 세조 8)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彫造”의 原刊記와 “進義副尉(臣)黃伍信(?-?)書”의 板下書者가 기록되어 있으며, 권3의 말미에는 “威毅將軍行龍驤衛攝護軍知製教臣尹弼商校勘/ 館編修官兼判軍資監事知戶曹事臣盧思慎校勘/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充春秋/ 嘉善大夫中樞院副使臣韓繼禧校勘”의 校勘者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조사본 『眞實珠集』은 尹弼商(1427~1504)·盧思慎(1427~1498)·韓繼禧(1423~1482) 등이 校勘하여 黃伍信(?~?)이 정서한 板下本으로 세조 8년(1462)에 刊經都監에서 목판으로 새겨 刊行한 刊經都監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 후 성종 3(1472)년에 仁粹大妃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印經이 이루어졌을 때 재차 印出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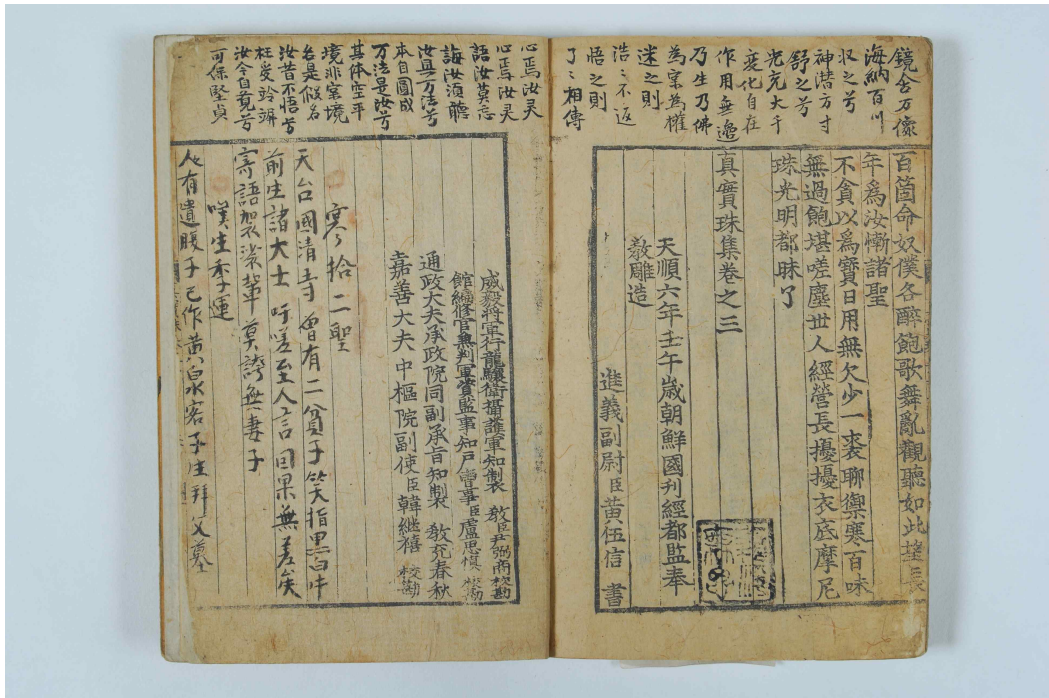
조사본 『眞實珠集』은 刊經都監版으로 조사본과 동일한 刊經都監版 『眞實珠集』은 보물 제921호(강태영)와 보물 제1014호(구인사)로 지정되어 있다.

○ 문헌자료

- 윤상기·송정숙, 『 「眞實珠集」 조사보고서』, 울산시, 2011.
-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0 흥두선 기증유물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10.



진실주집 - 권1



진실주집 - 천순 6년명 간기

14. 자치통감 권226~229 (資治通鑑 卷二百二十六~二百二十九)

가. 심의사항

‘자치통감 권226~229’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자치통감 권226~229’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신청(2013.9.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7.1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도 제1차 회의(2.12)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2.26~'15.3.27)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1호(2013.8.16)
- 명 칭: 자치통감 권226~229 (資治通鑑 卷二百二十六~二百二十九)
- 소유자(관리자): 울산박물관
-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 수 량: 4권 1책
- 규격(cm): 세로 36.5(27.6) × 가로 24.3(19.9)
- 재 질: 닥종이(楮紙)
- 판 종: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36년(세종 18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사마광의 「資治通鑑」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治亂興亡의 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조사본은 세종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名臣·學者들의 訓義와 校勘을 거쳐 「資治通鑑」의 편찬을 완료하고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세종 18(1436)년에 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京外에 排布하였던 판본이다. 世宗朝에 鑄字所에서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資治通鑑」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규장각·서울역사박물관·원각사·취정사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조사본 「資治通鑑」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조선시대 초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 크게 이바지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資治通鑑」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울산박물관 소장의 『자치통감』 권226~229의 4권1책은 전 100책 중의 영본 1책이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最高)의 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으로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다. 더욱이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조사본 『資治通鑑』은 세종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名臣·學者들의 訓義와 校勘을 거쳐 「資治通鑑」의 편찬을 완료하고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세종 18년(1436)에 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京外에 排布하였던 판본이다.

世宗朝에 鑄字所에서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資治通鑑」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규장각·서울역사박물관·원각사·취정사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현재 조사본과 동일한 版本이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규장각·서울역사박물관·원각사·취정사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하여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 지정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 調査本 「資治通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資治通鑑 卷226~229 / 司馬光(北宋, 1019-1086) 奉勅編集 ; 思政殿(朝鮮) 訓義.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漢城] : [鑄字所], [世宗 18(1436) 推定].

4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7.6×19.9cm, 界線,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6.5×24.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題簽題: [資治通鑑]脫落

卷首題: 資治通鑑

卷末題: 資治通鑑

版心題: 通鑑

內 容: -卷226; 唐紀42 <起屠維協洽(己未)八月盡重光作噩(辛酉)五月凡一年有奇> 代宗睿文孝武皇帝下(己未), 德宗神武聖文皇帝一(庚申~辛酉). -卷227; 唐紀43 <起重光作噩(辛酉)六月盡玄默闍茂(壬戌)凡一年有奇> 德宗神武聖文皇帝二(辛酉~壬戌). -卷228; 唐紀44 <起昭陽大淵獻(癸亥)正月盡十月不滿一年> 德宗神武聖文皇帝三(癸亥). -卷229; 唐紀45 <起昭陽大淵獻十一盡闕逢困敦正月不滿一年> 德宗神武聖文皇帝四(癸亥~甲子).

狀 態: 一部の 面紙 上端部に 毀損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임

所 藏: 蔚山博物館(蔚山廣域市 南區 斗旺路 277)

傳來歷: 2009년 7월 31일 蔚山博物館이 2009년도 2차 遺物 公開購入에서 個人所藏者 김미정 으로부터 購入하였으며, 原所藏者는 집안에서 所有하고 있었다고 함

既指定: 보물 제1281호(권236~23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보물 제1281-2호(권131~135, 권246~250,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보물 제1281-3(권193~195, 원각사 소장본)

○ 현 상

조사본 「資治通鑑」은 중국 宋朝의 司馬光(1019-1086) 등이 원풍 7(1084)년에 編年體로 편찬한 중국의 通史를 저본으로 하여 조선 世宗(1397-1450)의 명으로 尹淮(1380-1436)·權蹈(1387-1445)·僕循(?-1435)·金沫(1383-1464)·柳義孫(1398-1450) 등 40여명의 문신들이 司馬光의 「資治通鑑」에 「通鑑音注」·「通鑑源委」·「通鑑輯覽」·「通鑑釋義」 등의 역대 주요 註釋書를 바탕으로 도합 294권으로 訓義하고 校勘한 뒤 세종 18(1436)년에 甲寅字의 金屬活字로 간행한 판본 중 卷226~229의 4권 1책이다. 본서의 편집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행하여진 관계로 국왕이 ‘思政殿訓義’로 賜名하여 ‘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 불리며, ‘思政殿訓義資治通鑑’ 또는 ‘通鑑訓義’라 별칭되기도 한다.

조사본 「資治通鑑」은 울산박물관에서 2009년 7월 31일(2009년도 2차 공개구입)에 개인소장자 김미정 씨로부터 구입하였으며, 原所藏者는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사본 「資治通鑑」의 보존상태는 一部の 面紙 上端部に 毀損이 있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이며, 현재 전문적 시설을 구비한 울산박물관에 의해 收藏·管理되고 있

다.

○ 내용 및 특징

「資治通鑑」은 중국 北宋 중기의 정치가이며 사학가인 司馬光(1019-1086)이 皇命으로 治平 2(1065)년부터 元豐 7(1084)년까지 19년간에 걸쳐 편찬한 編年體의 역사서이다. 편찬자인 司馬光은 북송의 정치가·학자로 자는 君實이고 호는 迂夫·迂叟 등이며, 시호는 文正이다. 山西省 夏縣 涑水鄉 출신이라 ‘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사후에 ‘溫國公’에 봉하여졌으므로 ‘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保元 2(1039)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지방관을 두루 역임한 뒤 嘉祐 6(1061)년에 起居舍人同知諫員에 전직되고 神宗이 즉위하여 翰林學士에 임명하였으나, 駢文에 어둡다는 이유로 고사하여 御史中丞이 되었다. 熙寧 3(1070)년에 神宗과 王安石(1021-1086)이 新法政治를 시행하자 이를 비판하고 舊法의 회복을 도모하다 실각하여 洛陽에 은둔하면서 神宗의 지원을 받아 熙寧 19년간에 걸쳐 「資治通鑑」 294권을 撰進하였다. 1086(원우 원)년에 尙書左僕射兼門下侍郎에 기용되어 ‘元祐更化’를 주도하여 신법을 차례로 폐지함으로써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나 집정한지 8개월 만에 卒去하였다. 溫公의 입장은 대지주와 대상인 등 보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며, 사후에 新法黨에 의해 명예가 박탈되었다가 南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예가 회복되었다. 溫公은 治平 원(1064)년에 「春秋左氏傳」을 모방하여 戰國과 秦代의 史實을 서술한 「通志」 8권을 찬진하였는데, 이를 확대하여 편찬하라는 英宗의 황명으로 이듬해(1065)부터 崇文院에 史局을 설치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劉放(1023-1089)이 前漢과 後漢을, 劉恕(1032-1078)가 三國부터 南北朝까지를, 范祖禹(1041-1098)가 唐朝 및 五代를 각각 분담·기술하여 착수한지 19년만인 元豐 7(1084)년에 戰國의 周 威烈王 23(BC 403)년에서 五代 後周의 顯德 6(959)년에 이르는 1,362년간의 역사를 294권으로 편년하여 찬진하였다. 편찬 당시까지의 정사는 물론 實錄·野史·小說·墓誌類 등 무려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春秋左氏傳」의 書法에 따라 찬진되자, 神宗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治道에 도움이 되리라”는 의미에서 ‘資治通鑑’이라는 서명과 서문을 내렸다. 溫公이 「資治通鑑」을 찬술한 목적은 역대의 사실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大義名分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史觀으로 기사를 선택하였으며, 정치나 인물의 득실을 평론하여 鑑戒가 될 만한 사적들을 주로 拾錄하였다. 또한 편년에 있어서도 삼국의 경우에는 魏朝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南朝의 연호로 각각 正統을 명시하였다. 특히 중요한 기사에는 ‘臣光曰’이라는 按語로 溫公 자신의 평론을 첨가하고 있어, 溫公의 사관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溫公 자신이 별도로 「通鑑考異」 30권을 저술하여 사실의 고증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으며, <通鑑目錄>과 <通鑑釋例>에는 목록과 범례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溫公은 「稽古錄」을 저술하여 부족한 「資治通鑑」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資治通鑑」은 魏朝로 紀年을 삼아

直筆한데 반해, 朱子(1130-1200)는 溫公의 이러한 史筆을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溫公은 삼국의 曹魏가 後漢을 계승한 정통으로 인정하여 <魏紀>를 기술하였으나, 朱子는 溫公의 이러한 사관을 문제로 여겨 昭烈帝(劉備)가 후한 獻帝를 이어 그 遺統을 계승한 것으로 바로 잡아 「資治通鑑綱目」을 찬술하기도 하였다. 「資治通鑑」은 “천지간에 없어서는 안 될 서적인 동시에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서적”이라는 王鳴聲(1722-1797)의 평가처럼 학자들의 필독서가 되면서 많은 주석서가 편찬되었다. 그 중 劉安世(1048-1125)의 「資治通鑑音義」는 이미 실전되었고,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전해지는 것이 南宋 史炤(1090~?)의 「資治通鑑釋文」과 王應麟(1223-1296)의 「通鑑地理通釋」이다. 그러나 「資治通鑑」에 대한 전면적인 주석서는 宋末元初의 胡三省(1230-1302)의 「資治通鑑音註」이며, 이것이 통행본이다. 「資治通鑑」의 판본은 원대 이후로 거의 모든 판본이 胡三省의 주석본이며, 祖本은 元祐年間에 간행된 杭州刻本이나 이조차 이미 실전되고 소흥 2(1132)년에 余姚에서 간행된 重刻本이 현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16(1434)년에 世宗의 명으로 尹淮(1380-1436)·權韜(1387-1445)·薛循(?-1435) 등이 「通鑑源委」·「通鑑集覽」·「通鑑釋義」 등을 참고하여 「資治通鑑」의 難解한 곳에 주석을 붙이고 金洙(1383-1464)·柳義孫(1398-1450)·李中允(?-?)·李師曾(1398-1464)·李季甸(1404-1459)·崔恒(1409-1474)·南季瑛(1415-?)·魚孝瞻(1405-1475)·姜孟卿(1410-1461)·閔媛(?-1458) 등에게 함께 參校하도록 하여 世宗이 친히 일일이 검토한 후 도합 294권으로 편찬을 완료한 바 있다. 「資治通鑑」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治亂興亡의 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조사본은 세종 16(1434)년에 편찬에 착수한지 2년만인 세종 18(1436)년에 편찬이 완료되자마자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鑄字所로 하여금 初鑄甲寅字로 간행하도록 하여 京外에 배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의 卷226~229의 4권 1책이다.

조사본 「資治通鑑」의 表題와 卷頭題 및 卷尾題는 ‘資治通鑑’이고 版心題는 ‘通鑑’이며,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본문의 行字數는 10행 19자이고 주문은 小字雙行이며, 어미는 上下下向黑魚尾이다. 수록내용은 卷226은 唐紀42로 代宗睿文孝武皇帝下(己未), 德宗神武聖文皇帝一(庚申~辛酉)이고 卷227은 唐紀43으로 德宗神武聖文皇帝二(辛酉~壬戌)이며, 卷228은 唐紀44로 德宗神武聖文皇帝三(癸亥)이고 卷229는 唐紀45로 德宗神武聖文皇帝四(癸亥~甲子)이다.

조사본과 동일하게 世宗朝에 鑄字所에서 初鑄甲寅字로 간행된 「資治通鑑」의 版本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규장각·서울역사박물관·원각사·취정사 등에 소장되고 있으나 그 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며,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의 금속활자 인쇄술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資治通鑑」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자치통감」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281호(권236~238,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1281-2호(권131~135, 권246~250, 서울역사박물관)
- 보물 제1281-3(권193~195, 원각사)

○ 문헌자료

- 울산박물관 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조사보고서(윤상기위원 조사보고서). 울산, 울산박물관, 2013.
-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0 흥두선 기증유물특별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10.
- 오정환·송일기·김유리. “조선시대 「資治通鑑」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0輯(2011. 12). pp.249-274.
- 이계명. “「資治通鑑」 연구” 『全南史學』 第12輯(1998). pp.119-168.
-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 문화재검색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

○ 내용 및 특징

『자치통감』은 북송 시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이다. 전국시대인 주나라 위열왕 23년(BC 403)부터 오대 후주 세종 현덕 6년(959)까지 수록되어 있다. 내용이 방대한 탓으로 후대 송나라의 주희(朱熹, 1130~1200)는 큰 제목으로 강(綱)을 따로 세우고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구별하여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라는 서명으로 다시 편찬하였다.

조선에서도 쉽게 이용하고자 중국의 인명, 지명, 고사에 대한 주석을 달아 간행하게 된다. 곧 세종의 명을 받들어 윤희, 권도, 설순, 김말, 유의손 등 문신 40여명이 사마광의 『통감음주(通鑑音注)』, 『통감원위(通鑑源委)』, 『통감석의(通鑑釋義)』 등을 바탕으로 교정하고 가감하여 세종 18년(1436)에 갑인자를 사용하여 전 294권 100책으로 간인하였다. 울산박물관 소장의 『자치통감』 권226~229의 1책은 바로 이 때 간인된 판본의 하나이다.

당시 역대의 중요한 주석서를 바탕으로, 경복궁 사정전에서 이 일을 하면서 주석을 교정 가감하였으므로 사마광의 『자치통감』과 구분하기 위해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는 서명으로도 일컫는다.

현전하는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서울역사박물관, 성암고서박물관, 성주 회연서원, 고양 원각사, 화봉문고 등에 전하며, 이 책을 포함하여 모두 24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권236~238의 3권1책(제1281-1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의 권131~135, 246~250의 10권2책(제1281-2호), 고양 원각사 소장의 권193~195의 3권1책(제1281-3호) 등 16권4책이다. 울산박물관 소장의 이 판본은 권226~229의 4권1책의 잔본이지만, 조선 최고(最高)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본인데다 동일한 판본의 전본이 드물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자료 보고서: 『자치통감』 권226~229, 울산광역시, 2013.
- 문화재청
- 국가기록유산



□ 書誌事項

資治通鑑 卷226~229 / 司馬光(北宋, 1019-1086) 奉勅編集 ; 思政殿(朝鮮) 訓義. --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 [漢城] : [鑄字所], [世宗 18(1436) 推定].
4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7.6×19.9cm, 界線, 10行19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 36.5×24.3cm. 楮紙. 線裝(五針眼訂).

題簽題: [資治通鑑]脫落

卷首題: 資治通鑑

卷末題: 資治通鑑

版心題: 通鑑

內 容: -卷226; 唐紀42 <起屠維協洽(己未)八月盡重光作噩(辛酉)五月凡一年有奇> 代宗睿文孝武皇帝下(己未), 德宗神武聖文皇帝一(庚申~辛酉). -卷227; 唐紀43 <起重光作噩(辛酉)六月盡玄默闡茂(壬戌)凡一年有奇> 德宗神武聖文皇帝二(辛酉~壬戌). -卷228; 唐紀44 <起昭陽大淵獻(癸亥)正月盡十月不滿一年> 德宗神武聖文皇帝三(癸亥). -卷229; 唐紀45 <起昭陽大淵獻十一盡闕逢困敦正月不滿一年> 德宗神武聖文皇帝四(癸亥~甲子).

○ 현 상

조사본 『資治通鑑』은 중국 宋朝의 司馬光(1019-1086) 등이 元豐 7年(1084)에 編年體로 편찬한 중국의 通史를 저본으로 하여 조선 世宗(1397~1450)의 명으로 尹淮(1380~1436)·權蹈(1387~1445)·僕循(?~1435)·金沫(1383~1464)·柳義孫(1398~1450) 등 40여명의 문신들이 司馬光의 『資治通鑑』에 『通鑑音注』·『通鑑源委』·『通鑑輯覽』·『通鑑釋義』 등의 역대 주요 註釋書를 바탕으로 총 294권으로 訓義하고 校勘한 뒤 세종 18년(1436)에 甲寅字의 金屬活字로 간행한 판본 중 卷

226~229의 4권 1책이다. 이 책의 편집이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행하여진 관계로 국왕이 ‘思政殿訓義’로 賜名하여 『資治通鑑思政殿訓義』로도 불리며, 『通鑑訓義』라고도 부른다.

조사본 『資治通鑑』은 울산박물관에서 2009년 7월 31일(2009년도 2차 공개구입)에 개인소장자 김미정 씨로부터 구입하였으며, 原所藏者는 집안에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일부의 面紙 上端部에 毀損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資治通鑑』은 세종 18년(1436)에 편찬한 직후 柳義孫의 서문을 붙여 鑄字所로 하여금 初鑄甲寅字로 간행하도록 하여 京外에 배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의 卷226~229의 4권 1책이다.

수록내용은 卷226은 唐紀42로 代宗睿文孝武皇帝下(己未), 德宗神武聖文皇帝一(庚申~辛酉)이고 卷227은 唐紀43으로 德宗神武聖文皇帝二(辛酉~壬戌)이며, 卷228은 唐紀44로 德宗神武聖文皇帝三(癸亥)이고 卷229는 唐紀45로 德宗神武聖文皇帝四(癸亥~甲子)이다.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資治通鑑』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281호(권236~238,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1281-2호(권131~135, 권246~250, 서울역사박물관)
- 보물 제1281-3(권193~195, 원각사)

○ 문헌자료

- 윤상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울산박물관, 2013.
-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0 흥두선 기증유물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10.
- 오정환·송일기·김유리, 『조선시대 「資治通鑑」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50輯, 2011, pp.249~274.
- 이계명, 『「資治通鑑」 연구』, 全南史學 第12輯, 1998, pp.119~168.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국외 반출

안전번호 동산 2015-02-015

1. 보물 제1475호 ‘안압지 출토 금동관 불상 일괄’ 국외반출 허가

가. 심의사항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개관 120년 기념해서 열리는 특별전 <白鳳>의 전시와 관련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청한 보물 제1475호 ‘안압지 출토 금동관 불상 일괄’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39조에 의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청한 보물 제1475호 ‘안압지 출토 금동관 불상 일괄’에 대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신청 기관 : 국립경주박물관
- 대상문화재 : 보물 제1475호 ‘안압지 출토 금동관 불상 일괄’ 중 금동관 삼존불상 및 금동관 보살상
- 수 량 : 2건 2점
- 반출국가(전시장소) : 일본(나라국립박물관)
- 반출 기간 : 2015. 6. 23 ~ 10. 25
- 전시 기간 : 2015. 7. 18 ~ 9. 23
- 전시 명칭 :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개관 120년 기념 특별전 <白鳳>

라. 국외반출 대상 조사 결과

- 목 적 : 반출대상 유물 보존 상태 등 조사
- 조사일자 : 2015. 3. 24.(화)
- 조사장소 : 국립경주박물관
- 조사위원 :
- 조사자 의견
<금동관삼존불상>

- 금동판 삼존불상의 균열부위는 과거 보존처리를 통해 균열부가 접착된 상태이며 전면의 미세균열도 탈락의 우려가 없음.

<금동보살상>

- 금동판 보살상의 표면부식물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청처리를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현상태 유지가 가능함.

<종합의견>

- 금동판 삼존불상과 금동판 보살상은 모두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금속유물임을 감안하여 급격한 전시환경 변화에 주의 요

마. 조치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허가 여부 결정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목록 사진 및 세부사항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 목록		
①지 정 번 호	보물 제1475호	
②명 칭	금동관 삼존불상	
③수 량	1건 1점	
④규 격	높이 27.0cm 너비 20.0cm	
⑤보 관 장 소	국립경주박물관	
①지 정 번 호	보물 제1475호	
②명 칭	금동관 보살상	
③수 량	1건 1점	
④규 격	높이 23.0cm 너비 17.0cm	
⑤보 관 장 소	국립경주박물관	

2. 유물전시관(사찰·문중)에 대한 박물관 인정 승인 허가

가. 심의사항

우리 청이 지정 및 비지정 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원하여 건립·운영 중인 사찰 및 문중의 유물전시관에 대하여 한국전력 「전기 기본공급약관 세칙」에 따른 교육용전력 사용을 위해 박물관 시설을 인정코자 안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력 「전기 기본공급 약관 시행세칙」

제41조 (교육용전력)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전시공원 등 유사박물관 시설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박물관으로 인정받은 시설

나. 제안사유

- 유물전시관 특별점검(‘14. 2)시 향온향습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으로 유물 보존관리 문제점 제기
 - ‘15년도 사찰유물전시관 유물보존관리 경상비(전기료) 지원(5.1억원)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58조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1조에 의거 유물 전시관(사찰·문중)에 대한 박물관 인정 승인을 부의하는 것임
 - ※ 교육용전기 공급시 일반 전기료에 비해 30% 절감 가능

다. 주요내용

- 관련법령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58조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1조
- 심의대상기관 : 총 40개 전시관(조계종 35개, 태고종 1개, 천태종 1개, 문중 3개)

라. 우리청 의견

- 40개 유물전시관이 전시 및 수장시설의 규모,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수, 연간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박물관의 유물보존과 사회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박물관의 인정을 통해 전시관 운영비 절감과 유물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함

마. 심의대상 사찰·문중전시관 현황

연번	소장처	주소	준공	수장유물수		면적 m ²			학예인력
				지정	비지정	전시실	수장고	총면적	
				(건)	(점)				
1	범어사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2001	44	1,281	337.68	85.14	422.82	1
2	동화사	대구 동구 도학동 35번지	2006	55	1,025	1183	103	1286	
3	용주사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	2004	23	281	189	54	243	1
4	월정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1999	42	3,558	491	491	982	1
5	수타사	강원 홍천군 동면 덕치리 9번지	2005	3	97	81.5		81.5	
6	구인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2012	43	4,117	470.2	267.7	737.9	1
7	법주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	1990	1	803		116.08	116.08	
8	마곡사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2009	1	1,199	-	-	-	
9	수덕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	1997	10	3,031	456	90	546	1
10	금산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39번지	1998	3	337	264	106	370	
11	선운사	전북고창군아산면삼인리 500번지	1998	6	221	331	199	530	
12	연안이씨 종중	전북 익산시 삼기면 미륵산1길8	2013	1	1,328	529.05	115.20	644.25	
13	고희영정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불산길 138	2010	1	-	65.44	16.36	81.8	
14	선암사	전남순천시승주읍죽학리 802번지	2006	15	1,948	126	67	192	1
15	송광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1988	37	19,963	927.37	527.93	1,455.30	3
16	흥국사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	2003	4	1,018	515	165	680	
17	무위사	전남강진군성전면월하리 1174	2006	1	-	366	357.15	723.15	
18	태안사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번지	2010	7	50	126	-	126	
19	화엄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2011	14	3,986	234	201	435	1
20	용화사	전북담양군담양읍남손길 11	2004	1 (전적)	156	114	-	114	
21	미암일기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239	2010	3	97	241.2	58.26	299.46	
22	불갑사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번지	2007	8	410	339	214	553	
23	도갑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1999	3	105	307	121	428	

24	백양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2000	3	297	500	99	599	
25	보림사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	2006	15	193	168	62	231	
26	대흥사	전남해남군삼산면구림리 799번지	2012	5	959	652	87	739	
27	기림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9	2006	2	363	139	40	179	
28	불국사	경북경주시진현동 15번지	2010	0	897	643.5	125.79	769.29	3
29	직지사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1994	14	5,907	296.5	24.3	320.8	2
30	봉정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번지	2004	2	298	78	242	320	
31	부석사	경북영주시부석면북지리 148	2009	3	873	378	112	490	1
32	은해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2004	2	533	341	53	394	1
33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번지	2006	9	301	285.12	64.68	349.8	1
34	불영사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120번지	2009	2	2	108	172.8	280.8	
35	표충사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23번지	2011	39	1,117	279	133	412	2
36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1998	88	39,923	1,434	260	1,694	5
37	청곡사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리 18	2007	2	74	274	50	324	
38	옥천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1998	2	78	317	20	337	
39	쌍계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	2002	16	970	657	54	711	
40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2000	38	8,021	1703	225.94	1,928.94	

별첨 : 유물전시관 현황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유물전시관 현황

1) 범어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44건 · 비지정문화재 : 1,281점
	시설	· 준공연도 : 2001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25,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6,0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6,000만원

2) 동화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55건 · 비지정문화재 : 1,025점
	시설	· 준공연도 : 2006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31,514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3,5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3,480만원

3) 용주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23건 · 비지정문화재 : 281점
	시설	· 준공연도 : 2004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39,567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7,800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4,000만원

4) 월정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42건 · 비지정문화재 : 3,558점
	시설	· 준공연도 : 1999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29,387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7,0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11,196만원

5) 수타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건 · 비지정문화재 : 97점
	시설	· 준공연도 : 2005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2,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223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6) 구인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43건 · 비지정문화재 : 4,117점
	시설	· 준공연도 : 2012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44,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19,433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7,378만원

7) 법주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건 · 비지정문화재 : 803점
	시설	· 준공연도 : 1990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36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6,000만원

8) 마곡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건 · 비지정문화재 : 1,199점
	시설	· 준공연도 : 2009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9) 수덕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0건 · 비지정문화재 : 3,031점
	시설	· 준공연도 : 1997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12,629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1,766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5,520만원

10) 금산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건 · 비지정문화재 : 337점
	시설	· 준공연도 : 1998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3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11) 선운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6건 · 비지정문화재 : 221점
	시설	· 준공연도 : 1998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1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4,8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3,600만원

12) 연안이씨종중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건 · 비지정문화재 : 1,328점
	시설	· 준공연도 : 2013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2,775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5,098만원

13) 고희영정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건 · 비지정문화재 :
	시설	· 준공연도 : 2010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항온항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항온항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4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100만원

14) 선암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5건 · 비지정문화재 : 1,948점
	시설	· 준공연도 : 2006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항온항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항온항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2,04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15) 송광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7건 · 비지정문화재 : 19,963점
	시설	· 준공연도 : 1998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12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3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16) 흥국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4건 · 비지정문화재 : 1,018점
	시설	· 준공연도 : 2003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2,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17) 무위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건 · 비지정문화재 :
	시설	· 준공연도 : 2006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2,4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18) 태안사 수장고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7건 · 비지정문화재 : 50점
	시설	· 준공연도 : 2010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1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19) 화엄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4건 · 비지정문화재 : 13,986점
	시설	· 준공연도 : 2011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20) 용화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건 · 비지정문화재 : 1,348점
	시설	· 준공연도 : 2004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21)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건 · 비지정문화재 : 97점
	시설	· 준공연도 : 2010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22) 불갑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8건 · 비지정문화재 : 410점
	시설	· 준공연도 : 2007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3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3,6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7,200만원

23) 도갑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건 · 비지정문화재 : 105점
	시설	· 준공연도 : 1999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2,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24) 백양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건 · 비지정문화재 : 297점
	시설	· 준공연도 : 2000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3,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1,2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1,440만원

25) 보림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5건 · 비지정문화재 : 193점
	시설	· 준공연도 : 2006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항온항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30,000명 · 항온항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26) 대흥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5건 · 비지정문화재 : 959점
	시설	· 준공연도 : 2012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항온항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항온항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27) 기림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2건 · 비지정문화재 : 363점
	시설	· 준공연도 : 2006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6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28) 불국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 비지정문화재 : 897점
	시설	· 준공연도 : 2010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3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29) 직지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4건 · 비지정문화재 : 5,907점
	시설	· 준공연도 : 1994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5,868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2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1,076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4,560만원

30) 봉정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2건 · 비지정문화재 : 298점
	시설	· 준공연도 : 2004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4,5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31) 부석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건 · 비지정문화재 : 873점
	시설	· 준공연도 : 2009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116,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2,333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2,160만원

32) 은해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2건 · 비지정문화재 : 533점
	시설	· 준공연도 : 2004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3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3,600만원

33) 용문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9건 · 비지정문화재 : 301점
	시설	· 준공연도 : 2006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항온항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25,000명 · 항온항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4,652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6,450만원

34) 불영사 수장고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2건 · 비지정문화재 : 350점
	시설	· 준공연도 : 2009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항온항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500명 · 항온항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35) 표충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9건 · 비지정문화재 : 1,117점
	시설	· 준공연도 : 2011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16,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2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3,600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6,100만원

36) 통도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88건 · 비지정문화재 : 39,923점
	시설	· 준공연도 : 1998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45,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5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37) 청곡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2건 · 비지정문화재 : 74점
	시설	· 준공연도 : 2007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2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38) 옥천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2건 · 비지정문화재 : 78점
	시설	· 준공연도 : 1998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1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1명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39) 쌍계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16건 · 비지정문화재 : 970점
	시설	· 준공연도 : 2002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50,000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파악불가(미공개)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1,740만원

40) 해인사 유물전시관

현 황	유물	· 지정문화재 : 38건 · 비지정문화재 : 8,021점
	시설	· 준공연도 : 2000년 · 수장고 유무 : 유(√) 무() · 전시실 유무 : 유(√) 무() · 향온향습시설 유무 : 수장고(√) 전시실(√)
	운영	· 전시실 운영 : 상시(√) 제한() 휴관() 미개관() · 연중 관람객(2013년 기준) : 19,582명 · 향온향습시설 가동 여부 - 수장고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전시실 : 상시() 제한(√) 미가동() 예비장치() · 학예사 유무 : 유() 무(√) / 학예사 인원 : · 전시관 등록 : 경력인증대상기관(√) 한국박물관협회(√) 지자체(√) 미등록() · 전시기획/사회교육 활동 : 유(√) 무() · 회계관리 : 독립회계() 사찰회계(√) · 관람료 유무 : 유(√) 무() · 연간 시설관리비(2013년 기준) : 6,189만원 · 연간 인건비(2013년 기준) : 2,402만원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5-02-017

1. 동의보감(東醫寶鑑)

가. 검토사항

‘동의보감’의 국보 승격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부터 보물 제1085-1호 ‘동의보감’에 대한 국가문화재(국보)승격 신청('12.1.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5.9)를 실시하였음
- 2014년 제5차 위원회('14.8.14)에 검토대상으로 부의되었으나 보물로 지정된 동일판본을 함께 검토하자는 결과로 보류됨
- 이에, 보물 제1085-2호(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과 보물 제1085-3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에 대한 지정조사('15.3.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1085-1호(1991.9.30지정)
- 명 칭 : 동의보감(東醫寶鑑)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도서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수 량 : 25권 25책
- 규격(cm) : 세로 36.6(27.6) × 가로 22.0(17.9)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활자(내의원활자) 초인본[木活字(內醫院活字) 初印本]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613년(광해군 5년)
 - 지정현황 : **보물 제1085-2호(2008.8.28지정)**
 - 명 칭 : 동의보감(東醫寶鑑)
 - 소유자(관리자)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수 량 : 25권 25책
 - 규격(cm) : 36.2×21.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활자(내의원활자) 초인본[木活字(內醫院活字) 初印本]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613년(광해군 5년)
-
- 지정현황 : **보물 제1085-3호(2008.8.28지정)**
 - 명 칭 : 동의보감(東醫寶鑑)
 - 소유자(관리자) : 국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103동
 - 수 량 : 24권24책, 17권17책
 - 규격(cm) : 36.7×22.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활자(내의원활자) 초인본[木活字(內醫院活字) 初印本]
 - 형 식 : 선장(線裝)
 - 제작연대 : 1613년(광해군 5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東醫寶鑑」 25권 25책은 許浚에 의해 광해군 2(1610)년에 편찬이 완료된 뒤, 광해군 5(1613)년에 內醫院의 木活字로 初刊된 동양 최대의 韓醫學寶鑑이다.

한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 東洋 韓醫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東醫寶鑑」은 현재까지도 모든 병의 원인과 치료법 및 처방 등에 손쉽게 적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韓醫學의 寶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東醫寶鑑」은 현재 (1) 보물 제1085-1호 <五台山史庫本 25권25책 국립중앙도서관, 1991. 09. 30>, (2) 보물 제1085-2호 <赤裳山史庫本 25권2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08. 28>, (3) 보물 제1085-3호 <太白山史庫本 24권24책(권6 1책 결락) 및 17권17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08.

28> 등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東醫寶鑑』은 2009년 7월에 제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009년 7월 31일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며,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고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사업을 추진하며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데 바탕을 두고 (1) 최적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을 돕고 (2) 기록유산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3)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위상으로 볼 때, 국내에서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함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보물 제1085-1호의 國立中央圖書館 소장본과 보물 제1085-2호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본은 <25권25책>의 완질로 구성되어 있고 보물 제1085-3호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소장본은 24권24책본(권6의 1책 결락)과 17권17책본이 합쳐져 완질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판본과 동일한 光海君 5(1613)년의 초인본으로 함께 국가문화재 국보로 지정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보물 제1085-1호 『東醫寶鑑』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보물 제1085-2호 『東醫寶鑑』 및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보물 제1085-3호 『東醫寶鑑』 등은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國寶로 승격시켜 지정함으로써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國益일 듯하다.

○

보물 제1085-1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동의보감』과 보물 제1085-2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동의보감』은 1613년에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초간본 25권 25책의 완질본이고, 보물 제1085-3호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의 『동의보감』 2종(보물 제1085-3호)은 1613년에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초간본(각 24권24책과 17권17책)이다.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상시 이용되는 대표적인 동의학서이다. 한의학 분야는 물론 임진왜란 이후 서적출판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미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된 만큼 3건은 모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시켜 보존해야할 국가문화재로 판단된다.

○

『東醫寶鑑』은 2009년 7월에 제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 2009년 7월 31일에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유물로서, 현재 보물 제 1085-1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五臺山史庫本, 25권 25책), 보물 제1085-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赤裳山史庫本, 25권 25책) 그리고 보물 제1085-3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인 太白山史庫本 24권 24책 및 동일 초인본 17권 17책이 지정되어 있다. 모두 동일한 판본에 해당한다.

『東醫寶鑑』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사실은 『광해군일기』 2년(1610) 및 3년(1611)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광해군일기』 제32권 경술 무인조에는 “陽平君 許浚은 일찍이 先朝때 醫方을 撰集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流離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서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에 생각건대,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熟馬 1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方書를 내의원으로 하여금 局을 설치해 속히 印出하케 한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토록 하라”는 내용이 있어 찬술과 관련된 전말을 알 수 있다.

『광해군일기』 제47권 신해 병진조에는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서 두줄로 小註를 써놓아서 글자가 작아 새기기가 매우 어려우며, 藥名과 처방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에 관계가 되는데 애초에 本冊이 없어서 필사본으로 한 부를 간행했을 뿐이므로 다시 의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外方에 맡겨 두면 시일이 지연되어 일을 마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와 오류가 생겨서 결국 쓸모없는 책이 되어 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이것을 염려하여 다시 생각해보니 본원에 별도로 국을 설치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과거에 醫書를 인쇄해 낼 때처럼 의관이 監修하고 校閱한다면 반드시 일의 성취가 바르고 착오가 생길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의원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東醫寶鑑』은 編纂 3년 후인 光海君 5년(1613)에 內醫院에서 木活字로 初刊되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國內·外에서 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孝宗 10년(1659) 혹은 肅宗 45년(1719)에 嶺南에서 活字本으로 간행되었고, 英祖 30년(1754)에는 全州에서 木板本으로 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1766년에 간행되고 1890년에 覆刊되었고, 일본에서는 1662년 3월에 『東醫寶鑑』과 『醫林撮要』를 일본으로 가지고 간 이후 1724년에 일본의 京都書林에서 初刊되고 1799년에 大坂書林에서 再刊되었다.

書名을 「東醫寶鑑」이라 명명한 연유는 『東醫寶鑑』의 「集例」에서 확인된다. 곧 “東垣 李杲는 북방의 의관인데 羅謙甫가 그 법을 전함으로써 江浙地方에 알려졌고 丹溪 朱震亨은 南醫인데 劉宗厚가 그것을 배움으로써 陝西地方에서 이름이 났으니, 의술에는 남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다. 우리나라는 구석진 東方에 있고 醫藥의 연구가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으니 그 의술은 ‘東醫’라 해야 옳을 것이며, 또 ‘鑑’은 만물을 환히 비쳐서 그 형태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에서 元朝 羅謙甫의 『衛生寶鑑』과 明朝 龔信的 『古今醫鑑』 등의 저술도 있다. 이제 본서를 펼쳐서

보면吉凶과輕重의 환함이明鏡과 같으므로『東醫寶鑑』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古人들의 유지를 본받은 것이라 하겠다”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東醫寶鑑』의 편성은「目錄」상하 2권,「內景篇」4권 26조,「外形篇」4권 26조,「雜病篇」11권 38조,「湯液篇」3권 17조,「鍼灸篇」1권 1조 등 총 25권 25책 10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기술은 각綱의類에 따라項을列記하였으며, 각項의類를 다시目으로 나누고 각項의 아래에는 그項에 해당하는病의理論과處方을 기록하였다. 또한出典도 밝히고 각病의症狀에 관한處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醫書들을 참고하고자 하는醫員들에게 열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東醫寶鑑』의 찬술에 인용된 引用書로는 伏羲氏의『天元玉冊』, 神農氏의『本草』, 황제와 그의 신하 岐伯 등의 문답으로 이루어진『素問』,『靈樞經』과 桐君의『採藥對』,『採藥別錄』, 雷斅의『至教論』,『藥性炮灸』, 殷代 伊尹의『湯液本草』, 戰國時代 扁鵲의『難經』 등 10종을 비롯하여 後漢 3종, 兩晉 7종, 南北朝 2종 및 隋 2종, 唐 8종, 金 5종, 宋 15종, 元 11종, 明 20종의 의서와 우리나라 의서 세종조(世宗朝)의『醫方類聚』,『鄉藥集成方』, 선조조의『醫林撮要』 등 모두 86종에 달하는 歷代 醫方書들이 인용되었다.

금번 조사된『東醫寶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오대산사고본, 25권 2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적상산사고본, 25권 25책) 그리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인 태백산사고본 24권 24책 및 동일 초인본 17권 17책이 해당된다.

이들 판본은 모두 동일한 판본으로『光海君 5年(1613)에 內醫院에서 木活字로 初刊된 것으로 전해지는 사례가 드물어 한국의학사 및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로서 國寶로 승격 지정하여 그 가치와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 현 황

■ 書誌記述 : 調査本「東醫寶鑑」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奉教撰. --木活字本(內醫院木活字). -- [漢城] : 內醫院, [光海君 5(1613)].

25卷25冊 : 挿図, 四周双邊 半郭 27.6×17.9cm, 有界, 10行21字 註双行, 內向3葉花紋魚尾 ; 36.6×22.0cm. 楮紙. 線裝.

表題: 醫鑑

卷頭題: 東醫寶鑑

卷末題: 東醫寶鑑

版心題: 東醫寶鑑○○篇

著 者: 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1539~1615)奉教撰

刊 記: 万曆四十一年(1613, 光海君 5)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

監校官: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

卷頭序: 万曆三十九年/辛亥(1611, 光海君 3)孟夏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芸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臣李廷龜(1564~1635)奉/教謹序

內賜記: 万曆四十二(1614, 광해군 6)年二月日/內賜東醫寶鑑一件五台山上/ 左承旨臣李[手決](國立中央圖書館本)

■ 現狀 :

(1) 국립중앙도서관 <보물 제1085-1호 「東醫寶鑑」, 五台山史庫本. 25권25책 완질. 1991. 09. 30.>

內 容: -[冊1] 東醫寶鑑目錄上. -[冊2] 東醫寶鑑目錄下. -[冊3] 內賜記·序·刊行記·目錄·集例·歷代醫方·內景篇卷一(身形·精·氣·神). -[冊4]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 -[冊5] 內景篇卷三(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胆腑·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虫). -[冊6] 內景篇卷四(小便·大便). -[冊7] 外形篇卷一(頭·面·眼). -[冊8] 外形篇卷二(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 -[冊9] 外形篇卷三(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冊10] 外形篇卷四(手·足·毛髮·前陰·後陰). -[冊11] 雜病篇卷一(天地運氣·審病·辨証·診脈·用藥·吐·汗·下). -[冊12] 雜病篇卷二(風·寒上). -[冊13] 雜病篇卷三(寒下·暑·濕·燥·火). -[冊14] 雜病篇卷四(內傷·虛勞). -[冊15] 雜病篇卷五(霍亂·嘔吐·咳嗽). -[冊16] 雜病篇卷六(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 -[冊17] 雜病篇卷七(瘡癤·瘟疫·邪崇·癰疽上). -[冊18] 雜病篇卷八(癰疽下·諸瘡). -[冊19] 雜病篇卷九(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冊20] 雜病篇 卷十(婦人). -[冊21] 雜

病篇卷十一(小兒). -[冊22] 湯液篇卷一(湯液序齣·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冊23] 湯液篇卷二(魚部·虫部·果部·菜部·草部上). -[冊24] 湯液篇卷三(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冊25] 鍼灸篇

-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보물 제1085-2호 「東醫寶鑑」, 赤裳山史庫本. 25권25책 완질. 2008. 08. 28.>

內容: -[冊1] 東醫寶鑑目錄上. -[冊2] 東醫寶鑑目錄下. -[冊3] 內賜記·序·刊行記·目錄·集例·歷代醫方·內景篇卷一(身形·精·氣·神). -[冊4]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 -[冊5] 內景篇卷三(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胆腑·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虫). -[冊6] 內景篇卷四(小便·大便). -[冊7] 外形篇卷一(頭·面·眼). -[冊8] 外形篇卷二(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 -[冊9] 外形篇卷三(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冊10] 外形篇卷四(手·足·毛髮·前陰·後陰). -[冊11] 雜病篇卷一(天地運氣·審病·辨証·診脈·用藥·吐·汗·下). -[冊12] 雜病篇卷二(風·寒上). -[冊13] 雜病篇卷三(寒下·暑·濕·燥·火). -[冊14] 雜病篇卷四(內傷·虛勞). -[冊15] 雜病篇卷五(霍亂·嘔吐·咳嗽). -[冊16] 雜病篇卷六(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 -[冊17] 雜病篇卷七(瘡瘡·瘟疫·邪崇·癰疽上). -[冊18] 雜病篇卷八(癰疽下·諸瘡). -[冊19] 雜病篇卷九(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冊20] 雜病篇 卷十(婦人). -[冊21] 雜病篇卷十一(小兒). -[冊22] 湯液篇卷一(湯液序齣·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冊23] 湯液篇卷二(魚部·虫部·果部·菜部·草部上). -[冊24] 湯液篇卷三(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冊25] 鍼灸篇.

- (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085-3호 「東醫寶鑑」, 太白山史庫本 24권24책. (권6의 1책 결락.) 2008. 08. 28.>

內容: -[冊1] 東醫寶鑑目錄上. -[冊2] 東醫寶鑑目錄下. -[冊3] 內賜記·序·刊行記·目錄·集例·歷代醫方·內景篇卷一(身形·精·氣·神). -[冊4]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 -[冊5] 內景篇卷三(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胆腑·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虫). -[冊6] 欠冊. -[冊7] 外形篇卷一(頭·面·眼). -[冊8] 外形篇卷二(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 -[冊9] 外形篇卷三(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冊10] 外形篇卷四(手·足·毛髮·前陰·後陰). -[冊11] 雜病篇卷一(天地運氣·審病·辨証·診脈·用藥·吐·汗·下). -[冊12] 雜病篇卷二(風·寒上). -[冊13] 雜病篇卷三(寒下·暑·濕·燥·火). -[冊14] 雜病篇卷四(內傷·虛勞). -[冊15] 雜病篇卷五(霍亂·嘔吐·咳嗽). -[冊16] 雜病篇卷六(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 -[冊17] 雜病篇卷七(瘡瘡·瘟疫·邪崇·癰疽上). -[冊18] 雜病篇卷八(癰疽下·諸瘡). -[冊19] 雜病篇卷九(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冊20] 雜病篇 卷十(婦人). -[冊21] 雜病篇卷十一(小兒). -[冊22] 湯液篇卷一(湯液序齣·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冊23]

湯液篇卷二(魚部·虫部·果部·菜部·草部上). -[冊24] 湯液篇卷三(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冊25] 鍼灸篇. <결본 권6은 17권 17책본에 있음>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보물 제1085-3호 「東醫寶鑑」, 17권17책, 2008. 08. 28.>

內容: -[冊1] 東醫寶鑑目錄上. -[冊4]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 -[冊6] 內景篇卷四(小便·大便). -[冊9] 外形篇卷三(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冊11] 雜病篇卷一(天地運氣·審病·辨証·診脈·用藥·吐·汗·下). -[冊12] 雜病篇卷二(風·寒上). -[冊14] 雜病篇卷四(內傷·虛勞). -[冊15] 雜病篇卷五(霍亂·嘔吐·咳嗽). -[冊16] 雜病篇卷六(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 -[冊17] 雜病篇卷七(瘡瘡·瘟疫·邪崇·癰疽上). -[冊19] 雜病篇卷九(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冊20] 雜病篇卷十(婦人). -[冊21] 雜病篇卷十一(小兒). -[冊22] 湯液篇卷一(湯液序齣·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冊23] 湯液篇卷二(魚部·虫部·果部·菜部·草部上). -[冊24] 湯液篇卷三(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冊25] 鍼灸篇.

○ 내용 및 특징

「東醫寶鑑」은 韓國과 中國의 韓醫學 서적을 두루 섭렵한 許浚(1539~1615) 등이 宣祖 29(1596)년에 시작하여 光海君 2(1610)년에 편찬을 완료한 동양의 대표적인 韓醫學叢書이며, 光海君 5(1613)년에 內醫院의 木活字로 初刊된 동양 최대의 韓醫學寶鑑이다.

「東醫寶鑑」은 宣祖 29(1596)년에 許浚이 醫書編纂의 王命을 받들어 儒醫 鄭礎(1533~1603), 太醫 楊禮壽(?~1597), 金庇鐸(?~?), 李命源(?~?), 鄭禮男(?~?) 등과 편집을 진행하다가 宣祖 30(1597)년에 丁酉再亂을 만나 모든 의원이 사망으로 흩어져 일이 중단되었다. 그 후 宣祖는 許浚에게 단독으로 이를 편찬하도록 하고 內藏方書 500권을 대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光海君 2(1610)년에 도합 25권으로 편찬이 완료되자 光海君은 內醫院에 刊行處를 마련하고 신속히 印行하여 배포하고자 三道에 나누어 보내 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적의 卷帙이 방대하여 功役도 많이 들고 小註의 字數가 細密하여 刊行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에서의 간행을 취소하고 그 동안 三道에서 준비한 재료를 內醫院으로 거두어 들여 그의 5(1613)년에 木活字로 印行하였다.

書名을 「東醫寶鑑」이라 명명한 연유는 본서의 <集齣>에서 “東垣 李杲는 북방의 의관인데 羅謙甫가 그 법을 전함으로써 江浙地方에 알려졌고 丹溪 朱震亨은 南醫인데 劉宗厚가 그것을 배움으로써 陝西地方에서 이름이 났으니, 의술에는 남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다. 우리나라는 구석진 東方에 있고 醫藥의 연구가 줄기 차게 계속되고 있으니 그 의술은 ‘東醫’라 해야 옳을 것이며, 또 ‘鑑’은 만물을 환

히 비쳐서 그 형태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에서 元朝 羅謙甫의 「衛生寶鑑」과 明朝 龔信的 「古今醫鑑」 등의 저술도 있다. 이제 본서를 펼쳐서 보면 吉凶과 輕重의 환함이 明鏡과 같으므로 「東醫寶鑑」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古人들의 유지를 본받은 것이라 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東醫寶鑑」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醫學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편찬자의 깊은 뜻이 담겨있음을 엿볼 수 있다.

「東醫寶鑑」은 編纂 3년 후인 光海君 5(1613)년에 內醫院에서 木活字로 初刊되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國內·外에서 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孝宗 10(1659)년 혹은 肅宗 45(1719)년에 嶺南에서 活字本으로 간행되었고, 英祖 30(1754)년에는 全州에서 木板本으로 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景宗 원(1724)년 4월 25일에 清朝의 사신이 「東醫寶鑑」을 청구한 일이 있는 후로 그 간행은 영조 14(1738)년 2월 21일에 清朝의 勅使가 가져간 뒤 영조 42(1766)년에 간행되고 高宗 27(1890)년에 覆刊되었다. 일본에서는 「接待事目錄抄」에 의하면 顯宗 3(1662)년 3월에 「東醫寶鑑」과 「醫林撮要」를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는 후로 景宗 4(1724)년에 일본의 京都書林에서 初刊되고 正祖 23(1799)년에 大坂書林에서 再刊되었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은 동양에 널리 알려진 귀중한 韓醫學百科事典이라 할 수 있다.

調査本 「東醫寶鑑」의 편성은 <目錄> 상하 2권, <內景篇> 4권 26조, <外形篇> 4권 26조, <雜病篇> 11권 38조, <湯液篇> 3권 17조, <鍼灸篇> 1권 1조 등 총 25권 25책 10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는 “萬曆四十二(1614, 광해군 6)年二月日/內賜東醫寶鑑一件五台山上/左承旨臣李[手決]”의 內賜記가 있고 萬曆 39(辛亥, 1611, 광해군 3)년 孟夏에 지은 月沙 李廷龜(1564~1635)의 서문이 있으며, 卷末에는 “萬曆四十一年(1613, 광해군 5)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의 刊記와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 및 “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 등 監校官의 銜名이 수록되어 있고 <內景篇>의 卷頭に 저자의 <集例>가 있다.

調査本 「東醫寶鑑」의 내용은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의 5大綱으로 나누고 각 綱의 類에 따라 項을 列記하였으며, 각 項의 類를 다시 目으로 나누고 각 項의 아래에는 그 項에 해당하는 病의 理論과 處方을 기록하였다. 또한 出典도 밝히고 각 病의 症狀에 관한 處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醫書들을 참고하고자 하는 醫員들에게 열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調査本 「東醫寶鑑」의 내용 중 <內景篇>·<外形篇>·<雜病篇>에 제시된 病証의 총수는 1,136종이며, 이에 대한 處方이 4,208종이고 單方이 1,996종에 달한다. <湯液篇>에는 권두의 序例에서 採藥法, 乾藥法, 三品の 藥性, 修製法, 製藥法, 湯散丸의 방법, 七方, 十二劑, 斤兩升斗, 煮藥法, 服藥法, 五味藥性, 氣味の 昇降, 藥酒담그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水部 33종, 土部 18종, 穀部 107종, 人部 23종, 禽部 107종, 獸部 236종, 魚部 53종, 虫部 95종, 果部 91종, 菜部 122종, 草部上 779종, 草部下 188종, 木部 156종, 玉部 4종, 石部 55종, 金部 33종으로 도합 16부 1,400종에 대한 약의 형상, 약의 性味, 채취방법, 主治 등을 약술하였다.

「東醫寶鑑」의 찬술에 인용된 引用書로는 伏羲氏의 「天元玉冊」, 神農氏의 「本草

」, 황제와 그의 신하 岐伯 등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素問」, 「靈樞經」과 桐君의 「採藥對」, 「採藥別錄」, 雷斅의 「至教論」, 「藥性炮灸」, 殷代 伊尹의 「湯液本草」, 戰國時代 扁鵲의 「難經」 등 10종을 비롯하여 後漢 3종, 兩晉 7종, 南北朝 2종 및 隋 2종, 唐 8종, 金 5종, 宋 15종, 元 11종, 明 20종의 의서와 우리나라 의서 세종조(世宗朝)의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선조조의 「醫林撮要」등 모두 86종에 달하는 歷代 醫方書들이 인용되었다.

「東醫寶鑑」은 한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 東洋醫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까지도 모든 병의 원인과 치료법 및 처방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韓醫學書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현재까지 국내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東醫寶鑑」은 (1) 보물 제1085-1호 <五台山史庫本 25권25책 국립중앙도서관, 1991. 09. 30>, (2) 보물 제1085-2호 <赤裳山史庫本 25권2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08. 28>, (3) 보물 제1085-3호 <太白山史庫本 24권24책(권6 1책 결락), 17권17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08. 28> 등이 있다.

나아가 「東醫寶鑑」은 세계적인 한의학서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9년 7월에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2009년 7월 31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며,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고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사업을 추진하며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데 바탕을 두고 (1) 최적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을 돕고 (2) 기록유산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3)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은 다음과 같다.

(01) 「訓民正音解例本」

세: 199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국보 제70호. 1책. 1446(세종 28). 간송미술관 소장

(02) 「朝鮮王朝實錄」

세: 199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국보 제151호. 정족산본(1,181책)·태백산본(848책)·오대산본(27책)·기타 산엽본(21책) 포함 총 2,077책. 1392~1863(태조~철종). 규장각 등 소장.

(03) 「仙祖直指心体要節」

세: 2001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 국: 비지정. 1책. 1377(우왕 3).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 (04) 「承政院日記」
 세: 2001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국보 제303호. 3,243책. 1623~1910(인조~융희). 규장각 소장.
- (05) 「朝鮮王朝儀軌」(2007년)
 세: 200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비지정. 규장각 546종 2,940책, 장서각 287종 490책. 1392~1910(태조~융희 4). 규장각·장서각 등 소장.
- (06) <海印寺 大藏經板 및 諸經板>
 세: 200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판 81,258판(제경판 5,987판). 1098~1958. 해인사장경각 소장.
- (07) 「東醫寶鑑」
 세: 2009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보물 제1085호. 25권 25책. 1613(광해군 5).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각·규장각 등 소장.
- (08) 「日省錄」
 세: 2011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국보 제153호. 2,329책. 1760~1910(영조~융희). 규장각 소장.
- (09) <5·18 民主化運動記錄物>
 세: 2011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비지정. 문건·사진·영상. 1980년 5월 18~27일. 국가기록원·육군본부·국회도서관·5·18기념재단 등 소장.
- (10) 「亂中日記」
 세: 2013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국보 제76호. 임진일기(1592)·계사일기(1593)·갑오일기(1594)·[을미일기(1595)]·병신일기(1596)·정유일기(1597)·숙정유일기(1597)·무술일기(1598) 등 1건 7책. 1592~1598. 현충사 소장.
- (11) <새마을運動記錄物>
 세: 2013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 비지정. 새마을운동기록물 22,000여건. 1970~1979년. 국가기록원·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소장.

이상의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에서 「訓民正音解例本」·「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海印寺 大藏經板 및 諸經板>·「日省錄」·「亂中日記」 등의 文化財는 국가문화재 國寶로 지정되어 있으며, 「東醫寶鑑」은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佂祖直指心体要節」을 비롯한 「朝鮮王朝儀軌」·<5·18民主化運動記

録物>·<새마을運動記録物> 등의 문화재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仏祖直指心体要節」·「朝鮮王朝儀軌」·<5·18民主化運動記録物>·<새마을運動記録物> 등의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仏祖直指心体要節」은 국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5·18民主化運動記録物>·<새마을運動記録物> 등은 비교적 근현대의 문화재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朝鮮王朝儀軌」의 경우 국가문화재 지정의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성급히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경우로, 현재 국가문화재 보물로의 지정을 위한 목록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위상으로 볼 때, 국내에서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함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보물 제1085호 五台山史庫本 初印本 「東醫寶鑑」(25권 25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보물 제1085-2호 赤裳山史庫本 初印本 「東醫寶鑑」(25권 25책) 및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보물 제1085-3호 太白山史庫本 初印本 「東醫寶鑑」(24권 24책, 권6의 1책 결락) 등은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國寶로 승격시켜 지정함으로써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國益일 듯하다.

또한 「朝鮮王朝儀軌」의 경우도 향후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면 다시금 국가문화재 국보지정을 통하여 國益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지정사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東醫寶鑑」은 (1) 보물 제1085-1호 <五台山史庫本 25권 25책 국립중앙도서관, 1991. 09. 30>, (2) 보물 제1085-2호 <赤裳山史庫本 25권 2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08. 28>, (3) 보물 제1085-3호 <太白山史庫本 24권 24책(권6 1책 결락), 17권 17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08. 28> 등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東醫寶鑑」이 국가문화재 국보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문헌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재지정 관련 전문가 의견서(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 천혜봉, 2012. 05. 18).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2.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dibrary.net/>) 동의보감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 현 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동의보감』(보물 제1085-1호)은 1614년 2월에 오대산사고에 반사(頒賜)된 책이며, 내사기는 “萬曆四十二年(1614)二月日 內賜東醫寶鑑一件五臺山上”이다. 전권 모두가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외에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초간본은 두 건이다. 한 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보물 제1086-2호)의 완질본으로 무주 적산산사고에 반사된 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의 『동의보감』(보물 제1085-2호)은 모두 25권25책의 완질본이다. 표제(表題)는 『東醫寶鑑』이다. 제 3책의 첫 째 장에 「宣賜之記」라는 내사인이 있으나 내사기는 없다. 그런데 내사인의 아래에는 「茂朱赤裳山史庫所藏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그러므로 이 책들은 내사기는 없으나 처음 적산산사고에 반사된 내사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사인의 위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라는 장서인이 있다.

다른 한 건은 태백산사고에 반사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소장본(보물 제1085-3호)³⁷⁾이다.

태백산사고 반사본(규귀 1933) 24권24책은 양호함. 다른 한 종(규 3553)은 17책 중에서 제4, 9, 11책은 불에 그을린 흔적, 제12책은 약 36장이 화재로 훼손되어 보수되었다.

한편 초간할 당시 몇 부를 인쇄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내에는 동일한 판본이 여럿 있다.³⁸⁾

○ 내용 및 특징

『동의보감(東醫寶鑑)』은 허준(許浚, 1546~1615)이 1610년(광해군 2)에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서와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어놓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이다. 선조는 1596년에 허준과, 양예수(楊禮壽), 이명원(李命源) 등에게 명하여 의서를 편찬토록 하였으나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허준은 14년 동안 정력을 쏟아 1610년에 드디어 완성하였으니 이것이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사람이 찬술한 의서 중에서 최고라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초간본은 편찬된 지 3년 후인 1613년(광해군 5) 11월에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으며, 모두 25권 25책이다.

내용은 목록 2권, 「내경편(內景篇)」 4권 26조, 「외형편(外形篇)」 4권 26조, 「잡병

37) 2종 중에서 1종(규귀 1933)은 권6의 한 책이 결락된 24책(내사본), 다른 1종(규 3553)은 제2, 3, 5, 7, 8, 10, 13, 18책 등 8책이 결락된 17책이다.

38) 현재 공개된 초간본은 보물로 지정된 3건 외에 직지사성보박물관(22권22책), 허준박물관(4권4책), 화봉책박물관(3권3책), 영남대도서관(1권1책), 청주고인쇄박물관(1권1책), 개인(2권 2책)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본은 개인에게 반사한 내사본으로 간기가 남아 있다.

편(雜病篇)」 11권 38조, 「탕액편(湯液篇)」 3권 17조, 「침구편(鍼灸篇)」 1권 1조 등 모두 25권 108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전개방식은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 등의 5대강(大綱)을 기준으로 각기 세부 분류한 다음 해당되는 병의 이론, 처방, 출전을 밝혀놓았다.

『동의보감』은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도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곧 명말청초(明末清初)에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에서는 1763년(乾隆 28) 이후 수차례 간행되었다. 일본에서도 1724년(享保 9)에 교토서림(京都書林)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1799년(寬政 11)에는 오사카서림(大坂書林)에서 재판본이 간행되는 등 『동의보감』은 동양의학의 필독서가 되었다.

현재 국내외에는 36종의 판본이 전하는 등 조선뿐 아니라 중일의 의학발전에도 큰 영향을 준 의서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과 비견할만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동의보감』은 내용이 충실하고 우수한데다 국제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09년 7월의 제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는 “한국적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동시에, 일반 민중이 쉽게 사용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의서라는 점을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미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된 만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은 3건은 모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시켜 보존해야할 국가문화재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옥영정, “『東醫寶鑑』 初刊本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 연구”, 藏書閣 제24집, 2010.10.

사이버동의보감박물관(<http://donguibogam.or.kr/kr/subpage02.jsp#/homepage>)

유네스코와 유산: 동의보감

(http://www.unesco.or.kr/heritage/mow/kormow_dongui.asp)

□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지정현황 : 보물 제1085-1호(1991.09.30)

○ 명 칭 : 동의보감(東醫寶鑑)

○ 소 유 자 : 國有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 관리자 : 國立中央圖書館
- 수량 : 25卷25冊(五臺山史庫本)
- 규격 : 세로 36.6(27.6) × 가로 22.0(17.9) cm
- 재질 : 楮紙
- 판종 : 木活字(內醫院活字) 初印本
- 형식 : 線裝
- 조성연대 : 光海君 5(1613)

書誌事項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奉教撰. --木活字本(內醫院木活字). -- [漢城] : 內醫院, [光海君 5(1613)].

25卷25冊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7.6×17.9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6.6×22.0cm. 楮紙. 線裝.

表題: 醫鑑

卷頭題: 東醫寶鑑

卷末題: 東醫寶鑑

版心題: 東醫寶鑑○○篇

著者: 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1539~1615)奉教撰

刊記: 萬曆四十一年(1613, 光海君 5)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

監校官: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

卷頭序: 萬曆三十九年/辛亥(1611, 光海君 3)孟夏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臣李廷龜(1564~1635)奉教謹序

內賜記: 萬曆四十二(1614, 광해군 6)年二月日/內賜東醫寶鑑一件五臺山上/ 左承旨臣李[手決]

內容: -[冊1] 東醫寶鑑目錄上. -[冊2] 東醫寶鑑目錄下. -[冊3] 內賜記·序·刊行記·目錄·集例·歷代醫方·內景篇卷一(身形·精·氣·神). -[冊4]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 -[冊5] 內景篇卷三(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膽腑·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蟲). -[冊6] 內景篇卷四(小便·大便). -[冊7] 外形篇卷一(頭·面·眼). -[冊8] 外形篇卷二(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 -[冊9] 外形篇卷三(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冊10] 外形篇卷四(手·足·毛髮·前陰·後陰). -[冊11] 雜病篇卷一(天地運氣·審病·辨證·診脈·用藥·吐·汗·下). -[冊12] 雜病篇卷二(風·寒上). -[冊13] 雜病篇卷三(寒

下·暑·濕·燥·火). -[冊14] 雜病篇卷四(內傷·虛勞). -[冊15] 雜病篇卷五(霍亂·嘔吐·咳嗽). -[冊16] 雜病篇卷六(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 -[冊17] 雜病篇卷七(瘡癤·瘟疫·邪崇·癰疽上). -[冊18] 雜病篇卷八(癰疽下·諸瘡). -[冊19] 雜病篇卷九(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冊20] 雜病篇 卷十(婦人). -[冊21] 雜病篇卷十一(小兒). -[冊22] 湯液篇卷一(湯液序例·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冊23] 湯液篇卷二(魚部·蟲部·果部·菜部·草部上). -[冊24] 湯液篇卷三(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冊25] 鍼灸篇

○ 현상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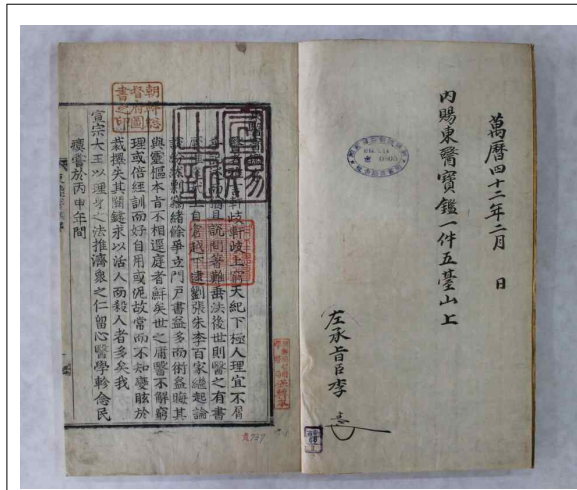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東醫寶鑑』 전 25책 가운데 內景篇 卷1이 수록된 冊3의 서문 권두에는 “萬曆四十二年(1614, 광해군6)二月日/內賜東醫寶鑑一件五臺山上/ 左承旨臣李[手決]”의 內賜記가 있다. 그 뒤에는 萬曆三十九年(辛亥, 1611, 광해군3) 孟夏에 지은 月沙 李廷龜(1564~1635)의 서문과 “萬曆四十一年(1613, 광해군 5)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의 刊記가 있다. 또한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 및 “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 등 監校官의 銜名이 수록되어 있다.



동의보감-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序文 권두에는 ‘宣賜之寶’를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方形朱印의 ‘朝鮮總督府圖書之印’과 ‘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 그리고 長方形朱印의 ‘朝鮮總督府學務局 保轉本’ 그리고 관리 번호인 타원형의 청스탬프인 ‘朝鮮總督府圖書館圖書登錄番號 古0805’ 및 3단으로 분리된 모죽인 장방형 청스탬프인 ‘古朝/60/3’ 과 귀중본임을 뜻하는 朱印 ‘貴’와 그 옆에 등록번호인 737이 잉크로 기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東醫寶鑑』은 완질을 갖추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내사기



만력41년 간기

2)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 지정현황 : 보물 제1085-2호(2008.08.28)
- 명 칭 : 동의보감(東醫寶鑑)
- 소 유 자 : 國有
- 소 재 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 관 리 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25卷25冊(赤裳山史庫本)
- 규 격 : 세로 36.6(27.6) × 가로 22.0(17.9) cm
- 재 질 : 楮紙
- 관 중 : 木活字(內醫院活字) 初印本
- 형 식 : 線裝
- 조성연대 : 光海君 5(1613)

書誌事項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奉敎撰. --木活字本(內醫院木活字). -- [漢城] : 內醫院, [光海君 5(1613)].

25卷25冊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7.6×17.9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6.6×22.0cm. 楮紙. 線裝.

表題: 醫鑑

卷頭題: 東醫寶鑑

卷末題: 東醫寶鑑

版心題: 東醫寶鑑○○篇

著 者: 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1539~1615)奉教撰

刊 記: 萬曆四十一年(1613, 光海君 5)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

監校官: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

卷頭序: 萬曆三十九年/辛亥(1611, 光海君 3)孟夏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臣李廷龜(1564~1635)奉/教謹序

內 容: -[冊1] 東醫寶鑑目錄上. -[冊2] 東醫寶鑑目錄下. -[冊3] 序·刊行記·目錄·集例·歷代醫方·內景篇卷一(身形·精·氣·神). -[冊4]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 -[冊5] 內景篇卷三(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膽腑·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蟲). -[冊6] 內景篇卷四(小便·大便). -[冊7] 外形篇卷一(頭·面·眼). -[冊8] 外形篇卷二(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 -[冊9] 外形篇卷三(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冊10] 外形篇卷四(手·足·毛髮·前陰·後陰). -[冊11] 雜病篇卷一(天地運氣·審病·辨證·診脈·用藥·吐·汗·下). -[冊12] 雜病篇卷二(風·寒上). -[冊13] 雜病篇卷三(寒下·暑·濕·燥·火). -[冊14] 雜病篇卷四(內傷·虛勞). -[冊15] 雜病篇卷五(霍亂·嘔吐·咳嗽). -[冊16] 雜病篇卷六(積聚·浮腫·脹滿·消渴·黃疸). -[冊17] 雜病篇卷七(瘡瘍·瘟疫·邪祟·癰疽上). -[冊18] 雜病篇卷八(癰疽下·諸瘡). -[冊19] 雜病篇卷九(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冊20] 雜病篇 卷十(婦人). -[冊21] 雜病篇卷十一(小兒). -[冊22] 湯液篇卷一(湯液序例·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冊23] 湯液篇卷二(魚部·蟲部·果部·菜部·草部上). -[冊24] 湯液篇卷三(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冊25] 鍼灸篇



동의보감-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현상 및 특징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東醫寶鑑』에는 內賜記가 없다. 그러나 서문의 앞부분에 ‘宣賜之寶’를 찍었고, 우측 변란 밖으로 후에 조선총독부에서 찍은 ‘茂朱赤裳山 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는 長方形朱印이 있어 적상산사고본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사고본의 내지에 內賜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책이 기증되는 특정 시기에 해당 면이 결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의 권두에는 ‘宣賜之寶’를 포함하여 모두 3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方形朱印의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 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라는 長方形朱印이 찍혀 있다. 이는 이 책의 유통과정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東醫寶鑑』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완질을 갖추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3)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지정현황 : 보물 제1085-3호(2008.08.28)
- 명 칭 : 동의보감(東醫寶鑑)
- 소 유 자 : 國有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03 서울대학교
- 관 리 자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수 량 : 24卷 24冊(太白山史庫本)/17卷 17冊
- 규 격 : 세로 36.6(27.6) × 가로 22.0(17.9) 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活字(內醫院活字) 初印本
- 형 식 : 線裝
- 조성연대 : 光海君 5(1613)

書誌事項

① 24卷24冊(太白山史庫本)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奉教撰. --木活字本(內醫院木活字). -- [漢城] : 內醫院, [光海君 5(1613)].

24卷24冊 : 插圖, 四周雙邊 半郭 27.6×17.9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 36.6×22.0cm. 楮紙. 線裝.

表題: 醫鑑

卷頭題: 東醫寶鑑

卷末題：東醫寶鑑

版心題：東醫寶鑑○○篇

著者：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1539~1615)奉教撰

刊記：萬曆四十一年(1613, 光海君 5)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

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

卷頭序：萬曆三十九年/辛亥(1611, 光海君 3)孟夏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臣李廷龜(1564~1635)奉/教謹序

內賜記：萬曆四十二(1614, 광해군 6)年二月日/內賜東醫寶鑑一件太白山上/左承旨臣李[手決]

內容：-[冊1] 東醫寶鑑目錄上. -[冊2] 東醫寶鑑目錄下. -[冊3] 內賜記·序·刊行記·目錄·集例·歷代醫方·內景篇卷一(身形·精·氣·神). -[冊4]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 -[冊5] 內景篇卷三(五臟六腑·肝臟·心臟·脾臟·肺臟·腎臟·膽腑·胃腑·小腸腑·大腸腑·膀胱腑·三焦腑·胞·蟲). -[冊6] 內景篇卷四(小便·大便). -[冊7] 外形篇卷一(頭·面·眼). -[冊8] 外形篇卷二(耳·鼻·口舌·牙齒·咽喉·頸項·背). -[冊9] 外形篇卷三(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冊10] 外形篇卷四(手·足·毛髮·前陰·後陰). -[冊11] 雜病篇卷一(天地運氣·審病·辨證·診脈·用藥·吐·汗·下). -[冊12] 雜病篇卷二(風·寒上). -[冊13] 雜病篇卷三(寒下·暑·濕·燥·火). -[冊14] 雜病篇卷四(內傷·虛勞). -[冊15] 雜病篇卷五(霍亂·嘔吐·咳嗽).

-[冊16] 雜病篇卷六 缺本

-[冊17] 雜病篇卷七(瘡癤·瘟疫·邪祟·癰疽上). -[冊18] 雜病篇卷八(癰疽下·諸瘡). -[冊19] 雜病篇卷九(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冊20] 雜病篇 卷十(婦人). -[冊21] 雜病篇卷十一(小兒). -[冊22] 湯液篇卷一(湯液序例·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冊23] 湯液篇卷二(魚部·蟲部·果部·菜部·草部上). -[冊24] 湯液篇卷三(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冊25] 鍼灸篇

② 17卷17冊

東醫寶鑑 / 許浚(1539~1615) 奉教撰. --木活字本(內醫院木活字). -- [漢城]：內醫院, [光海君 5(1613)].

17卷17冊：插圖，四周雙邊 半郭 27.6×17.9cm，有界，10行21字 註雙行，內向3葉花紋魚尾；36.6×22.0cm. 楮紙. 線裝.

表題：醫鑑

卷頭題：東醫寶鑑

卷末題: 東醫寶鑑

版心題: 東醫寶鑑○○篇

著 者: 御醫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臣許浚(1539~1615)奉教撰

刊 記: 萬曆四十一年(1613, 光海君 5)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

監校官: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副奉事臣尹知微(?~?)

卷頭序: 萬曆三十九年/辛亥(1611, 光海君 3)孟夏崇祿大夫行吏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臣李廷龜(1564~1635)奉/教謹序

內 容: -[冊1] 東醫寶鑑目錄上.

-[冊2] 東醫寶鑑目錄下. 缺本

-[冊3] 內賜記·序·刊行記·目錄·集例·歷代醫方·內景篇卷一 缺本

-[冊4] 內景篇卷二(血·夢·聲音·言語·津液·痰飲).

-[冊5] 內景篇卷三 缺本

-[冊6] 內景篇卷四(小便·大便).

-[冊7] 外形篇卷一 缺本 -[冊8] 外形篇卷二 缺本

-[冊9] 外形篇卷三(胸·乳·腹·臍·腰·脇·皮·肉·脉·筋·骨).

-[冊10] 外形篇卷四 缺本

-[冊11] 雜病篇卷一(天地運氣·審病·辨證·診脈·用藥·吐·汗·下). -[冊12] 雜病篇卷二(風·寒上).

-[冊13] 雜病篇卷三 缺本

-[冊14] 雜病篇卷四(內傷·虛勞). -[冊15] 雜病篇卷五(霍亂·嘔吐·咳嗽).

-[冊16] 雜病篇卷六 缺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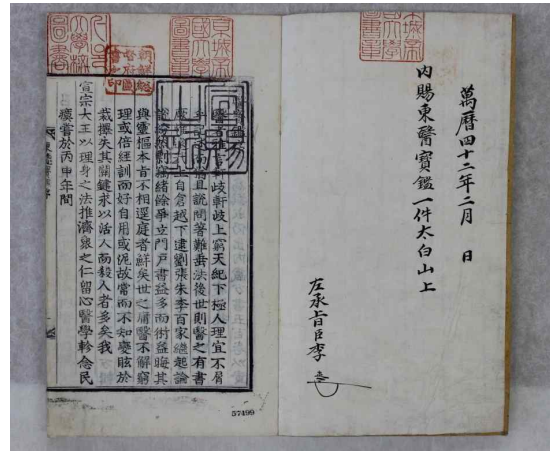
-[冊17] 雜病篇卷七(瘡瘍·瘟疫·邪祟·癰疽上). -[冊18] 雜病篇卷八(癰疽下·諸瘡). -[冊19] 雜病篇卷九(諸傷·解毒·救急·怪疾·雜方). -[冊20] 雜病篇 卷十(婦人).

-[冊21] 雜病篇卷十一(小兒). -[冊22] 湯液篇卷一(湯液序例·水部·土部·穀部·人部·禽部·獸部). -[冊23] 湯液篇卷二(魚部·蟲部·果部·菜部·草部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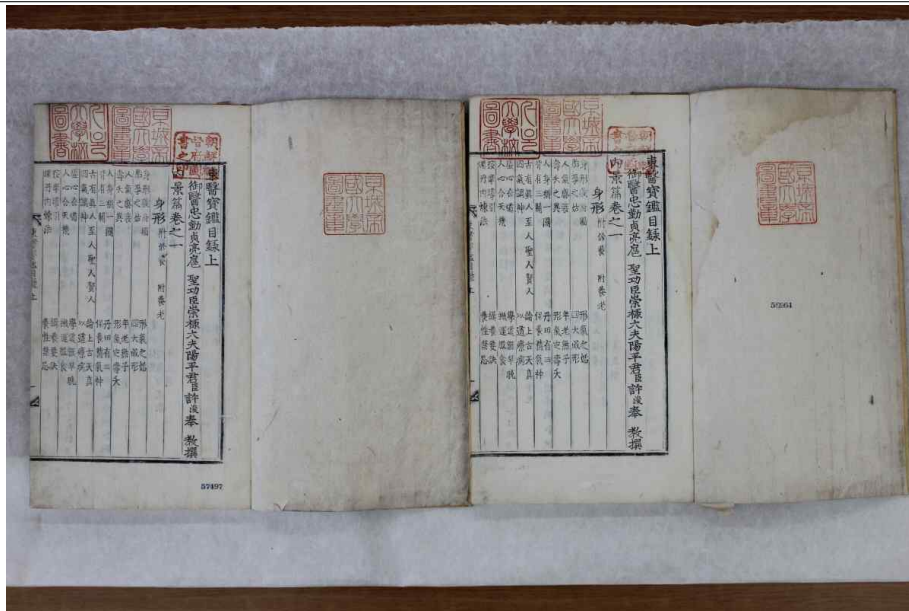
-[冊24] 湯液篇卷三(草部下·木部·玉部·石部·金部). -[冊25] 鍼灸篇

○ 현상 및 특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東醫寶鑑』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24권 24책으로 太白山史庫本이며, 다른 하나는 동일 판본이나 內賜記가 없는 것으로



동의보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동의보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목록 상 비교

로 17권 17책이다.

太白山史庫本은 전체 25책 가운데 책16에 해당하는 雜病篇 卷六이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 판본인 17권 17책 가운데 雜病篇 卷六이 포함되어 있어 태백산 사고본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2008년 지정 당시 『東醫寶鑑』 초간본의 전해지는 사례가 드문 현실에서 太白山史庫本이라는 역사성과 雜病篇 卷六의 보완을 통한 초간본 완질이라는 가치가 인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24권 24책과 17권 17책의 현존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5-02-018

2.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가. 검토사항

‘봉수당진찬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에 따라 환수문화재 소장기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신청을 받음
- 이와 관련, 동국대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7.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10.22.)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6호(2008.07.10지정)
- 명 칭: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 소유자(관리자):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수 량: 1폭
- 규격(cm): 156.2×65.0cm
- 재 질: 비단바탕에 채색
- 형 식: 화축
- 제작연대: 1795년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현재 화성능행도병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고궁박물관에 1건씩 보관되어 있으며, 낱폭으로는 삼성미술관 리움소장의 <환어행렬도>,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의 <봉수당진찬도>, 일본 교토대학소장의 <낙남헌방방도>, <봉수당진찬도>, <득중어사도>,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 일본 도쿄예술대학소장의 <득중어사도>가 있다.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1970년대 한 재일교포가 동국대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비록 단폭이지만, 작품성 만을 두고 판단할 때에는 어떤 8폭병풍이나 다른 낱폭 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또한 장황은 일본식 표구인데, 위의 동그라미가 현재 리움소장 환어행렬도와 비단의 문양이나 표구방식이 동일하며, 크기도 대동소이한데 이 점 역시 주목된다. 필법에서는 이 두 점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록화 한 점을 그리는데, 대체로 3-4명의 화원이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이 두 점은 같은 8폭 병풍에서 갈라져 나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작품의 상태도 양호하고 질적 수준이 뛰어나다. 화면구성이나 설채와 원근법 사용방식 등에 있어 18세기말-19세기 초의 궁중기록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봉수당진찬도>는 여러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봉수당진찬도>의 제작배경이 되는 1795년의 화성능행은 역사적으로도 의미 깊은 사건이다. 그림의 내용은 관련 문헌기록인 『원행을묘정리의궤』가 자세하게 뒷받침한다. 특히 내입용 병풍을 그린 화가 7명(최득현, 김득신, 이명규, 장한중, 윤석근, 허식, 이인문 등)의 이름을 알 수 있다.
- 원래 <봉수당진찬도>는 8첩 병풍으로 그려졌다고 보지만 현재는 병풍에서 분리되어 단폭으로 전한다. 온전한 8폭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그림이 조선시대 궁중기록화를 대표할만한 최고의 완성도와 회화적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궁중회화가 절정을 이루는 18세기 말~19세기 초 내입용 궁중기록화는 이정도 수준에까지 도달했다는 그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18세기 이후 궁중기록화는 내입용과 분상용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회화적 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진정한 내입용이라고 할만한 것은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봉수당진찬도>는 18세기 말~19세기 초 궁중 내입용 기록화의 기준을 제시해 줄만하다고 판단된다.

- 이 <봉수당진찬도>가 온전한 병풍에서 흩어진 것일 가능성은 삼성미술관 Leeum의 <환어행렬도>(세로 156.5cm, 가로 65.3cm)가 증명한다. <환어행렬도> 역시 <봉수당진찬도>와 같은 치밀한 세부 묘사와 필치의 능란함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수작이다. 두 작품은 채색의 색감이나 필치, 양식적 특징이 상통할 뿐만 아니라 화면 사이즈가 거의 일치하고, 이전 병풍의 가장자리 비단을 현재의 단폭 상황에서 둘 다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화적 특징이나 이전 상황의 흔적을 공유한 두 작품은 원래 한 병풍에서 흩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

원래는 8폭이었을 것이며, 이 작품 이외에 같은 병풍에서 분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폭이 전하고 있다. 그림의 내용, 상태, 화풍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후기 <화성능행도>에 속했던 작품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극도로 정교하고 화려한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동국대학교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원래 8폭 병풍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 단폭(單幅)으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소장처에 있는 <봉수당진찬도>와 비교할 때, 세부 묘사와 색감의 표현에 있어 화격이 월등히 뛰어나다.

장황은 일본식 표구로 되어 있으나 이와 비교해야 할 작품이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환어행렬도 還御行列圖>이다. 이 그림에도 아래·위에 녹색비단이 있고, 그 위에 원형의 문양이 들어가 있어 원래 같은 병풍에 장황되어 있다가 분리된 작품이 아닐까 추측된다. 화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화원들이 협동 제작을 한 경우 같은 그림 내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작품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묘사의 완성도도 매우 높아 19세기 궁중기록화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물 지정예고
 - 국가기록유산포털 서비스 공개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봉수당진찬도란 《華城陵幸圖屏》 중 한 폭이다. 《화성능행도병》은 정조가 1795년(정조19) 윤2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華城에 있는 부친 思悼世子(1735-1762)의 묘소인 顯隆園에 行幸했을 때의 주요 행사를 그린 8폭 병풍이다. 이 도병은 <華城聖廟展拜圖>, <落南軒放榜圖> <奉壽堂進饌圖> <落南軒養老宴圖><西將臺夜操圖><得中亭御射圖><還御行列圖><漢江舟橋還御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이 현릉원원행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어머니 惠慶宮 洪氏(1735-1805)를 위해 베풀었던 진찬례를 그린 것이다. 을묘년 현릉원 원행에 대해서는 『園幸乙卯整理儀軌』라는 상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능행도 병풍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서, 양식적 특징은 물론 제도적 부면에서 볼 때 후대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현재 동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봉수당진찬도>는 8폭으로 된 화성능행도병 중 한 폭으로 생각된다. ‘봉수당진찬’이란 1795년의 현릉원행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혜경궁 홍씨의 탄신 일주갑을 기념하여 베풀어진 진찬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경궁이 이 진찬에 참여했던 것은 실로 뜻 깊은 의미가 있었다. 진찬례는 화성행궁에 도착한지 사흘째인 윤2월 13일에 봉수당에서 거행되었으며, 이 연회에는 친인척 82명이 초대되었다한다.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현존하는 작품 들 중에서도 화면 내용이나 보존 상태가 뛰어난 작품이다. 화면 구성은 다른 봉수당진찬도와 마찬가지로 상, 하단으로 구획되어 있다. 화면 상단에는 봉수당을 포치하고, 중량문을 지나 하단의 좌익문을 연결하는 행각과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 안쪽으로는 진찬광경이 그려져 있다. 봉수당 앞 계단에서 뜰에 이르기 까지 임시로 덧마루를 설치하고, 대형 차일이 쳐진 白木帳을 둘러 공간을 구분하였다. 봉수당 온돌방에 마련되어 있는 혜경궁과 내외명부의 자리는 주립으로 가려져 있고, 보계의 왼편 앞쪽에는 병풍이 둘러져있으며, 그 안쪽에는 호피보료방석이 보이는데, 이는 정조의 자리임을 지시한다. 물론 위대한 인물을 그려 넣지 않는 조선시대 기록화방식을 따라 정조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호피방석이 2007년 보물 제 1498호로 지정된 <조선후기 문인초상>의 방석과 유사하다는 점으로서, 이런 형태의 방석이 정조년간 상층계층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덧마루 위에는 戎服차림의 儀賓과 戚臣들이 좌우로 나누어 죽 앉아 있으며, 그 중앙에는 女始들이 음악에 맞추어 일종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중앙문 밖에는 어가를 호위해 온 百官들이 戎服차림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饌卓위에는 술잔과 함께 하사받은

꽃(종이꽃)이 꽃혀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동국대학교소장본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고궁박물관, 일본 교토대학문학부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형식은 같지만 세부묘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동국대학교본에는 청화백자 화준이 있지만, 리움 본에는 백자화준이 그려져 있으며, 동국대학교본은 다른 진찬도에 비해 채색의 농도가 짙고 묘사가 대체로 정밀하며, 기와나 함 등의 묘사에 있어 명암도 절묘하게 구사되어 있다. 또한 마치 위에서 본 듯 축약된 병풍 화면 형태나 병풍이 꺾이는 부분의 묘사, 인물들의 실감나는 동작표현 등은 여타 본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 문헌자료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연구』 일지사, 2000

장계수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奉壽堂進饌圖>」 『불교미술』 제18집 pp.75-101, 2007.01



○ 내용 및 특징

조사된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는 1795년 윤2월부터 7박8일 여정으로 거행된 정조의 현릉원(顯隆園) 행차를 기념한 <<화성능행도(華城陵幸圖)>> 8폭 병풍의 첫 번째 폭에 해당되는 그림이다. 현재 소장처에는 나머지 7폭을 제외한 이 한 폭만이 독립된 화축으로 장황되어 전하고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1970년경 재일 교포의 기증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것으로 현재는 입수 당시의 장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채색의 색감이 살아있고 바탕의 탈락이나 변색된 곳의 거의 없어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봉수당진찬은 정조 일행이 화성에 도착한지 3일째 되는 윤 2월 13일에 화성행궁의 내당인 봉수당에서 거행된 혜경궁(惠慶宮, 1735-1815)의 환갑 기념 진찬이다. 봉수당 뜰 위에는 덧마루가 깔려 있고 백목 휘장이 3면에 둘러져 있다. 이 덧마루 위에 정조의 시연위(侍宴位)와 배위(拜位), 의빈·척신의 시연위, 그리고 악공들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봉수당 앞기둥에는 주렴이 내려져 있어 실내에 설치된 혜경궁, 내외명부(內外命婦), 여관(女官)들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중양문(中陽門)과 좌익문(左翊門) 사이에는 배종백관들이 각기 독상을 앞에 두고 좌우로 열좌(列坐)하였다. 덧마루 위에는 향발(響鉢), 아박(牙拍), 쌍무고(雙舞鼓), 선유락(船遊樂) 등의 정재 공연이 그려져 있다. 정조의 자리 앞에는 선도(仙桃)를 올리는 모습도 묘사되었고 덧마루 남쪽 가까이에 포구문(拋毬門) 2개가 준비되어 있어 헌선도(獻仙桃)와 쌍포구락(雙拋毬樂)도 공연된 정재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동국대박물관 소장의 <봉수당진찬도>는 작은 부분까지도 윤곽선이 애매하거나 흐트러진 부분 없이 한결같이 또렷한 것이 특징이다. 찬안(饌案) 및 음식상, 참석자들 머리의 삽화(插花), 배종백관·여령(女伶)·악공의 복식, 각종 무구

(舞具)와 의장기 등의 세부 묘사는 일관되게 치밀하고 꼼꼼하다. 19세기 궁중기록화에 비하면 명암은 매우 약한 편이다. 봉수당의 기둥, 덧마루의 계단, 정재 의장을 세워놓은 기(機), 가교(駕橋)가 놓인 단(壇), 선우락의 채선 등 윤곽선 주위에 명암을 살짝 가해 입체감을 살렸다.

《화성능행도병》은 행사를 주관했던 정리소(整理所)에서 이를 기념하여 만든 병풍이다. 원행의 전모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의하면 당시 궁중에 대병(大屏) 3좌를 내입하고, 총리대신 체재공에게 대병 1좌, 당상 7명과 낭청 5명에게 각각 대병 1좌씩을 분상하였다고 한다. 대병이 총 16좌나 만들어진 것이다.

행사 당시 이와 같이 여러 건의 병풍이 제작된 만큼 현재 《화성능행도병》은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Leeum, 국립고궁박물관, 우학문화재단에 온전한 8첩 병풍이 소장되어 있다. 이 동국대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 외에 삼성미술관 리움에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와 도쿄예술대학교 박물관에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가 소장되어 있으며, 교토대학교박물관에 <봉수당진찬도>·<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득중정어사도>·<환어행렬도>·<한강주교도(漢江舟橋圖)>의 5폭이 날폭으로 전한다.

이 여러 소장본 중에서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없으며 세부의 밑그림, 필치, 채색에서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회화적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사된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남아있는 여러 소장본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

○ 현 상

현재 한 폭의 족자로 되어 있는데 장황의 형식으로 미루어 볼 때 20세기 후반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밝고 채색이 선명하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별도의 보관 상자는 없다.

○ 내용 및 특징

정조(正祖)는 1795년 수원 화성에 행차한 후, 이때 거행한 일련의 행사를 8폭의 <화성능행도>로 그렸다. 그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어머니 혜경궁 홍씨 헌경왕후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화성 봉수당에서 베푼 잔치 장면을 그린 것이다. 아주 가는 필선을 사용하여 건물, 인물, 기물을 극도로 정교하게 묘사했으며,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 채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금물감 역시 많이 사용했다.

○ 문헌자료

장계수,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 봉수당진찬도>, 『불교미술』 18집, (2006), 75-101.

○ 기 타

동국대학교박물관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에는 “在日 교보 寄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장번호는 769이다.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은 1982년부터 이 유물의 소재지를 명기하였다. 박물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고 황수영 교수가 1960년대초 한일회담 문화재반환 건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인연으로 후일 기증받은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유물대장에는 유물번호 762부터 772까지 11건이 “재일 교보 기증”로 되어 있어 일괄 유물로 여겨지며, 이 중에는 보물569 <안중근의사유목>(1972년 지정), 보물743 <정조필 과초도 (正祖筆 芭蕉圖)>(1982년 지정)와 보물744 <정조필 국화도 (正祖筆 菊花圖)>(1982년 지정)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화성능행도는 전체 또는 부분으로 이 작품을 포함하여 7건 정도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삼성미술관리움의 <화성행행도병풍(華城行幸圖屏風)>은 보물 1430호(2005년 지정)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과 거의 동일한 크기와 표장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삼성미술관리움의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족자 1점이 있다. 따라서 극도로 정교한 화풍을 보여주는 두 작품은 일본의 같은 공방에서 현재의 상황으로 수리된 후, 각기 분산되었을 것이며, 원래는 같은 병풍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원래 8폭이었던 만큼 나머지 작품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

○ 현 상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일본식 족자로 꾸며져 있다. 정확한 개장(改粧) 시기는 미상이다. 그림의 상하단에 원형(圓形)의 문양이 들어간 암록색 비단을 대었다. 행사 장면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俯瞰)의 시점을 적용하여 인물을 배치하였으며, 중심 건물은 정면관으로 투시하여 화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였다. 건물의 기둥과 지붕의 표현에는 명암법을 적극 구사하여 입체감을 표현했다. 인물 묘사는 선묘가 치밀하고, 색감 묘사 또한 매우 정밀하다. 인물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린 부분도 있으나 무용수들의 장면은 변화가 많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연출하였다. 특히 진채(眞彩)와 금채(金彩)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채색은 농담을 조절하여 변화를 주었고, 색감이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어 화려한 궁중기록화의 면모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화면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동국대학교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1970년대에 익명의 재일교포가 기증한 작품으로 전한다. 아마도 19세기 이후 언젠가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동국대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단독 그림이 아니라 《화성능행도병 華城陵

幸圖屏》 8폭 가운데 한 폭이다. 이 병풍은 정조가 1795년(정조 19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화성(華城)을 방문하면서 치른 주요 행사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때 정조의 화성 행행(行幸)은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묘소인 현릉원(顯隆園)을 둘러보고, 어머니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회갑을 기념한 진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진찬은 화성 행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로 화성에 도착한지 사흘째인 윤2월 13일에 봉수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행사를 마치고 간행한 종합기록물이 『園幸乙卯整理儀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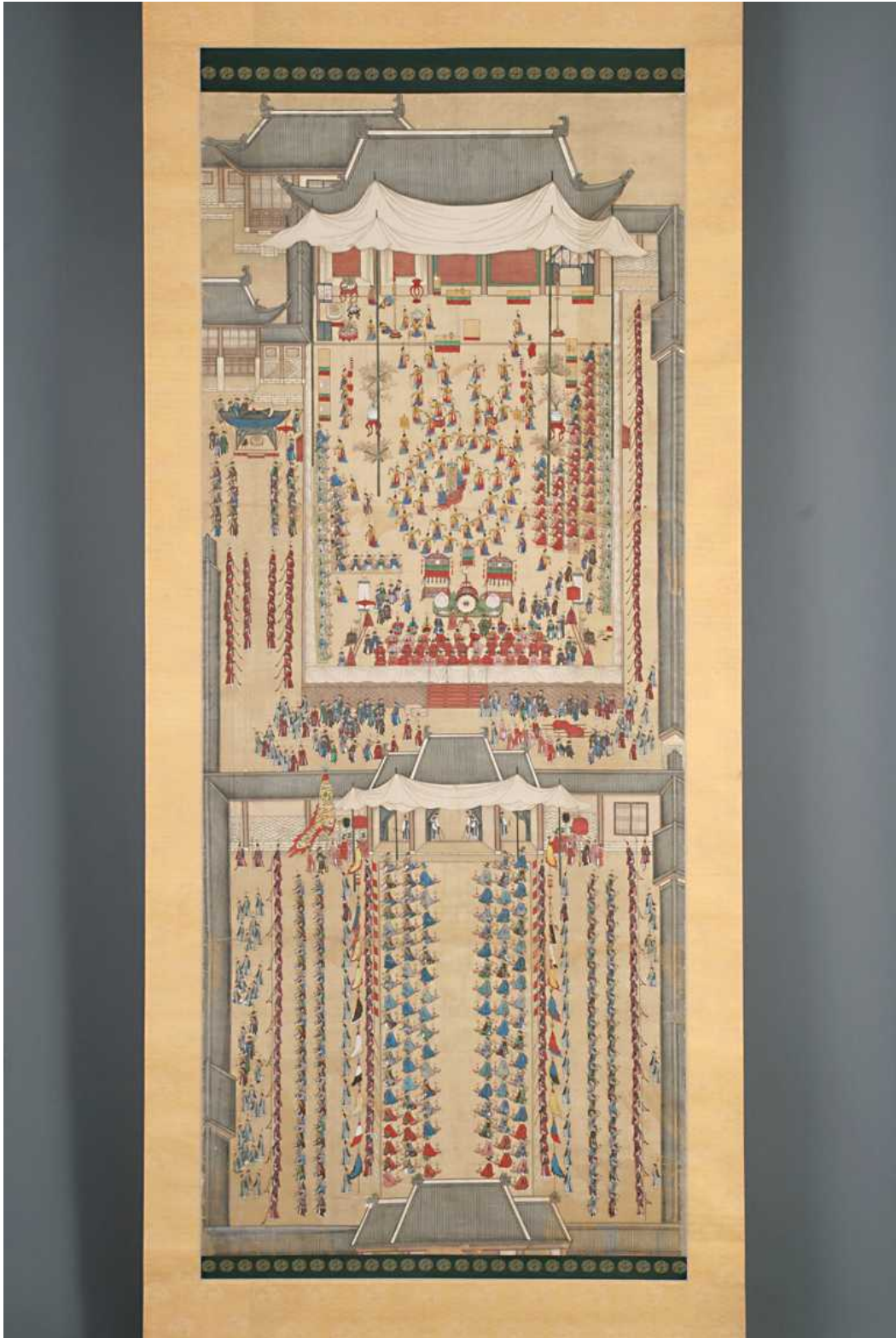
봉수당에서의 진찬 장면을 그린 그림이 <봉수당진찬도>이다. 화면은 궁중기록화에 적용된 정면부감투시법(正面俯瞰透視法)과 원근법이 적용되었다. 그림의 구성을 보면, 화면 상단에 봉수당 건물을 그렸고, 아래에 중앙문(中陽門)이, 맨 아래에 좌익문(左翊門)이 있다. 진찬이 열리는 공간은 중앙문 안쪽이다. 그런데 이 안쪽 공간에는 한 번 더 구분이 있다. 진찬의 주인공인 혜경궁이 여성이므로 봉수당은 남성이 들어갈 수 없는 여성들의 전용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조의 자리도 건물 밖에 나와 있다.

봉수당에 마련된 혜경궁과 내외명부(內外命婦)의 자리는 늘어뜨린 주렴(珠簾)으로 가려져 있다. 가설한 덧마루의 왼편 앞쪽에는 병풍을 둘러쳐져 있고, 그 안쪽에 호피(虎皮)로 만든 방석이 놓여 있다. 이곳이 정조가 앉은 자리다. 조선시대의 기록화에는 임금이나 왕후의 모습은 그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봉수당 앞 계단 높이만큼 임시로 덧마루를 설치하였고, 봉수당 앞에는 대형 차일이 쳐서 공간을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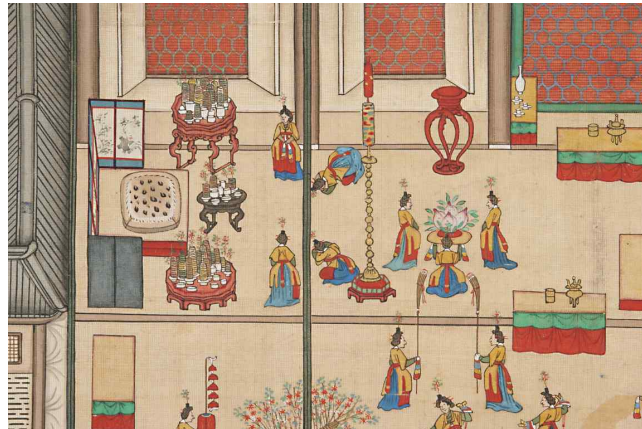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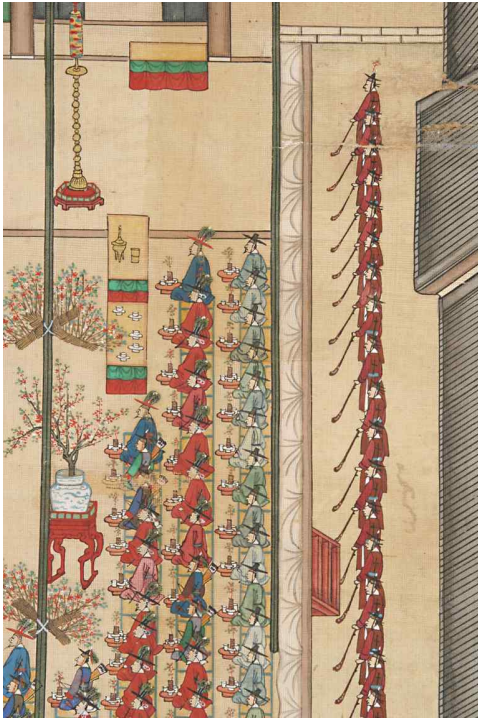
덧마루 위에는 용복(戎服)차림의 의빈(儀賓)과 척신(戚臣)들이 좌우로 나누어 앉았으며, 그 중앙에는 궁중의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추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진찬에서는 술잔을 일곱 번 올렸는데, 한번 술잔을 올린 뒤에는 정제가 이어졌다. 그림 상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어질 정제의 무용수들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다. 중앙문 밖에는 어가(御駕)를 호위해 온 백관(百官)들이 용복차림으로 서로 마주보고 앉았으며, 찬탁(饌卓)위에는 술잔과 함께 하사받은 꽃이 꽂혀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동국대학교 소장본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과 삼성미술관 Leeum, 국립고궁박물관, 일본 교토대학 문학부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표현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묘사에 차이가 있으며, 이점에서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이 월등히 뛰어나다.

동국대학교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다른 진찬도에 비해 채색이 선명하며, 묘사가 자세하고 치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인물표현은 대체로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묘사하였고, 움직이는 자세 또한 확일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동감(動感)이 강조된 무용수들의 동작을 그릴 때에는 자세나 움직임에 매우 다양하게 포착하여 묘사하였다. 동국대박물관의 <봉수당진찬도>는 비록 단폭(單幅)으로만 전해오지만,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가필(加筆)의 흔적이 없는 19세기 기록화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봉수당진찬도



봉수당진찬도 세부사진

3.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가. 검토사항

‘희경루방회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에 따라 환수문화재 소장기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신청을 받음
- 이와 관련, 동국대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7.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10.22.)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7호(2008.07.10지정)
- 명 칭: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 소유자(관리자):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수 량: 1폭
- 규격(cm): 98.5×76.8
- 재 질: 비단에 채색
- 제작연대: 1567년
- 제작자: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희경루방회도>는 조선시대 중기 계획도 가운데 크기도 크고 보존도 대체로 양호한 작품이다. 계획도그리기가 성행했던 16세기 계획도의 圖像이나 화풍과 아

올러 문무과 합격동기생들 간에 행해졌던 조선시대 계회문화의 한 예를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회경루방회도>는 신묘생진시(辛卯生進試, 1531년)의 동방들이 1542년에 만나 제작한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와 함께 현전하는 16세기의 방회도 2건 중 하나이다. 방회도는 16,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회경루방회도>는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례이다.

대부분의 16세기 계회도는 수묵화로 그려진 데에 반해 채색화로 그려진 경우는 드문 편이다. 1550년의 <호조낭관계회도>, <연정계회도(蓮亭契會圖)>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 <회경루방회도>는 전라도 광주 지역의 화사(畫師)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아 지방화단에서 그려진 채색계회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목, 그림, 좌목, 최응룡으로 추정되는 ‘완산후인(完山後人)’이 쓴 발문까지 계회도의 형식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인물을 묘사한 필치는 매우 생기 있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또한 비슷한 자세의 인물을 같은 모양으로 판에 박은 듯 반복해서 그리는 투박적인 면이 적다. 회경루 건물 묘사에서도 보이는 대로 그린 듯한 꾸밈없는 필치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회경루방회도>는 제작시기, 양식적인 특징, 회화적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그림의 내용, 상태, 화풍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해지는 회화 작품이 적은 임란 이전의 작품으로 중요한 사례이다.

계회도 중에서도 지방 관청에서 행해진 행사 장면을 기록한 희소한 사례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계회도와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일부 불규칙한 석축표현, 소략한 주변 인물 묘사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산수, 가옥, 인물의 묘사에서 정교함이 두드러지고 있어 솜씨가 좋은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근거로 미루어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의 <회경루방회도>는 1546년(명종 1)의 증광시 문·무과 합격 동기생 5명이 1567년(선조 즉위) 전라도 광주의 회경루에서 만나 방회를 갖고 제작한 기년작 계회도이다. 특히 기록화의 주요 조건인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사실들이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다. 즉 “1567년(언제) 전라도 광주의 회경루에서

(어디에서) 과시합격 동기생 5명이(누가) 방회를(무엇을)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어떻게) 가졌는데, 그 사연은 발문에 밝혔다(왜?)”는 내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방회에서 장원 급제한 동기생이 있으면, 가장 상석에 앉도록 우대한다는 관행이 있는데, <회경루방회도>에는 장원 급제한 광주목사 최응룡이 전라도 관찰사 강섭 보다 상석에 앉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과거합격 동기생들이 주도한 계회문화의 관행과 일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면 속의 인물 묘사가 치밀한 편은 아니지만, 전·현직 관원의 모자와 옷차림에 사실 관계를 충실히 고려했음을 확인하였다.

<회경루방회도>는 방회 현장의 연회장면과 주변 경관의 묘사에 중점을 두었다. 누정 주변의 표현을 보면, 회경루의 동쪽 공간에 있는 민가와 그 앞에 넓게 트인 활터가 시야에 들어온다. 즉, 연회의 장면을 강조하면서도 그 장소를 암시해 주는 주변 공간을 함께 부각시킴으로써 ‘장면’과 ‘경관’의 두 요건을 한 그림 안에 갖추 고자 한 것이다.

<회경루방회도>는 전라도 광주지역에서 그린 지방양식이다. 특징적인 것은 기녀들의 머리모양이다. 가체를 만들어 올렸으나 크기가 거대하고 두식을 붙인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색은 임란 이전인 16세기 중엽 호남지역 기녀들의 미용술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어서 대단히 흥미롭다.

<회경루방회도>에는 정면부감투시와 평행사선투시가 적용되었다. 우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45도 각도의 상단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는 투시법을 기본으로 한다. 정면부감투시는 대상 경물의 중심에 시점을 두어 좌우대칭과 균형을 고려한 것이며, 평행사선투시는 경물을 사선각도로 비스듬히 배열하여 정면과 동시에 측면의 구조를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투시법이다. <회경루방회도>에는 이 두 시점이 한 화면에 함께 들어가 있다. 이는 투시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 16세기 계회도의 표현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를 더욱 신빙하게 한다.

<회경루방회도>에는 16세기에 새롭게 수용된 절파화풍(浙派畫風)의 영향이 감지된다. 이러한 절파화풍의 특징은 원산의 묘사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산의 양감과 질감묘사에 선적(線的)인 표현 보다 먹으로 우려낸 묵면적(墨面的)인 요소가 두드러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분적인 절파화풍의 반영은 <회경루방회도>가 16세기 중후반기 화풍의 변화를 반영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회경루방회도>가 지닌 특징과 가치를 잘 뒷받침해 주는 근거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회경루방회도>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물 지정예고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희경루방회도>는 1567년(명종22)에 있었던 희경루에서의 방회장면을 그린 契會圖이다. 이 방회는 1546년(명종1) 증광시의 동기생들이 광주 인근의 樓亭인 희경루에서 만난 것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을 기념하여, 그 감회를 간직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은 위로부터 표제, 계획장면, 좌목, 그리고 발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 부분은 붉은 색 선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다. 표제는 전서체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적었고, 좌목에는 품계와 관직, 이름, 자, 본관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 있다.

참석자는 1)通政大夫 行光州牧使 崔應龍 見叔 本全州, 2)資憲大夫兼全羅道觀察使 姜暹 明仲 本晉州, 3)前承文院副正字 林復 希仁 本羅州, 4)禦侮將軍全羅道兵馬虞侯 劉克恭 敬叔 本忠州, 5)通訓大夫 前行樂安郡守 南效容 恭叔 本宜寧 등 5인이다.

발문은 말미에 ‘完山後人題’ 라는 글귀에 근거할 때 전주최씨인 최응룡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 동방은 병오년(1546, 명종1) 봄의 경사스러움을 함께 한 후, 내직에서 혹은 외직에서 혹은 세상을 떠나거나, 사정으로 인하여 헤어져 만나지 못하였다. 어느 한 곳에서도 동료로서의 관계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해왔다. 우연히 백척(百尺)의 높은 누각에서 고회(高會)를 가지게 되니, 북쪽에 위치하여 좌우에 가아(佳兒)를 둔 자가 광목(光牧) 최응룡(崔應龍)이고, 동쪽에 앉아 있으며 이 모임을 주관한 자가 관찰사 강섬(姜暹)이다. 그 오른 쪽에 열을 지어 각기 기녀들을 앉혀 놓은 자들은 임복(林復)과 유극공(柳克恭), 남효용(南效容) 등이다. 오호라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과거에 등재하여 형제관계를 맺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인생의 영고성쇠를 겪으며, 별처럼 흩어진 지가 20여년이 되었는데, 먼 남쪽의 거친 땅에 모여서 다시 지난 일을 흥하게 하니 다행한 일이다. 친밀한 교유가 빛을 발하지만, 관작을 드러내지 않아, 이 때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니 또한 다행 중의 다행이다. 윤영광(尹靈光) 홍중(弘中)과 육광양(陸光陽) 대춘(大春)이 또한 가까운 읍의

수령으로 있는데, 병이 들어 함께 하지 못하니 이 어찌 다행 가운데 하나의 흠이 아니겠는가.”

용경 원년 정묘(1567, 명종 22) 6월 16일 완산후인에 제하다.

(吾同年 自丙午春同慶之後 或內或外或散或化 參商一隅 徒結夢想去久矣 偶作高會 相百尺危樓 位北而左右佳兒者 光牧也 在東而綱紀一會者 方伯也 列於右而各擇珪雲者 林希仁, 劉敬叔, 南恭叔也 呼以東西南北之仁 偶同科第作爲兄弟幸也 昇沈星散 {二十}載之餘 聚於炎荒 復舉往事幸也 爛熳亡形 不揚爵秩 聳時人觀聽 又幸之幸也 尹靈光弘中, 陸光陽大春 亦守近邑 而病不與焉 玄玄豈非幸中之一欠乎 隆慶元年 丁卯六月 既望 完山後人題)

발문에서는 1546년(명종1) 과거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이 각자의 근무지를 따라 흩어진 후 만나지 못한지 20여년이 되었음을 회고하면서, 그 동안의 그리움과 만남에 대한 감회를 적고 관계에 함께 첫 발을 들여놓은 동료들 간의 친밀한 공감대가 엿보인다. 나아가 최응룡을 비롯한 다섯 사람의 앉은 위치마저도 서술하여 이 발문이 방화가 행해졌던 현장의 모습에 근거하여 서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회경루방회도>는 장방형의 화면에 왼쪽에는 회경루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회경루의 담장을 비롯한 주위경관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층으로 축조된 회경루 안에는 이 모임의 주인공들과 여러 명의 기녀들이 자리한 가운데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다. 서열에 따라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신분에 따라 冠帽를 달리하고 있으며, 기녀들은 당시의 유행대로 高髮을 하고 있다. 인물묘사는 남녀간에 안색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목구비의 형용역시 간단하지만 과감하게 선으로 윤곽짓고 설채를 제법 짙게 처리하였다. 이 점은 당시의 계획도가 일반적으로 수목위주로 되어 있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지방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회경루는 축대를 쌓은 대위에 1층은 기둥을 세우고, 2층에 누를 올렸다. 그림 속 누정의 아래층에는 하인들이 쉬고 있으며, 누정의 왼 쪽에는 피리를 부는 악공들이 무리지어 있다. 축대 아래쪽에는 나장과 같은 군졸들이 도열해 있다. 회경루의 동쪽 공간에는 민가가 인접해 있으며, 그 앞의 넓은 터에 활터가 있는데, 주변의 경관 역시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했음을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연회장면은 정면부감투시와 원근법으로 부각시켰으며, 담장을 비롯한 다른 주변 경물은 사선방향으로 비스듬히 배열하는 등 이중투시법이 적용되어 있다. 특히 아래 쪽 기둥들은 서툴기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작아져 있는데, 이런 기법은 이후의 계획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는 특색이다.

화풍은 배경을 이루는 산의 양감과 질감묘사, 누정 왼 쪽에 그려진 나무의 표현 등에서 먹의 흑백대비 등이 강조되어 16세기 중, 후반기에 유행했던 浙派畫風이 나타나 있다.

○ 문헌자료



○ 현 상

조사된 <회경루방회도>는 ‘喜慶樓榜會圖’라 쓴 전서체 제목, 회회 장면 그림(42.0×76.7cm), 좌목, 그리고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적으로 16-17세기에 유행한 계축(契軸) 형식을 보여준다. 제목, 그림, 좌목, 발문 부분은 각각 붉은 선을 그어 구획하였다. 비단 바탕은 우측에서 17.6cm되는 지점에서 세로로 결봉된 흔적이 보인다. 이 작품은 1970년경 제일교포의 기증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것으로 현재는 입수 당시의 일본식 장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바탕이 탈락되거나 채색이 떨어져나간 곳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그림에 쓰인 제목은 회회가 열린 장소가 전라도 광산현(현재 광주)의 객관에 있는 누정인 회경루임을 말해준다. 참석자의 관계, 관직, 성명, 자, 본관 등이 쓰인 좌목에는 회회의 참석자가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 1516-?), 전 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 1521-1576),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劉克恭), 전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등 5명으로 나타난다. 최응룡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발문은 이들이 1546년(명종 1)의 과거에 합격한 동방(同榜)으로서 20여년만인 1567년(명종 22) 6월 16일에 만났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문과방목』을 통해 최응룡, 임복, 강섬은 1546년 증광시 문과에 합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유극공과 남효용은 같은 해 증광시 무과 합격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546년 증광시에 함께 합격했던 동방(同榜) 중에서 전라도 지역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는 자들이 1567년에 회경루에서 동방계회를 열고 이를 기념하여 회회도를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방계회도인 만큼 좌목은 문과 갑과에서 장원을 차지했던 최응룡을 필두로 하여 현직의 품계순이 아닌 과거의 성적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에 나타난 좌차(座次)도 과거의 성적순으로 배치되었음이 확인된다.

방회가 열리고 있는 회경루는 화면의 좌반부에 치우쳐 배치되고, 회경루 우측에는 관덕정(觀德亭)과 고루(鼓樓)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으며 넓게 확보된 공간에는 활터도 마련되어 있다. 나무 사이로 초가와 기와집 등 민가가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단순히 공간을 메우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회경루 주변의 실제 모습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인상을 준다.

회경루 안에는 북쪽 우측으로부터 강섬, 최응룡, 임복이 앉아있고 유극공과 남효용은 서쪽에 동쪽을 향해 앉았음을 발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은 사모(紗帽)를 쓰고, 전직 관원은 평량자(平涼子) 형의 갓을 쓰고 있어

구별이 된다. 참석자의 시중을 들거나 음식을 나르고, 춤을 추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등 비교적 많은 수의 기녀들이 동원되어 전라도 지역의 최고 수령인 관찰사가 주재한 회회의 면모를 짐작케 한다. <회경루방회도>에 나타난 기녀의 복식과 위로 부풀려 묶은 머리꾸밈은 1585년의 <선묘조기영회도(宣廟朝耆英會圖)>에 그려진 기녀들과 매우 흡사하여 16세기 관기들에게 공통적으로 유행하였던 양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지붕의 윤곽선 부분을 짙고 굵게 그리는 방식도 1550년의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에서처럼 16-17세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정면관으로 그려진 회경루의 기둥은 뒤로 갈수록 짧게 그려져 회경루의 대청은 마름모 모양을 이루며 깊이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회경루를 감싼 담장은 우측에서 부감한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그려졌으며 근경의 집들도 여러 시점에서 표현되었다. 즉, 편의에 따라 한 화면에 여러 시점을 혼용한 양상을 보인다. 채색은 건물과 복식에 적색과 백색 위주로 사용되었고 그외에는 녹색, 녹갈색, 청색 등이 부분적으로 약간 사용된 정도이다.

수목으로 묘사된 산과 수목은 16세기 중반의 산수화풍과 상통한다. 인물의 묘사에는 비수가 있으며 자신감 있는 필치가 구사되었다. 얼굴에는 모두 이목구비가 그려졌는데 참석자와 기녀들 얼굴의 윤곽선과 코, 입은 붉은 색으로 처리되었다. 인물의 자세와 움직임은 일률적이고 도식화된 느낌이 적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있다.

□

○ 현 상

현재 족자로 되어 있는데 장황의 형식은 풍대가 달린 일본식이며,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20세기 후반의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위, 아래에는 이전 장황의 비단이 일부 남아 있다. 화면의 오른쪽 4분의 1정도를 경계로 두 쪽의 비단을 잇댄 결봉선(結縫線)이 세로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약간 어둡게 변색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고 안정적이다. 별도의 보존 상자는 없다.

○ 내용 및 특징

1546년에 증광시(增廣試)의 문과, 무과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20년이 지난 후, 1567년 전라도 광주(光州)의 회경루(喜慶樓)에서 다시 만나 방회(榜會)를 갖은 일을 기념하여 그린 계획도(契會圖)이다. 참석자는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 1516~?), 전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 1521~1576),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劉克恭),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등 5인으로 모두 전라도 광주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이 지역에 연고가 있던 인물들이다. 화면의 맨 위에는 전서체로 표제를 쓰고, 계획 장면을 그린 후, 좌목을 쓰고, 맨 아래에는 초서로 발문(跋文)을 적었다. 발문의 내용에 따르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다섯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어 누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성대한 계획에는 30여명의 기녀가 등장하는데 함께 앉아 시중을 듣거나 춤을 추는 기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기녀 등이 보인다. 건물 안쪽의 연회장면과 대비되어 바깥에는 민가와 활터가 보인다.

○ 문헌자료

윤진영, <동국대학교박물관소장 희경루방회도고찰>, 『동악미술사학』 3호, (2002) 145-162.

○ 기 타

동국대학교박물관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에는 “在日 교보 寄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장번호는 770이다.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은 1982년부터 이 유물의 소재지를 명기하였다. 박물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고 황수영 교수가 1960년대초 한 일회담 문화재반환 건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인연으로 후일 기증받은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유물대장에는 유물번호 762부터 772까지 11건이 “재일 교보 기증”로 되어 있어 일괄 유물로 여겨지며, 이 중에는 보물569 <안중근의사유목>(1972년 지정), 보물743 <정조필 과초도 (正祖筆 芭蕉圖)>(1982년 지정)와 보물744 <정조필 국화도 (正祖筆 菊花圖)>(1982년 지정)가 포함되어 있다.



○ 현 상

<희경루방회도>는 족자로 장황되어 있고, 위쪽으로부터 표제·그림·좌목·발문의 4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전서체로 ‘喜慶樓榜會圖’라고 썼다. 그림은 희경루에서의 연회 장면과 그 주변의 공간을 그렸다. 인물과 건물 묘사에는 채색을 사용했고, 나머지 배경은 수묵담채로 표현하였다. 좌목은 다섯 사람의 인적사항을 품계·관직·이름·자·본관 등으로 기록하였다. 좌목의 아래쪽에는 초서체로 발문을 남겼다. 표제·그림·좌목·발문 사이에는 붉은 선을 그어 경계를 구분하였다.

족자는 상단에 두 줄의 풍대(風帶)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구로 꾸며져 있다. 계획도의 그림 위쪽과 발문 아래에는 검은 바탕에 금박문양이 있는 비단을 대었고, 상하좌우의 변(邊)에는 나비 문양이 있는 금색 비단을 붙였다.

○ 내용 및 특징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희경루방회도>는 1546년(명종 1)의 중광시(增廣試) 문·무과(文·武科)에 합격한 동기생 5명이 1567년(명종 22) 전라도 광주의 희경루(喜慶樓)에서 만나 방회(榜會)를 갖고 이를 기념하여 그린 계획도이다.

<희경루방회도> 속의 공간은 전라도 광산현(光山縣, 지금의 光州)의 객관(客館)에 속한 희경루이다. 참석자들은 광주목사 최응룡(崔應龍, 1514~1580), 전라도관찰사 강섬(姜暹, 1516~?), 전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 1521~1576), 전라도병마우

후 유극공(劉克恭), 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 등 5인이다. 이들의 관직을 보면, 모두 전라도 광주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이 지역에 연고가 있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최응룡·임복·강섬은 1546년(명종1) 증광시의 문과에 합격한 자들이 분명하고, 유극공과 남효용은 무과에 합격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모임은 문과에만 한정된 동방(同榜)이 아니라 무과 합격자들까지 포함한 문·무과 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이었다.

화면 아래에는 발문을 기록하였는데, 그 마지막에는 “隆慶元年 丁卯(1567, 선조 즉위) 6월 16일, 完山後人이 제하다.”라고 썼다. 위의 발문은 ‘완산후인제(完山後人題)’라는 부분에 근거할 때, 전주최씨(全州崔氏)인 최응룡(崔應龍)이 쓴 것으로 짐작된다. 완산(完山)은 전주(全州)의 고명(古名)으로서 최응룡의 본관이기 때문에 이 모임의 좌장(座長)인 그가 썼다. 최응룡의 발문에는 1546년의 과거시험에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이 각자의 근무지에 따라 흩어진 후, 만나지 못한지가 20여 년이 되었음을 회고하고 있다. 이들에게 방회는 관직에 함께 첫발을 들인 동료들과 20년 만에 갖는 만남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회경루방회도〉의 내용)

〈회경루방회도〉의 발문 내용을 통해, 동방 다섯 사람이 앉은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좌목에는 “북쪽에 앉아 좌우에 가아(佳兒)를 둔 자가 광목(光牧 [崔應龍])이고, 동쪽에 앉아 있으며 이 자리를 주관한 자가 방백(方伯 [姜暹])이다. 그 우측 편에 위치하여 기녀를 앉혀놓은 자들은 임복(林復)·유극공(劉克恭)·남효용(南效容) 등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그림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즉 회경루의 가운데에 앉은 이가 최응룡으로 양옆에 기녀를 앉혔다. 두 번째로 동쪽에 앉은 인물은 이 모임을 주선한 전라도관찰사인 강섬을 가리킨다. 누정의 모서리에 기녀와 함께 앉아 있다. 나머지 임복을 비롯한 세 사람은 좌측에 일렬로 앉았다.

(좌차(座次)의 기준)

계회도 속의 자리 서열은 일반적으로 관직의 고하와 나이순으로 앉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회경루방회도〉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우선 이들은 문무과 순으로 자리를 구분하였다. 문과합격자인 최응룡과 강섬, 임복이 상석으로 가고, 무과합격자인 유극공과 남효용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앉았다. 그리고 문과합격자 세 사람의 관직 순을 보면 ①전라도관찰사 강섬, ②광주목사 최응룡, ③전승문원부정자 임복 순이 된다. 그런데 그림 속의 순서는 광주목사 최응룡이 가장 상석(上席)에 앉았고, 전라도관찰사 강섬은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다. 관직 서열을 무시하고 광주목사 최응룡이 상석에 앉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과거 합격자 명단인 1546년(명종 1)의 『문과방목 文科榜目』에서 합격 당시의 성적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광주목사 최응룡이 장원(壯元)을 했고, 전라도관찰사 강섬은 12등을 했다. 이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꾼 이유는 장원으로 급제한 최응룡을 상석에 앉혀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합격 동기생들의 모임에서 장원 급제자는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개별 인물의 묘사)

<회경루방회도>는 개별 인물의 특징까지 충실히 묘사하였다. 한 예로써 참석자들의 관모(官帽)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좌측에 일렬로 앉아 있는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외출모인 평량자(平涼子)를 썼다. 평량자를 쓴 인물은 좌목에 세 번째로 기재된 전승문원부정자 임복(林復)과 다섯 번째인 전낙안군수 남효용(南效容)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직관원(前職官員)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3인은 현직관료로서 관모를 쓴 점으로 미루어 보면, 평량자는 현직관료가 아님을 구분하여 표현한 것이 된다.

연회장면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기녀들이 동원된 점이다. 이 기녀들은 모두 관청에 소속된 관기(官妓)로 추정된다. <회경루방회도>에 등장한 기녀의 수는 모두 35명으로서 동방 다섯 사람과 함께 앉은 기녀, 시중을 들거나 춤사위를 펼치는 기녀, 그리고 가야금과 장구 연주 및 창(唱)을 부르는 기녀 등이 다채롭게 그려져 있다.

(누정 주변의 묘사)

연회장면 이외에 누정의 외관이나 주변 경물들을 살펴보면, 회경루 아래의 서늘한 그늘에는 하인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고, 누정의 왼편에는 피리 연주에 한창인 한 무리의 악공들이 등장하며, 축대 아래에는 군졸(軍卒)들이 도열해 있다. 회경루 아래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광주 관아의 부속 건물로 추정된다.

회경루 오른편의 활터는 누정이 지어진 당시부터 있었던 것인데, 회경루가 사장(射場)으로서의 공간도 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활 쏘는 위치와 과녁 간의 거리가 상당히 좁아 보인다. 실제로는 과녁이 더 먼 거리에 있지만, 활터의 공간을 단축시켜 그린 것으로 짐작된다.

(<회경루방회도>의 시점)

<회경루방회도>에는 이중투시(二重透視)가 적용되어 있다. 이는 정면부감투시(正面俯瞰透視)와 평행사선투시(平行斜線透視)로 구분된다. 연회 공간인 회경루에는 정면투시가 적용되었으며, 원근법이 함께 들어간 점도 주목된다. 누정의 전면에서 후면으로 연결된 난간의 묘사에는 투시선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좁아져 가는 마름모꼴 원근감이 나타나 있다. 이런 점은 비교적 합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나 누정을 둘러싼 담장과 비교해 보면, 화면 전체에 상이한 시점이 교차하는 불합리한 투시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바깥담은 우측에서 바라본 사선투시가 적용되었고, 누정에는 정면관이 적용된 것이다. 이외에도 부분적이지만 누정의 기와골과 화면 우측 외문(外門)의 표현에도 사선투시가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하나의 화면에 투시법과 원근관계가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지 못한 16세기 계획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상의 한계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도와 화풍)

구도와 관련된 특징으로 <회경루방회도>에서 연회 장면 자체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주변의 경관을 함께 그린 점이 눈에 띈다. 즉, 연회 장면을 제외한 화면 전

체의 2/3정도를 주변 경관의 묘사에 할애하였다. 이러한 구도의 설정은 계획도의 도상이 연회 장면만을 부각시켜 그리기보다 주변의 경관을 화면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감상의 여지를 폭넓게 수렴하려한 결과로 추측된다.

화풍의 특징으로는 우선 구체적인 화법이 잘 드러난 경물로 누정 좌측에 그린 나무의 표현을 들 수 있다. 먹의 흑백대비와 묵면(墨面)이 강조된 표현이 특징인데, 이렇게 그려진 나무는 이보다 앞선 시기에 그려진 김시(金視, 1524~1593)의 <동자견려도 童子牽驢圖>의 나무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의 가장자리를 검고 강하게 처리한 특징은 절과화풍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서이며, <회경루방회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문헌자료

윤진영, 「조선시대 계획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기 타

(〈회경루방회도〉의 좌목)

- (1) 通政大夫行 光州牧使 崔應龍 (見叔) 本全州
父奉訓郎行定州教授 以漢
- (2) 資憲大夫 兼全羅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 姜暹 明仲 本晉州
父贈資憲大夫刑 曹判書兼知義禁府事行從仕郎 公望
- (3) 前承文院副正字 林復 希仁 本羅州
父通政大夫戶曹參議 鵬
- (4) 禦侮將軍全羅道兵馬虞侯 劉克恭 敬叔 本忠州
父忠順衛 碩文
- (5) 通訓大夫前行樂安郡守 南效容 恭叔 本宜寧
父忠順衛禦侮將軍 世光

(〈회경루방회도〉의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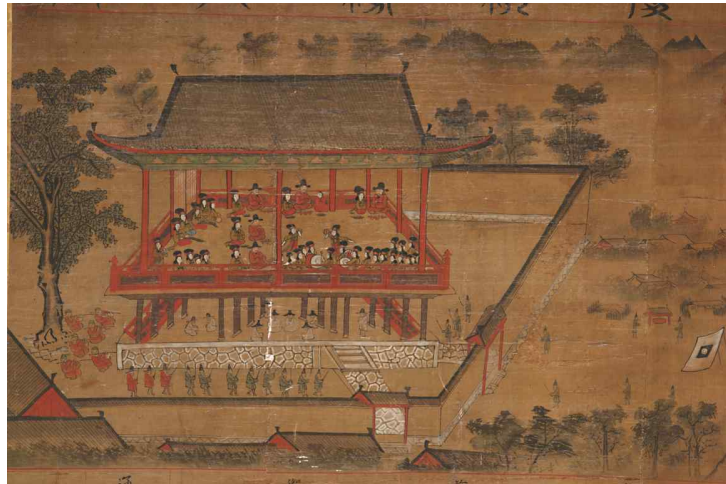
“우리들 동방(同榜)은 병오년(丙午年, 1546, 명종1) 봄의 경사스러움을 함께 한 후, 내직(內職)에서, 혹은 외직(外職)에서, 혹은 세상을 떠나거나, 사정으로 인하여 헤어져 만나지 못하였다. 어느 한 곳에서도 동료로서의 관계를 늘 잊지 않고 생각해 왔다. 우연히 백척(百尺)의 높은 누각(樓閣)에서 고회(高會)를 가지게 되니 북쪽에 위치하여 좌우에 가아(佳兒)를 둔 자가 광목(光牧) 최응룡(崔應龍)이고, 동쪽에 앉아 있으며 이 모임을 주관한 자가 관찰사 강섭(姜暹)이다. 그 오른쪽에 열을 지어 각기 기녀들을 앉혀놓은 자들은 임복(林復)과 유극공(劉克恭), 남효용(南效容) 등이다. 오호라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과거(科擧)에 등재하여 형제관계를 맺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인생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겪으며, 별처럼 흩어진

지가 20여년이 되었는데, 먼 남쪽의 거친 땅에 모여서 다시 지난 일을 흥하게 하니 다행한 일이다. 친밀한 교유가 빛을 발하지만, 관작(官爵)을 드러내지 않아, 이때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니 또한 다행 중의 다행이다. 윤영광(尹靈光) 홍중(弘中)과 육광양(陸光陽) 대춘(大春)이 또한 가까운 읍(邑)의 수령으로 있는데, 병이 들어 함께 하지 못하니 이 어찌 다행 가운데 하나의 흠이 아니겠는가.”
 융경원년 정묘(1567, 명종 22) 6월 16일, 환산후인이 제하다.

吾同年 自丙午春同慶之後 或內或外或散或化 參商一隅 徒結夢想去久矣 偶作高會相百尺危樓 位北而左右佳兒者 光牧也 在東而綱紀一會者 方伯也 列於右而各挂雲者 林希仁·劉敬叔·南恭叔也 呼以東西南北之人 偶同科第作爲兄弟幸也 昇沈星散[二十]載之餘 聚於炎荒 復學往事幸也 爛熳忘形 不揚爵秩 聳時人觀聽 又幸之幸也 尹靈光弘中·陸光陽大春 亦守近邑 而病不與焉 茲豈非幸中之一欠乎
 隆慶元年 丁卯六月 既望 完山後人題”



회경루방회도



任應龍 見叙 本全州

以漢

吾同年自
生名同自
後或自或
或或或他
自一阿流
海子知之
保作高念
不若機位北

父忠順衛 碩文

通訓大夫前行樂安郡守南效容 奉叔 本

父忠順衛樂侮將軍 世光

희경루방회도 세부사진

4. 금오계첩(金吾契帖)

가. 검토사항

‘금오계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에 따라 환수문화재 소장기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신청을 받음
- 이와 관련, 동국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06.3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11.1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금오계첩(金吾契帖)
- 소유자(관리자): 동국사
- 소재지: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 수 량: 1폭
- 규격(cm): 표지 36.5×23.2cm, 화면 30.9×42.5cm
- 재 질: 지본채색
- 형 식: 화첩
- 제작연대: 1734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동국사 《금오계첩》은 序로부터 그림, 좌목 등 그 구성이 모두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작은 화면에서도 압축되게 계획건물과 그 주변을 잘 조망하고 있는 점

등 품격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금오계첩’은 원래 상당히 많은 수가 제작되었고, 현재 알려진 작품 수만 해도 수십 종에 이른다. 또한 동국사 소장 《금오계첩》과 거의 동시기에 제작된 작품들도 적지 않을 뿐 더러, 그 이전에 제작된 작품들 - 1679년 1월 제작의 《금오계첩》(풍산 유씨 충효당소장), 1689년 9월에 제작된 《금오계첩》(국립중앙도서관), 1729년에 제작된 《금오계첩》(유홍준 『화인열전』 I 역사비평사) 등- 역시 제법 산견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동국사 소장 금오계첩의 보물지정은 금오계첩 내지 계획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보다 충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이에 관한 총체적인 자료가 수습되고, 이를 통해 지정에 필요한 확고한 기준이 설정된 뒤에 다시 검토해보는 신중성이 요망된다고 본다. 따라서 동국사 소장의 《금오계첩》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그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금오계획도> 가운데 禮安金氏 家傳遺物 중 하나인 1606년 작의 <금오계획도>가 보물 제16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한강의 西湖에서 이루어진 계획을 재현한 실경산수화 유형의 계획도이다. 의금부 관원의 모임을 그린 금오계획도이지만 축의 형식이고, 그림의 내용과 화풍도 본 화첩과는 전혀 다른 계통이다. 이처럼 금오계획도는 다양한 형식과 표현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현상과 유전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연구가 아직까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작품의 회화사적 의의와 역사적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이 작품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문화재로서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현재 “금오계첩”은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약 50건에 이른다. 의금부는 신임관원의 통과례인 면신례(免新禮)를 중요시하는 관청이었고, 금오계첩은 면신례 때 신임관원이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가졌던 관행의 산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류의 계획도 보다는 많이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수가 남아 있게 되었다.

조사된 동국사 소장의 <금오계첩>은 현전하는 다른 금오계첩과 비교하면 좌목의 내용이 상세하고, 그림의 필치와 묘사가 우수한 편이지만 국가지정문화재에 합당할 만큼의 회화적 완성도나 특수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금오계첩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희소적인 가치도 떨어진다. 또한 계첩 전반에 얼룩이 있고 채색이 산화되어 변색된 곳이 있으며, 뒷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 등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동국사 소장의 <금오계첩>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로 권고

조사보고서



○ 조사내용

‘金吾契帖’이란 조선시대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다스리던 특별사법 관청인 義禁府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계첩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계첩을 만드는 표면상 이유는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이유는 免新禮와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 신임관헌이 출사할 때 선배관원들에게 성대한 酒饌을 제공하였고, 또 선임관원들이 시키는 가학적인 벌칙을 따라야 했다. 의금부도사에 임명된 신임관원은 면신을 칠을 때 반드시 금오계첩을 준비하여 선배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면신례는 그 폐단으로 인해 금령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관행화되었다. 그리고 여러 관청들 중에서도 면신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의금부였다. 그리하여 의금부 도사 계획안은 다른 계획안보다 많았으며, 금오계첩의 제작 또한 왕성하였고 따라서 현재 전해오는 작품 또한 상당한 수에 이른다.

동국사 소장 《금오계첩》은 2014년 일본 골동상에서 옥션에 내놓은 것을 일본인을 통해 구입한 작품으로서, 1734년(영조10) 7월에 작성된 것이다.

이 《금오계첩》에는 序와 계획그림, 그리고 좌목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I. 서

의금부 동료들 간에는 형제의 의리가 있어야 하며, 자손에 이르러서도 또한 대대로 이를 講해야 한다는 先儒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의금부에 들어와 처음에는 어색하고 친밀하지 못하지만 계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돈독하게 될 수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계획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II. 그림

당시 중부 堅平坊(현 공평동)에 있었던 의금부 관아의 전경과 관아 내에서의 계획장면이 그려져 있다. 의금부는 그 임무의 중대함으로 인해 건물의 외관도 다른 관아보다 웅장하며 권위와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건물의 입구는 望門과 대문, 그리고 정문의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관아 내부는 심문하는 장소인 虎頭閣과 그 좌우의 堂上廳舍와 낭관청사, 그 뒤편에는 휴식공간이 蓮池, 그리고 서 쪽 편외 부속건물인 符君堂(각 관아에서 신령을 모신 집과 죄수구금처 등이 위치해있다. 이 <금오계첩>에는 이러한 위치와 구조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에는 전체적으로 부감법이 사용되었는데, 이전의 금오계첩에서 구사되었던 바로 위에서 곧바로 내려다본 듯한 평면적 부감이 아니라 측면에서 사선으로 바라보는 부감방식을 통해 입체감과 거리감이 잘 드러나고 화면 안에 포함된 공간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계획이 열리고 있는 실내 장면도 나름대로 잘 알아볼 수 있게 표현되어 있다. 계획참석 인물은 좌목에 보이는 10명이 아니라, 좌상(위쪽)에 1명, 옆쪽에 2명, 아래쪽에 2명, 그리고 오른쪽 옆에 4명 등 도합 9명의 모습이 보인다.

《금오계첩》에는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나 민가들 역시 서정적인 느낌으로 그려져 있다. 건물 뒤편의 연지에는 연잎이 활짝 피어 있고, 건물의 앞쪽과 뒤쪽에 늘어선 수양버들 가지의 형태와 녹색처리는 화면 전체에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화면의 위쪽으로는 정형적인 산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담 밖으로는 왼쪽 상부와 오른쪽 상부에 민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또한 오른쪽 하부에도 민가 지붕들을 밀집시켜 그려넣었는데,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또한 건물 들의 여기 저기에 나장이나 군사를 적당히 포치하여 화면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 작품과 동시기(1734년)에 제작된 대전 역사박물관 소장 《금오계첩》이 이제까지의 전통적 양식을 고수함으로써 의금부 건물의 구조만을 평면적, 대칭적으로 그려낸 데 반하여, 동국사 《금오계첩》은 새로운 표현방식을 시도하였다. 위쪽에서 비스듬하게 부감하듯 입체적으로 건물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주변경관도 회화적 분위기를 잘 살려 그려낸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동국사 《금오계첩》에서 보여준 이런 새로운 양식은 1738년 10월 제작의 《금오계첩》(영남대 중앙도서관)이나 1759년 4월 제작의 《금오계첩》(규장각 소장)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나아가 19세기에 들면 금오계첩에선 이전에 비해 급격한 형식화가 진행되고, 획일적인 표현이 두드러져 화격이 퇴조하는 과정을 보이게 된다.

III. 좌목

당시 10명의 의금부도사들의 성명과 이들에 대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權世隆(본관 안동), 洪尙輔(본관 풍산), 李重彦(본관 진주), 李峽(본관 덕수), 申峻(본관 평산), 鄭得天(본관 광산), 趙階(본관 백천), 洪象漢(본관 풍산), 洪啓禧(본관 당성), 金喜慶(본관 경주) 등이다. 다른 금오계첩들이 주로 의금부도사들의 성명, 본관, 생년, 자, 관계, 과거 합격 사실 등 만 수록되어 있는데, 동국사

소장 《금오계첩》에는 이러한 정보 외에도 이들이 의금부 도사에 임명된 연도 뿐 아니라 이전에 의금부 도사에 임명된 사실 및 그 이후 다른 관직을 거치다가 다시 의금부 도사에 임명된 사실, 이들과 교체한 사람들의 성명, 이들의 면신일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금오계첩》에 수록되어 있는 의금부도사를 지낸 사람들은 20여명이나 된다. 그만큼 본 금오계첩은 의금부와 의금부도사, 조선시대 면신례, 그리고 의금부도사를 지낸 인물, 의금부 건물 등을 연구하는데, 다른 금오계첩들 보다도 더 유용한 사료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김두헌 「동국사 관리 금오계첩의 사료적 가치」 (유인물)

윤병태 「의금부의 금오계첩」 『서울문화연구』 I(1998.02) pp.61-98



○ 현 상

현재 이 작품은 화첩으로 장황되어 있는데, 표지부터 안쪽의 기록과 그림 등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첩의 표지 부분은 낡은 상태이고 사방 모서리 부분은 특히 더 많이 낡아 있다. 화첩의 상단 좌우 모퉁이가 습기로 인하여 얼룩진 상태이고, 화첩 안쪽의 기록과 그림 부분은 중앙의 접혀진 부분이 누렇게 변색되었다. 그러나 묵서된 기록과 그림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만하다. 특히 그림 부분은 다른 면에 비하여 상태가 좋은 편이고, 채색과 필선 등이 선명하게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이 화첩의 표지에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화첩의 안쪽 1면과 2면에 “金吾契帖序”라는 제목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이 화첩이 의금부 관원들이 계회를 가진 뒤 계회의 장면을 재현하여 그리고, 참석자들의 좌목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면과 4면에는 都城 안에 위치한 의금부 건물의 전경을 俯瞰法으로 재현되었고, 관아 건물 안에서 아홉 명의 관원들이 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관원들은 모두 공복을 입고 있어서, 당시 의금부에 속한 관리들의 모임임을 시사하고 있다. 5면과 6면에는 “義禁府都事座目”이라는 제목 아래 安東 權世隆, 豐山 洪尙輔, 完山 李重彦, 德水 李垓, 平山 申峻, 光山 鄭得天, 白川 趙階, 豐山 洪象漢, 唐城 洪啓禧, 月城 金喜慶 등 열 명의 좌목이 기록되어 있다. 좌목의 마지막 부분에는 “甲寅七月日”이라는 年紀가 있다. 참석자들의 생몰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작품이 1734년 7월에 열린 의금부 도사들의 계회를 수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다른 금오계회도에 비하여 관직의 이동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의금부계회도는 금오계회도라고도 하는데, 조선 초 이래로 의금부 관원들의 계

회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 조선 전반기에는 일반적인 관료계회도의 형식에 따라 축으로 제작되었는데, 17세기 이후 차차 화첩의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18세기 이후 제작된 금오계회도는 여러 점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화첩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금오계회도는 다른 유형의 관료계회도에 비하여 전해지는 작품이 적지 않은 편이며, 특히 18세기,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작품 또한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에는 한양 중부 堅平房에 위치한 의금부의 관아 건물과 주변의 경관, 그리고 관아 안에서 이루어진 관원들의 계회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의금부 건물의 입구는 望門과 大門, 그리고 正門의 겹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아 안쪽으로는 罪人을 심문하는 虎頭閣과 그 좌우에 있는 堂上廳舍와 郎官廳舍, 그 뒤편에 蓮池, 그리고 서쪽편의 부속건물인 府君堂과 罪囚拘禁處 등이 자세하게 재현되었다. 의금부 주변의 민가 건물들도 다른 의금부 계회도 작품에 비하여 좀 더 자세하게 그려 넣었다. 의금부 건물 주변과 뒤뜰 연못가에는 버드나무들이 풍성한 모습으로 그려져 여름의 정취를 전달하고 있는데, 다른 의금부계회도에 비하여 도식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서 회화성이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과 입구 부분에 나타나는 인물의 모습을 정교한 필선으로 섬세하게 재현한 점도 돋보이는 요소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현존하는 18세기 전반 경의 다른 의금부계회도에 비하여 세련되고 정성들인 표현을 구사하여 구성과 소재가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식적인 면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예컨대 겸재 정선이 1731년에 그린 <의금부계회도>와 비교하여 보아도 구성과 소재, 필선과 묘사, 채색 등 모든 면에서 더 상세하고 정교한 표현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금오계회도 가운데서는 특히 뛰어난 작품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윤진영, 「義禁府 免新禮와 金吾契會圖」, 『문헌과 해석』 13, 2000.겨울.

○ 기 타

본 작품의 제목은 서문에 기록된 것을 토대로 “금오계첩”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유래는 군산 동국사가 일본의 개인 소장가로부터 매매를 통해 구입하여 들여온 것이다.



○ 현 상

앞표지는 연화당초문의 능화판으로 장식된 녹색 장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뒷표지는 결실된 상태이다. 표지의 좌측 위쪽에 표제를 붙였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떨

어져 나가고 없다. 군산 동국사 측에 의하면 2014년 5월에 일본의 경매에서 1,006,000엔에 구입하였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곱팡이와 얼룩이 있으며 채색이 산화되어 갈변(또는 흑변)된 부분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된 <금오계첩>은 금오계첩서점序), 계획 장면을 그린 그림, 의금부도사좌목(義禁府都事座目)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면에는 주선(朱線)으로 광곽(匡郭)을 표시했으며 서문과 좌목 부분에는 주선으로 칸을 그어 글씨를 썼다. 서문을 쓴 사람은 참석자의 한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관청에서 동료로 만나 시간이 흐르며 정을 나누는 관계는 진정 형제간의 의리[兄弟之義]를 나누는 관계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 서문의 요지이다.

좌목은 권세룡(權世隆, 1683-?), 홍상보(洪尙輔, 1683-?), 이중언(李重彦, 1715-?), 이협(李峽, 1696-?), 신준(申峻, 1690-?), 정득천(鄭得天, 1677-?), 조계(趙階, 1683-?), 홍상한(洪象漢, 1701-1769), 홍계희(洪啓禧, 1703-1771), 김희경(金喜慶, 1695-?) 등 10인이다. 이들은 1734년(영조 10) 당시 의금부도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들로서 대부분이 같은 해에 발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중에서 권세룡·홍상보·이중언은 1734년 의금부도사로 오기 전에 이미 의금부도사를 한번 역임한 적이 있었으며, 이협·신준·정득천·조계·김희경은 다른 관청을 거쳐 의금부에 처음 온 것이고, 홍상한·홍계희는 진사시 합격 후 의금부도사로 출사(出仕)한 것이다. 좌목 끝에 “甲寅七月日”이라고 쓰여 있어 1734년 7월경 계획을 열고 계첩을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좌목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금오계첩>의 좌목은 보통의 금오계첩에 비해 개개인의 관력(官歷)에 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편이다.

이 <금오계첩>의 그림은 18세기 전반기에 유행한 금오계첩의 양식과 상통한다. 의금부 관아를 우측 위에서 비스듬히 부감하고 주변의 민가와 원경의 산을 주변의 배경으로 처리하는 구성이다. 이러한 양식은 이전 시기 금오계첩이 주로 사용하였던 정면부감의 평면적인 구도보다 한층 사실적인 공간감을 전달한다. 따라서 의금부의 상징적인 건물인 중앙의 丁자형 호두각(虎頭閣), 좌측의 낭관청(郎官廳)과 우측의 당상관청(堂上官廳), 낭관청 좌측의 부군당(府君堂), 죄인을 가두어두는 건물들, 관아의 안쪽으로부터 삼중으로 구성된 정문(正門), 대문(大門), 망문(望門) 등 의금부 관아의 구조와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계획은 낭관청에서 열린 듯 실내에 붉은 색 관복을 입은 관원 9명이 앉아 있다. 그 외에 말이 묶여있는 마굿간과 호두각 뒤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된 방형의 연지도 그려졌다.

윤곽선은 깨끗하고 힘이 있으면서도 버드나무 가지나 연지의 물결 등에는 유연한 필치도 잘 구사되었다. 건물의 붉은 색 채색은 살아 있으며 하늘과 지면에는

얇고 맑은 선염을 가하였다. 처마와 죄인구금처 근처 차면담(遮面牆)의 동그란 장식무늬, 치미의 용머리, 지면의 돌무더기 등 작은 부분에서 세심한 표현을 보인다. 여타의 금오계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림의 필치와 묘사는 좋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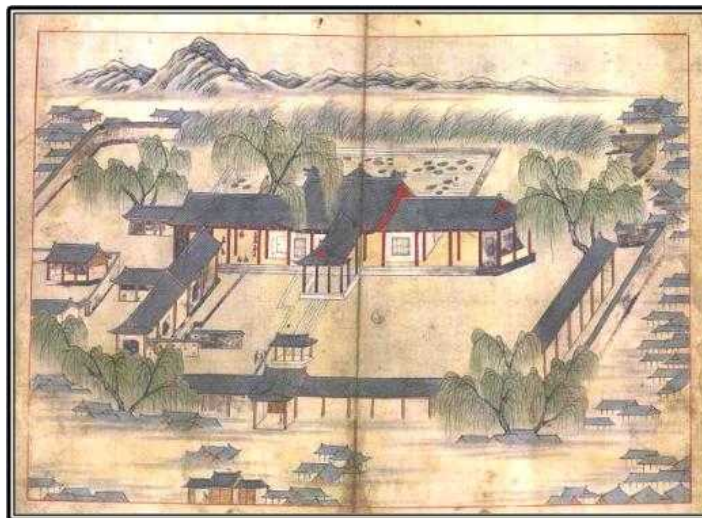
금오계첩(金吾契帖) 표지
(蓮唐草蓮華菱花紋)



금오계첩(金吾契帖) 序



금오계첩(金吾契帖) 좌목(座目)



금오계첩

5. 기마도(騎馬圖)

가. 검토사항

‘기마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14.5.15),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환수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됨에 따라 환수문화재 소장기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대상 신청을 받음
- 이와 관련, 한림대학교박물관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4.07.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2014.12.26.)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기마도(騎馬圖)
- 소유자(관리자): 한림대학교(한림대학교박물관)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박물관
- 수 량: 1폭
- 규격(cm): 세로 24.5, 가로 48
- 재 질: 비단에 수묵담채
- 형 식: 화축
- 제작연대: 18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한림대학교박물관 소장 <기마도>는 1711년 조태억이 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그렸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작품의 크기가 작을 뿐더러, ‘기마도’라는

화제가 지닌 유유낙낙한 선비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못하다. 화면에 나타난 예술적 성취도 면에서 볼 때,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조태억이 그림을 잘 그렸다는 기록은 있지만 조태억의 확실한 기준작을 판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마도> 또한 조태억의 진작이라 하기에는 화풍과 관서의 문제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사된 <기마도>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요구하는 요건을 여러 면에서 충족하지 못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어딘지 위·아래가 잘린 듯한 가로로 긴 화면은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서 볼 때 불완전해 보인다.

둘째, 관서의 형식과 내용에서 의문이 많이 든다. 즉, 관서 중에 字를 섞어서 “○○○書”라고 쓴 형식은 통상적으로 조선시대 그림에서 많이 사용된 형식이 아니며, ‘大年’이나 ‘鯤齋’라는 字 혹은 號를 썼던 인물도 확실하게 밝혀내기 어렵다.

셋째, 이 작품은 지금까지 조태억의 그림으로 추정되어 왔지만, 조태억의 유작이 매우 드물어 그의 특징적인 화풍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비교 분석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기마도>의 화풍 상으로도 이 그림이 조태억의 작품인지 말하기 곤란하다.

넷째, <기마도>는 작품의 작자나 제작시기의 문제를 떠나 전체적으로 시대화풍을 잘 드러내지 못하며, 畫格도 높지 못하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 조사내용

한림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기마도>는 한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에서 일본의 사상,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일본 전반에 관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일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2001년 조선통신사연구의 권위자인 이원식 교수(일본 近畿대학 문예학부교수)로부터 기증받은 형식으로 입수한 작품이다. 화면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장황은 2014년의 《현해탄을 건너 만난 사람들-조선통신사전》 전시를 위해 새로이 장황을 한 상태이다.

‘騎馬圖’나 ‘騎驢圖’는 선비들이 자연을 벗삼아 유량하며 安貧樂道를 추구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조선이나 중국의 동양화에서 즐겨 그려지는 畫題 중 하나였다.

한림대학교박물관 소장 <기마도>는 가로가 긴 장방형의 소폭의 작품인데, 화면의 중앙에 한 인물이 말을 타고 고개를 오른 쪽으로 돌려 약간 아래쪽을 보고 있다. 선비의 모습을 한 인물은 중국식 상투를 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질감의 옷은 목덜미와 뒷 등, 허리 뒤 쪽, 옷소매 곳곳에 肥瘦가 강한 먹 처리를 하여 액센트를 주었다. 약간 긴장이 풀려 있는 인물의 자세에 반해, 말은 고개를 바짝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말의 몸체는 얇은 먹으로 윤곽을 그리고, 그 안에 선염 처리를 하였다. 말의 네 다리는 막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을 포착한 듯한데, 왼 쪽 뒷다리의 묘사는 상당히 어눌하다. 선비가 앉아 있는 안장의 호피장식이나 녹색의 말다래(안장의 좌우 양쪽에 늘어뜨려 사람에게 진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만든 물건), 그리고 말 꾸밈 등은 상당한 품격의 기물로서, 그림 속의 선비가 지체있는 신분임을 말해준다.

말이 서 있는 지면은 바위같은 질감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는 낮게 수목들이 보이는데, 모두 강한 묵색의 거친 필치로 처리되어 있어 17세기 이후 유행을 보인 浙派的 경향이 손쉽게 감지된다.

한편 화면의 왼 쪽에는 ‘朝鮮國趙大年甫書’라 쓰여 있으며, ‘鯤齋’라는 朱文方印이 찍혀 있다. 이 서체는 1711년 믹부의 집정관으로 통신사의 접대를 담당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지은 『白石詩草』 서문에 쓴 낙관과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곧재는 조태억의 또 다른 호로 추정된다.

趙泰億(1675-1728) 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였다. 자는 大年, 호는 謙齋, 平泉, 泰錄堂이며, 본관은 楊州이고 시호는 文忠이다. 崔錫鼎(1646-1715)의 문인이며, 崔昌大(1669-1720), 李光佐(1674-1740), 李夏坤(1677-1724), 李德壽(1673-1744) 등과 교유하였고 좌의정으로 치사하였다.

그는 169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 세자시강원의 교리겸문학, 이조정랑, 부제학 등을 거쳐 1709년 대사성이 되고, 1711년 1월에는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는데, 이 <기마도>는 바로 이 때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초서와 예서를 잘 썼으며, 그림에도 능했다하는데, 현재 조태억이 그린 그림이 지난 양식적 특성을 알아낼 ‘기준작’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

○ 현 상

이 작품은 일본의 이원식교수가 수장하다가 한림대학교에 구입, 기증한 유물 중 하나로서 이후 한림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오고 있다. 謙齋 趙泰億(1675~1728)이 1711년(숙종 37년) 通信使 正使로 일본에 파견 되었을 때 그린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질은 견본채색, 크기는 48×28.5cm이다. 그림은 조선 그림으로서는 다소 희귀한, 가로가 유난히 긴 비례를 가지고 있으며, 비단과 채색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화면 오른쪽에는 “朝鮮國趙大年甫書”라는 관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끝에 관독이 어려운 주문방인이 흐리게 찍혀 있다.

○ 내용 및 특징

화면의 중앙에는 초록색 비단 안장과 그 위에 얹혀진 호피 위에 앉은 채 말을 타고 있는 高士가 그려져 있다. 머리 위의 연초록색 건은 앞으로 느슨히 드리워져 있고, 흰 색의 상의와 바지를 입고 있으며, 소매는 길어서 손을 덮고 있다. 말은 뚜벅거리고 견고 있는 듯이 보이고, 고사는 생각에 잠긴 듯 눈을 약간 내리뜨고 있다. 의습선은 肥瘦의 변화가 많고 약간 멈칫거리는 듯 속도감이 없는 필치를 구사하였다. 말은 鈎勒法을 사용하여 그리고, 눈과 목덜미, 뒷다리와 몸체 일부에 淡墨으로 渲染하여 검은 끼를 띠고 있다. 비단과 푸른 장식, 호피 등 화려한 장식을 한 말의 모습에서 이 인물이 지체가 높거나 부유한 풍류객임을 짐작하게 된다. 지면과 오른쪽의 바위 부분은 굵은 윤곽선으로 형태를 그리고, 그 안쪽에 皴이라고 하기 보다는 선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법으로 채워 넣었다.

전체적으로 靜的인 분위기가 돋보이고, 많은 여백을 구사한 이 작품은 인물묘법이나 준법 등의 표현에서 17세기나 18세기 초 조선회화의 일반적인 화풍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준법의 경우도 17세기에 유행한 浙派系 화풍이나 전통적인 李郭派 화풍과도 다르고, 18세기 초 사용되기 시작한 南宗畫法과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산수표현으로는 시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인물화법의 경우도 간결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인물화로 유명한 17세기의 화원 金明國이나 韓時覺의 減筆描法과 차이가 있고, 17세기의 사대부화가 崔命龍이나 18세기 초의 尹斗緒, 또는 17세기 후반의 화원 李明郁 등의 인물화풍과도 달라서 시대적인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와 특징은 사대부화가의 개성적인 화풍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 상 이 작품의 국적이 조선인지 일본인지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듯하다.

이 작품에는 “朝鮮國趙大年甫書”라는 관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일본에 파견된 조태억이 1711년 일본에서 그린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서의 내용과 서체에는 『增訂古畫備考』 권50 朝鮮書畫傳, 2220쪽에 실려 있는, “辛卯季秋朝鮮國通信正使楊州趙泰億大年甫書于大阪館中”이라는 관서의 내용과 서체와 비교할 수 있다. 그림 위의 관서는 이 중 “朝鮮國…趙…大年甫書”에 해당하는 부분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정밀하게 살펴 보면, 글씨의 전반적인 형태 뿐 아니라

起筆과 收筆, 筆鋒의 운용 등 筆致의 전반적인 특징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일본에 갔던 통신사들이 숙소로 사용되었던 절 淸見寺에 전하는 조태억의 필적인 <正德元年正使趙泰億詩書>과 또 다른 필적인 <正德元年正使趙泰億詩書幅>의 서체와 비교해 보아도 형태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글씨 부분의 먹은 비단에 깊이 스며들지 않아서 18세기 초부터 전해지는 오랜 연륜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관서 아래쪽의 주문방인은 판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겸재 조태억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이다. 본관은 楊州, 자는 大年, 호는 謙齋·胎祿堂, 시호는 文忠이다. 1693년(숙종 19) 진사가 되고 1702년 식년문과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검열·지평·정언 등을 지냈다. 1708년 이조정랑, 1710년 대사성에 오르고 1711년 1월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뒤 이조참의·호조참의·경상도관찰사 등을 거쳤다. 1721년(경종 1) 호조참판으로 世弟(뒤의 영조) 책봉과 대리청정을 반대하여 철회시키는 등 이후 소론의 영수로서 활약하다가 1727년 정미환국으로 다시 좌의정에 복직되었다. 저서로는 『謙齋集』이 전하고, 草書와 隸書를 잘 썼다고 하는데 현존작은 초서 간찰과 일본에 소장된 여러 서예작품들이 전하고 있다.

조태억은 그림도 잘 그렸다고 전하는데, 몇 점의 작품들이 그의 솜씨로 전칭되어 오고 있다. 첫 번째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墨菊圖>에는 “丁卯初冬謙齋醉筆”이라는 관서가 기록되어 있어서 조태억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다. 그러나 정묘년은 1687년이라면 조태억이 12세 때이고, 1747년은 조태억 사후이므로 이 작품을 조태억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하는 <曲水圖> 8폭 병풍(덕4607) 중 한 폭에는 ‘大年’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서 조태억의 작품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대화면 병풍의 채색화로서 장식적이고 정교한 화풍의 특징 상 사대부화가인 조태억의 솜씨로 판단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한림대 박물관 소장의 <기마도>가 조태억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

○ 소장 경위 및 현상

조사된 작품 <기마도>는 한림대박물관에 입수되기 전 일본 近畿大學 문예학부 李元植 교수 소장품이었다. 이원식 교수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유물들을 기증(일부는 박물관 측에서 구입)하였는데, 조사된 작품 <기마도>는 그 중의 한 점이다. 2001년 8월 28일자로 박물관 측에 인수되었으며, 2003년 2월부터 9월에 걸쳐 서울 종로구의 지류보존소(대표 이영호)에서 보존처리를 하여 현재는 畫軸으로 장황되어 있다. 화면의 가로로 꺾인 몇 개의 주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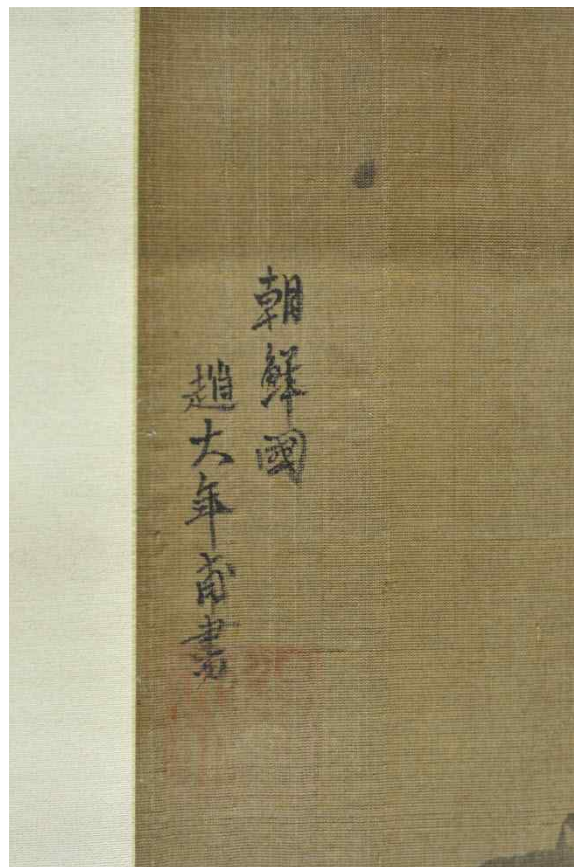
○ 내용 및 특징

<기마도>는 가로로 긴 화면에 말을 타고 가는 도포 차림의 인물이 그려진 일

종의 기마인물도이다. 중앙의 기마인물을 중심으로 하단의 地面 설정과 수풀 외에는 배경 묘사가 없는 간단한 구성이다. 인물은 細長한 편인데, 이목구비는 섬세한 필치로 묘사되고 의습은 비수가 강한 필선으로 그려져 대비를 이룬다. 도포에 칠해진 흰색은 상당부분 벗겨져 희미한 상태이다. 말은 인물에 비해 얇은 먹으로 윤곽을 잡고 머리·목·엉덩이·다리 등에 부분적으로 선염하여 볼륨감을 표현하였는데 그 필치는 인물에 비해 매우 조심스럽다. 고급스럽게 갖추어진 마구에는 붉은색, 옥색, 하늘색, 노란색으로 장식하여 변화를 주었다. 하단의 지면은 얇은 먹으로 선염 처리하였으며 물갈래법으로 수풀을 표현하였다. 말의 왼쪽 앞다리 및 뒷다리 부분의 연결, 인물의 다리와 신발의 관계, 지면의 유기적인 연결 등 부분적으로 어색하고 모호한 표현이 있다.

<기마도>는 조선중기에 유행했던 기마인물이라는 주제와 화면 구성을 계승하였고 수풀의 묘사에서도 조선중기 절파화풍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과 말의 묘사는 18세기의 화풍에 더 가깝다.

화면의 좌측에는 「朝鮮國趙大年甫書」라 쓰여 있고 「鯤齋」라 새겨진 주문방인(세로 3.3cm, 가로 2.8cm)이 찍혀 있다. 주문방인은 또렷하게 찍혀있지 않으며 묵서는 그 위에 쓰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의 大年이라는 字를 가진 趙甫라는 사람이 쓴다”는 묵서 때문에 趙泰億(1675-1728, 字 大年)의 그림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趙甫라는 인물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鯤齋라는 호를 가진 인물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그림을 조태억의 그림으로 보기 곤란하다.



기마도

6. 대전 괴정동 유적 출토 청동유물 일괄 (大田 槐亭洞 遺蹟 出土 靑銅遺物 一括)

가. 검토사항

‘대전 괴정동 유적 출토 청동유물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 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10.1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대전 괴정동 유적 출토 청동유물 일괄
(大田 槐亭洞 遺蹟 出土 靑銅遺物 一括)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2점
- 규격(cm): ① 길이 22cm ② 길이 22.5cm
- 재 질: 청동
- 제작연대: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대전 괴정동 출토 검과형 청동기 2점은 전형적인 한국 청동기시대의 의기로서 남성의 묘인 석관묘에서 석기, 장신구, 무기, 토기, 청동기와 함께 출토된 것이다. 실용적 기능을 알 수 없는 특수한 형태와 표면의 공간분할법, 정교한 제작수법 등에서 청동기 후기사회 규명에 중요한 자료로 공예사적 의의는 있다.

그러나 공반 출토한 유물들도 다양하고 같은 검파형 동기도 1점이 더 있으므로 향후 전체 유물을 일괄로 조사하여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

대전 괴정동 유적은 비록 정식 발굴을 통해 확인된 유물은 아니지만 다양한 청동 의기가 조합을 이루어 출토된 한국식 동검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동시에 이런 조합을 지닌 가장 이른 예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 요령 지역에서 보이는 덧띠 토기와 흑색토기 긴목항아리(黑陶長頸壺) 등의 토기와 청동 의기가 함께 출토된 점에서 요녕식 동검 문화의 수용과 발전을 밝혀준 귀중한 유적이 되고 있다. 조문식 거울과 한국식 동검의 정착, 의기화된 방패형 동기 등으로 미루어 이 일괄 유물의 제작시기는 청동기 시대 후기인 기원전 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철기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천하석제 장식옥·돌화살촉·동검 등에서는 청동기시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식 동검·소동탁·다뉴세문경과 돌화살촉·장식옥·토기 등에서는 늦은 시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러한 시기를 뒷받침 한다. 이러한 조합을 보이는 청동기 후기 문화의 대표적인 일괄 부장품이란 점과 출토지가 분명한 점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크다. 단 분묘에 함께 부장되었던 일괄품이란 검파형 동기 뿐 아니라 토기, 장식옥에 이르는 나머지 일괄 출토품을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대전 괴정동 일괄유물은 고고학적 수습 발굴 조사된 유물들로, 출토 유구 및 출토 상황이 분명하고, 해당 시기의 표지적인 유물 기종 구성을 보이고 있어 초기철기시대 한국식동검문화의 문화 내용 및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청동거울 1점과, 검파형동기 2점, 방패형동기, 원개형동기 등은 약간씩 결락된 부분이 있지만,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원형 및 구조 및 형식을 잘 유지하고 있어 제작기술적 특징도 잘 간직되어 있다. 또 청동거울, 방패형동기, 검파형동기에 표현된 일광문, 삼각집선문, 점열문, 평행집선문 등의 문양은 전체적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시문되고,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청동유물 문양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동 시대의 다른 청동유물에 비해 약간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식동검문화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매달아 사용하기 위해 안팎에 부착된 고리와 검파형동기 표면 고리에 끼워진 새끼무늬 고리 또한 이른 시기 한국식동검문화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들이다. 이러한 청동유물 일괄은 우리나라 역사상 후기 고조선 또는 위만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동유물들은 주로 의례에 사용되었던 의기적 성격의 유물들로, 당시 제정일치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청동유물들을 소유한 사람은 당시 사회의 지배자이자 샤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대변해 주는 유물들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대전 괴정동 적석석곽묘에서 출토된 청동유물을 비롯한 일괄유물들은 검과형동기, 원개형동기 등 특정 기종의 유물만으로는 구 역사·문화적 의미를 올바르게 대변해 줄 수 없으므로, 전체 유물의 일괄 세트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3점의 검과형동기 중 상태가 양호한 것 1점만을 골라 지정 심사하는 것은 이 일괄유물 전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지정 의미와 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려면 그 지정문화재가 해당 시대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전체 일괄유물 중 특정 유물만으로는 이러한 국가지정문화재가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기철기시대 문화 또는 유물 구성이 선별된 특정유물 뿐 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농후하다. 따라서 대전 괴정동유적 출토 일괄유물은 전체 유물들이 함께 지정되었을 때 그 유물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미와 지정문화재적 가치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건은 원개형동기와 검과형동기 1점 등 2점만을 선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괴정동유적 출토 일괄유물 전체를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금회 조사한 원개형동기, 검과형동기 이외의 일괄유물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또 이와 같은 초기철기시대의 역사·문화상을 보이는 표지적인 일괄유물들이 괴정동유적 출토 일괄유물 이외에 예산 동서리유적 출토 일괄유물, 아산 남성리유적 출토 일괄유물 등, 괴정동유적 출토 일괄유물 이상의 다양하고 많은 청동유물의 기종 구성을 보이고, 유물의 보존상태 또한 더 양호한 중요한 자료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유물들 또한 조사·검토한 후, 이들에 대하여 종합 심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대전 괴정동 석관묘 출토 유물 일괄 지정 요망
- 타지역 출토 유물 검토 요망

조사보고서





○ 현황

지정조사 대상인 대전 괴정동 출토 청동기는 1967년에 대전 교외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石棺墓에서 출토된 일괄유물 중 일부인 劍把形 청동기 2점이다. 이 유물들은 儀器로만 추정될 뿐 명확한 기능을 알 수는 없으나 특이한 형태와 정교한 문양, 주조기술 등 한국 청동기문화와 美感을 전해주는 좋은 자료이다. 원래 석관묘에서는 石器類인 석촉 3점과 토기류인 무문토기 1점, 흑도 1점, 청동기류인 세형동검 1점과 다뉴세문경 2점, 銅鐸 2점, 방패형 청동기 1점, 원형 청동기 1점, 검과형 청동기 3점, 장신구류인 석제C자형 장식과 구슬 50여개가 공반 출토되었다.³⁹⁾ (도1, 2, 3)

대전 괴정동에서는 2013년에 보물 제1823호로 지정된 농경문청동기가 출토되었다고 전하며,^(도4) 예산과 아산에서도 괴정동 청동기 일괄유물과 같은 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어 이 유물들은 한국 청동기시대의 분묘, 의기의 종류, 제작기술의 수준 등을 가늠케 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검과형 청동기 2점 중 1점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대나무 마디를 자른 것 같은 2마디로 된 죽절형에 마디마다 새끼줄 모양의 고리가 총 2개 달려있는데, 하나는 하단의 고리가 결실된 상태이다.^(도5) 뒷면은 빈 대나무처럼 두께만 일정하고 어떤 板材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리가 붙어 모양이다.^(도6) 앞면에는 죽절의 전체 윤곽선을 따라 안쪽에 기하학적인 문양대로 구획하고 다시 안쪽에 똑같은 문양대를 배치한 후 그 안에 납작한 고리에 원형고리를 끼운 모양이다. 즉 죽절모양에 따라 끝이 뾰족한 장방형 回文이 시문된 셈이다. 문양의 첫줄은  모양이고, 안쪽 2째 줄은  모양인데 가는 선의 간격이 일정해 정교한 느낌을 준다.^(도7) 이렇듯 전체 형태를 따라 안쪽에 윤곽선을 두르고, 그 안을 좌우 또는 똑같은 모양으로 구획한 다음 渦文이나 사슴, 농경문, 사람손 등 상징적 의미를 시문하는 방식은 한국 청동기의 특징적인 공간분할 수법이자 청동기인들의 美感이다. 뒷면에는 마디의 중앙에 고리가 있기도 하고,^(도8) 상하 양 끝에 있기도 하다.^(도9)

제작수법은 앞면의 정교한 기하학적인 문양, 새끼줄 모양 고리와 뒷면의 고정용 고리가 한번에 주조될 정도로 정교한 기술을 보이고 있다.

이 검과형 청동기와 똑같은 유물이 예산 동서리 석관묘나 아산 남성리 석관묘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아산 출토품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도10) 공반출토한 유물들을 종류별로 보면 중 방패형 청동기는 위쪽의 지붕선 모양과 작은 사각형 구멍이 점열식으로 뚫린 모양이 전 대전 괴정동 출토 농경문청동기와 같은 모양이나 전체적으로 다소 古式을 보인다.⁴⁰⁾

39) 이은창, <대전괴정동 청동기문화의 연구>, 《아세아연구》 11-2, 1968, pp.75-99.

40)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韓國의 靑銅器 文化》, 汎友社, 1992.

○ 문헌자료

이은창, <대전괴정동 청동기문화의 연구>, 《아세아연구》 11-2, 1968, pp.75-99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韓國의 靑銅器 文化》, 汎友社, 1992



그림 1. 대전 괴정동 석관묘 출토 일괄유물-1(細形銅劍, 粗紋鏡, 銅鐸, C자형 장신구)



그림 2. 대전 괴정동 석관묘 출토 일괄유물-2(방패형 청동기, 원형 청동기, 검과형 청동기 3점)



그림 3. 대전 괴정동 석관묘 출토 일괄유물-3(무문토기, 흑도장경호)



그림 4. 농경문 청동기, 진 대전 괴정동 출토, 보물 제1823호(2013.5.8 지정)



그림 5. 김파형 청동기 앞면



그림 6. 김파형 청동기 뒷면



그림 7. 표면 문양과 고리



그림 8. 뒷면 고리



그림 9. 뒷면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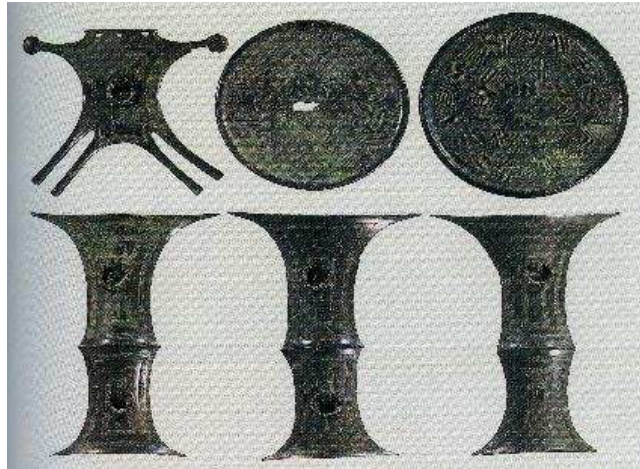


그림 10. 牙山 남성리 석관묘출토 일괄유물

□

○ 현 황

대전의 괴정동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로서 선사시대의 분묘인 석곽묘의 매장되었던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분묘는 밭을 경작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1967년 국립박물관에 의해 발굴이 실시된 바 있다.

청동기가 출토된 돌널 무덤은 지하 깊이 2.7m, 너비 73cm, 길이 2.5m 정도의 구덩이를 남북방향으로 파고 그 안에 돌로 널을 구축한 석곽묘(石槨墓)이다. 네벽을 막은 돌널의 규모는 너비 0.5m, 길이 2.2m 정도이다. 발굴 결과 원래의 상태에서 파괴되어 확실치 않지만 약 1m 정도의 깊이로 짐작된다. 바닥에는 돌을 깔지 않았으며 상부에는 뚜껑돌 없이 돌널 내부에 그대로 무너진 석괴(石塊)들로 메워져 있었다. 바닥에 얇게 깔린 부식된 목질부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내부에는 다시 나무로 널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곽묘에서 발견된 일괄 유물의 매장상태는 돌널의 북쪽부분에서 토기와 청동제 의기(儀器)가, 서쪽 중간부에서 동검을 부장하였고 남쪽에서는 식옥(飾玉)이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 유물 가운데 청동기는 모두 10점인데,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표적 유물인 한국식동검(細形銅劍) 1점 · 거친무늬 거울(多鈕組文鏡) 2면 · 소동탁(小銅鐸) 2점 · 방패형동기(防牌形銅器) 1점 · 원개형동기(圓蓋形銅器) 1점 · 검과형동기(劍把形銅器) 3점 등이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손상이 거의 없이 보존 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며 당시 분묘 안에 매장되었던 일괄 유물이 한꺼번에 발견되어 청동기시대 후기 한국 청동기문화의 발전 양상을 밝혀주는 대표적인 유적이자 유물인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일괄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방패형동기는 길이 16cm 정도의 크기에 평면이 방패와 같은 형태를 가진 청동기로 용도는 분명치 않지만 의례에 사용하였던 의기(儀器)이다. 위쪽에는 네 개의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 끈으로 매달아 달아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전 대전 출토의 농경문 청동기 역시 방패형이라는 점에서 의기로 사용된 것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방패형동기는 충청남도 아산 남성리(南城里) 유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중국 요령성 심양의 정자와자(鄭家窪子) 유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출토된 바 있다. 그러나 정가와자 유적의 것은 도끼주머니 장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역시 청동기 시대 후기의 대표적 유물인 검과형동기는 외형이 칼의 손잡이처럼



생겨 검과형동기로 불려왔다. 같은 검과형이지만 예산 동서리(東西里)와 아산 남성리(南城里) 유적 출토품에서 보이는 손, 사슴 따위의 무늬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괴정동 출토 유물이 좀 더 앞선 시기의 제작으로 보인다. 이러한 괴정동 출토의 검과형 동기와 방패형동기는 그 문양과 제작기법면에서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고 특히 대곡리(大谷里)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점에서 한국 남부지역 청동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청동제의 소동탁은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형태면에서 위쪽에 반원형의 고리가 달려 있는 종 모양의 방울 형태로 만들었다. 내부에 달려있던 탁설(舌)는 사라졌지만 없고, 이를 매달

기 위한 구멍이 위쪽에 나 있음이 확인된다.

□

○ 현황

약간 결실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원형 및 구조, 형식을 잘 파악할 수 있음.

○ 내용 및 특징

1967년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의 야트막한 구릉지대에서 주민이 밭을 갈던 중 발견, 신고되어 국립박물관에서 수습조사하여 유물이 출토된 유구의 성격과 많은 일괄유물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유물이 출토된 유구는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인 적석석곽묘로 밝혀졌으며, 세형동검 1점, 동경 2점, 방패형동기 1점, 원개형동기 1점, 검과형동기 3점, 동탁 2점 등의 많은 청동유물을 비롯하여 천하석제 곡옥2점·소옥 30여점, 석촉 3점, 원형점토대토기 1점, 흑도장경호 1점 등 한국식동검문화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러한 적석석곽묘와 유물구성은 괴정동유적을 비롯한 서남부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조문경, 동탁, 곡옥, 석촉 등이 한국식동검문화의 이른 시기의 형식을 보이고 있어 초기철기시대 한국식동검문화 및 초기철기시대의 역사·문화상을 연구하는데 표지적인 유물로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다.

○ 기타

1967년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의 야트막한 구릉지대에서 주민이 밭을 갈던 중 발견, 신고되어 국립박물관에서 수습 조사하여 국가귀속된 일괄유물임.

7. 이응도 목판(二鷹圖 木板)

가. 검토사항

‘이응도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10.15.)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1987.6.1)]
- 명 칭: 이응도 목판 (二鷹圖 木板)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 수 량: 1판(兩面)
- 규격(cm): 세로 86.0 × 가로 45.2~45.6 × 두께 2.5
- 재 질: 소나무(松木)
- 형 식: 목판(木板)
- 제작연대: 1791년(정조 15년)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二鷹圖>는 태종 16(1416)년에 完山府院君이 일체의 官職에서 낙향할 것을 아뢰자 태종은 그의 功績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畫像과 함께 특별히 기름진 땅과 노비 등을 하사하고자 하였으나, 完山府院君은 항상 매(鷹) 2마리를 옆에 두고 아끼며 매사냥을 즐겨하는 태종이 매사냥에 빠져 政事를 그르칠 것을 걱정하여 군

이 국왕 소유의 蘆花松鵲과 白松鵲의 2마리 매를 하사할 것을 원하여 이에 태종은 즉시 畵工에게 명하여 蘆花松鵲과 白松鵲의 <二鷹圖>를 그리게 하고 친히 御筆로 畵題를 써서 하사한 것이다.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은 정조 15(1791)년에 全羅道 靈光郡 거주 完山府院君 李天祐(?~1417)의 후손인 進士 李以錫(正祖朝人物)이 <二鷹圖>가 頽落하자 이를 영구히 보존할 방안으로 木板에 板刻한 후에 여러 부수를 印出하여 후손에게 廣布함으로써 선조의 功勳事實을 널리 알리려는 奉先事業의 일환으로 제작한 木板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은 조선시대의 繪畵史 研究 뿐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 正祖朝의 木板의 板刻術 및 木板印刷文化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은 조선시대 후기의 정조 15(1791)년에 제작되어 그 제작의 시기로 볼 때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보존·관리할 만한 가치와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보존·관리할 만한 가치와 수준은 충분하므로 차후 木板保存修理專門家의 保存修理를 거쳐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자 한다.

○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은, 정조 15(1791)년에 全羅道 靈光郡 거주 完山府院君 李天祐(?~1417)의 후손인 進士 李以錫(正祖朝 人物)에 의하여 제작된 <三功臣會盟錄 木板>와 함께 전해져 온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 유사 이응도들의 모본이 될 것이라 보인다.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유취기(兪最基; 1689-1768)의 찬문이 있는 이응도는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로 조선초기의 매 그림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전주 이씨 양도공(襄度公) 문중의 역사는 물론 판각술(板刻術) 및 회화사 연구에 가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는 미흡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로 권고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二鷹圖贊 木板>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二鷹圖 / 全州李氏 襄度公派 宗中 編. -- 木板. -- [全南 靈光郡] :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 ; 李以錫], [正祖 15(1791) 推定].

1板(兩面) : 鷹圖 ; 86.0×45.2-45.6×2.5 cm. 松木. 陽刻.

上段: 86.0×39.8-41.5×2.5 cm

下段: 86.0×45.2-45.6×2.5 cm

前面題名: 太宗大王御賜蘆花松鵲圖

前面贊文: 贊/ 辭土典而受鷹準清操孤高 命工手而開/ 龍眠 聖慮弘遠雲霄整翮之姿帶礪/ 同盟之券流傳三百年餘想像當日 / 恩數[之縑繆] 丁卯(英祖 23, 1747)初秋俞叡基(1689~1768)敬書

後面題名: 太宗大王御賜白松鵲圖

後面贊文: 贊/ 金眸雪瓜別是 九重之心睨丹書玉軸留映七分之眞像/ 中值回祿之災改換繼韜之狀 快氣橫秋猶存逐鳥雀/ 之意美蹟曠世尙憶攀龍鱗之勳短句之題此意誠勤

別 板: 跋文(32.5×22.5×20.0cm)

內 容: 태종 16(1416)년에 完山府院君 李天祐(?~1417) 장군이 일체의 官職에서 물러날 때 국왕이 그 功績을 致賀하여 畫工으로 하여금 蘆花松鵲圖와 白松鵲圖를 모사하여 하사한 <二鷹圖>를 後代 正祖 15(1791)년에 完山府院君의 후손인 全州 李以錫(正祖朝人物)에 의하여 板刻된 것으로 추정되는 <二鷹圖> 木板이다

傳來歷: 2009년 7월 16일에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이 <李天祐影幀>·<三功臣會盟錄木板>·<二鷹圖木板> 등을 비롯한 8건 20점의 유물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함에 따라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保 存: 木板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良好한 편이다.

跋 文: 右昔我/ 太宗大王在 永樂二(太宗 4, 1404)年與諸功臣會盟軸而 御賜先祖臣一本也今經三百八/ 十有八年字畫間多剝缺而惟 御諱寶墨尙新神明呵護吁可異矣當時同盟/ 之臣似必遍蒙頒賜而周問京鄉勳臣後孫未聞有留存處或恐此軸之久而亦/ 泯茲敢模寫鈔梓以爲廣布壽傳之地而元本中諸勳臣姓字下只有者署故攷諸/ 勳籍追填名字以備考覽爾辛亥(正祖 15, 1791)仲春完山君臣李天祐後孫臣以錫拜手謹書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白鷹圖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蒼鷹圖

□ 現 狀 :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은 2009년 7월 16일에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이 <李天祐影幀>·<三功臣會盟錄木板>·<二鷹圖木板> 등을 비롯한 8건 20점의 유물을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의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함에 따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의 현재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李天祐의 본관은 全州이고 諡號는 襄度이며, 태조 李成桂의 조카이다. 공민왕

18(1369)년에 野人東寧府의 首領으로 있다가 李成桂 휘하에 들어가 여러 번 왜구를 토벌하였고 태조 원(1392)년에 朝鮮開國에 공을 세웠다. 태조 3(1394)년에 商議中樞院事, 태조 5(1396)년에 江原道助戰節制使, 태조 7(1398)년에 中樞院同知事가 되었으며 同年에 제1차 왕자의 난에 芳遠(太宗)을 도와 定社功臣 2등으로 完山侯에 봉해졌다. 정종 2(1400)년에 中樞院判事를 거쳐 三軍府知事 때 제2차 왕자의 난(芳幹의 난)에 공을 세워 佐命功臣 2등이 되고 安州道節制使를 역임한 뒤 태종 3(1403)년에 完山君에 改封되었다. 判司平府事를 거쳐 태종 7(1407)년에 正朝副使로 明朝에 다녀왔고 이듬해(1408) 議政府 贊成事가 되고 태종 9(1409)년에 兵曹判書로 都鎭撫都摠制를 겸했다. 후에 義興府判事에 이어 재차 贊成事가 되어 判義勇巡禁司事를 겸했다. 태종 13(1413)년에 吏曹判書가 되고 西北面都體察使로 나갔다. 태종 14(1414)년에 完山府院君에 進封되고 義禁府都提調를 거쳐 贊成事가 되었다. 태종의 廟庭에 배향되고 靈光의 畝長影堂에 祭享되었다.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家에 전하는 李文彩 編의 「畝長書院誌」 권1에 의하면, <二鷹圖>는 태종 16(1416)년에 完山府院君이 일체의 官職에서 낙향할 것을 아뢰자 태종은 그의 功績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畫像과 함께 특별히 기름진 땅과 노비 등을 하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完山府院君은 항상 매(鷹) 2마리를 옆에 두고 아끼며 매사냥을 즐겨하는 태종이 매사냥에 빠져 政事를 그르칠 것을 걱정하여 곧이 국왕 소유의 蘆花松鶻과 白松鶻의 2마리 매를 하사할 것을 원하자, 이에 태종은 즉시 畫工에게 명하여 蘆花松鶻과 白松鶻의 <二鷹圖>를 그리게 하고 친히 御筆로 畫題를 써서 하사하였다. 이에 完山府院君의 後孫들이 대대로 影幀과 <二鷹圖>를 보관해 오다가 完山府院君의 曾孫인 부사맹 李孝常(?~?)이 潭陽으로부터 靈光 묘량면 영양리 당산마을로 移住·定着하면서 不祧廟를 건립하고 影幀과 함께 유품(褒寵教旨, 二鷹圖, 功臣會盟軸 등)을 보존하였다고 전한다. 이후 광해군 8(1616)년에 鄉內 儒林과 함께 뜻을 모아 현 소재지에 影堂을 세우고 影幀을 移安하여 配享하였다는 기록이 李文彩 編의 「畝長書院誌」 권1의 <影堂사기>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면서 이들이 손상되자 影幀은 영조 50(1774)년에 조정에서 朴師海(1711~1778)와 화사 韓宗裕(1737~?)를 파견하여 다시 그리도록 하였는데, 韓宗裕는 영조·정조 때 초상화가로 유명한 도화서의 화원이었다.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의 前面의 題名은 “太宗大王御賜蘆花松鶻圖”이고 “贊 / 辭土典而受鷹準清操孤高 命工手而開 / 龍眠 聖慮弘遠雲霄整翮之姿帶礪 / 同盟之券流傳三百年餘想像當日 / 恩數[之縑綵] 丁卯(영조 23, 1747)初秋俞叡基(1689~1768)敬書”의 贊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後面의 題名은 “太宗大王御賜白松鶻圖”이고 “贊 / 金眸雪瓜別是 九重之心貺丹書玉軸留映七分之眞像 / 中值回祿之灾改換繼鞫之狀快氣橫秋猶存逐鳥雀 / 之意美蹟曠世尙憶攀龍鱗之勳短句之題此意誠勤”의 贊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英祖 23(1747)년에 自樂軒 俞叡基(1689~1768)가 지은 贊文이다.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은 정조 15(1791)년에 全羅道 靈光郡 거주 完山府院

君 李天祐(?~1417)의 후손인 進士 李以錫(正祖朝人物)이 <二鷹圖>가 頹落하자 이를 영구히 보존할 방안으로 木板에 板刻한 후에 여러 부수를 印出하여 후손에게 廣布함으로써 선조의 功勳事實을 널리 알리려는 奉先事業의 일환으로 제작한 木板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李以錫에 의하여 제작된 <三功臣會盟錄 木板>의 別板에 수록되어 있는 “右昔我/ 太宗大王在 永樂二(태종 4, 1404)年與諸功臣會盟軸而 御賜先祖臣一本也今經三百八/ 十有八年字畫間多剝缺而惟 御諱寶墨尙新神明呵護吁可異矣當時同盟/ 之臣似必遍蒙頒賜而周問京鄉勳臣後孫未聞有留存處或恐此軸之久而亦/ 泯茲敢模寫鉅梓以爲廣布壽傳之地而元本中諸勳臣姓字下只有者署故攷諸/ 勳籍追填名字以備考覽爾辛亥(正祖 15, 1791)仲春完山君臣李天祐後孫臣以錫拜手謹書/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白鷹圖/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蒼鷹圖”의 跋文 末尾의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二鷹圖>의 목판에 새겨진 贊文의 刻字技法 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은 조선시대의 繪畫史 研究 뿐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 正祖朝의 木板의 板刻術 및 木板印刷文化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은 조선시대 후기의 정조 15(1791)년에 제작되어 그 제작의 시기로 볼 때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보존·관리할 만한 가치와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보존·관리할 만한 가치와 수준은 충분하므로 차후 木板保存修理專門家의 保存修理를 거쳐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자 한다.

○ 지정사례

<二鷹圖>와 관련된 木板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아직 없다.

○ 문헌자료

- 李文彩 編, 「畝長書院誌」, 石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969.
-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功臣都監], [太宗 4(1404)]
- 朴文烈,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9輯. 서울: 書誌學會, 2011. pp. 5-39.
- 朴文烈,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2輯. 서울: 書誌學會, 2012. pp. 39-69.
- 朴文烈, “「同盟錄」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4輯. 서울: 書誌學會, 2006. pp.37-61.
- 朴文烈, “「同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2輯. 서울: 書誌學會, 2005. pp.513-535.
- 윤종균,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 寄贈 遺物에 대한 一考察”, 동원학술논문집. 서울: 國立中央博物館, 2010.

□

○ 현상

□ 이미지: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의 앞뒤로 글과 그림이 새겨져 있다.

가장 위에는 한 줄로 전서체의 그림제목, 화면 중앙에는 각각 매 한 마리 - 한 면은 털색이 짙은蒼鷹, 또 다른 면은 털색이 하얀白鷹)가 봉모양의 햇대에 앉아 있는 모습, 매의 좌우측에 贊(유취기가 씌)이 새겨져 있다.

□ 書誌記述 : 조사문화재 <二鷹圖 (木板)>의 서지기술(그림 위 제목과 매 좌우의 찬)은 다음과 같다.

太宗大王御賜白松鵠□□ (畫像)

贊

金眸雪爪, 別是九重之心貺; 丹書玉軸, 留映七分之眞像.
中值回祿之灾, 改貌繼鞿之狀, 快氣橫秋, 猶存逐鳥雀之意;
義蹟曠世, 尚憶攀龍鱗之勳. 短句之題, 此意誠勤.

태종대왕이 하사한 백송골 □□(그림)에 대한 찬문

금빛 눈동자 새하얀 발톱은, 구중궁궐 성상의 마음을 담은 하사품이요, 공신녹권과 옥으로 만든 축은 칠분의 초상을 아직도 비추고 있네. 중간에 화재를 만나 새로 그리고 장황한 형상으로 말하자면, 가을 하늘을 가르는 호쾌한 기세는 아직도 새를 뒤쫓는 뜻이 있고 세상에 드문 의로운 자취는 오히려 옛 임금을 좇아 공훈을 세우던 때를 추억하게 한다. 짧은 글로 그림에 쓰지만 그 뜻은 진실하고 간절하다.

太宗大王御賜蘆華鵠□□ (畫像, 여기서 앞 □는 글자가 누락)

贊

辭土田而受鷹隼, 清操孤高; 命工手而開龍眠, 聖慮弘遠.
雲宵整翮之姿, 帶礪同盟之券, 流傳三百年餘, 想像當日恩數.
丁卯 抄秋, 俞竄基 敬書.

태종대왕이 하사한 노화골(蘆華鵠) □□그림에 대한 찬문

토지와 밭을 사양하고 매를 받았으니 맑은 지조가 홀로 높고, 뛰어난 화공에게 명하여 그림으로 그려내니 성상의 사려가 넓고도 멀도다. 높은 하늘 위 깃털을 가지런히 한 자태의 매 그림과 공신의 후손을 영원히 보존하리라 맹세한 문서가 삼백년이 넘게 전해져 왔으니 지난날 그 은혜를 상상할 수 있으리라. 정묘년 늦가을(9월)에 유취기는 공경히 쓴다.

목판의 앞뒤로 매 그림이 새겨져 있고 贊이 함께 새겨져 있다. 이 찬은 모두 유취기(兪翫基, 1689~1768)가 쓴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다른 여타 유사 이용도 목판(목판 혹은 목판으로 찍은 그림)은 다음과 같다.

필자미상, <백응(白鷹)><청응(靑鷹)>, 동경국립박물관 오구라컬렉션



지본 판화에 채색 97.1 x 53.3cm

필자미상, <이용도>
(일본 개인소장)

필자미상, <창응도> <백응도> 개인소장



목판



판화도, 81.8 x 54.7cm (김호연, 한국민화 소재)

목판이 없이 목판을 보고 그린 듯 회화작품으로 전하는 것으로는, 필자미상의 동방화랑 소장의 <창응도>와 조선미 교수가 소개한 <이용도> 등이 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창응도> 유취기 찬, 지본수
 목담채, 117 x 71cm, 동방화당
 『韓中古書畫名品選』(東方畫
 廊) 195쪽에 실림

필자미상, <二鷹圖>, 관지에 병자년(1816, 1876) 李00 가 그렸다는 기록 보이나, 미정.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형과 영의 세계』 ‘이천우’ 편에 실림 (435쪽)

○ 문헌자료

- 기본 참고문헌은 <三功臣會盟錄 木板>의 참고문헌 참조.
 金膺顯 外, 『韓中古書畫名品選』 서울: 東方畫廊, 1997, p.195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形과 影의 세계』 돌베개, 2009, p.435.
 고연희, 「동아시아 회화의 複製와 派生에 대한 일고찰, -徽宗의 매그립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3, 2013. pp.10-24.



○ 형 식

二鷹圖 / 李以錫 編. -- 木板. -- 靈光郡(全南) :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 正祖 15(1791).

1板(兩面) : 鷹圖, 松木, 陽刻 ; 86.0×45.2-45.6×2.5 cm.

上段: 86.0×39.8-41.5×2.5 cm

下段: 86.0×45.2-45.6×2.5 cm

前面題名: 太宗大王御賜蘆花松鶻圖

前面贊文: 贊/ 辭土典而受鷹準清操孤高 命工手而開/ 龍眠 聖慮弘遠雲霄整翮之姿帶
 礪/ 同盟之券流傳三百年餘想像當日 / 恩數[之縑綵] 丁卯(英祖 23, 1747)初秋俞叡基
 (1689~1768)敬書

後面題名: 太宗大王御賜白松鶻圖

後面贊文: 贊/ 金眸雪瓜別是 九重之心貺丹書玉軸留暎七分之眞像/ 中值回祿之灾改
 換繼鞵之狀快氣橫秋猶存逐鳥雀/ 之意美蹟曠世尙憶攀龍鱗之勳短句之題此意誠勤

○ 현 상



<二鷹圖 前面>



<二鷹圖 後面>

전면(前面)에는 백응도, 뒷면에는 창응도가 판각되어 있으며, 판각한 때의 모습이 뚜렷하고 판의 자체도 뒤틀림 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본 이응도는 태종이 양도공(襄度公) 이천우(李天祐; 1354-1417)에게 하사한 <어사 이응도(御賜二鷹圖)>이다. 이천우는 본관이 전주(全州)로 이성계의 서형(庶兄)인 이원계(李元桂)의 둘째아들이다. 태종 16년 이천우는 늙어서 더 이상 정사를 볼 수 없어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올리자 태종이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의 초상화와 이응도(二鷹圖)를 하사하였다. 하사 받은 이응도는 그의 후손이 간직하다가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목판으로 판각하고 전라남도 영광의 영당사(影堂祠; 현 畝長書院)에 소장하여 관리해왔다.(영당사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중건하였으며, 철종조에 묘장서원(畝長書院)으로 개명되었다. 묘장서원(畝長書院)은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그의 후손들에 의해 1934년 다시 중건되었다.)

그 후 종가(宗家)에서 관리하다가 1987년 6월 1일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7월 16일 전주이씨 양도공파 宗中이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한 자료이다.

자료의 내용 및 특징을 보면, 목판 1종에 앞면은 ‘백응도(白鷹圖)’ 뒷면에는 ‘창응도(蒼鷹圖)’가 판각 되었다. 판의 크기는 상변 39.8 x 86cm, 하변 45.6 x 86cm, 두께 2.5cm.이다. 앞면의 판두(版頭)에는 ‘太宗大王御賜白松鶻畫謹’이란 문구가

전각으로 새겨졌으며, 그 아래에 백매(노화송골매), 뒷면의 판두에는 ‘太宗大王御賜蘆花鵲謹’이라는 문구와 청매가 새겨져있다. 백매는 깃털 부분을 음각, 청매는 양각으로 처리하였으며, 각 원편에 영조 23년(1747)에 쓴 유최기(兪最基; 1689-1768)의 찬문(贊文)이 판각되어 있다.

○ 문헌자료

-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 李文彩 編, 「畝長書院誌」. 石版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1969.
-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 [功臣都監], [太宗 4(1404)]
- 朴文烈,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2輯. 서울 : 書誌學會, 2012. pp. 39-69.
- 朴文烈, “「同盟錄」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4輯. 서울 : 書誌學會, 2006. pp.37-61.

○ 기 타

<二鷹圖>은 정조 15년(1791)에 이천우(李天祐; 1354-1417)의 후손에 의해 판각되었다. 이 판본은 전주 이씨 양도공파 종중(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이 영광의 묘장서원(畝長書院) 불조묘(不祧廟)에 보관하여 관리하다가 2009년 7월 16일에 <이천우영정(李天祐影幀)>·<이응도(二鷹圖)>·<회맹축(會盟軸)>등 유물 20점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한 자료이다.

8. 삼공신회맹록 목판 (三功臣會盟錄 木板)

가. 검토사항

‘삼공신회맹록 목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2014.10.15.)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1987.6.1)]
- 명 칭: 삼공신회맹록 목판 (三功臣會盟錄 木板)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 수 량: 1판(2片)
- 규격(cm): 세로 69.5(69.5) × 가로 121.0(105.5) × 두께 20.0-2.5
- 재 질: 소나무(松木)
- 형 식: 목판(木板)
- 제작연대: 1791년(정조 15년) 추정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三功臣會盟錄>은 태종 4(1404)년 11월 16(갑인)일에 開國·定社·佐命 등 三功臣들이 大清觀 북쪽에서 모여 會盟한 기록이며,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 木板>은 정조 15(1791)년에 全羅道 靈光郡 거주의 完山府院君 李天祐(?~1417)의 후손인 進士 李以錫(正祖朝人物)에 의하여 제작된 목판이다.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은 功臣과 會盟錄의 研究 뿐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의 人物史研究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며, <三功臣會盟錄 木板>은 조선시대 正祖朝의 木板의 板刻術 및 木板印刷文化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 木板>은 조선시대 후기의 정조 15(1791)년에 제작되어 그 製作의 시기로 볼 때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보존·관리할 만한 가치와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보존·관리할 만한 가치와 수준은 충분하므로 차후 木板保存修理專門家の 保存修理를 거쳐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자 한다.

○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軸 木板>은 1404년(태종 4) 11월 16일에 개국·정사·좌명 등 삼공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會盟祭를 거행하고 회맹문과 공신 명단을 기록한 삼공신회맹축의 목판이다. 이는 회맹제를 거행하고 공신들에게 삼공신회맹축을 하사한 원 형태는 아니다. 삼공신회맹제에 참석했던 李天祐(?~1417)가 하사받은 회맹축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훼손이 심하여 1791년(정조 15)에 그의 후손가에서 원본의 내용과 형태를 그대로 模寫하여 나무에 판각하여 제작한 木板이다.

본 목판은 정조대 제작 당시의 跋文이 함께 목판으로 남아 전하고 있어 제작 배경 및 경위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원래 형태에서 수정한 사항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삼공신회맹축의 원래 형태를 파악하고 현재 전하는 여타의 삼공신회맹축들의 제작 연대를 밝히는 데 주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다만 회맹제 당시의 원본이 아니고, 제작 시기 또한 18세기 말로 뒤떨어지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여타의 삼공신회맹축들이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

<삼공신회맹축(三功臣會盟錄)>은 태종 4(1404)년 11월 16(갑인)일에 삼공신(三功臣)들이 대청관(大清觀) 북쪽에 모여 제사를 모시고 서로 맹서한 뒤 서명한 내용이다. 본 회맹축은 각자 한 부씩 나누어 갖고 가문의 영광으로 삼았다. 그 후 각 문중에서는 영구히 보존할 목적으로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한 뒤 인본과 목판을 보존하여 왔다. 현재 인본은 일부 가문에서 간간히 발견되고 있으나 목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문화재 이천우(李天祐; 1354~1417)의 <삼공신회맹축(三功臣會盟軸)>은 정조 15(1791)년에 전라남도 영광군(全羅南道 靈光郡) 거주인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의 후손인 이이석(李以錫)에 의하여 제작된 목판으로 유일하다.

본 목판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관리 소홀로 상판과 하판이 분리되어 있으며, 습기조절이 되지 않아 서로 뒤틀림이 심한 편이다. 또한 먹이 행간과 문자 사이에 묻쳐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본 조사문화재는 조선초 삼공신의 인물 및 문화사 연구와 지방의 판본 기술 및 출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지방의 특색을 인정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유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유형문화재로 권고

조사보고서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三功臣會盟錄 木板>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三功臣會盟錄 木板 / 功臣都監 編. -- 木板. -- [全南 靈光郡] :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 ; 李以錫], [正祖 15(1791) 推定].

1板(2片) : 手決, 四周單邊, 全郭 69.5×105.5cm, 界線, 2段, 行字數不定, 無板口, 無魚尾 ; 69.5×121.0×20.0-2.5cm. 松木. 陽刻.

上段會盟文: 全郭 40.0×105.5cm, 36行 字數不定

下段會盟功臣名單: 全郭 29.5×105.5cm, 66行 字數不定

白匡文: 國王臣李 芳遠(6.8×4.1cm)

別 板: 跋文(32.5×22.5×20.0cm)

本 文: 有歲次甲申(太宗 4, 1404)十一月己亥朔十六日甲寅 朝鮮國王臣李[諱] 謹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 敢 昭告于皇天上帝·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伏以國之有君臣朋友 猶家之有父子兄弟 當以忠信誠慤 固結其心 永保終始 況乎要質鬼神 敵血同盟者哉 惟我太上王 以神武之資 獲天人之助 而予小子亦克左右 彌成大業 開國之初 首與勳臣同盟 以固忠信 不期權奸 懷私背盟 分明造黨 挾幼奪嫡 謀害我兄弟 將危我宗社 幸賴天地宗社陰鷲之佑 忠賢奮義 兇徒自潰 以嫡以長 扶立上王 天倫是正 宗社再定 又與勳臣 同結盟好 未幾 讒邪復背其盟 構讐鬪墻 稱兵作亂 親勳將相 應機勘定 罪人斯得 既伏厥辜 是則違盟必戮 現有徵驗 可不懼哉 逮予小子繼位之後 又與佐命之臣 同盟敵血 期與保全 于茲有年 自是三盟之臣 協心輔我 式至今休 凡有慶弔相與赴集 可謂和洽無間

矣 尙慮前後不與同盟者 其心猶以爲未固也 特涓吉日 乃會三盟之臣 昭告上下神祇 更尋前盟 以固其志 自今旣盟之後 各自勉勵 異體同心 忠誠相信 恩愛相好 親如骨肉 堅如金石 殫誠竭忠 夾輔王室 忘其私憾 惟順公道 常以安社稷利國家爲念 孜孜協力 終始無變 永享福祿 共保安榮 世世子孫 無忘今日 苟有匿私挾邪 渝盟背好 潛懷疑貳 外親內忌 搆讒造孽 分朋結黨 陰圖傾覆 誣陷同盟者 是欺天地慢鬼神背君父也 幽則必有神誅 明則必有王法 非止其身 殃及子孫 有犯關係社稷者 當以法論 亦如前盟所載 是皆自取 其誰之咎 天地神明 昭布在上 各欽誓言 永勉無忽 謹以清酌大牢式 陳明薦尙饗 國王臣李 芳遠 以下 參與功臣 66人의 名單이 收錄되어 있음

內 容: 太宗 4(1404, 甲申)年 11(己亥)月 16(甲寅)日에 開國·定社·佐命 三功臣 66人이 大清觀 북쪽에서 거행한 三功臣會盟祭의 會盟錄을 卷軸으로 제작하여 下賜한 <三功臣會盟軸>을 後代 正祖 15(1791)年에 完山府院君 李天祐(?~1417) 장군의 후손인 全州 李以錫(正祖朝人物)에 의하여 板刻된 것으로 추정되는 會盟錄 木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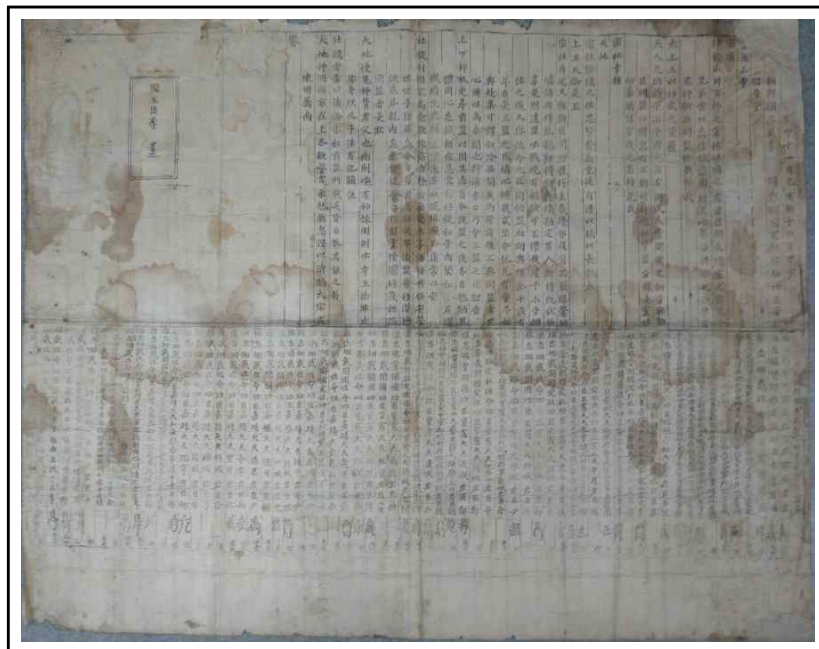
傳來歷: 2009년 7월 16일에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이 <李天祐影幀>·<三功臣會盟錄木板>·<二鷹圖木板> 등을 비롯한 8건 20점의 유물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함에 따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保 存: 木板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原形은 유지되고 있으나 接木된 部分들이 분리됨으로써 2片으로 구별되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印出에 사용한 후에 殘墨을 닦아내고 乾燥하는 등의 事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殘墨이 行間과 字間에 찍여 져있다. 또한 濕氣調節이 되지 않아 板木의 뒤틀림과 龜裂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跋 文: 右昔我/ 太宗大王在 永樂二(太宗 4, 1404, 甲申)年與諸功臣會盟軸而 御賜先祖臣一本也今經三百八/ 十有八年字畫間多剝缺而惟 御諱寶墨尙新神明呵護吁可異矣當時同盟/ 之臣似必遍蒙頒賜而周問京鄉勳臣後孫未聞有留存處或恐此軸之久而亦/ 泯茲敢模寫鈔梓以爲廣布壽傳之地而元本中諸勳臣姓字下只有者署故攷諸/ 勳籍追填名字以備考覽爾 辛亥(正祖 15, 1791)仲春完山君臣李天祐後孫臣以錫拜手謹書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白鷹圖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蒼鷹圖



<三功臣會盟錄木板>의 印本形態

□ 現 狀 :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 木板>은 2009년 7월 16일에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이 <李天祐影幀>·<三功臣會盟錄木板>·<二鷹圖木板> 등을 비롯한 8건 20점의 유물을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의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함에 따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 木板>의 현재 상태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원형은 유지되고 있으나 接木된 부분들이 분리됨으로써 2판으로 구별되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印出에 사용한 후에 殘墨을 닦아내고 乾燥하는 등의 事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殘墨이 行間과 字間에 떡이 져있다. 또한 濕氣調節이 되지 않아 板木의 뒤틀림과 龜裂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차후 木板保存修理專門家에 의한 保存修理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초기의 三功臣은 太祖를 도와 朝鮮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開國功臣과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새로운 政權基盤을 마련하고 宗社를 보존하는데 공을 세운 定社功臣 및 太宗이 國王으로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佐命功臣을 지칭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에 공신들의 집단 모임인 功臣會盟의 경우 太祖朝에는 태조 원(1392)년에 開國功臣에게 宴會를 베풀고 王輪洞에서 會盟한 것을 시작으로 5차에 걸쳐 會盟·宴會·獻壽한 바 있고 定宗朝에는 정종 즉위(1398)년 10월에 定社功臣 29인을 거느리고 會盟한 것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會盟·宴會한 바 있으며, 太宗朝에는 태종 즉위(1400)년 11월에 開國功臣과 定社功臣들이 上王殿과 主上殿에 獻壽한 것을 시작으로 16차에 걸쳐 獻壽·會盟·宴會·供饋한 바 있었다. 그러나 三功臣이 함께 會盟한 것은 태종(1404)년 11월 16(갑인)일에 大清觀 북쪽에서 거행된 會盟뿐이다.

<三功臣會盟錄>은 태종 4(1404)년 11월 16(갑인)일에 開國·定社·佐命 등 三功臣들이 大清觀 북쪽에서 모여 會盟한 기록으로 당시 태종은 會盟文에 署押은 하였으나 會盟祭에 親臨하지는 않았으며, 會盟祭에는 監司와 邊鎮·州·牧의 地方官들까지도 모두 참여하였다. 會盟祭가 끝나고 공신들이 詣闕하자 태종은 공신들에게 각각 表裏를 하사하고 無逸殿으로 나아가 宴會를 베풀어 공신들을 위로하였다.

<三功臣會盟錄>의 會盟文은 국왕이 공신들과 함께 犧牲物로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피를 입술에 발라 ‘黃河가 띠(帶)와 같이 좁아지고 泰山이 솟돌(礪)과 같이 닳도록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誓約을 꼭 지키자!’는 丹心の 盟誓文이며,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과 「太宗實錄」에 수록되어 있는 同日의 會盟文과는 字句에서 다소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나,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의 記錄이 「太宗實錄」에 수록된 同日의 會盟文 기록보다 훨씬 자세하다.

太宗 4(1404)년 11월 16(갑인)일에 大清觀 북쪽에서 거행된 三功臣會盟祭에서 사용된 본 會盟文의 내용은 餘他の 會盟文의 내용과 크게 다른 바 없다. <三功臣會盟錄>에 수록된 會盟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歲 갑신(1404)년 11(기해)월 16(갑인)일에 朝鮮國王 臣 李芳遠은 삼가 開國·定社·佐命功臣 등을 거느리고 감히 皇天의 上帝·宗廟·社稷과 山川百神의 神靈께 밝게 告하나이다! 엇드려 생각건대 나라에 君臣과 朋友가 있는 것은 家庭에 父子와 兄弟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마땅히 忠誠·信義·誠實로 그 마음을 굳게 맺어 길이 終始를 보존해야 하는 것인 바, 하물며 鬼神에게 要節하고 飢를 마시고 同盟하는 人士들이겠나이까! 생각건대, 우리 太上王은 神武한 資質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었으며, 小子도 左右에서 輔弼하여 큰 基業을 이루었나이다! 開國 초에 먼저 勳臣과 더불어 同盟하여 忠誠과 信義를 굳게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權奸이 私心을 품고 盟誓를 저버리고 朋黨을 만들고 幼穉을 끼고 嫡統을 빼앗아 우리 兄弟를 해치기를 도모하여 장차 우리 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다행히 天地와 宗社의 蔭德의 도움으로 충성스럽고 어진이가 義로 奮發하자 흉도도 스스로 潰滅되었나이다! 嫡長子로서 上王을 扶腋하여 擁立하니 天倫이 이에 바르게 되고 宗社가 다시 安定되었나이다! 또한 勳臣과 더불어 같이 盟好를 맺은지 얼마 되지 않아 奸邪한 이가 다시금 그 盟誓를 저버리고 釁端을 엮어 집안끼리 싸우게 하여 舉兵하여 叛亂을 일으켰으나, 勳親과 將相이 시기에 응하여 平定하여 罪人은 곧 잡아 이미 그 罪를 伏罪하였나이다! 이것은 盟誓를 어기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徵驗으로 나타난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나이까! 小子가 王位를 계승한 뒤에도 또한 佐命한 臣下와 더불어 同盟하여 飢를 마시고 더불어 保命할 것을 기약한지 벌써 여러 해이나이다! 이때부터 三盟의 臣下가 마음을 합하여 저를 輔弼하여 이에 지금까지 平安할 뿐 아니라 慶弔가 서로 더불어 赴集하였으니, 和合에 틈이 없었다고 할 것이나이다! 일찍이 전후로 同盟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未安할까 염려하여, 특별히 吉日을 가려서 이에 三盟의 臣下를 모아 上下의 神祇께 밝게 告하고 다시금 전의 盟誓를 찾아서 그 뜻을 굳게 하려나이다! 지금부터 이미 盟誓한 후에는 각각 스스로 勉勵하여 異體同心하며, 忠誠으로 서로 믿고 恩愛로 서로 좋아하며, 親愛를 骨肉같이 하며, 굳건하기를 金石같이 할 것이나이다! 精誠과 忠誠을 다하여 王室을 夾輔하며, 그 私憾을 잊고 오로지 公道에 따르며, 항상 社稷의 平安과 國家가 이로워지기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協力하여 終始 변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福祿을 누리면서 함께 安全과 榮華를 보존하여 世世子孫이 결코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나이다! 진실로 私情을 품고 奸邪한 마음을 끼거나, 盟誓를 어기고 和好를 저버리거나, 몰래 疑心하여 두 마음을 품거나,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속으로는 꺼려하거나, 讒言을 꾸며 釁端을 만들거나, 朋黨을 나누어 結黨하거나, 나라의 傾覆을 꾀하거나, 同盟한 이를 誣陷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天地를 속이고 鬼神을 업신여기며 君父를 배신하는 것이니, 죽어서는 반드시

神誅의 罰酒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는 반드시 王法이 있어 罪가 그 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災殃이 子孫에까지 미칠 것이나이다! 社稷에 관계된 죄를 범하는 자는 마땅히 法으로 論하며 또한 전의 盟誓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리니, 이는 모두 自取하는 것일 뿐 그 누구의 허물이겠나이까! 天地神明께서 위에 밝게 布列하여 있으시니, 각기 盟誓한 말을 恭敬하여 永遠히 힘쓰고 疏忽하지 않을 것이나이다! 삼가 清酌과 大牢를 法式대로 陳設하고 明薦하여 欽尙하오니 歆饗하소서!

國王 臣 李芳遠

조선시대 초기의 開國·定社·佐命 등 三功臣에 녹훈된 실제의 공신은 99인에 이르나, 太宗 4(1404)년 11월 16(갑인)일의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한 공신은 66인이었다. 이는 「太宗實錄」의 同日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三功臣會盟祭의 參與功臣 名單>

號	功臣名	功 臣 號	君 號	開國	定社	佐命	手決	備 考
01	權 近	推忠翊戴佐命	吉昌君	-	-	4	有	
02	金 輅	推忠翊戴開國定社	延城君	3	2	-	無	
03	金士衡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	上洛府院君	1	1	-	無	
04	金承霖	推誠翊戴佐命	麗山君	-	-	4	無	
05	金英烈	推忠翊戴佐命	義城君	-	-	3	無	
06	金 宇	推誠翊戴佐命	熙川君	-	-	4	無	
07	金定卿	推忠翊戴佐命	蓮城君	-	-	4	有	
08	南 在	純忠奮義開國	宜寧君	1	-	-	有	
09	馬天牧	推忠翊戴佐命	會寧君	-	-	3	有	
10	文 彬	翊戴佐命	[越川君]	-	-	4	有	
11	閔無咎	推忠靖難定社佐命	驪江君	-	2	1	有	
12	閔無疾	推忠翊戴靖難定社佐命	驪城君	-	2	1	有	
13	閔汝翼	推忠翊戴開國	驪川君	3	-	-	無	
14	朴錫命	翊戴佐命	[平陽君]	-	-	3	有	
15	朴 晄	推誠翊戴佐命	潘城君	-	-	3	無	
16	徐 愈	推誠翊戴佐命	利城君	-	-	4	無	
17	徐 益	推誠翊戴佐命	麻城君	-	-	4	無	
18	成石璘	輸忠同德翊戴佐命	昌寧府院君	-	-	3	有	
19	孫興宗	推忠翊戴開國	杆城君	3	-	-	無	
20	宋居信	翊戴佐命	[礪良君]	-	-	4	有	
21	辛克禮	推忠靖難定社佐命	鷲山君	-	2	1	無	
22	沈龜齡	推忠翊戴佐命	豐川君	-	-	4	有	
23	沈 淙	推忠協贊靖難定社	靑原君	-	2	-	有	棕
24	安景恭	推忠翊戴開國	興寧君	3	-	-	無	
25	延嗣宗	推忠翊戴佐命	谷城君	-	-	4	有	
26	吳思忠	推忠翊戴開國	寧城君	3	-	-	無	
27	柳 亮	推忠翊戴佐命	文城君	-	-	4	有	
28	劉 敞	推忠協贊開國	玉川君	2	-	-	有	敬
29	柳 沆	推忠翊戴佐命	瑞寧君	-	-	3	有	沂
30	尹 坤	推忠翊戴佐命	坡干君	-	-	3	無	
31	尹 穆	輸忠翊戴佐命	原平君	-	-	4	無	

32	尹子當	推忠翊戴佐命	漆原君	-	-	4	有	
33	尹 柢	推忠翊戴佐命	漆城君	-	-	3	有	
34	李 來	推忠奮義佐命	雞城君	-	-	2	有	
35	李 茂	奮忠仗義靖難定社佐命	丹山府院君	-	1	1	有	
36	李福根	推忠協贊靖難定社	奉寧君	-	2	-	有	
37	李 敷	推忠翊戴開國	興城君	3	-	-	有	
38	李 舒	推忠翊戴同德開國	安平府院君	3	-	-	有	
39	李 淑	輸忠翊戴佐命	完川君	-	-	3	有	
40	李叔蕃	推忠靖難定社佐命	安城君	-	2	1	有	
41	李升商	翊戴佐命	[鷄林君]	-	-	4	有	
42	李良祐	推忠協贊靖難定社	寧安君	-	2	-	有	
43	李 原	推誠翊戴佐命	鐵城君	-	-	4	無	
44	李 膺	翊戴佐命	[永陽君]	-	-	4	有	
45	李從茂	推忠翊戴佐命	通原君	-	-	4	有	
46	李 稷	推忠翊戴開國佐命	星山君	3	-	4	有	
47	李天祐	推忠靖難定社佐命	完山君	-	2	2	有	
48	李 和	同德奮義開國靖難定社佐命	義安大君	1	1	2	無	
49	張思吉	純忠奮義開國定社	花山君	1	2	-	有	
50	張思靖	推忠翊戴開國定社	花城君	3	2	-	無	
51	鄭龍壽	推忠協贊開國	長城君	2	-	-	有	
52	鄭 擢	純忠奮義開國定社	淸城君	1	2	-	無	
53	趙 狷	推忠協贊開國	平城君	2	-	-	有	
54	趙 璞	奮忠仗義開國定社佐命	平原君	1	1	4	無	
55	趙 涓	推忠翊戴佐命	漢平君	-	-	4	有	卿
56	趙英茂	奮忠仗義開國靖難定社佐命	漢山府院君	3	1	1	有	
57	趙 溫	推忠協贊開國定社佐命	漢川君	2	2	4	無	
58	趙 浚	奮忠仗義同德開國靖難定社	平壤府院君	1	1	-	無	
59	趙希閔	推忠翊戴佐命	干陽君	-	-	3	無	平川
60	河 崙	奮忠仗義靖難定社佐命	晉山府院君	-	1	1	有	
61	韓 珪	推忠翊戴佐命	沔城君	-	-	4	有	
62	韓尙敬	推忠翊戴開國	西川君	3	-	-	有	
63	咸傅霖	推忠翊戴開國	東原君	3	-	-	無	成
64	洪吉旼	推忠協贊開國	南陽君	2	-	-	無	
65	洪 恕	推忠翊戴佐命	陽城君	-	-	4	有	
66	黃居正	推忠翊戴開國佐命	義原君	3	-	3	有	
合計				25	20	44	41	

三功臣會盟祭에는 開國功臣 13인, 定社功臣 3인, 佐命功臣 31인 등 47인을 비롯하여 개국·정사·좌명공신 4인, 개국·정사공신 6인, 개국·좌명공신 2인, 정사·좌명공신 7인의 중복 錄勳된 19인 등 도합 66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한 66인의 공신 중에서 手決로 署名한 공신은 41인이며 署名하지 않은 공신은 25인이다.

한편, 三功臣에 녹훈된 99인의 공신 중에서 66인의 공신은 太宗 4(1404)년 11월 16(갑인)일의 삼공신회맹제에 참여하였으나, 33인의 공신들은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들 33인의 공신들 중에서 親臨하지 않은 太宗을 제외한 32인의 공신들이 三功臣會盟祭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는 29인의 공신들은 이미 삼공신회맹제가 거행되

던 太宗 4(1404)년 11월 16(갑인)일 이전에 卒去한 때문이며, 李居易·李芳幹·李伯卿 등 3인의 공신은 流配중이었던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 木板>은 정조 15(1791)년에 全羅道 靈光郡 거주 完山府院君 李天祐(?~1417)의 후손인 進士 李以錫(正祖朝人物)에 의하여 제작된 木板으로 짐작된다.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 木板>의 別板에는 “右昔我/ 太宗大王在 永樂二(태종 4, 1404)年與諸功臣會盟軸而 御賜先祖臣一本也今經三百八/ 十有八年字畫間多剝缺而惟 御諱寶墨尙新神明呵護吁可異矣當時同盟/ 之臣似必遍蒙頒賜而周問京鄉勳臣後孫未聞有留存處或恐此軸之久而亦/ 泯茲敢模寫鋟梓以爲廣布壽傳之地而元本中諸勳臣姓字下只有者署故攷諸/ 勳籍追填名字以備考覽爾辛亥(正祖 15, 1791)仲春完山君臣李天祐後孫臣以錫拜手謹書/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白鷹圖/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蒼鷹圖”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李以錫에 의하여 제작된 別板의 跋文에 의하면 태종 4(1404)년에 <三功臣會盟錄> 1軸을 先祖이신 完山府院君(李天祐)께서 下賜받으신지 388년이 지난 정조 15(1791)년에 이르러 <三功臣會盟錄> 軸이 되락하자 이를 영구히 보존할 방안으로 木板에 板刻한 후에 여러 부수를 印出하여 후손에게 廣布함으로써 선조의 功勳事實을 널리 알리게 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은 功臣과 會盟錄의 研究 뿐 아니라 조선시대 초기의 人物史研究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며, <三功臣會盟錄 木板>은 조선시대 正祖朝의 木板의 板刻術 및 木板印刷文化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문화재 <三功臣會盟錄 木板>은 조선시대 후기의 정조 15(1791)년에 제작되어 그 제작의 시기로 볼 때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보존·관리할 만한 가치와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하여 연구·보존·관리할 만한 가치와 수준은 충분하므로 차후 木板保存修理專門家의 保存修理를 거쳐 地方有形文化財로 지정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자 한다.

○ 지정사례

會盟錄과 관련된 木板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아직 없다.

○ 문헌자료

- 李文彩 編, 「畝長書院誌」. 石版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1969.
-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 [功臣都監], [太宗 4(1404)]
- 朴文烈,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功臣教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9輯. 서울 : 書誌學會, 2011. pp. 5-39.
- 朴文烈,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2輯. 서울 : 書誌學會, 2012. pp. 39-69.
- 朴文烈, “「同盟錄」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4輯. 서울 : 書誌學會, 2006. pp.37-61.
- 朴文烈, “「同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2輯. 서울 : 書誌學會, 2005. pp.513-535.

- 윤중균,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 寄贈 遺物에 대한 一考察”, 동원학술논문집. 서울 : 國立中央博物館, 2010.



○ 현 상

1. 연혁 및 유래

삼공신회맹축 목판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2009년 7월 16일 전주이씨 襄度公派 宗中으로부터 기증받아 현재 소장 중이다. 당시 기증 유물은 본 목판 및 李天祐 초상화, 二鷹圖 木板을 포함하여 총 8건 20점으로 개국, 정사, 좌명 등 삼공신에 책봉된 이천우 관련 자료가 중심을 이루었다.

삼공신회맹축은 원래 이천우가 1404년(태종 4) 11월 16일에 삼공신 회맹제에 참여하고 하사받아 軸의 형태로 후손가에 전해오던 것인데, 389년이 지난 1791년(정조 15)에 이르러 회맹축이 유실될 것을 우려하여 그 내용과 형태를 그대로 살려 목판에 새긴 것이다.

2. 본문 내용

1) 會盟文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권8, 4년 11월 16일조 기사에 회맹문의 원문과 번역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有歲次甲申(1404, 태종 4)十一月己亥朔十六日甲寅

朝鮮國王臣諱, 謹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 敢昭告于皇天上帝、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伏以國之有君臣朋友, 猶家之有父子兄弟, 當以忠信誠懇, 固結其心, 永保終始。 況乎要質鬼神, 歃血司盟者哉! 惟我太上王, 以神武之資, 獲天人之助, 而予小子亦克左右, 弼成大業, 開國之初, 首與勳臣同盟, 以固忠信。 不期權奸, 懷私背盟, 挾幼奪嫡, 謀害我兄弟, 將危我宗社, 幸賴天地宗社陰鷲之佑, 忠賢奮義, 凶徒自潰, 以嫡以長, 扶立上王, 天倫是正, 宗社再安。 又與勳臣, 同結盟好, 未幾, 讒邪復背其盟, 構釁鬪牆, 稱兵作亂。 親勳將相, 應機勘定, 罪人斯得, 既服厥辜。 是則違盟必戮, 現有徵驗, 可不懼哉! 逮予小子繼位之後, 又與佐命之臣, 同盟歃血, 期與保全, 于茲有年。 自是三盟之臣, 協心輔我, 式至今休, 可謂和洽無間矣, 尙慮前後不與同盟者, 其心猶以爲未固, 特涓吉日, 乃會三盟之臣, 昭告上下神祇, 更尋前盟, 以固其志。 既盟之後, 各自勉勵, 忠誠相信, 恩愛相好, 親如骨肉, 堅如金石, 殫誠竭忠, 夾輔王室, 忘其私憾, 唯順公道, 常以安社稷利國家爲念, 孜孜協力, 終始無變, 永享福祿, 共保安榮, 世世子孫, 無忘今日。 苟有匿私挾邪, 渝盟背好, 潛懷疑貳, 外親內忌, 構讒造釁, 分朋結黨, 陰圖傾覆, 誣陷同盟者, 是欺天地慢鬼神背君父也。 幽則必有神誅, 明則必有王法, 非止其身, 殃及子孫。 有犯關係社稷者, 當以法論, 亦如前盟所載。 是皆自取,

其誰之咎! 天地神明, 昭布在上, 各欽誓言, 永勉無忽
謹以清酌大牢式 陳明薦尚饗 國王臣李 芳遠

<번역>

개국 공신(開國功臣)·정사 공신(定社功臣)·좌명 공신(佐命功臣)이 대청관(大清觀) 북쪽에서 같이 맹세(盟誓)하였는데, 임금이 그 맹세한 글에 서압(署押)하고, 그 모임에 친림(親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臣) 【휘(諱).】 은 개국 공신(開國功臣)·정사 공신(定社功臣)·좌명 공신(佐命功臣) 등을 삼가 거느리고 감히 황천(皇天)의 상제(上帝)와 종묘(宗廟) 사직(社稷)과 산천(山川)의 여러 신령(神靈)에게 밝게 고(告)합니다. 옳드려 생각하건대, 나라에서 군신(君臣)과 붕우(朋友)를 가지는 것은 가정에서 부자와 형제를 가지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충성과 신의와 성실(誠實)로 그 마음을 굳게 맺어서 길이 종시(終始)를 보존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귀신(鬼神)에게 요질(要質)하고 피를 마시고 같이 맹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우리 태상왕(太上王)은 신무(神武)한 자질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고, 소자(小子)인 나도 또한 능히 조력(助力)하여 큰 기업(基業)을 도와서 이룩하였습니다.

개국(開國)하던 처음에 먼저 훈신(勳臣)과 더불어 같이 맹세하여 충성과 신의를 굳게 하였으나, 뜻하지도 아니하게 권간(權奸)이 사심(私心)을 품고 맹세를 저버리고 유얼(幼孽)을 끼고 적통(嫡統)을 빼앗고, 우리 형제를 해치기를 꾀하여 장차 우리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는데, 다행히 천지 종사의 음덕(陰德)의 도움에 힘입어, 충성스럽고 어진이가 의(義)에 분발(奮發)하니, 흉도(凶徒)가 스스로 궤멸(潰滅)되었습니다. 적자(嫡子)로서 장자(長子)로서 상왕(上王)을 부액(扶腋)하여 세우니, 천륜(天倫)이 이에 바르게 되고 종사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또 훈신(勳臣)과 더불어 같이 맹호(盟好)를 맺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간사한 이가 다시 그 맹세를 저버리고 혼단(釁端)을 엮어 집안끼리 싸우게 하여, 거병(擧兵)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훈친(勳親)과 장상(將相)이 시기에 응하여 평정(平定)하여, 죄인(罪人)은 곧 잡아 이미 죄를 복죄하였습니다. 이것은 맹세를 어기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징험(徵驗)으로 나타난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소자(小子)인 내게 미처, 왕위를 계승한 뒤에도 또한 좌명(佐命)한 신하와 더불어 같이 맹세하여 피를 마시고 더불어 보전할 것을 기약한 지 이제 여러 해입니다. 이때부터 삼맹(三盟)의 신하가 마음을 합하여 나를 도와, 이제 지금에 이르도록 평안하였으니, 가위(可謂) 화합하여 틈이 없었다고 할 만합니다. 전후(前後)에 같이 맹세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자가 그 마음이 오히려 미안(未安)하게 여길까 일찍이 염려하여, 특별히 길일(吉日)을 가려서 이에 삼맹(三盟)의 신하를 모아 상하(上下)의 신기(神祇)에게 밝게 고(告)하고, 다시 전의 맹세를 찾아서 그 뜻을 굳게 합니다.

이미 맹세한 뒤에는 각각 스스로 면려(勉勵)하고, 충성으로 서로 믿고 은애(恩愛)로 서로 좋아하고, 친애하기를 골육(骨肉)같이 하고, 굳건하기를 금석(金石) 같

이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왕실(王室)을 협보(夾輔)하며, 그 사사 감정을 잊고 오로지 공도(公道)에 따르고, 항상 사직(社稷)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기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마음을 합하여 종시(終始) 변(變)하지 아니하고, 길이 복록(福祿)을 누리 함께 안전과 영화를 보존하여 세세 자손(世世子孫)이 오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사정(私情)을 품고 간사한 마음을 끼거나, 맹세를 어기고 화호(和好)를 저버리거나, 몰래 의심하여 두 가지 마음을 품거나,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속으로는 꺼려하거나, 참언(讒言)을 꾸며 혼단(釁端)을 만들거나, 붕당(朋黨)을 나누어 결당(結黨)하거나, 나라를 경복(傾覆)하기를 꾀하거나, 같이 맹세한 이를 무함(誣陷)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천지를 속이고 귀신을 업신여기고 군부(君父)를 저버리는 것이니, 죽어서는 반드시 신주(神誅)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는 반드시 왕법(王法)이 있을 것이며, 죄는 그 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재앙(災殃)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사직(社稷)에 관계된 죄를 범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하여, 또한 전의 맹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하리니, 이것은 모두 자취(自取)하는 것이요, 그 누구의 허물이겠습니까? 천지 신명(天地神明)이 위에 밝게 포열(布列)하여 있으니, 각기 맹세한 말을 공경하여 길이 힘쓰고 소홀하지 말지니라.”

개국 공신·정사 공신·좌명 공신의 삼공신(三功臣)이 일찍이 같이 맹세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임금이 삼공신(三功臣)이 능히 협화(協和)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모여서 같이 맹세하여 그 마음을 하나로 하였다. 감사(監司)와 변진(邊鎭)·주(州)·목(牧)의 지방관[分憂者]도 모두 와서 참여하였다. 삼공신(三功臣)은 66인이었는데, 맹세가 끝나고 예궐(詣闕)하니, 각각 표리(表裏)를 하사하고 무일전(無逸殿)에 나아가 큰 연회(宴會)를 베풀어 이들을 위로하였다.

2) 跋文

1791년(정조 15) 봄 삼공신회맹축을 목판에 새길 때, 그 배경과 작업 경위를 설명한 발문으로 李天祐의 후손 李以錫이 작성하였다.

右昔我

太宗大王在永樂二年 與諸功臣會盟軸 而御賜先祖臣一本也 今經三百八

十有八年 字畫間多剝缺 而惟御諱寶墨尙新 神明呵護 吁可異矣 當時同盟

之臣 似必遍蒙頒賜 而周問京鄉勳臣後孫 未聞有留存處 或恐此軸之久 而亦

泯 茲敢模寫鋟梓 以爲廣布壽傳之地 而元本中諸勳臣姓字下 只有着署 故攷諸

勳籍 追填名字 以備考覽爾 辛亥(正祖 15, 1791)仲春 完山君臣李天祐後孫臣以錫

拜手謹書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白鷹圖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蒼鷹圖

<국역>

이것은 옛날 태종 대왕께서 영락 2년(1404, 태종 4)에 여러 공신들과 회맹한 축으로 우리 선조 신 ○○에게 한 본을 하사하셨다. 지금 389년이 지나서 글자 획들이 사이사이 결락이 많은데 국왕의 휘자와 御寶의 먹은 여전히 새로우니 신명의 가호가 있음이다. 기이하도다. 당시 회맹에 참여한 신하들은 필시 골고루 하사의 은혜를 입었을 것이므로 경향 각지의 공신 후손들에게 두루 물었으나 남아 전하는 곳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 혹시라도 이 회맹축이 오래되어서 이 또한 사라질까 염려하여 이에 감히 模寫하여 판각해서 널리 알리고 오래 전해지게 하려 한다. 원본 중에는 훈신들의 성 아래에 서명만 있으므로 공신 관련 여러 전적들을 고증하여 이름자를 찾아 보충하여 상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신해년(1791, 정조 15) 중춘 완산군 신 이천우의 후손 신 (이)이석 삼가 씀

태종대에 완산부원군 신 이천우에게 하사한 백응도

태종대에 완산부원군 신 이천우에게 하사한 창응도

3. 보존상태

회맹축 목판은 결락된 부분 없이 완전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다만 회맹문 부분과 공신 명단 부분이 별도의 목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회맹문 본문 목판의 하단 4곳에 흠이 파여 있고, 공신명단 목판의 상단 동일한 자리에 돌출 부분이 있다. 원래는 회맹문 본문과 공신명단 목판이 하나의 목판으로 결합된 형태였는데 보관 과정에서 분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맹문 목판은 나무 두 장을 연결하였고, 공신명단 목판 또한 나무 두 장을 연결하였는데, 보존 상태로 보아 목판을 제작할 당시의 본 모습 그대로 파악되며 후대에 변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회맹축 목판의 보존 상태는 목판의 뒤틀림이 심하여 현재 상태로는 분리되어 있는 회맹문과 공신 명단 두 목판을 원 모습대로 끼워 맞추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인출 과정에서 사용한 먹물이 말라붙어 글자 사이사이에 그대로 누적되어 있어 자획이 뭉개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다. 공신 명단 목판은 우측 중간 부분에 10행 정도의 균열이 진행되어 있다.

발문 목판은 나무 두 장을 연결하여 붙였는데 중간 지점에 1글자가 박락된 부분이 있으나 바로 다음 행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여 결락된 글자를 추정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 보존 상태는 회맹축 목판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먹물이 목판에 덕지덕지 말라붙은 모습을 찾을 수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

4. 내용 및 특징

삼공신회맹축 목판은 李天祐가 1404년(태종 4) 11월 16일에 三功臣 회맹제에 참여하고 하사받은 삼공신회맹축을 380여년 후인 1791년(정조 15)에 목판에 새긴 것

이다.

삼공신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開國功臣 및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定社功臣, 제 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태종이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佐命功臣을 지칭한다. 공신을 책봉한 후 국왕은 공신 및 그 자손들과 함께 모여 회맹제를 지내고 영원히 왕실과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이 때 서약문인 회맹문과 공신 명단을 기록하여 축으로 만들어 참여한 공신들에게 각각 하사하였다. 태조 대에 개국공신 회맹제, 정종대에 정사공신 회맹제, 태종 즉위년에 개국 및 정사공신 회맹제를 거쳐 태종 4년에 이르러 당시까지 공신에 책봉된 모든 공신을 모아 삼공신 회맹제를 거행하였다. 삼공신 회맹제는 당시까지 책봉된 3차례의 공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왕실 및 국가에 영원히 충성을 서약한 최초의 종합 회맹제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높다.

공신 회맹록은 회맹제를 거행할 때의 회맹문과 공신 명단을 기록하고 회맹제에 참석한 공신들의 서명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작하여 각 공신들에게 하사하였다. 이 때 문서는 軸 즉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전해오는 회맹록들이 대체로 회맹축의 형태로 전해오는 것 또한 이 때문일 것이다. 1456년(세조 2) 11월에 왕세자와 개국·정사·좌명·정난·좌익 등 5공신 및 그들의 자손 239인이 참여하여 회맹제 거행하고 만든 오공신회맹축(서울시 시도유형문화재 97호), 1646년(인조 24) 9월에 寧國功臣 錄勳 후에 20공신 회맹제를 거행하고 만든 20공신회맹축(보물 1512호), 1694년(숙종 20) 保社功臣 錄勳 후에 회맹제를 거행하고 만든 20공신회맹축(보물 1513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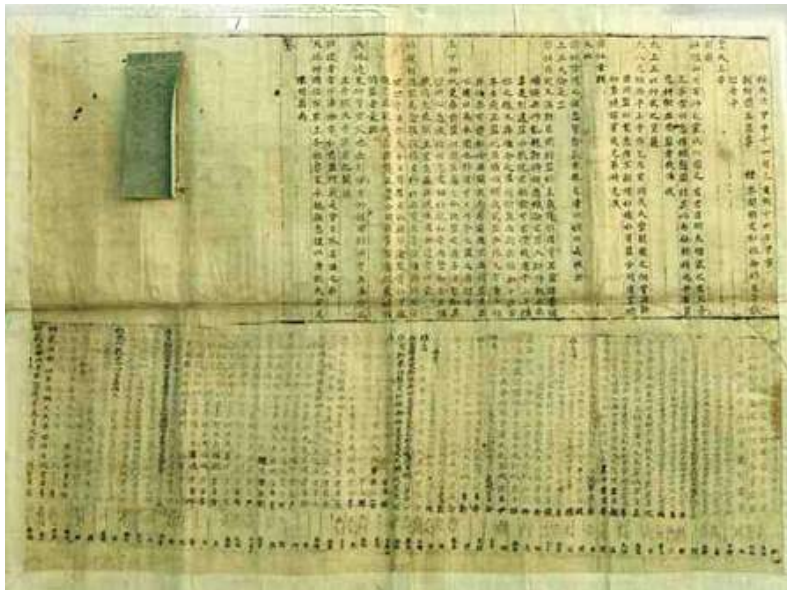
본 삼공신회맹축 목판 또한 발문에 ‘會盟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천우가 하사 받은 원 형태는 두루마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원 회맹축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훼손이 심하였다. 이에 따라 389년 후인 1791년(정조 15)에 이르러 회맹축을 오래 보존할 목적으로 원본의 내용 및 형태를 그대로 模寫하여 판각하였음을 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삼공신회맹축 목판의 명칭은 ‘삼공신회맹록 목판’보다는 ‘삼공신회맹축 목판’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본 회맹축 목판에서 주목되는 점은 태종대 당시의 원본 회맹축과의 차이점을 명기하였다는 점이다. 발문에 의하면 원본 회맹축에는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 명단에 서명만 있어서 공신 관련 여러 전적들을 고증하여 이름을 찾아 보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회맹축 원본에는 공신들 직역과 서명만 기록되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형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다른 소장처에서 전하고 있는 삼공신회맹축 문서들이 태종 대 회맹제를 거행할 당시의 원본 회맹축 문서인지 후대에 다시 제작된 문서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삼공신회맹축 목판의 사료적 가치는 높다고 하겠다.

○ 지정 사례 및 기타

본 삼공신회맹축 목판 이외에 삼공신회맹축 문서는 하륜 삼공신회맹록, 김승주 삼공신회맹록, 공신도감편 삼공신회맹록 등 3건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다만 하륜 삼공신회맹록(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481호)과 김승주 삼공신회맹록(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309호)은 각각 경상남도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3건에 대한 사진 및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함양 도천리 하륜 부조묘 소장 삼공신회맹록 등 고문서 일괄(咸陽 道川里 河崙 浮조廟 所藏 三公臣會盟錄 等 古文書 一括)



(출전 :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

<서지사항>_

종 목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81호

명 칭 함양 도천리 하륜 부조묘 소장 삼공신회맹록 등 고문서 일괄 (咸陽 道川里 河崙 浮조廟 所藏 三公臣會盟錄 等 古文書 一括)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

수량/면적 2책 38점

지정(등록)일 2009.03.05

소 재 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관리자(관리단체)

상 세 문 의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055-960-5162

<설명>

「會盟錄」의 크기는 108.5×81cm이고, 유리가 없는 액자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태종이 즉위한 뒤 조선왕조 개창에 공이 있는 開國功臣과 제1, 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이 있는 定社·佐命功臣들을 모아, 여러 神에게 제례를 지내고 공신들과 그 후손들을 잘 보살펴주겠다는 서약을 한 문서로, 한 장의 목판본 문서로 되어 있다. 상단에 왕의 祝文이 새겨져 있고(“維歲次甲申(1404)十一月己亥朔十六日甲寅 朝鮮國王臣李 謹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 敢昭告于皇天上帝·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伏以國之有君---”), 하단에는 이 행사에 참여한 공신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축문 말미에 ‘國王臣李芳遠’이란 글이 안에 새겨져 있다.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선 전기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다. 마모되어 보이지 않는 일부 부분은 후대에 붓으로 가필한 흔적이 있다. 문서의 제목은 없지만, 다른 자료를 참조해 임시로 ‘회맹록’이라 하였다.(원칙적으로는 ‘三功臣會盟錄’이라 해야 함)

명단에는 모두 66명의 공신들이 적혀 있는데, 河崙(1347-1416)이 5번째로 기록되고 있다.(여러 大君, 君 및 金士衡 다음) 하륜은 1차 왕자의 난 때 李芳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정종 때 정사공신이 되고,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에 책록되었으며, 태종의 총애를 받아 영의정까지 이르렀다. 호는 浩亭이고 시호는 文忠이다.

<...중략...>

「會盟錄」은 藏書閣 소장의 『會盟錄』과 같은 편제를 취하고 있지만, 전자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고 후자는 책자인 것이 서로 다르다. 장서각에는 『會盟錄』이 외에 『太宗大王會盟錄』(8장)이란 책자가 있는데, 내용은 같으나 글자 배치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太宗大王’이란 글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것이나 각 부분의 머리에 ‘御製祝文’ ‘太宗大王會盟諸賢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에도 「회맹록」이 경북 유형문화재 305호(필사본 문서, ‘金英烈佐命功臣教書’와 함께), 309호(‘三功臣會盟錄’ 목판본 문서)로 지정되어 있다.

이후에도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여러 왕대에서 회맹록은 계속 만들어진다. 「十九功臣會盟錄」(광해군), 「十七功臣會盟錄」(인조), 「十九功臣會盟錄」(인조), 「二十一功臣會盟錄」(영조) 등이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하종규씨대의 「회맹록」은 제작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선 전기의 것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희귀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전 :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http://www.cha.go.kr>)에서 관련 내용 발췌)

2) 김승주삼공신회맹록판본(金承주三功臣會盟錄板本)



김승주삼공신회맹록판본 - 제문

(출전 : 문경시 홈페이지(<http://tour.gbmg.go.kr>), 인물/향토, 풀어보는 문경문화유산)

<서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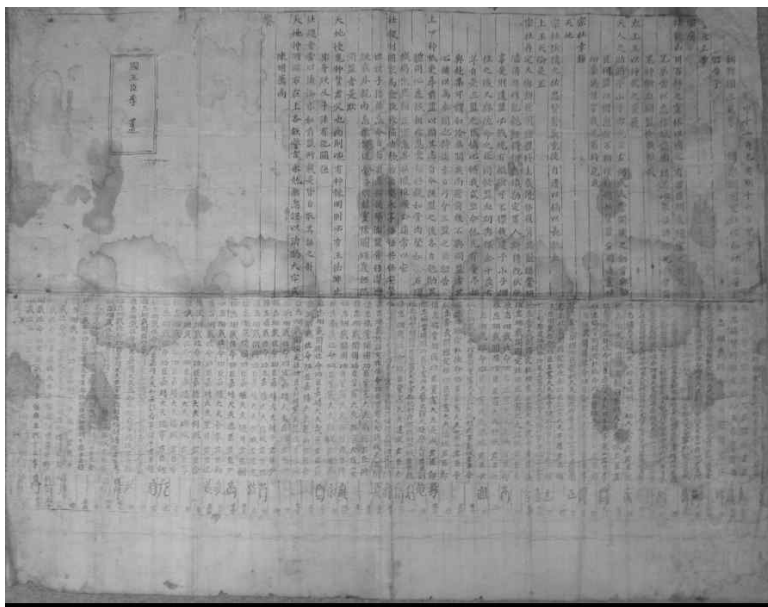
- 종 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09호
- 명 칭 김승주삼공신회맹록판본 (金承주三功臣會盟錄板本)
-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간본
- 수량/면적 1점
- 지정(등록)일 1999.03.11
- 소 재 지 경북 문경시 가은읍 까치샘길 64-4 (작천리)
- 시 대 조선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관리자(관리단체) 순천김씨종중
- 상 세 문 의 경상북도 문경시 문화관광과 054-550-6062

<설명>

회맹록은 태종 4년(1404) 11월에 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인 3공신 66명이 하늘에 맹세한 후 작성한 글을 목판에 새겨 인쇄한 것이다. 이것은 김승주(1354~1424)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김승주의 회맹록이다. 김승주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변혁기에 무반으로 입신하여 박포의 난이라고 불리는 정쟁에 참여하여 좌명공신 4등에 책봉되었다. 이후 공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평양부원군에 책봉되었다. 그가 죽은 후 나라에서 '양경'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 판본은 태종 4년(1404)부터 태종 7년(1407)에 인쇄하여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보존상태는 왼쪽 아래부분의 일부가 약간 훼손되었을 뿐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후대에 관리를 위해 암적색 베로 배접하여 관리하고 있다. 17세기 이전의 고문서를 인쇄하여 유포한 예가 많지 않은 점으로 보아 15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판본은 희귀성으로 인해 역사적 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출전 :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 (<http://www.cha.go.kr>))

3) 공신도감편, 삼공신회맹록



(출전 : 박문열,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52, 2012 수록)

<서지사항>

三功臣會盟錄 / 功臣都監 編. 木板. [漢城]:[功臣都監], [太宗 4(1404)].

1枚(全紙 2枚 連接) : 手決, 四周單邊, 全郭 69.5×104.5cm, 界線, 2段, 行字數不定, 無版口, 無魚尾 ; 83.5×105.5cm. 壯紙.

上段: 全郭(40.0×104.5cm), 全葉(42.5×105.5) 行字數(36行+四周雙邊白匡)

下段: 全郭(29.5×105.5cm), 全葉(41.0×105.5) 行字數(66行)

白匡文: 國王臣李 芳遠

內容: 太宗 4年(1404, 甲申) 11月(己亥) 16日(甲寅)에 三功臣 66人이 大清觀 북쪽에서 거행한 三功臣會盟祭의 會盟錄

狀態: 全葉上下左右 端末磨滅, 上段左右端 補修

<설명>

이 공신도감편 삼공신회맹록은 박문열,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52, 2012 수록된 문서이다. 현재 소장처는 논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검색’에도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 [功臣都監], [太宗 4(1404)]
- 朴文烈,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2輯. 서울 : 書誌學會, 2012. pp. 39-69.
- 朴文烈, “「同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2輯. 서울 : 書誌學會, 2005. pp.513-535.
- 윤종균,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 寄贈 遺物에 대한 一考察”, 동원학술논문집. 서울 : 國立中央博物館, 2010.



○ 형 식

-목판기술사항:

三功臣會盟軸 / 李以錫. -- 木板. -- 靈光郡(全南) : 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 正祖 15(1791).

1板(2片) : 手決, 四周單邊, 界線, 2段, 行字數不定, 無板口, 無魚尾, 松木. 陽刻 ; 全郭 69.5×105.5cm, 69.5×121.0×20.0-2.5cm.

上段會盟文: 全郭 40.0×105.5cm, 36行 字數不定

下段會盟功臣名單: 全郭 29.5×105.5cm, 66行 字數不定

白匡文: 國王臣李 芳遠(6.8×4.1cm)

別 板: 跋文(32.5×22.5×20.0cm)

○ 조성연대 : [정조 15(1791) 추정]

○ 현 상 :



<三功臣會盟軸 1>의 木板形態(광주국립박물관)



<三功臣會盟軸 2>의 木板形態(광주국립박물관)



<別板>(광주국립박물관)

본 <회맹축(會盟軸)>은 총 상, 하 2판으로 상판은 기고문(祈告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판의 크기는 43.5×121cm이다. 하판은 회맹에 참여했던 종친과 공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판의 크기는 29.5×105.5cm이다. 현재 상,하판의 상태는 판본이 관리소홀로 분리되어 있으며, 습기조절이 되지 않아 뒤틀려 있다. 또한 여러

번 인쇄한 관계로 먹이 행간사이에 묻쳐져 있다. 별판은 이이석(李以錫)의 발문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선초 삼공신(三功臣)이란 개국공신(開國功臣; 태조를 도와 국가를 건국한 공신), 정사공신(定社功臣; 정도전의 난을 도와 종묘사직을 안정하게 한 공신), 좌명공신(佐命功臣; 태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을 말한다.

삼공신의 회맹은 태종 4년(1404) 11월 16일 대청관(大清觀)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회맹식에 참여한 공신들은 종친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봉녕군(奉寧君) 이복근(李福根),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 등과 권근(權近), 김승주(金承霏), 남재(南在), 이천우(李天祐), 하륜(河崙) 등 66명으로 이들은 상제(上帝)·종묘(宗廟)·사직(社稷)과 산천백신(山川百神)의 신령(神靈)에 제사를 지내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참석자의 위주로 사인하여 간직하고, 목판으로 제작하여 각 문중별로 보존해 왔다. 현재 경북 문경 가은읍 작천리에 소장된 순천김씨의 가문인 김승주(金承霏; 1354-1424)의 삼공신회맹록(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09호)와 경남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 441번지의 하륜(河崙; 1347-1416) 부조묘에 소장된 삼공신회맹록(도유형문화재 제481호)도 같은 형식이다.

본 조사 목판은 양도공(襄度公) 이천우(李天祐; 1354-1417)의 공적을 널리 기리고자 정조 15년(1791) 그 후손들이 판각하여 전해온 목판본이다.

이천우는 이성계의 서형(庶兄) 이원계(李元桂)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이다. 공민왕 18년(1369)에 동녕부 수령, 이성계의 휘하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1392년 이성계의 개국에 공로가 있다하여 다음 해인 1393년 개국원종공신, 1394년 상의중추원사, 1396년 강원도조전절제사, 1398년 동지중추원사가되어 정도전의 난 평정한 공으로 정사 2등공신 책봉, 정조 2년(1400) 판중추원사, 태종 2년(1402)안주도절제사, 1403년 완산군, 1407년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옴, 1409년 병조판서, 1410년 판의흥부사, 1413년 이조판서, 1414년 안산부원군, 의금부도제조 등을 역임하다가 태종 16년(1416)에 공직을 사퇴하자 그의 초상화와 이응도(二鷹圖)를 하사받은 뒤 그 이듬해에 운명하였다. 현재 그의 묘소는 정경부인 여흥 민씨와 합장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城石洞) 산 203번지(고양시 향토문화재 제7호)에 있다.

본 회맹축의 내용을 보면, 상단에는 제사모시는 주문과(有歲次甲申(太宗 4, 1404)十一月己亥朔十六日甲寅 朝鮮國王臣李[諱] 謹率開國·定社·佐命功臣等 敢 昭告于皇天上帝·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伏以國之有君臣朋友 猶家之有父子兄弟) 삼공신들은 성심과 충성으로 왕실을 잘 보위하며, 항상 사사로운 감정은 버리고 공익에만 따르며, 사직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대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안전과 영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과 동맹자들 사이 사심을 품거나 맹서를 어기거나 의심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봉당과 나라의 전복

을 피하거나, 모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축문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國王臣李 芳遠’이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단에는 참여한 삼공신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별판의 내용은 “右昔我/ 太宗大王在 永樂二(태종 4, 1404)年與諸功臣會盟軸而御賜先祖臣一本也今經三百八/ 十有八年字畫間多剝缺而惟 御諱寶墨尙新神明呵護吁可異矣當時同盟/ 之臣似必遍蒙頒賜而周問京鄉勳臣後孫未聞有留存處或恐此軸之久而亦/ 泯茲敢模寫鋟梓以爲廣布壽傳之地而元本中諸勳臣姓字下只有者署故攷諸/ 勳籍追填名字以備考覽爾辛亥(正祖 15, 1791)仲春完山君臣李天祐後孫臣以錫拜手謹書/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白鷹圖/ 太宗朝 御賜完山府院君臣李天祐蒼鷹圖”란 1791년에 쓴 이이석(李以錫)의 발문이 판각되어 있다. 즉, 1404년 모여서 맹서를 하고 1분씩 하사받은 지 388년이 지난 지금 자획이 많이 훼손되었으므로 그 맹서를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기고자 새로 목판에 새겨 여러 부수를 인쇄하여 널리 알린다는 내용과 말미에 태종에게 완산부원군 이천우가 백응도(白鷹圖)와 창응도(蒼鷹圖)를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판각되어 있다.

○ 문헌자료

- 1)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 2)李文彩 編, 「畝長書院誌」. 石版本. [刊行地未詳] : [刊行者未詳], 1969.
- 3) 功臣都監 編, 「三功臣會盟錄」. 木版本. [漢城] : [功臣都監], [太宗 4(1404)]
- 4) 朴文烈, “三功臣會盟錄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2輯. 서울 : 書誌學會, 2012. pp. 39-69.
- 5) 朴文烈, “「同盟錄」의 校勘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4輯. 서울 : 書誌學會, 2006. pp.37-61.

○ 기 타

<삼공신회맹축(三功臣會盟軸)>은 정조 15년(1791)에 이천우(李天祐; 1354-1417)의 후손인 이이석(李以錫)에 의해 판각되었다. 이 판본은 전주 이씨 양도공파 종중(全州 李氏 襄度公派 宗中)이 영광의 묘장서원(畝長書院) 불조묘(不祧廟)에 보관하여 관리하다가 2009년 7월 16일에 <이천우영정(李天祐影幀)>·<이응도목판(二鷹圖木板)>·<회맹축(會盟軸)>등 유물 20점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한 자료이다.

9. 조선왕조의궤(분상용/비유일본/완질/분상처미상/필사본)

가. 검토사항

‘조선왕조의궤(분상용/비유일본/완질/분상처미상/필사본)’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래, 국민적 관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13)를 실시함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조선왕조의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대상목록』 작성팀을 구성하여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15.03.26)를 통해 검토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조선왕조의궤(분상용/비유일본/완질/분상처미상/필사본)
- 소유자(관리자) : 목록 참조
- 소재지 : 목록 참조
- 수 량 : 총 170건 214책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筆寫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조성연대 : 조선후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 | |
|-----------|---------------|
| ○ 문화재위원 | 보류 - 일괄 검토 필요 |
| ○ 문화재전문위원 | 보류 - 일괄 검토 필요 |
| ○ 관계전문가 | 보류 - 일괄 검토 필요 |

마. 의결사항

- 보류
 - 일괄 검토 요망

조사보고서



○ 현 상

조사본 『조선왕조의례(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미상 필사본)』는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원군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이화여대 도서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조선왕조의례(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미상 필사본)』의 현재 상태는 거의 대부분 양호한 편이며 일부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조사결과

- 수량 : 『조선왕조의례(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미상 필사본)』 총 170건 214책

- 상세현황

-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미상 필사본 의례 : 170건 214책
 - 규장각 : 『迎接都監賜祭廳儀軌』 등 142건 182책
 - 장서각 : 『冊禮都監儀軌』 등 16건 18책
 - 청원군청 : 『胎室欄干造排儀軌』 1건 1책
 - 국립문화재연구소 : 『影幀模寫都監儀軌』 등 5건 5책
 - 국립고궁박물관 : 『皇壇儀』 등 5건 7책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 『上號都監儀軌』 1건 1책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의례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癸亥條에 정도전, 권근 등이 찬수한 종모 제사 때의 춤에 관한 의례와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丁亥條에 태조4년 경복궁 창건시 그 건설과정을 기록한 『景福宮造成儀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의례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조사대상이 된 의궤는 의궤 중 현재까지 비유일본이면서 완질이며 분상처미상의 필사본으로 여겨지는 의궤 170건 214책이다. 이 중에 광해군 1년(1609) 7월에 작성된 규장각 소장의 『迎接都監賜祭廳儀軌』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1926년의 『[裕陵(純明孝皇后)]遷奉主監儀軌』가 가장 후대의 것이다.

의궤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胎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親農·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이러한 내용의 체제는 시대나 의궤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감의 관원명단을 적은 座目, 의례의 진행과정을 적은 時日, 의례의 주요장면이나 주요도구의 그림을 실은 圖式, 圖說, 업무시 오고간 문서들을 기록한 教旨, 上奏文,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적은 財用, 물품을 제조한 각종 기술자의 명단인 工匠, 의례 집행시 유공자 포상 내용을 적은 賞典 등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인 것이다.

조사본은 이 중에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미상 필사본 의궤 170건 214책이다. (각 의궤의 상세목록은 별첨목록 참조)

○ 문헌자료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박정혜, 「의궤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화원」, 『美術史研究』 第9號(미술사연구회, 1995).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5.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목록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신승운, 「조선왕조 의궤의 조사연구와 정리방안」, 『조선왕조 의궤의 번역현황과 과제』 발표자료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심재우, 「조선왕조의궤의 현존상황과 보존방안」,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 발표자료집, 문화재청, 2007.

옥영정, 「의궤의 서지학적연구성과와 편찬 간행관련 기록의 활용」, 『조선왕조 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의궤해제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의궤목록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분상용/비유일본/완질/분상처미상/필사본 의뢰 : 170건 214

연번	서명	서기	양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질본	소장번호	카드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도	分上處	제작건수	유예편
1	영접도감사 제청의뢰	1608	광해군 즉위년	5월	(1609- 07-06)	폐관권	1	○	규 14556	규 00006	분상용	필사본	3	19	미상	전체제작건수 미상. 동일한의뢰가 규장각에2건 소장되어있음 <규14556,규 14557>.	비유예편
2	영접도감사 제청의뢰	1608	광해군 즉위년	5월	(1609- 07-06)	폐관권	1	○	규 14557	규 00007	분상용	필사본	3	19	미상		비유예편
3	영접도감사 제청의뢰	1608	광해군 즉위년	8월		폐관권	1	○	규 14861 -2	규 00009	분상용	필사본	7	무	미상	제작건수 미 상	비유예편
4	국장도감이 방의뢰	1608	광해군 즉위년	8월		폐관권	1	○	규 13511	규 00010	분상용	필사본	9	무	미상		비유예편
5	부묘도감이 방의뢰	1610	광해군 2년	4월		폐관권	1	○	규 14878 -2	규 0001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예편

6	부묘도감삼방의궤	1610	광해군 2년	4월		본관권	1	○	규 13513	규 00017	분상용	필사본	9	무	미상		비유인계
7	묘호도감의궤	1616 [1618]	광해군 8년	1월		본관권	1	○	규 13244	규 00026	분상용	필사본	15	4	미상		비유인계
8	존숭의궤	1624	인조 2년	10월	(1624-10) 내제	본관권	1	○	규 13245	규 00030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제작8건(분상처미상)	비유인계
9	제기악기도감의궤	1625	인조 3년	2월	(1624-11-29) 표지는 1625년 02월	본관권	1	○	규 13734	규 00031	분상용	필사본	17	무	미상	空欄 → 제작10건(분상처미상)	비유인계
10	반선색의궤	1626	인조 4년	6월 → 윤6월		본관권	1	○	규 14574	규 00034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인계
11	영접도감반선색의궤	1626	인조 4년	6월 → 윤6월		본관권	1	○	규 14575	규 0003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인계

12	산릉도감의 계	1632	인 조 10 년	11 월		폐 관 권	1	○	규 14822	규 00141	분 상 용	필 사 본	6	무	미 상		비 유 예 계
13	수리도감의 계	1633	인 조 11 년	8월		폐 관 권	1	○	규 14915	규 00142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5건(어람 용1건,기타분 상처미상)	비 유 예 계
14	가례도감의 계	1638	인 조 16 년	12 월		폐 관 권	1	○	규 13061	규 00069	분 상 용	필 사 본	9	8	미 상 → 강 화 부 (또 는 춘 추 관)	제작6건어람, 예조,강화부, 태백산,오대 산,적상산성 → 제작5건	비 유 예 계
15	묘소도감의 계	1645	인 조 23 년	6월 → 윤6 월		폐 관 권	1	○	규 14833	규 0007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예 계
16	국장도감도 청의계	1649	효 종 즉 위 년	11 월	(1649- 09-14) 표 지 는 1649년 11월	폐 관 권	1	○	규 13521	규 00084	분 상 용	필 사 본	37	30	미 상	제작건수 미 상	비 유 예 계
17	산릉도감의 계	1649	효 종 즉 위 년	11 월 → 5월		폐 관 권	1	○	규 15074	규 00085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예 계

18	존송도감도 청의궤	1651	효 종 2년	8월		폐 관 권	1	○	규 14888	규 00100	분 상 용	필 사 본	12	무	미 상	空欄 → 제작8건(御 覽,議政府,禮 曹,春秋館,江 華府,太白山, 五臺山,香山 (移送赤裳山 城)	비 유 일 본
19	수리도감의 궤	1652	효 종 3년	3월	(1652- 04-22)	폐 관 권	1	○	규 14912	규 00103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작4건어람, 의정부,예조, 춘추관 → 제작건수미상	비 유 일 본
20	산릉도감의 궤	1659	현 종 즉 위 년	11 월 → 5월		폐 관 권	1	○	규 15075	규 00114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21	존송도감의 궤	1661	현 종 2년	10 월		폐 관 권	1	○	규 13257	규 00118	분 상 용	필 사 본	13	무	미 상	空欄 → 제작8건(御 覽,議政府,禮 曹,春秋館,江 華府,太白山, 五臺山,赤裳 山城각1책)	비 유 일 본
22	산릉도감의 궤	1675 → 1674	숙 종 1년	[1 2 월]		폐 관 권	1	○	규 15076	규 00219	분 상 용	필 사 본	7	무	미 상	空欄 → 제작5건(御 覽,議政府,春 秋館,禮曹,赤 裳山城)	비 유 일 본

23	국장도감도 청의계	1681	숙 중 7년	2월	(1681- 06)	폐 단 권	2	○	규 13553	규 00176	분 상 용	필 사 본	52	24	미 상	제작5건어람, 춘추관,의정 부,예조,강화 부	비 유 일 본
24	빈전흔전도 감의계	1680	숙 중 6년	10 월	(1681- 03-05)	폐 단 권	1	○	규 13554	규 00175	분 상 용	필 사 본	2	무	미 상	제작5건어람, 의정부,춘추 관,예조,강화 부	비 유 일 본
25	시호도감도 청의계	1681	숙 중 7년	12 월	(1681- 12-07)	폐 단 권	1	○	규 13243	규 00179	분 상 용	필 사 본	12	무	미 상	제작5건어람, 춘추관,의정 부,예조,강화 부	비 유 일 본
26	시호도감의 계	1683	숙 중 9년	6월	(1683- 06-12)	폐 단 권	1	○	규 14927	규 00180	분 상 용	필 사 본	10	무	미 상	제작5건어람, 춘추관,의정 부,예조,강화 부 → 제작건수미상	비 유 일 본
27	선원보략개 간의계	1684	숙 중 10 년			폐 단 권	1	○	규 13390	규 00185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28	선원보략개 간의계	1684	숙 중 10 년			폐 단 권	1	○	규 14002	규 00186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29	선원보략개 간의계	1684	숙 중 10 년			폐 단 권	1	○	규 14003	규 00187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30	선원보략개 간의계	1684	숙 중 10 년			폐 단 권	1	○	규 14004	규 00188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31	책보개수도 감의궤	1687	숙 종 13 년	12 월		폐 관 권	1	○	규 14210	규 00198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5건(御 覽,議政府,春 秋館,禮曹,江 華府)	비 유 일 본
32	영정모사도 감의궤	1688	숙 종 14 년	5월		폐 관 권	1	○	규 13979	규 0020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33	복위부묘도 감의궤	1698	숙 종 24 년	12 월		폐 관 권	1	○	규 13503	규 00281	분 상 용	필 사 본	8	30	미 상	空欄 → 제작9건(御 覽,議政府,宗 廟署,春秋館, 禮曹,江華府, 太白山,五臺 山,赤裳山城)	비 유 일 본
34	선원보락교 정청의궤	1700	숙 종 26 년	8월 → 1월	(1702) 조 사 카 드 에 의 거	폐 관 권	1	○	규 12985	규 00285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35	선원보락교 정청의궤	1700	숙 종 26 년	8월 → 空 欄	(1702) 조 사 카 드 에 의 거	폐 관 권	1	○	규 14007	규 00291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36	선원보락교 정청의궤	1700	숙 종 26 년	8월 → 1월	(1702) 조 사 카 드 에 의 거	폐 관 권	1	○	규 14012	규 00292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37	선원보락교 정청의궤	1700	숙 중 26 년	8월 → 空 欄	(1702) 조 사 카 드 에 의 거	폐 관 권	1	○	규 14013	규 00293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편
38	선시도감의 궤	1718	숙 중 44 년	4월		폐 관 권	1	○	규 13494	규 00315	분 상 용	필 사 본	18	무	미 상	空 欄 → 제 작 5 건 (御 覽, 議 政 府, 春 秋 館, 禮 曹, 江 華 府)	비 유 일 편
39	가례도감의 궤	1718	숙 중 44 년	9월		폐 관 권	1	○	규 13094	규 00316	분 상 용	필 사 본	11	12	미 상	空 欄 → 제 작 6 건 (御 覽, 禮 曹, 江 華 府, 太 白 山, 五 臺 山, 赤 裳 山 城)	비 유 일 편
40	가례도감의 궤	1718	숙 중 44 년	9월		폐 관 권	1	○	규 13095	규 00317	분 상 용	필 사 본	11	12	미 상	空 欄 → 제 작 6 건 (御 覽, 禮 曹, 江 華 府, 太 白 山, 五 臺 山, 赤 裳 山 城)	비 유 일 편
41	가례도감의 궤	1718	숙 중 44 년	9월		폐 관 권	1	○	규 13096	규 00318	분 상 용	필 사 본	11	12	미 상	空 欄 → 제 작 6 건 (御 覽, 禮 曹, 江 華 府, 太 白 山, 五 臺 山, 赤 裳 山 城)	비 유 일 편
42	진연의궤	1719	숙 중 45 년	12 월 → 9월		폐 관 권	1	○	규 14357	규 0031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 작 3 건 강 화 부, 예 조, 장 악 원	비 유 일 편

43	진연의궤	1719	숙종 45년	12월 → 9월	(1719-12) 1책의이 미지마 지마지 戶兵曹 관련 내용	폐 관 권	2	○	규 14358 -1-2	규 0032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3건 강화 부,예조,장악 원	비 유 의 궤
44	선원보락교 정청의궤	1720 → 1719	경 종 즉 위 년			폐 관 권	1	○	규 14015	규 0027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의 궤
45	선원보락교 정청의궤	1720 → 1719	경 종 즉 위 년			폐 관 권	1	○	규 14014	규 00331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의 궤
46	실록찬수청 의궤	1721	경 종 1년	4월	(1731- 07-06) 160b페 이지	폐 관 권	2	○	규 14167 -1-2	규 00327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작건수 미 상	비 유 의 궤
47	실록찬수청 의궤	1721	경 종 1년	4월	(1731- 07-06)	폐 관 권	2	○	규 14168 -1-2	규 00328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의 궤
48	선원보락어 첩수개시의 궤	1723 → 1722	경 종 3년 → 2년	10월 → 6월		폐 관 권	1	○	규 14016	규 00613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의 궤

49	책례도감의 궐	1725	영 조 1년	3월	(1725- 03-23) 44페이지	불 분 권	1	○	2-272 0	장 00144	분 상 용	필 사 본	7	무	미 상	空欄 → 제작5건(御 覽,禮曹,春秋 館,江華府,議 政府)	비 유 일 본
50	선원보략개 수시의궐	1725	영 조 1년	8월 → 空欄		불 분 권	1	○	규 14017	규 0062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51	선원보략개 수시의궐	1725	영 조 1년	8월 → 空欄		불 분 권	1	○	규 14019	규 00622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52	선원보략수 개시의궐	1725	영 조 1년	8월 → 空欄		불 분 권	1	○	규 14018	규 00621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53	선원보락수 정시의궤	1728 → 1727	영조4 년 → 3년	1월 → 空欄		필사본	1	○	규 14020	규 00642	필사본	필사본	무	무	이상		보양정필
54	선원보락수 정시의궤	1728 → 1727	영조4 년 → 3년	1월 → 空欄		필사본	1	○	규 14022	규 00644	필사본	필사본	무	무	이상		보양정필

55	상례의궤	1729 → 1728	영조 5년 → 4년	1월 → 11월	(1729-01-28) 49페이지	별관권	1	○	2-3050	장 0026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제작건수상	미	비유예궤
56	태실난간조배의궤	1729	영조 5년	10월		별관권	1	○	없음	청원군청 0001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제작건수상	미	비유예궤
57	선원보락수정시종부사의궤	1735 → 1734	영조 11년 → 10년	5월 → 7월	(1735-05-12)	별관권	1	○	규 14025	규 00659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예궤

58	영정모사도 감의궤	1735	영조 11년	9월	조사카 드 이미 지 만 3장 나와 오므 라하 기 파악 이 힘	복 관 권	1	○	고서 50· 3-1	문연 003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6건(御 覽,春秋館,江 華島史庫,議 政府,禮曹,永 禧殿)	비 유 일 본
59	선원보략수 정시종부사 의궤	1735 → 1734	영조 11년 → 10년	空欄 → 7월	(1735- 05-12)	복 관 권	1	○	규 14023	규 01585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조사카드번호 없음. 확인요	비 유 일 본
60	친경의궤	1739	영조 15년	1월	(1739- 04-28) 103b이 미지	복 관 권	1	○	규 14937	규 01394	본 상 용	필 사 본	1	무	미 상	제작5건동궁, 사고,의정부, 예조,봉상사	비 유 일 본
61	친경의궤	1739	영조 15년	1월	(1739- 04-28)	복 관 권	1	○	규 14537	규 00710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5건동궁, 사고,의정부, 예조,봉상사	비 유 일 본
62	선원보략개 수정시교정 청의궤	1739	영조 15년	7월	이 미 지 만 제 공 되 어 하 는 시 기 파 악 이 힘	복 관 권	1	○	규 14029	규 00719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63	명릉개수도 감의궤	1744	영조 20년	7월	(1744- 10-01) 056b이 미지	폐 관 권	1	○	규 13564	규 00733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4건(內 入,江華史庫, 議政府,禮曹) (앞표지이면 장서기)	비 유 일 편
64	명릉개수도 감의궤	1744	영조 20년	7월	(1744- 10-01)	폐 관 권	1	○	규 13565	규 00734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4건(內 入,江華史庫, 議政府,禮曹)	비 유 일 편
65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궤	1744	영조 20년	9월		폐 관 권	1	○	규 14032	규 0073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작건수 미 상	비 유 일 편
66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궤	1744	영조 20년	9월		폐 관 권	1	○	규 14034	규 00731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편
67	진연의궤	1744	영조 20년	9월		폐 관 권	2	○	규 14360 -1-2	규 00735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작3건강화 부사고,예조, 장악원	비 유 일 편
68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궤	1747	영조 23년	2월		폐 관 권	1	○	규 14036	규 0073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7건(大 殿,世子宮,宗 簿寺외4곳)	비 유 일 편
69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궤	1748	영조 24년	2월		폐 관 권	1	○	규 14038	규 00743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7건(大 殿,世子宮외5 곳)	비 유 일 편

70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궤	1747 → 1748	영조 23 년 → 24 년	空欄 → 2월		불 본 권	1	○	규 14037	규 00742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空欄 → 제작7건(大 殿,世子宮외5 곳)	비 양 의 궤
71	영정모사도 감의궤	1748	영조 24 년	2월	조 사 카 드 에 이 미 지 4 장 만 나 와 있 으 므 로 하 한 시 기 파악 이 힘듦	불 본 권	1	○	고서 50·3- 2	문연 004	본 상 용	필 사 본	유	18	미 상	空欄 → 제작6건(御 覽,春秋館,江 華史庫,議政 府,禮曹,永禧 殿)	비 양 의 궤
72	황단의	1748	영조 24 년			2권	2	○	朝 14307	고박 00078	본 상 용	필 사 본	45	무	미 상		비 양 의 궤
73	황단증수의	1749	영조 25 년			2권	2	○	朝 14313	고박 00079	본 상 용	필 사 본	47	무	미 상		비 양 의 궤

74	선원보락수 정시종부사 의궤	1751	영조 27년	1월		폐 관 권	1	○	규 14040	규 00748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75	선원보락수 정시종부사 의궤	1751	영조 27년	1월		폐 관 권	1	○	규 14039	규 00747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76	선원보락수 정시종부사 의궤	1751	영조 27년	1월		폐 관 권	1	○	규 14042	규 0075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77	선원보락수 정시종부사 의궤	1752	영조 28년	6월		폐 관 권	1	○	규 14044	규 00778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78	영건청의궤	1752	영조 28년	7월	(1752- 12-07) 047a이 미지	폐 관 권	1	○	규 14259	규 00780	분 상 용	필 사 본	2	무	미 상	제작3건어람, 강화,예조	비 유 일 본
79	예장의궤	1752	영조 28년	空欄 → 3월	(1752- 05-12) 20페이지	폐 관 권	1	○	2-299 4	장 00257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작건수 미 상	비 유 일 본
80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궤	1753	영조 29년			폐 관 권	1	○	규 14046	규 00787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81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궤	1753	영조 29년			폐 관 권	1	○	규 14047	규 00788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82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뢰	1753	영 조 29 년		복 합 권	1	○	규 14048	규 0078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83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뢰	1754	영 조 30 년		복 합 권	1	○	규 14049	규 0079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84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뢰	1754	영 조 30 년		복 합 권	1	○	규 14050	규 00791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85	선원보락수 정시교정청 의뢰	1754	영 조 30 년		복 합 권	1	○	규 14052	규 00793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86	선원보락수 정시종부사 의뢰	1755	영 조 31 년	4월	복 합 권	1	○	규 14053	규 00797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87	적상산성봉 안국조어첨 개수의뢰	1755	영 조 31 년		복 합 권	1	○	규 14152	규 00795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작건수 미 상	비 유 일 본
88	적상산성봉 안국조어첨 개수의뢰	1755	영 조 31 년		복 합 권	1	○	규 14154	규 00796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89	국훈의뢰	1757	영 조 33 년		복 합 권	1	○	2-300 8	장 0025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90	선원보락수 정본청의뢰	1764	영 조 40 년	2월	복 합 권	1	○	규 14073	규 0116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91	선원보략수 정의궤	1764	영조 40년	2월		본 관 권	1	○	규 14074	규 01171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92	중수도감의 궤	1764	영조 40년	2월		본 관 권	1	○	규 13896 -2	규 01166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4건(御覽, 春秋館, 禮 曹, 五臺山)	비 유 일 본
93	친경의궤	1767	영조 43년	2월 →5 월		본 관 권	1	○	규 14541	규 01176	본 상 용	필 사 본	1	무	미 상	7건(御覽, 五處史庫, 禮 曹)	비 유 일 본
94	관례의궤	1767	영조 43년	12 월		본 관 권	1	○	2-270 2	장 00135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작4건어람 본, 동궁, 사각, 예조	비 유 일 본
95	선원보략수 정시교정청 의궤	1772	영조 48년	11 월		본 관 권	1	○	규 14080	규 01196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96	진전중수영 건청의궤	1772	영조 48년	6월		-	1	○	고서 57	문연 009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97	빈전도감의 계	1776	정조 즉위 년	3월		계 관 권	1	○	규 13583 의 1	규 01207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5건(御覽, 五臺山, 春秋 館, 禮曹, 江 華府)	비 유 일 본
98	개건도감의 계	1776	정조 즉위 년	11월 (1776 년 11 월 13 일)		본 관 권	1	○	2-355 6	장 00272	본 상 용	필 사 본	3	무	미 상	총5건(御覽, 景慕宮, 春秋 館, 江華府史 庫, 禮曹	비 유 일 본
99	실록의계	1781	정조 5년	2월		본 관 권	1	○	규 14169	규 01221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제작5건실록 봉안처	비 유 일 본
100	실록의계	1781	정조 5년	2월		본 관 권	1	○	규 14170	규 01222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5건(實錄奉安 處)	비 유 일 본
101	실록청의계	1781	정조 5년	7월		본 관 권	2	○	규 14172 -1-2	규 01211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5건(實錄奉安 處)	비 유 일 본
102	실록청의계	1781	정조 5년	7월 (1781 년 7월 26일)		본 관 권	2	○	규 14171 -1-2(1210)	규 01210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5건(實錄奉安 處)	비 유 일 본
103	국조보감강 인청의계	1782	정조 6년	2월 → 12 월		계 관 권	1	○	2-368 4	장 00297	본 상 용	필 사 본	9	28	미 상		비 유 일 본

104	국조보감감 인청의궤	1783	정조 7년	12 월→3 월		계 관권	1	○	규 14187	규 01234	분 상용	필 사본	9	28	미 상	11건(內入, 內閣, 外閣, 四處史庫, 議 政府, 春秋 館, 宗廟, 禮 曹)	비 유일 본
105	국조보감감 인청의궤	1783	정조 7년	12 월→3 월		계 관권	1	○	규 14188	규 01235	분 상용	필 사본	9	28	미 상	11건(內入, 內閣, 外閣, 四處史庫, 議 政府, 春秋 館, 宗廟, 禮 曹)	비 유일 본
106	상례도감의 궤	1815	순조 15년	12 월	(1815 년 12 월 15 일)	5권	4	○	규 13610	규 00570	분 상용	필 사본	86	46	미 상	제작5건규장 각, 춘추관, 예 조, 강화부, 강 릉오대산, 규 13611(규 00571)이한 본더있음.	비 유일 본
107	부궁도감의 궤	1818	순조 18년	2월	(1818 년 3월 21일)	불 분권	1	○	2-226 7	장 00066	분 상용	필 사본	2	28	미 상 [景 慕宮]	총 8건(奎章 閣, 景慕宮, 春秋館, 禮 曹, 鼎足山城 庫, 太白山史 庫, 五臺山史 庫, 赤裳山史 庫)	비 유일 본
108	빈전흔전도 감의궤	1821	순조 21년	3월		3권	3	○	규 13650	규 00593	분 상용	필 사본	17	무	미 상	제작5건규장 각, 춘추관, 예 조, 정족산성, 오대산	비 유일 본
109	빈전흔전도 감의궤	1821	순조 21년	3월		3권	3	○	규 13651	규 00594	분 상용	필 사본	17	무	미 상	5건(奎章閣, 春秋館, 禮 曹, 鼎足山城, 五臺山)	비 유일 본
110	빈전흔전도 감의궤	1821	순조 21년	3월		3권	3	○	규 13653	규 00596	분 상용	필 사본	17	무	미 상	5건(奎章閣, 春秋館, 禮 曹, 鼎足山城, 五臺山)	비 유일 본

111	선원보락교정의계	1821	순조 21년	10월	(1821년 10월 28일)	본관권	1	○	규 14099	규 00597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112	황단증향의계	1822	순조 22년			본관권	1	○	古 5123-4	규 01047	분상용	필사본	7	무	미상		비유일본
113	황단증향의계	1822	순조 22년			본관권	1	○	朝 14317	고박 00077	분상용	필사본	19	6	미상		비유일본
114	영건도감의계	1824	순조 24년	6월		본관권	1	○	규 14260	규 00765	분상용	필사본	3	무	미상	5건(奎章閣, 本宮, 春秋館, 禮曹, 江華史庫)	비유일본
115	자경전진작정례의계	1827	순조 27년	7월	(1827년 7월 27일)	3권	3	○	고 4256.5-2-1-3	규 01034	분상용	필사본(한글)	42	무	미상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116	영건도감의계	1832	순조 32년	4월		본관권	1	○	규 14351	규 01407	분상용	필사본	5	무	미상	8건(규장각-御覽, 호조, 예조, 춘추관, 4처 사고).	비유일본

117	영건도감의 계	1834	순 조 34 년	10 월	별 관 권	1	○	규 14326	규 01413	본 상 용	필 사 본	4	무	미 상	8건(규장각- 御覽,호조,예 조,춘추관,4 處史庫)	비 유 일 본
118	영건도감의 계	1834	순 조 34 년	10 월	별 관 권	1	○	규 14327	규 01414	본 상 용	필 사 본	4	무	미 상	8건(규장각- 御覽,호조,예 조,춘추관,4 處史庫)	비 유 일 본
119	영건도감의 계	1834	순 조 34 년	10 월	별 관 권	1	○	규 14319	규 01416	본 상 용	필 사 본	4	무	미 상	8건(규장각- 御覽,호조,예 조,춘추관,4 處史庫)	비 유 일 본
120	영건도감의 계	1834	순 조 34 년	10 월	별 관 권	1	○	규 14320	규 01417	본 상 용	필 사 본	4	무	미 상	8건(규장각- 御覽,호조,예 조,춘추관,4 處史庫)	비 유 일 본
121	부묘도감의 계	1837	헌 종 3년	1월	별 관 권	1	○	규 25039	규 01072	본 상 용	필 사 본	11	46	미 상	8건(奎章閣, 宗廟署,春秋 館,禮曹,江華 府,五臺山,太 白山,赤裳山 城)	비 유 일 본
122	진찬의계	1849	헌 종 15 년	윤4 월	4권	3	○	규 14371	규 01467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東朝內入1건, 內入5건,內入 20건,西庫3 건,奎章閣,4 處史庫,禮曹	비 유 일 본

																		각1건,進饌堂 郎各1건.	
123	실록청의궤	1852	철종 3년	10 월		폐 간 권	1	○	규 14181	규 0148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5건(春秋館, 太白山,五臺 山,赤裳山 城,鼎足山 城)	비 유 의 편		
124	증건도감의 궤	1858	철 종 9년	6월		폐 간 권	1	○	규 14355	규 01553	분 상 용	필 사 본	무	22	미 상	6건(奎章閣, 永禧殿,春秋 館,江華府史 庫,禮曹,議 政府)	비 유 의 편		
125	선원보락수 정의궤	1859	철 종 10 년	10 월	(1859 년 12 월 5일)	분 류 권	1	○	규 14116	규 0155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의 편		
126	선원보락수 정의궤	1859	철 종 10 년	1월	(1859 년 3월 13일)	분 류 권	1	○	규 14117	규 01558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의 편		
127	추상존호도 감의궤	1861	철 종 12 년	1월		2책	2	○	규 13362 -1-2	규 01569	분 상 용	필 사 본	14	17	태 백 산/ 춘 추 관	6건(奎章閣, 春秋館,禮 曹,太白山, 五臺山,赤裳 山城)	비 유 의 편		

128	부묘도감의 계	1866	고 종 3년	11 월		계 권 계	1	○	2-226 4	장 00063	분 상 용	필 사 본	11	38	미 상	총 8건(奎章閣, 宗廟署, 春秋館, 禮曹, 鼎足山史庫,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 赤裳山史庫)	비 유 일 본		
129	친임정부시 의계	1865	고 종 2년	10 월		계 권 계	1	○	규 14944	규 00046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30	어진이모도 감청의계	1872	고 종 9년	1월		계 권 계	1	○	규 13998	규 00242	분 상 용	필 사 본	3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31	존호도감의 계	1873	고 종 10 년	4월		2권	2	○	古 4206- 19- 1~2	규 00245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32	상호도감의 계-존호	1873	고 종 10 년	4월		계 권 계	1	○	고서 390.2 2 상 951	이대 0001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33	상존호도감 의계	1873	고 종 10 년	4월		계 권 계	1	○	규 13459	규 00336	분 상 용	필 사 본	16	28	미 상	총8건(奎章閣, 侍講院, 春秋館, 禮曹,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 鼎足山城)	비 유 일 본		

134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3권	3	○	규 14378-1~3	규 00383	본상용	필사본	무	무	이상		비유일본
135	빈전흔전도감의궤	1878	고종 15년	5월		5권	3	○	규 14846-1~3	규 00399	본상용	필사본	13	무	이상	6건(규장각, 의정부, 춘추관, 예조, 정족산성, 오대산)이 먼저 제작된 다음, 나중에 <奎 13868>이 추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비유일본
136	가상존호도감의궤	1888	고종 25년	1월		궤 1권	1	○	규 13462	규 00526	본상용	필사본	14	10	예조(추정)	총 8건(규장각, 시강원, 춘추관, 예조, 정족산,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성)	비유일본
137	존호도감의궤	1888	고종 25년	3월		궤 1권	1	○	규 13473	규 00536	본상용	필사본	16	28	이상	총 8건(규장각, 시강원, 춘추관, 예조,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 실제 현전하는 의궤 건수는 9건으로, 의궤사목 기록과 차이가 있음.	비유일본

138	존호도감의 계	1888	고종 25 년	3월		계 권 권	1	○	규 13471	규 00534	분 상 용	필 사 본	16	28	미 상	총8건(규장각,시강원,춘추관,예조,정족산,태백산,오대산,적상산성) → 실제 현전하는 의궤 건수는 9건으로, 의궤사목 기록과 차이가 있음.	비 유 일 본
139	존호도감의 계	1888	고종 25 년	3월		계 권 권	1	○	규 13472	규 00535	분 상 용	필 사 본	16	28	미 상	총8건(규장각,시강원,춘추관,예조,정족산,태백산,오대산,적상산성) → 실제 현전하는 의궤 건수는 9건으로, 의궤사목 기록과 차이가 있음.	비 유 일 본
140	존호도감의 계	1890	고종 27 년	12 월		계 권 권	1	○	규 13424	규 00681	분 상 용	필 사 본	14	20	미 상	총 8건(규장각, 시강원, 춘추관, 예조,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비 유 일 본
141	대례의궤	1897	광무 1년	9월	(1898 년3 월20 일)	계 권 권	1	○	2-262 7	장 00126	분 상 용	필 사 본	33	34	미 상	총9건(奎章閣, 侍講院, 圓丘壇, 秘書院, 掌禮院, 鼎足山史庫, 太白山史庫, 五臺山史庫, 赤裳山史庫)	비 유 일 본

142	추존시의궤	1899	광무 3년	11월	(1899년 11월 20일)	폐 권	1	○	2-2855	장 00209	분상용	필사본	13	91	미상	총9건(奎章閣, 侍講院, 圓丘壇, 秘書院, 掌隸院, 鼎足山城, 太白山, 五臺山, 赤裳山城)	비유 일편
143	영건도감의궤	1900	고종 37년	6월		폐 권	1	○	2-3575	장 00278	분상용	필사본	1	76	미상	총7건(奎章閣, 侍講院, 永禧殿, 秘書院, 掌隸院, 議政府, 江華史庫)	비유 일편
144	선원보락수정의궤	1901	광무 5년	5월		폐 권	1	○	규 14139	규 00888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정확한 건수는 미상 ⇒ 의궤 말미의 譜略 기록에 따르면 大殿 1질, 明憲太后宮 1질, 景孝殿 1질, 皇太子宮 2질, 順和宮 1질, 淳嬪宮 1질, 義親王宮 1질, 英親王宮 1질, 奉謨堂 1질, 宗廟 1질, 史庫 4질, 宮內府 1질, 頒賜件 100질 등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됨.	비유 일편
145	선원보락수정의궤	1901	광무 5년	5월		폐 권	1	○	규 14140	규 00889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정확한 건수는 미상 ⇒ 의궤 말미의 譜略 기록에 따르면 大殿 1질, 明憲太	비유 일편

															后宮 1질, 景孝殿 1질, 皇太子宮 2질, 順和宮 1질, 淳嬪宮 1질, 義親王宮 1질, 英親王宮 1질, 奉謨堂 1질, 宗廟 1질, 史庫 4질, 宮內府 1질, 頒賜件 100질 등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됨.		
146	선원보락수 정의계	1901	광무 5년	5월		계 관 권	1	○	규 14141	규 0089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정확한 건수는 미상 → 의계 말미의 譜略 기록에 따르면 大殿 1질, 明憲太后宮 1질, 景孝殿 1질, 皇太子宮 2질, 順和宮 1질, 淳嬪宮 1질, 義親王宮 1질, 英親王宮 1질, 奉謨堂 1질, 宗廟 1질, 史庫 4질, 宮內府 1질, 頒賜件 100질 등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됨.	비 유 일 본
147	선원보락수 정의계	1901	광무 5년	5월		계 관 권	1	○	고 4650- 149	규 00891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정확한 건수는 미상 → 의계 말미의 譜略 기록에	비 유 일 본

																	따르면 大殿 1질, 明憲太后宮 1질, 景孝殿 1질, 皇太子宮 2질, 順和宮 1질, 淳嬪宮 1질, 義親王宮 1질, 英親王宮 1질, 奉謨堂 1질, 宗廟 1질, 史庫 4질, 宮內府 1질, 頒賜件 100질 등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됨.	
148	영정모사도 감의궤	1901	광무 5년	5월		본 권	1	○	고서 50· 3-3	문연 005	분 상 용	필 사 본	59	86	미 상	총 7건(奎章閣, 侍講院, 璿源殿, 秘書院, 議政府, 掌禮院, 江華島史庫)	비 유 일 본	
149	영건청의궤	1901	광무 5년	12 월		2권	2	○	규 14258 -1~2	규 00945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총 11건(궁내부, 시강원, 비서원, 장례원, 종정원, 조경단, 준경묘, 정족산성,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비 유 일 본	
150	선원보락수 정의궤	1902	광무 6년	4월		2권	2	○	규 14137 -1~2	규 00844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51	어진도사도 감의궤	1903	광무 7년	9월		본 권	1	○	고서 48	문연 001	분 상 용	필 사 본	24	26	미 상	5건(奎章閣·侍講院·掌隸院·江華·江陵史庫分上)	비 유 일 본	

152	빈전훈전도 감의계	1904	광무 8년	12월		5권	5	○	규 13909 -1~5	규 01303	본 상 용	필 사 본	14	무	미 상	7건 (규장각, 시강원, 의정부, 비서관, 장례원, 정족산성, 오대산사고)	비 유 일 본
153	선원보략수 정의계	1905	광무 9년	4월	계 권		1	○	규 14143	규 01275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54	선원보략수 정의계	1905	광무 9년	4월	계 권		1	○	규 14144	규 01276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55	선원보략수 정의계	1905	광무 9년	4월	계 권		1	○	규 14145	규 01277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56	선원보략수 정의계	1905	광무 9년	4월	계 권		1	○	규 14146	규 01278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57	仙園보략수 정의계	1905	광무 9년	2월	계 권		1	○	朝 14142	고 박 00028	본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58	중건도감의 계	1906	광무 10년	12월		2권	2	○	규 14333 -1~2	규 01311	본 상 용	필 사 본	18	무	미 상	9건 (규장각, 시강원, 의정부, 비서관, 장례원, 4處 史庫)	비 유 일 본

159	중건도감의 계	1906	광 무 10 년	12 월		2권	2	○	규 14330 -1~2	규 01309	분 상 용	필 사 본	18	무	미 상	9건 (규장각, 시강원, 의정부, 비서원, 장례원, 4處 史庫)	비 유 일 본
160	선원보락수 정의계	1908	응 희 2년	1월	(1908 년 1월)	법 관 권	1	○	규 14148	규 01356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61	선원보락수 정의계	1908	응 희 2년	1월		법 관 권	1	○	규 14149	규 01357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62	선원보락수 정의계	1908	응 희 2년	1월		법 관 권	1	○	규 14150	규 01358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63	선원보락수 정의계	1908	응 희 2년	1월		법 관 권	1	○	규 14151	규 0135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64	선원보락수 정의계	1908	응 희 2년	1월		법 관 권	1	○	朝 14147	고 박 0029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유 일 본
165	국조보감감 인소의계	1909	응 희 3년	12 월	(1909 년 12 월 23 일)	법 관 권	1	○	규 14198	규 01360	분 상 용	필 사 본	5	14	미 상	6건(진상의계 2건, 진현의계 1건, 중요서, 내각, 규장각)	비 유 일 본
166	책봉의계	1910	응 희 4년	8월	(1910 년 8월 28일)	법 관 권	1	○	2-275 1	장 00150	분 상 용	필 사 본 (한글 본용)	8	무	미 상	6건(德壽宮, 昌德宮, 奎章閣, 掌禮院, 鼎足山城, 赤裳山城)	비 유 일 본

167	책봉의궤	1910	응 희 4년	8월	(1910 년 8월 28일)	본 권	1	○	2-275 0	장 00149	분 상 용	필 사 본 (한글 혼용)	8	무	미 상	6건(德壽宮, 昌德宮,奎章閣, 掌禮院,鼎足山城,赤裳山城,	비 양 의 궤
168	부묘주감의궤	1921	응 희 15년	3월	(1921 년 3월 31일)	2권	2	○	2-221 8	장 00018	분 상 용	필 사 본	25	무	미 상	제작8건어람, 의정부,예조, 춘추관,강화부, 오대산,적상산성, 태백산	비 양 의 궤
169	천봉주감의궤	1926	응 희 20년	6월		2권	2	○	2-233 8	장 00090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양 의 궤
170	존송도감의궤	미상	미 상	10 월	(1784 년 7 월)	7권	7	○	규 13495 -1-7	규 01566	분 상 용	필 사 본	무	무	미 상		비 양 의 궤

보 고 사 항

1. '고려금속활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단 구성 계획

가. 보고사항

'증도가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2015년 제1차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의 결과에 의거 고려금속활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단을 구성하고자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증도가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과 관련한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을 구성하고자 그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다. 조사단 구성(안)

- 목 적
 -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증도가자 지정조사 실시' 의결에 따라, 지정조사단을 구성하여 지정 검토·심의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주요경과
 - '14.12.19 : 국립문화재연구소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 완료
 - '15.02.12 : 2015년 제1차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보고(지정조사 실시 의결)
 - '15.03.06 : 한국서지학회 등 17개 관련학회에 지정조사 조사위원 추천 요청
 - '15.03.13 : '증도가자' 지정조사단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 '증도가자' 용어 부적절, 조사단 명칭을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으로 함
 - 금속활자의 지정가치 검토와 별도로, '所從來'(출처) 조사 실시
 - 동산분과위원장이 조사단장으로, 서체비교, 연대측정, 제작기법등 3개 소위원회 구성
 - 「증도가자기초학술조사 연구용역」 참여연구자는 지정조사단에서 제외
 - 제작기법 분야에는 금속공학(주조공학), 공예, 떡 전문가 포함
- 조사단 구성(안)
 - 가. 구성 방향
 - 각 소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소위원별로 제출된 의견을 동산문

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

나. 조사단 구성

-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위원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각 분야별(서체비교, 연대측정, 제작기법 등)로 소위원회 구성
 - * 서체비교 : 서지학, 역사학, 서예 등
 - * 연대측정 : 원자력공학, 물리학, 고고학 등
 - * 제작기법 : 문화재보존과학, 분석과학, 금속공학(주조공학), 금속공예 등

라. 향후계획

- '15. 5월 ~ : 지정조사 실시 및 문화재위원회 지정 검토
 - 지정조사단 조사위원 구성, 연구용역 결과 검토 등 지정조사 실시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2. '퇴계문집 초간본 목판' 및 '안중근의사 유묵(경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계획

가. 보고사항

'퇴계문집 초간본 목판' 및 '안중근의사 유묵(경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검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퇴계문집 초간본 목판>

- 대구광역시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13.4.29)된 '퇴계선생문집'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3인이 지정조사('15.1.23)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퇴계문집 초간본목판'과 함께 지정하여 보존·관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조사를 통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지정검토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안중근의사 유묵(경천)>

- 우리청 근대문화재과 주관으로 실시한 '근현대문화유산 천주교 목록화 조사연구(2014년)' 및 '동산분야 문화재 등록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15.2.4) 결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소장되어 있는 '안중근의사 유묵(경천)'이 국가지정문화재 검토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정검토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다. 지정 검토 계획 : 지정조사 실시

구분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위원
퇴계문집 초간본 목판	2015.4.22(목)	안동 국학진흥원	
안중근의사 유묵(경천)	2015. 5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관계전문가 3인

(첨부 1) 계명대학교 소장 '퇴계문집' 지정조사

- 조사대상 : 퇴계문집 24책
- 조사일자 : 2015. 1. 23(금)
- 조사장소 : 대구 계명대 도서관
- 조사위원 :
- 조사결과
 -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선조 33(1600, 경자)년에 陶山書院에서 趙穆의 主導로 原集目錄 2권, 原集 49권, 別集 1권, 外集 1권, 年譜 4권 등 都合 57卷 31冊으로 간행된 庚子年 初刊本으로 현재 啓明大學校 동산도서관에는 현재 元集目錄 2卷2冊, 原集 4卷2冊(32~33, 44~45), 外集 1卷1冊, 年譜 4卷2冊 등 都合 11卷7冊이 缺落된 原集 45卷23冊(卷1~31, 34~43, 46~49), 別集(目錄·卷1) 등 都合 46卷24冊의 殘本이 소장되고 있으며, 玉山書院에도 일부 殘本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退溪先生文集」은 조선시대 중기에 性理學을 독자적인 학문체계로 수립하여 후일 嶺南學派의 宗주가 된 退溪의 저술을 모은 것으로 그의 文學觀 研究에는 물론 性理學 등의 思想史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漢文學史上 귀중한 문헌일 뿐 아니라 版本學的으로도 그 傳本이 희귀한 善本인 만큼 書誌學研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退溪先生文集」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保存處理가 요구된다. 한편, 조사본 庚子初刊本 「退溪先生文集」을 간행할 당시의 庚子初刊 「退溪先生文集」의 木板이 현재 陶山書院의 所有로 韓國國學振興院에 전체 1,096장 중 405장이 缺落된 691판이 殘存되고 있다. 庚子初刊 「退溪先生文集」의 목판은 조사본 庚子初刊本 「退溪先生文集」에 못지않게 版本學的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일 뿐 아니라, 書誌學研究와 조선시대 중기의 木板印刷文化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자료이다. 따라서 韓國國學振興院 소장의 庚子初刊 「退溪先生文集」의 殘板 691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재청의 직권조사를 통한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차후 木板匠 등을 통한 木板의 維持·補修 등이 요구될 뿐 아니라 補刻 등을 통한 庚子初刊 「退溪先生文集」의 缺板이 완벽하게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첨부 2)

안중근의사 유묵(경천) 개요

번호		60	분류번호		공문,서류 기타-11		
유물명		안중근 의사 유묵 <敬天>					
소재정보	소유자	서울대학교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					
유물개요	용도	유묵					
	규격	65.3 cm x 34cm					
	재질	종이	수량	1			
	제작자	안중근					
	제작연도	1910					
	생산지	중국 뤼순					
	수집방법	매입					
	보존상태	양호					
유물설명	안중근 의사가 순국직전 뤼순감옥에서 사형집행을 앞두고 일본인의 부탁을 받아 쓴 유묵. 천주교에서 하느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를 담고있는 '경천 敬天'이 쓰여있다. '대한국인 안중근서 大韓國人 安重根書'라는 글씨와 오른쪽 손약지를 단지한 손도장이 찍혀있다. (<서소문별곡 도록>2014 참조)						
가치평가	안중근 유묵 중에서 천주교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역사성	000	학술성	000	보존상태	000	희소성

유물명	안중근 의사 유묵 <敬天>	분류번호	공문,서류 기타-11
-----	----------------	------	-------------



서소문별곡 발췌



다.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3. '봉화 청량사 불상' 및 '서울 흥천사 불상' 과학적 조사 계획

가. 보고사항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과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과학적 조사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09.6.1)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조사('10.04.23, '10.05.04)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2012년도 제1차 위원회('12.02.09)의 검토를 거쳐 30일간 지정예고('12.02.22~'12.03.22)함.
- 지정예고 기간 중, 고려시대 불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접수('12.03.19)되었고, 2012년도 제2차 위원회('12.04.12) 심의 결과도 재조사 후 재심의로 의결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5인이 재조사('12.05.15)함
- 그 결과를 2012년도 제3차 위원회('12.05.15)에서 재심의하였으나 보류(사유: 과학적 조사(탄소연대 측정), 내부 목서 확인 후 재심의)되어 경상북도에 그 결과를 알렸을 뿐(2012.6.19) 과학적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기에 기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학적 조사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 2013년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3.07.23)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됨
- 2014년도 제3차 위원회('14.04.10) 검토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는 있으나 불상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다. 과학적 조사 및 향후 계획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 '15. 4월 : 경상북도에 과학적 조사 및 결과 제출 요청
- '15. 6월 : 2015년도 제3차 동산분과위원회 재심의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 '15. 4월 :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에 과학적 조사 의뢰
- '15. 6월 : 2015년도 제3차 동산분과위원회 재검토

라.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4.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사료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계획

가. 보고사항

201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사료관(가칭)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초연구 용역과 관련,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사료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기초연구 용역 관련, 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2014.11.20) 및 합동분과 소위원회(2015. 3. 20)결과 합동분과위원회(건축·동산·세계)를 개최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다. 14년도 제12차 건축분과위원회 결과 : 조건부 가결

- 관련 소관분과(동산, 세계, 건조) 합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검토 후 합동분과위원회 심의가 되도록 함
- 사료관 관리주체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 석굴암 석굴 재현에 대한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 전시에 대한 성격 규명을 보완토록 함
- 공사 시행시 일반 관람객들에 대한 석굴암 접근성 및 사료관 건립 이후 관람객 증가(주차장, 석굴암 관람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라. 합동분과 소위원회 결과

- 일 시 : 2015. 3. 20. 15:00
- 참석위원
 - 건축문화재분과 :
 - 동산문화재분과 :
 - 세계유산분과 :
- 결과
 - 석굴암의 중요성 및 보존을 위하여 사료관 건립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인정함. 다만,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합동분과(건축, 동산, 세계)의 심의를 거쳐 본 사업을 완료하고, 현상설계 등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본

-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과업 등을 추가 추진함이 타당함
- 본 용역이 건립 타당성 조사 기초 연구임을 고려하여 과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립
 - 공사 중 동선 계획 등에 대한 시각적 자료 보완 및 현상설계에 대한 지침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및 관련기관의 협의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
 -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경관을 고려하여 사료관과 불국사, 석굴암을 별개가 아닌 동일체로 인식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마. 합동분과위원회 개최 계획(안)

- 일시 : 2015년도 2분기 예정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 참석 : 건축·동산·세계분과 위원
- 안건 :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바.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첨부>

대상문화재 및 사업내용 개요

- (1) 대상문화재 : 경주 석굴암 석굴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불국로 873-243, 석굴암 (진현동)
 - 지정일 : 1962. 12. 20.
- (2) 사업내용
 - 사업명 : 석굴암 석굴 사료관(가칭) 건립 타당성 조사 기초연구용역
 - 사업예산 : 180,000천원
(국비105,000천원, 지방비45,000천원, 자부담3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01.06. ~ 09.30.
 - 연구기관 : (재)역사건축기술연구소(소장:이경미), 성균건축도시설계원
- (3) 연구 결과
 - 건립 타당성 : 편의시설 부족, 관광객을 머물게 하는 인프라 부족, 석굴암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연구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복합문화시설 필요
 - 최적후보지(안)
 - 석굴암과 최대한 이격, 경관과 지형 훼손 최소화, 관리주체인 석굴암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위치 → 일주문 인근 후보지(주차장) 선택
 - 석굴암 사료관(가칭) 공간 구성 방안
 - 시설면적 : 총 3,000㎡
 - 전시영역 : 석굴암 재현실, 상설전시실
 - 방문자편의·정보제공 영역 : 편의시설, 라키비움(도서관), 다목적(강당) 공간 등
 - 연구·보존 영역 : 보존실(석굴암 계측, 보존방안 실험), 연구실
 - 석굴암 조사·연구 계획
 - 석굴암 재현실 조성방안 집중 연구 : 실물비율, 축소비율, IT 기반 활용 등